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 2 호

2024년 5월

ISSN 3022-243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2024년 5월

목 차

▣ 특집논문 ▣

왕현종	19세기말 고부지역 수리시설 운영과 만석보 수세 징수	3
조광환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49
홍성덕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89

▣ 일반논문 ▣

조재곤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121
이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157
김종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197
신영우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245
신순철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291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2

2024. May

▣ 서 평 ▣

- 이영호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 323
-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조재곤, 푸른역사, 2024) -

▣ 자료소개 ▣

- 이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337
- 왕현종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 349
(조선사편수회, 1934)

▣ 부 록 ▣

- 연구소 소식 391
- 위원회 명단 395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3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420
- 연구소 발간 자료 427

19세기말 고부지역 수리시설 운영과 만석보 수세 징수
왕현종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조광환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홍성덕

19세기말 고부지역 수리시설 운영과 만석보 수세 징수*

왕현중**

〈목 차〉

머리말

I. 고부 지역 만석보 보세 문제의 제기

II. 조선후기 개항기 고부지역 제언 보의 설치와 운영 위기

III. 19세기말 고부지역 부세·균전도세의 수탈과 만석보 문제
맺음말

〈국문초록〉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지방 민들이 가장 크게 제기하였던 부세 수탈은
진담의 도조 징수와 만석보의 보세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1894년 4월 24일 안핵사 이용태의 의정부 보고서, 전라감영의 4월 장계,
그리고 전봉준의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만석보의 보세에 관한 증언 등을 검토하였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다음으로 고부군 지역 제언과 보의 설치상황을 살펴보았다. 호남지방에는 “땅에 수전이 많고 관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부 지역에는 18세기까지 조춘제를 비롯하여 담내제까지 모두 23개 제언이 있었다. 1852년 보고서와 1857년 전라우도 암행어사 보고서에도 지적되는 것처럼, 궁방과 내수사 등은 물의를 일으켜 보세를 사사로이 징수하면서 매두락 많으면 1두에 이르고 적어도 8승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개항 이후 고부에서는 미곡유통의 확대와 대전납 경향의 증대로 인해서 조세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다. 1878년 전라어사 어윤중의 장계에서와 같이, 고부지역의 전결세 부과와 부세 수탈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1893년과 1894년 고부군 수조안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도 조세 부과이외에 각종 부가세, 보세 등이 첨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고부지역 민의 부세 부담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 흥년으로 인한 진전의 확대와 도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888년 흥년이후 고부 흥덕 일대의 명례궁 장토가 설치되고, 이어 1891년 전주, 김제 등 7개읍에 대한 ‘균전수도(均田收賍)’라는 대규모 개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차 농민전쟁 시기에 동학 농민군들은 가혹한 봉건부세의 폐지, 전결부담의 경감, 균전과 균전관의 폐지, 만석보, 팔왕보의 수세(水稅) 문제 등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1894년 9월 전라감사 김학진은 균전의 백지징세에 대하여 민전 혼탈입지를 조사하여 시정하지 않고 단지 수조(收租)의 폐단을 개선하는 미봉책에 그쳤다.

또한 고부지역에는 기존 동진강의 물길 위에 설치되었던 광산보와 용산보 이외에 하루에 별도로 만석보가 설치되었다. 1909년 농업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부 지역의 답 매매가나 토지 수확량이 주변지역보다 높았으나 수리시설의 확충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컸다. 1857년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전주, 김제, 익산, 만경, 임피, 옥구 등지에 독과 보의 늪탈로 인하여 보세와 제언의 문제가 커졌다. 이는 보와 제언에 대한 공적 관리보다는 왕실과 세력가에 의한 사적 보세의 부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고부 농민들의 봉기는 전주 등 7개 군의 균전수도와 백지징세에다가 만석보 아래 신보를 개축하여 전체 고부 농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후 조선정부와 지방관들이 전라도 고부 일대 부세와 균전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1894년 이후에도 고부 농민들은 폐정 개혁요구를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 고부농민항쟁, 만석보, 보세(淤稅), 궁장토, 균전수도

머리말

전라도 고부 지방은 조선후기 이래 농법의 발달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산출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대평원지대이며 수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기후도 온난하여 굴지의 쌀 산지가 되는 곳이다. 예로부터 전라도 일대 거점 지역으로 고부군이 언급되고 있으며, 조선왕조국가의 다양한 부세의 부과와 수취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조선후기이래 고부군 지역의 농민항쟁 발발에 주목해 왔다.¹⁾ 고부 농민봉기는 조선국가의 과중한 부세수취, 특히 수리시설의 불법적인 확충과 부당한 수세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고부군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민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²⁾

이번 연구는 고부봉기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19세기 후반 고부군 지역의 수리시설 현황과 수세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연구상 난점으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더라도 관련 사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일제초 지방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부군 지역의 획정과 규모가 크게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세 관련 및 토지 관계 자료가 대부분 인멸되어 있다.

-
- 1) 김용섭, 1958, 「東學亂研究論-성격문제를 中心으로-」, 『역사교육』 3, 역사교육연구회; 김용섭, 1958, 「全瓊準 供草의 分析-東學亂의 性格 一斑-」, 『사학연구』 2, 한국사학회; 김용섭, 2001, 「고부민란의 사회경제사정과 지적환경 - 동학란. 농민전쟁의 배경 이해와 관련하여」, 『한국근대농업사연구 3 -전환기의 농민운동-」, 지식산업사.
 - 2) 한우근, 1979, 『東學亂 起因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총서 7(한우근 전집 8, 한국학술정보, 2001, 재수록); 윤원호, 1994, 「19世紀 古阜의 社會經濟」, 『전라문화논총』 7; 박명규, 1994, 「19세기 말 고부지방 농민층의 존재형태」,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최기성, 1994, 「19세기 후반 古阜의 弊政實態」, 『전라문화논총』 7; 최기성, 2006, 『동학농민혁명운동연구』, 서경문화사.

이에 따라 1894년 고부농민봉기에 관한 보고서류를 통하여 당시 수세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19세기 고부 지역의 수리시설과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각종 제언 및 보 시설과 관련된 운영과정에서 수세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고부군 지역 공장토의 설치와 장토의 도세(賭稅) 징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고부지역 농민과 국방과의 대립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³⁾ 19세기말 고부군 지역의 부세 징수와 만석보 수세 문제를 검토하므로써 고부지역 민중의 입장에서 고부지역 부세제도의 개혁 지향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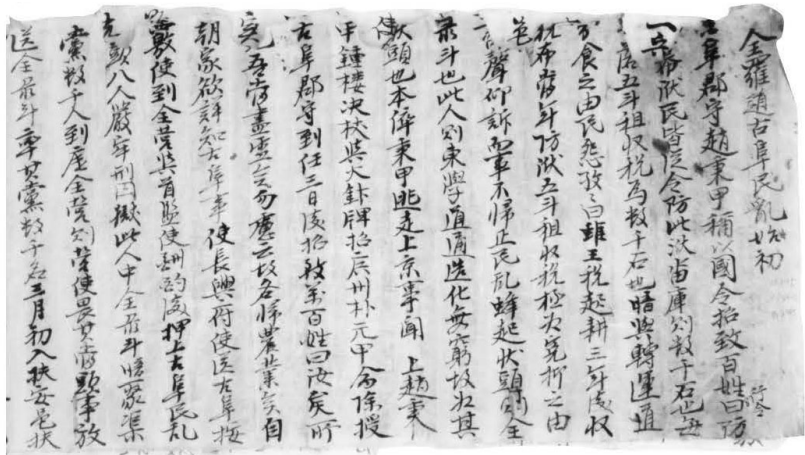
I. 고부 지역 만석보 보세 문제의 제기

1894년 고부봉기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안핵사 이용태(李容泰)는 4월 24일 의정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읍(邑)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일곱 조목이다. 1) 이결(移結), 2) 전운소(轉運所)에서 양여미(量餘米)를 모두 더하여 새로 생겨 부족하게 되는 쌀[부족미(不足米)], 3) 유망(流亡)한 결에서 거두지 못한 결세(結稅), 4) 진답(陳畝)을 이미 개간하고 나서 부과한 논의 도조(賭租), 5) 진답(陳畝)으로 개간하지 않은 곳의 땔나무[시초(柴草)], 6) 만석보(萬石湫)의 수세(水稅), 7) 팔왕보(八旺湫)의 수세. 이에 대하여 안핵사(按覈使)가 어떤 것은 취소하고 어떤 것은 없애고 어떤 것은 3년간 조세를 면제해 달라 청하였다.⁴⁾

3) 김용섭, 1968, 「高宗朝의 均田收賭問題」, 『동아연구』 8,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김용섭, 1992, 「『古阜郡聲浦面量案』의 분석; 1719년 古阜民의 農地所有」, 『동방학지』 76, 연세대 국학연구원; 왕현중, 1991,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여기서 이용태가 고부민란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거론한 7조목은 이
결, 전운소 양여미, 유망한 미납결세, 진답을 개간한 후 도조, 진답의
떨나무 등과 더불어 ‘만석보의 수세’와 ‘팔왕보의 수세’였다. 이러한 원
인으로 백성들이 원한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
았고, 이를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폐단으로 제기하였다.



〈그림 1〉 「전라도고부민란시초」(완영, 1894.4)

그는 고부군의 부세 문제와 더불어 전운소의 문제도 별도로 취급하
고 있다.⁵⁾ 조사보고서에는 고부군 부세 운영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전군수 조병갑을 비롯하여 여러 이서층에 대한 징치도 포함하였다. 여

4) “議政府啓 (중략) 所謂邑瘼, 凡爲七條: 移結也, 轉運所總加量餘新創不足米也, 流亡結稅米未收也, 陳畚已墾處賭租也, 陳畚未墾處柴草也, 萬石泫水稅也, 八旺泫水稅也. 覈使或勿施, 或革罷, 或請三年停稅矣”.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24일 경오 2번째 기사); 『일성록』 고종 31년 4월 24일 경오조 기사 동일).

5) “然至若欲破轉運所之說, 既發於諸招, 則轉運使之平日斂冤於衆民, 推而可知. 大係民隱, 初不論斷, 而乃曰竝使論報于轉運所, 歸正之意, 題飭該郡云者, 極涉漫漶, 有欠綜核. 該覈使方在竄配中, 不敢更煩論警, 而令該道臣更查登聞, 以爲處應.”(위와 같은 자료).

기에는 최시중(崔時仲), 김량보(金良甫)를 비롯하여 좌수 김봉현(金鳳賢), 호장 은세방(殷世邦), 이방 은인식(殷仁植) 등이 거론되고 있고 또한 수교 은덕초(殷德初), 향민 심덕명(沈德明)과 조성국(曹成國)도 처벌 대상이었다.⁶⁾

이러한 고부군 부세의 7개 폐단에 대해서는 전라감영은 1894년 4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이 국령(國令)을 청탁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리기를, “크게 백성을 모아 구막보(九幕湫)를 쌓아라.”⁷⁾ 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따라 이 보를 쌓았다. 전답이 수천 석이었는데 각 마지기마다 조세 5두(斗)를 거두어 수천 석이 된 것이다. 몰래 전운사(轉運使)와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다.”⁸⁾

이렇게 전라도 감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의 보고에 따르면, 구막보를 쌓아라는 명령에 따라 고부군민이 동원되어 보를 쌓게 되었다. 여기서 구막보 혹은 막보(幕湫)는 만석보로 추정되는데, 수리와 관련된 전답이 무려 수천 석이었고, 각 마지기마다 조세 5두를 거두어 수천석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세 방식은 기경(起耕)한 후 3년이 지난 뒤에 세포(稅布)를 바치는 법인데, 당해 연도에 보를 쌓게 하고 조세 5두를 거두어 가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모든 읍(邑)의 사람들이 상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6) “前郡守趙秉甲，居官無狀，使民起鬪，既在淵燭，嚴命已下。以今覈啓所論諸條，令王府一添問目 鈎覈定罪 (하락)” (위와 같은 자료).

7) 구막보(九幕湫, 만석 보) 원문에는 ‘구(九) 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고 한다(국역 역주 자료 참조).

8) “古阜郡守趙秉甲，稱以國令，招致百姓行令曰，防幕湫，民皆從令防此湫。畜庫則數千石也，每斗落五斗租收稅，爲數千石也。暗與轉運道分食之由，民怨孜孜曰：“雖王稅起耕，三年後收稅布，當年防湫，五斗租收稅，極爲冤抑之由。”(『全羅道古阜民亂始初』)

처리되지 않아 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장두(狀頭)은 전녹두(全綠斗)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전봉준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동학에 도통해 조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장두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 당시 고부군 전체의 인력 동원이나 만석보의 몽리구역내 혜택을 받았다고 강요된 전답의 규모 등은 주로 주민들의 전문(傳文)에 의존하고 있는 채로 약간 과장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만큼 동학농민혁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부세 수탈의 규모와 내역을 상세하게 조사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자료로는 고부군의 수세 문제에 대해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었다. 그는 1895년 2월 9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법관과의 대질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문(問) : 작년 3월 동안 고부 등지에서 민중(民衆)을 모두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으로 그리 하였노?

공(供) : 그때 고부 수령이 정액 외에 가혹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몇 만 냥인 고로 민심이 원통하고 한스러워 이 거사(擧事)가 있었나이다.

문 : 비록 탐관오리라 일컬더라도 명색이 반드시 있는 연후의 일이니 상세히 말하라.

공 : 지금 그 세세한 조목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를 대략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湫) 아래에 보를 쌓고 노력(勤政)으로 민간에 전령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斗落)에 2두의 세를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두락에 1두의 세를 거두니 도합 조(租)가 700여 석(石)이

9) “一邑冤聲仰訴，而事不歸正，民亂蜂起，狀頭則全綠斗也。此人則東學道通，造化無窮，故爲其狀頭也。本倅乘甲，逃走上京，事聞上趙乘甲鐘樓決杖與火針。牌招廣州朴元甲，命除授古阜郡守。到任三日後，招致萬百姓曰：“汝矣所冤，吾當盡雪矣，勿慮”云。故各歸農業矣.(위와 같은 자료).

오, 진황지를 백성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로 문권(文券)하여 징세를 안한다더니 추수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यो, 하나는 부민에게 득탈한 엽전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비가 일찍이 태인 수령을 지낸 연고로 그 아비를 위하여 비각을 세운다고 알리고 득렴(勸斂)한 돈이 천여 냥이요, 하나는 대동미를 민간에서 징수하기는 정백미(精白米)로 16두씩 준가(準價)로 수렴하고 상납은 추미(麩米)를 사서 이익을 모조리 먹은 일ियो, 이 밖에 허다한 조건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¹⁰⁾

이러한 진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만석보의 수세에 대해 자세한 부과 방식과 수취량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세를 상답과 하답으로 나누어 차등 징수하였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민보 아래 새로 보를 쌓고 민간에 상답 1두락에는 2두식 수세하고 하답 1두락은 1두식 수세하여 조가 모두 700여석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답의 경우에는 단순 적용할 때 최대 1만 두락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¹¹⁾

네 번째 자료로는 1894년 당시 고부 농민봉기를 처음으로 보고한 일본 상인 파계생(巴溪生)의 보고가 있다. 그는 “또 세미(稅米)를 징수할 때에도 극악무도한 짓을 하여 작년 10월경 민심이 적잖이 불온하였다. (중략) 또 수리관개를 빙자하여 하천에 보를 막아 매회마다 수세를 강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 이 또한 민원(民怨)을 산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¹²⁾ 그는 고부 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언 수세로

10) 『開國五百四年二月初九日東徒罪人全臻準初招問目』 1895년 2월 9일).

11) 일제초기 전국 각지의 도량형 조사에 의하면, 고부 지방의 경우 두량으로 1두는 깊이(深) 4촌 8푼, 폭 구건(口巾)건 8촌, 저건(底巾) 8촌 5분 5, 장 구장 8푼, 저장 8촌 8푼 5로 일본식 두량(柳)와의 비교로는 5승 2흡 5작 정도이고, 1승은 1흡 정도로 추정되었다(한국정부 재정고문본부, 1908, 「도량조사표」, 『재무주보』 39호 부록, 26~27쪽).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권) 「全羅古阜民擾 日記 寫本 送付」(巴溪生, 1894년 음력 4

강제 징수해 놓았던 벼 1,400여석을 봉기의 식량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봉준의 증언과는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다른 세미를 추가로 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1890년대 고부지역의 보세 수취 문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부지역의 보세 문제가 전라도 일대의 다른 군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가혹했는지, 그리고 고부농민봉기의 직접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해볼 여지가 있다.

II. 조선후기 개항기 고부지역 제언 보의 설치와 운영 위기

1. 고부 지역 제언·보의 설치와 보세의 부과

전라도 지방은 조선후기 이래 농법의 발달에 따라 수전농법에서는 종전의 직파법(直播法)을 대신하여 이앙법(移秧法)이 전환 보급되었다. 그런데 이앙법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앙법은 ‘노소공다(勞少功多)’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이앙기에 물이 없으면 실농(失農)을 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 농법이 보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리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이앙법이 보급되는데 따라서 수리시설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수전지대에 있어서는 특히 더 이 시설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 지방에는 ‘땅에는 수전이 많으며 관개에 힘쓰고 있다(地多稻田務灌溉)’¹³⁾

월 12일 보고서, 참조). 관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효숙, 2013, 「동학농민 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 -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 운동사연구』 114, 39~67쪽; 조재곤, 2023,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문 57~84쪽 참조.

라는 말처럼 제언시설이 광범하게 보급되어 있었다.

전라도 고부군 내 제언과 보에 관한 상황은 당시 영·정조년간 지방 읍지이거나 아니면 19세기에 발간된 고부읍지, 호남읍지 등의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제언이란 원래 독을 쌓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독 아래의 논에 몽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여 각 도의 제언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매년 각도 소재 제언의 이름과 숫자를 각 군은 각도에, 다시 각도는 제언사에 보고하였다. 봄과 가을에 민을 조발하여 파손된 곳을 수축하였고, 제언을 함부로 훼손하여 몰래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히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경작해온 땅은 진전으로 돌려 원상 복귀하고 그동안의 이익은 관에서 몰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중기 이후 제도가 문란해 집에 따라 내수사 및 각공은 절수를 함부로 받아 이를 일구어 논밭은 만들었고, 각 지방관청에서는 도조를 징수하기 위해 농민의 모경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결국 각도의 제언으로 논에 물을 대어 혜택을 입은 몽리 지역은 적어지고, 도리어 경작하는 곳에 많아졌다.¹⁴⁾

〈표 1〉 19세기 초 전국 제언의 관리 상황

도명	총 개소	폐지 개소	현존 개소
경기	314	19	295
충청	535	17	518
전라	936	24	912
경상	1,765	99	1,666
황해	45	6	39
강원	71	.	71
평안	5	5	.

13) 서유구(徐有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 3, 〈화식 팔역물산〉, 제 6권, 515쪽.

14) 『역둔토 및 목장이외 국유 각지종(各地種) 조사』 1. 제언답, 중추원 조사자료.

도명	총 개소	폐지 개소	현존 개소
합경	24	3	21
계	3,695	173	3,522

출전: 『만기요람』 5, 제언(堤堰)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전국 각지의 도별, 군별, 제언의 유지와 폐지 현황을 추계해 놓았다.

전라도 지역에 18세기 말에는 모두 912곳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전라도 고부의 경우에는 모두 23곳의 제언이 있었다. <표 2>와 같이 전라도 지역에서 각군별로 가장 많은 제언을 가진 지역은 나주, 전주, 무장, 광주, 흥덕, 익산, 남평, 고부, 고창 등의 순이었다.¹⁵⁾ 고부는 이웃한 지역으로 무장, 흥덕, 익산, 김제 등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의 제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¹⁶⁾

<표 2> 전라도 각군 지역 제언 현황

	지역	제언수	지역	제언수	지역	제언수
1	전주	56	김제	60	옥구	14
2	나주	106	영광	36	남평	24
3	광주	45	영암	32	흥덕	27
4	능주	5	창평	7	정읍	14
5	남원	10	용담	1	고창	20
6	장흥	5	임피	16	무장	52
7	담양	10	만경	24	무안	15
8	무주	8	금구	17	구례	3
9	여산	12	광양	1	진안	6

15)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146권, 전부고 6, 제언, <전라도 제언총수>(정조 6년, 1782년경 통계)는 전라도 통계 913개 제언으로 1개소의 차이가 있다.

16) 『고부군읍지』 1권, 규17407, 3a-3a면; 『여지도서』(하). 보유편, 전라도 고부 제언, 참조.

	지역	제언수	지역	제언수	지역	제언수
10	순천	5	용안	7	곡성	3
11	보성	7	함평	28	운봉	7
12	익산	25	강진	10	장수	5
13	고부	23	옥과	12	동북	1
14	진도	7	함열	24	화순	1
15	낙안	3	부안	49	홍양	4
16	순창	9	고산	5	해남	9
17	금산	13	태인	30	합계	913

출전: 『증보문헌비고』146권, 전부고 6,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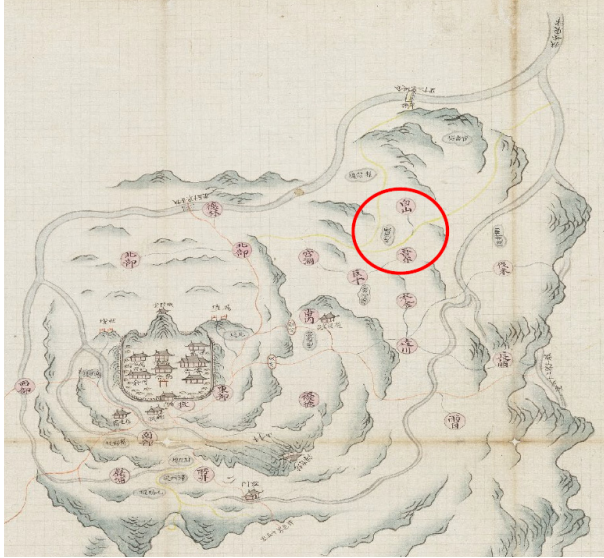
아래의 <표 3>에서는 고부군 소재 23개 제언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부 지역 제언 중에서 아래의 지도에 표시된 곳은 11개 제언이었다. 고부군의 제언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탕제이며, 그 다음으로 치오제, 검곡제, 여찬제, 신제제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제언은 이후 1914년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수리를 요하는 제언이 18개이며, 1912년에 2개소를 실제 수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⁷⁾ 그렇다면 1890년대에는 대다수는 현 상태대로 그대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고부지역내에 제언의 위치에 대해서는 당시 지도를 통하여 일부 추정해 볼 수 있다. 1872년에 제작된 고부군 읍지 지도에서는 실제 고부 경내 저수지와 제언을 일부 표시해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남부면의 당덕제와 고부군 북부 지역에 있는 울지의 위치가 확인된다.¹⁸⁾

17) 전라도 고부의 제언 규모는 1782년 이래 거의 변화가 없었다(최원규, 1992, 「조선 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 39, 238쪽; 전라북도, 1914, 「표 119, 제언」, 『전라북도 통계연보』, 207~208쪽.

18) 『고부군지도』(규 10496). 이곳 “울지마을은 보안-부안과 줄포, 난산-홍덕, 고부-정읍으로 통하는 요로에 자리하여 예전에는 마을 안에 장터가 있었다. 『호남읍지』(1790)에 보이는 ‘울지장(栗池場)’이 ‘울무 장터’라고도 하였다. 당시 부안현에는 읍장(邑場) 두 곳과 호치장(胡峙場), 동진장(東津場) 등 총 여덟 곳에 장터가 형성되어



〈그림 2〉 「호남지도」(규 12155-1), 5면(18세기 초중반)

〈표 3〉 고부 지역 제언의 명칭과 위치

	명칭	크기 및 위치	소재면		명칭	크기 및 위치	소재면
1	조촌제 (助村堤)	주(周) 2,418보, 동 30리	별주	13	여찬제 (余贊堤)	주 2,571보, 북 15리	
2	장순제 (長順堤)	주 770보, 동 30리		14	검상제 (檢尙堤)	주 1,930보, 북 15리	거북
3	검곡제 (檢谷堤)	주 2,676보, 동 15리		15	이신제 (利信堤)	주 1,262보, 북 15리	백산
4	대동제 (大洞堤)	주 1,083보, 동 30리		16	울지제 (栗池堤)	주 1,594보, 북 20리	백산
5	만수제 (萬水堤)	주 717보, 남 15리		17	거마제 (巨麻堤)	주 1,493보, 북 20리	
6	모조제 (毛助堤)	주 1,514보, 남 30리	성포	18	고담제 (古畚堤)	주 2,200보 북 20리	백산

있었는데 울지장은 그중 한 곳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명칭	크기 및 위치	소재면		명칭	크기 및 위치	소재면
7	역동제 (驛洞堤)	주 1,717보, 남 20리	소정	19	수탕제 (水湯堤)	주 4,595보, 북 25리	
8	감파제 (甘把堤)	주 2,255보, 남 15리	소정	20	마항제 (馬頂堤)	주 1,372보, 동15리	
9	신제 (新堤)	주 1,680보, 남 20리		21	고동제 (狐洞堤)	주 883보, 동 20리	
10	당덕제 (唐德堤)	주 1,218보, 남 5리	남부	22	치오제 (鴟鷗堤)	주 2,775보, 동 15리	답내
11	신제제 (薪梯堤)	주 2,571보, 북 15리	남부	23	답내제 (畚內堤)	주 1,950보, 동 20리	
12	북제 (北堤)	주 1,841보, 북 5리	북부	X			

출전 : 『고부군읍지』 1권, 규17407, 3a-3a면

19세기 후반 고부군의 인구는 원호 6,526호 인구 2만 8,651명이었다. 전결 총수는 원장부전답의 경우에는 8,819결 86부이며, 한전(旱田)은 3,110결 78부 2속이고, 수전(水田)은 5,709결 7부 8속이었다.¹⁹⁾ 이후 일제초기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고부군은 모두 19개면에서 7개면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일부 면의 경우 부안군으로 편입하게 되었다.²⁰⁾

조선후기에는 중앙재정기관으로서 호조(戶曹) 이외에 여러 독립적 재정기관들이 존재했다. 중앙각사(各司), 군문(軍門) 및 외방의 영진읍(營鎭邑)도 자체의 수입원인 둔전, 환곡 등을 분점하여 수입을 획득하였다. 또한 왕실 집안 혹은 그들의 재정기구를 가리키는 궁방(宮房)은 국왕의 직계 가족이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절수 제도를 통해 소유지를 확대시켰

19) 이 중 전세는 세미 1,226석 9두 3승 3홉, 삼수랑미 446석 3두 4승 1홉, 세태 365석 2두 1승 8홉이며, 대동미는 3,232석, 위태(位太) 99석 2두 3승 5홉, 저치미(儲置米) 683석 8두 2승 3홉, 부쇄전(夫刷錢) 831량 3전 1푼 등이었다(『고부군읍지』(규17407), 1권, 5a-5b면, 참조).

20) 『고부군읍지』(규17407), 1a-1a면; 「전라북도고부군명폐합일람표」 『고부군 면 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 장관, 1913년 10월 23일). 이후 답내, 북부, 궁동 일부는 천태면(天台山)으로, 우덕, 우일, 달천 등은 망제면(望帝面)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다. 특히 용동궁·명례궁·수진궁·어의궁 등 주요 궁방은 전국 각지에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득하여 필요한 노동력과 물력을 동원하고 있었다.²¹⁾

1852년(철종 3) 5월 좌의정 이헌구(李憲球)는 대개 농사가 수리(水利)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각도의 제언을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매년 초봄을 당하면 반드시 보축(補築)하게 하였는데, 근래에 오면서 관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은 근본 농사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다시 보수하지 아니하므로 점점 폐기되어 가고, 중외(中外)의 모리배(牟利輩)가 형지(形止)를 변경하고 사실을 의혹하게 하여 각 궁방·각 아문에 진고(陳告)하여 무난하게 허물어뜨리고 마음대로 논을 만들며, 심지어 유명한 큰 못도 그 가운데 들어 있으니, 진실로 옛 법을 닦아 회복하려고 하면 방백(方伯)과 수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략) 이른바, '보(淤)를 개통하는 것은 폐단이 심히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각 궁가(宮家)와 각 관아를 빙자하여 하는 것이며(중략) 신축하는 곳에는 비록 하류의 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류(上流)의 물을 가로 끊어서 관개를 할 수 없게 해서 대부분 농사에 실패가 되게 한다.”²²⁾

그는 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로 신축하는 곳이 비록 하보의 수리가 있을지라도 갑자기 상류를 단절시켜 관개할 수 없게 하여 실농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한 사람의 이익이 중인의 피해를 받게

21) 이민우, 2009, 「19세기 수리시설의 사점과 수세 갈등」, 『한국사론』 55, 84~94쪽.

22) “故每當春初, 必使補築疏理, 而挽近以來, 吏不守法, 民不重本, 雖大堤巨澤, 亦皆湮塞. 昔之千頃之波, 今成一蒿之淺, 而不復刊鑿, 漸成廢棄, 一過小旱, 四坪全涸, 農政攸關, 已極寒心, 而非徒無意於修築. 且有中外牟利之輩, 變幻形址, 疑眩事實, 陳告於各宮房各衙門, 無難毀決, 恣意作畝, 甚至有有名大池, 亦入其中, 苟究厥由, 良可駭惋. 始因廢置之患, 終致潰耕之舉, 凡爲方伯·守令者, 恐不得辭其責, 而苟欲修復古法, 則亦非方伯·守令, 更何以哉 (……) 所謂開淤, 爲弊甚多, 而此亦憑藉資緣於各宮各衙門 (……) 且其新築之處, 雖或有下淤水利, 橫斷上流, 不得灌溉, 舉皆失農”(『승정원일기』 2530책 (탈초본 123책) 철종 3년 5월 13일 계해 6/6 기사).

하므로 영읍은 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중외의 모리배들이 각궁방 각아문에 진고(陳告)하여 여러 제언들을 궤결하고 마음대로 작답하였으며 심지어 유명한 대지(大池)도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언과 보를 점검하여 한 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궁방·아문과 더불어 양반권세가들은 향촌사회가 공동체적으로 관리하는 제언과 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리시설을 매득하는 경우 외에 정치적 권세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사례들도 많았다.

1857년(철종 8년) 전라우도 암행어사 성이호(成彝鎬)는 궁방과 내수사에서 민보를 늑탈하여 몽리 여부를 막론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수세를 거두는 사례를 조사하였다.²³⁾

근래 경외(京外) 한잡(閒雜)의 부류가 잘못 서로 응하여 몰래 모리(牟利)를 취하면서 경사(京司)에는 늦게 보고하는 것이 축보(築淤), 방언(防堰), 선세(船稅), 포세(浦稅) 등이다. 명색은 하나 같지 않지만 폐단은 크게 일어났다. 보언(淤堰)으로 말하자면, 소위 경감(京監), 향감(鄕監)이 거짓으로 투탁하거나 판매한다고 하면서 혹은 궁방의 도서를 칭하거나 혹은 내수사의 문적을 내어 약간의 물재(物財)를 의연하면서 **촌민을 위협하여 부역을 독촉한다. 심하면 혹은 한푼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누백년 내려온 민보를 늑탈하고 관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각처 보언의 원근이나 상하와 더불어 몽리 여부를 논하지 않고 그 답의 고두수(庫斗數)에 따라 세조(稅租)를 늑정하니 **매두락 당 많으면 1두에 이르고 적어도 8승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추후에 요란하게 채찍질하면서 낭자하게 갖추게 하니 공곡(公穀)을 납부하는 것보다 독촉하여 납부하게 한다.²⁴⁾

23) “如全州之石佛淤 獐項淤 五山淤 四巨里淤 斗杜里淤 防築金堤之賜給坪 四歸淤 盤野淤 船堤 玉山堤 槩橋堤 冷井堤 益山之三浦淤 黑石堤 長淵堤 鄭洞之淤 萬頃之石橋淤 群坪蘆田等收稅是也”(『일성록』 136책, 1857년(철종 8) 12월 21일).

24) “近來京外閒雜之類 綱繆和應潛售牟利瞞告京司 築淤也 防堰也 船稅也 浦稅也 名色不一

그 하나는, 전주(全州)·김제(金堤)·익산(益山)·만경(萬頃)·임피(臨陂)·옥구(沃溝) 등 고을에 있는 득·보·갈대밭·상선(商船)·염포(鹽浦)의 조세 거두는 일을 일체 혁파하고, 당초 조세의 설치에 가리켜 고한 여러 놈을 조사해서 비변사에 보고하고 엄형하여 멀리 정배하며, 제언을 불법으로 경작한 곳을 도신이 잘못을 밝혀 소통시키거나 쌓게 하여 전처럼 물을 저장하고 법을 어긴 놈들을 별달리 조사하여 죄를 주어야 하는 일이다.²⁵⁾

전라도 일대에서는 궁방이나 내수사의 문적에 의거한다고 하면서 촌민을 위협하여 부역을 독촉하고, 심하면 한 푼도 비용을 주지 않고 민보를 늑탈하였다고 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전주, 김제, 익산, 만경, 임피, 옥구 등지에서 폐단이 많은 제언과 보의 명칭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군의 제언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군현보다는 폐단이 아직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제언과 보의 수세 양상에 대해 “몽리지역과 관련 없이 답의 두락에 따라 많으면 1두, 적어도 8승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전봉준의 언급과는 격차가 있다. 이로써 1850년대 전라도 일대에서 제언과 보의 개축을 강제로 하면서 일률적으로 보세를 징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해가 갈수록 보세의 부담이 커져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개항 이후 고부 지방의 경제적 변화와 부세 문제

전라도 고부 지역은 주요한 농업지대로 전라도 북부 지역 평야를 중심

爲弊多端 以淤堰言之 所謂京監鄉監 假托藉賣 或稱有宮房圖署 或圖得內司文蹟 捐給若干物財 威脅村民 董督赴役 甚或有不費分文 勒奪屢百年 灌溉之民狀者 比比有之 各處淤堰之遠近上下無論 蒙利與否 從其畚庫斗數 勒定稅租 每斗落 多至一斗 少不下八升 追擾備至鞭扑狼藉 其所督納急於公穀.”(『일성록』 136책, 1857년(철종 8) 12월 21일).

- 25) “其一, 全州·金堤·益山·萬頃·臨陂·沃溝等邑所在各堤淤蘆田商船鹽浦收稅一切革罷, 當初設稅之指告諸漢, 查出報司, 嚴刑遠配, 堤堰冒耕處, 令道臣摘奸疏築, 依前貯水, 犯漢另查照勘事也.”(『비변사등록』 244책, 철종 8년 12월 28일).

으로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전라도 평야는 금강 이남, 노령산맥 이북 황해와 연한 평야지대이며, 남북 200리, 동서 120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고부천, 정읍천 등이 동서남북으로 관류하고 있어서 수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기후도 온난한 지역이다.

전라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미곡의 생산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세 수취의 대상지였으며 일본에 의한 미곡 수출도 많이 이루어졌다.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이미 전라도 지역의 밀무역으로 통해 전라도 일대의 미곡이 일본으로 수출된 바 있었다. 1894년까지 부산으로부터 수출된 쌀의 비중이 전라도 산이 7할, 경상도산이 3할 차지할 정도였다.²⁶⁾ 이 지역에서 미곡수출은 주로 인천과 부산을 경유하여 이루어졌는데, 189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다.²⁷⁾ 그로 인해 곡가가 날로 상승하게 되었다. 미곡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양반관료, 미곡상인이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주, 부농층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보고 성장할 수 있었다.

고부군의 경우 연해의 포구에 가깝고 동진강과도 인접한 지역으로서 적지 않은 미곡이 수출되고 있었다. 고부는 “사실은 김제 및 만경 등에 연속된 대평야로서 28개 촌락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하며 줄포, 염소, 동진, 사포 4항에서 원근 각지에 수출되는 액이 적지 않다. 상납량 1만 8천여석, 세고(稅庫)는 부안, 지포(芝浦)에 있어 무역상 중요한 지역의 하나다”라고 평가될 정도였다.²⁸⁾ 흥덕 일대 지역은 전북 지방 2대 항구인 줄포(茁浦)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줄포만내의 여러 포구를 통해서 군산, 법성포, 목포, 인천 등지로 연결되었고, 그 배후

26) 『통상취찬』 17호, 「메이지 27년 중 부산상황」(1895년 3월 30일), 29~30쪽.

27) 吉野誠, 1975, 「조선국개국후의 곡물수출에 대하여(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2, 34~39쪽; 이현창, 1985, 「한국 개항장의 상품유통과 시장권-한국 개항기에서의 시장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일차적 요인-」, 『경제사학』 9, 124~142쪽.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전라도민요보고」 참조.

지로서 부안, 고부, 흥덕, 정읍, 고창 등이 바로 육로로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그런 미곡의 반출루트 중에서 포구의 객주, 여각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예컨대 왕실의 재화를 공급해온 명례궁은 흥덕일대 사포, 후포, 우포, 석호 등 4개의 포구에 있는 객주, 여각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명례궁은 1890년부터 영읍서리의 폐단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객주, 여각에게 직접 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지역의 미곡유통망을 적절하게 장악하고 있었다.²⁹⁾

이 시기 고부군 지역에서는 조세나 부세의 과중한 부담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1878년(고종 15) 전라어사 어윤중(魚允中)은 전라도 일대 폐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는 고부군의 폐정에 대해 현 군수인 서상조(徐相祖)가 큰 흉년을 경험한 백성에 대해서 요역을 경감하고 재결은 아직 거둬들이지 못했지만 백성에 대한 혜택의 효과를 보게 하였다고 평가했다.³⁰⁾ 반면에 전군수 이수은(李秀殷)의 비리는 자세하게 조사하였다.³¹⁾ 전군수는 사치스럽게 남짓한 습관에 대해 깨우치지도 않고 탐오의 계획이 더욱 자행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책개와 뇌물을 받는 행패를 주야를 가리지 않아서 ‘향도생재지도(鄉導生財之道)’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였다. 공당(公堂)을 도지(賭技)의 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군리(郡吏)들과 함께 내아(內衙)에서 백성의 수탈을 자행하는 어색(漁色)의 숲을 이루게 하며 민읍의 폐원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1876년 겨울의 관진미(官賑米) 145석은 관에서 모았다고 영문에 보고하면서 남녀 장년 9천 호를 더하여 보고하여 잉여미를 취한 것이

29) 『전라도흥덕현 사포(沙浦)·후포(後浦)·우포(牛浦)·석호(石湖) 등 사포구도여객주인절목(四浦口都旅客主人節目)』(규18288의 19), 참조.

30) 『중정년표(從政年表)』 권2, 고종 15년 무인(戊寅, 1878), 참조.

31) 이수은은 1875년 5월부터 1877년 5월까지 21개월 동안 고부 군수로 재임했고, 이후 서상조가 1년동안 근무했다(최기성, 1994, 「19세기 후반 고부의 폐정실태」, 『전라문화논총』 7, 99쪽, <표7> 참조).

270석 내였고, 1877년 봄 공진영읍에 내는 조비전(措備錢)도 1만 811량 6전 7분이었는데, 영문에서 태인 결배전 1천 368량 5전 8푼내에 단지 600백량만 지급하고 진색조로 768량 5분 8푼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대신에 고부지역의 토지를 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정(稅政)에 대해서도 공납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먼저 충당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횡령하였다.³²⁾ 또한 전군수는 읍저의 은진영(殷震榮), 은종섭(殷宗燮), 은규섭(殷奎燮) 등에게 강제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주변 각면의 사람들을 옥사로 몰아 수만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이들이 범장(犯贓)한 금액은 무려 3만 2천 647량 5전 3푼이나 되었다. 더구나 부정 축재한 돈으로 고부에 20석 14두락과 태인에 9석 15두락 등 대규모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였다. 결국 전군수 이수은이 수탈한 범전(犯錢)은 공화(公貨)이면서도 민전이므로 이를 모두 속공하여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의 관용에 속하게 하였다.³³⁾

또한 어윤중은 옥구 지역의 모경(冒耕) 문제를 거론하며 제언의 모경은 법에서 금한 바이니 고제를 파괴하고 사사로이 경작하고 있으니 민이 관계의 이익을 잃어버리므로 다시 제방을 복구하여 환원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³⁴⁾ 이렇게 1878년 당시 전라어사 어윤중은 고부지방과 주변 지역의 부세문란에 대해 관에서 운영하는 진미(賑米)제도를 비롯하여 결배전, 각종 부세 명목의 징수, 부가세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세납부 과정에서 현물과 대전납의 차액을 이용한 횡령액도 상당히 많았음을

32) “표재결(裒災結) 출미 219석 14두 1승 9홉을 작호(作戶)의 명칭으로 횡령하여 공금 매석 35량식 대전 7천 698량 1전 1푼, 서원처에 위재사집(僞災查執)으로 출미 134석 7두 1승 7홉, 매석 30량식 대전 4,034량 3전 4분 등을 외획(外劃)으로 하였다. 관수배삭(官需排朔) 중에서도 380석을 처음으로 32량으로 배정가로 산정하였다. 끝에서는 매석 3량식 가집하여 합전 1만 3,319량을 봉세전(捧稅錢)으로 추정하기로 하였다.”(『중정년표』 권2, 1878년(고종 15) 무인, 위의 자료).

33) 『중정년표』 권2, 1878년(고종 15) 무인, 위의 자료.

34) “堤堰冒耕，在法所禁，而又於沃溝地，毀破古堤，私自起墾，民失灌溉之利，故使之依舊還築是白如乎，似此不法，合施重勸，令攸司稟處爲白乎拯，”(위의 자료).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한편, 1883년(고종 20) 또다시 암행어사 주도로 고부 지방의 부세를 바로잡기 위한 절목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였다.³⁵⁾ 주요 내용은 부세, 포량수미 외에 미를 곁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1결에서 징수하는 전체 미곡의 내용을 열거 기록하여 관과 민이 이를 준수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부세에 경저리의 역가, 잡역, 조창의 마부 색장비 등 각종 부가세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187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여 조사와 절목 작성을 통하여 조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지역의 조세 문제는 갑오년 까지도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전라도 각읍의 지세 관련 자료는 각 관아에서 매년 작성된 『전라도 각읍 □□조 수조안(收租案)』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893년 계사년과 1894년 갑오년의 고부군 수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전라도 고부지방 수조안 내역(1893년)

명목	전답 명목	결부수	전답 명목 2	결부수 2
원장 부결총	원전답	8,819결 86부		
	전	3,110결 78부 2속		
	답	5,709결 7부 8속		
면부 세질	관기전(官基田)	11결 38부 9속	위전(位田)	1결 48부 4속
	둔전	5결	위답	3결 51부 6속
	둔답	11결	사기전	11부 6속
	교기전(校基田)	62부	창기전	15부 2속
	충훈부면세전	8결 57부 2속	충훈부면세답	20결 66부 3속
	(진탈/기전)	6.96.5./1.60.7	(진재탈/기전)	14.58.7./6.7.6.
	기로스면세전	117결 57부 9속	기로스면세답	83결 93부 8속
	(진탈/기전)	101.15.9./16.24.0.	(진재탈/기답)	77.31.6./6.62.2.
	수어청면세전	16결 28부 7속	수어청면세답	47결 18부 2속

35) 『암행어사고부군부세리정절목』 (古大 5127-7), 참조.

명목	전답 명목	결부수	전답 명목 2	결부수 2
	(진탈/기전)	10.71.7/5.57.	(진재탈/기답)	45.30.2./1.88.0.
	내수사면세전	1결 24부 3속	내수사면세답	11결 8부 7속
	(진탈/기전)	1.7.8./0.16.5.	(재탈/기답)	9.2./2.6.7.
	마위전	12결 14부 5속	마위답	38결 66부 2속
	(진탈/기전)	9.52.5./2.62.0.	(진재탈/기잡)	19.53.2./19.13.0.
	숙선옹주방면세전	25결	연령군방 면세전	3결 25부
	화녕옹주방 면세전	17결 50부	답	3결 25부
	답	17결 50부	우답	6결 50부
	우답	35결	은신군방 면세전	10결
			답	10결
면세 출부 질(진전 포함)	아록위전	4결	공수위답	15결
	장주위전	4결 66부 4속	역공수위전	2결 24부 8속
	(진탈/기전)	3.76.2./0.90.2.	역공수위답	2결 97부 8속
	장주위답	40부 5속	(재탈/기답)	2.35.8./0.62.0.
	합 무세전	241결 24부 9속	재전	2,869결 53부 3속
	합 무세답	362결 68부 1속	재답	5,346결 39부 7속
	금진전	451결 82부 4속	경신이 무인지강등감 등	5결 9부 6속
	재진전	439결 29부 7속		
	재진답	376결 55부 6속	재진답	309결 68부
	구진전	1,233결 79부 1속	재진전	1,216결 88부
	구진답	475결 44부 6속	재진답	401결 39부 9속
	합탈하전	1,669결 9부 9속	양성천포락전	2결 74부 9속
	합탈하잡	743결 25부 4속	양성천포락답	3결 82부 3속
	재전	1,200결 43부 4속	합금탈하전	8결 4부 7속
	재답	1,603결 14부 3속	합금탈하답	630결 68부 7속
실전답	실전	1,181결 58부 7속	합전	1,191결 46부 3속
	실답	3,972결 45부 6속	합답	3,976결 5부 3속

출전 : 『전라도각읍계사조수조실결마련책』 규 17933, 2책, 1897, 13~19쪽,

고부 지역 지세의 대상인 전답 총결의 추출은 원래 양전을 통해 파악된 원장부 결총(結摠)에서 면세부질과 면세출부질, 즉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과 면세 면부를 허용하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였다. 여기에 다시 각년도에 누적된 재진탈 등 진전 등을 제외하여 실전답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³⁶⁾ 원래 고부지역 원장부 결총은 8,819결 86부였으며, 전은 3,110결여, 답은 5,709결여로 각기 35.3%, 64.7%로 나타났는데, 고부 지역 사정상 답결의 비중이 전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최종 실전답은 전의 경우 1,191결여, 답의 경우 3,976결여로 산정되었다. 이는 원장부결총 8,819결 86부에 비하여 실전답으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토지세의 대상이 58.6%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전답 중 답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여전히 높아 76.9%에 달했다. 여기에 지세의 최종 부과액은 연분 9등에 의해 하지하전(下之下田) 124결여, 하지하답(下之下畓) 2,355결여, 하지중(下之中) 전 1,067결여, 답 1,595결여 등으로 산출되었다. 이밖에 삼수(三手)·포량(砲糧) 등도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되었다.

1893년 고부 수조안의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종 명목의 전답, 특히 공방전 계통이나 각년도 재탈결 등이 대거 면부·면세의 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대부분 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사년의 조세부과방식은 이후 갑오년 수조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³⁷⁾ 다만 갑오 조세개혁에 따라 종전 면부세질이었던 둔전·답, 아록위전·답, 공수위전·답 등이 승층되어 총결부에 포함되었고, 속선옹주방 면세전 등이 출세되었으므로 출세결 명목의 변화와 증가가 있었다.

36) 표의 중간에 단위 결·부·속을 0.00.0.으로 표시하였다. 수조안의 최종 집계인 합전답은 실전답에다 그해 가경전을 더한 것이다.

37) 갑오년의 하지하전은 212결 85부 1속, 하지하 답은 1,492결 7부 6속, 하지중전의 경우에는 1,067결 12부 4속, 하지중전은 1,598결 55부 1속, 하지상답 11결, 하지하 답 7결 85부 6속, 중지중 답 3결 14부 2속 등으로 거의 유사하게 부과되고 있었다(『전(前)전라도각읍갑오조수조실결마련책』, 규17934 v.1, 전주부편, 1896, 347~354쪽, 참조).

Ⅲ. 19세기말 고부지역 부세·균전도세의 수탈과 만석보 문제

1. 고부 일대 균전수도의 확산과 궁장토 및 보세의 수탈

전라도 연해안 지방에서는 19세기 후반 흉작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우선 1876년과 77년에 곁황이 발생하였다. 1876년에는 향한(尙旱)과 조상(早霜)으로 인하여 전라도 지방은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다. 1877년에도 거듭된 수재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³⁸⁾ 이 두 해에 걸친 흉작으로 인하여 전라도 거의 전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많은 토지가 진전화되었으므로 농민들은 빈궁하게 되고 농지를 이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이들 진전이 대부분 미처 개간되기도 전인 1886년, 1888년에 또다시 큰 흉작을 당했다. 1888년의 흉작은 구한(久旱)에 인한 것이었는데, 1876년의 그것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전라감사 이헌직(李憲植)의 보고에 의하면, 이 해의 재해는 부안을 비롯하여 35개읍이 가장 심했고, 다음은 능주(綾州) 등 20개 읍이며, 초실읍(稍實邑)은 무주(茂朱) 등 4개 읍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재결(災結)은 구재(舊災)와 정세조(停稅條) 외에도 11만 3,988결 68부 2속이나 되었다.³⁹⁾ 거듭된 흉작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전(陳田)의 면세(免稅)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세 부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럼에도 조선정부는 재정수요의 팽창으로 인하여 다양한 부세 명목을 설정하여 수취해야 했다. 전정(田政)에서 정규적인 세 이외에 부가세가 추가되어 군포, 환곡 등도 지세화(地稅化)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38) 『비변사등록』 고종 13년(1876) 9월 10일조, 고종 14년 6월 4일조.

39) 『비변사등록』 고종 25년(1888) 11월 14일조.

결세(結稅)는 지역에 따라서 1결당 50두 혹은 100두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수탈로 이루어졌다.⁴⁰⁾ 여기에 지세를 부담하는 대상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소작인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국가에 지세를 부담하는 등 2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지세부담의 강화는 소농민경영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영세소농, 빈농, 특히 소작농에게 소토지경영에서 탈락하여 무토지 무경영 빈농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토지소유 확대가 이루어졌다. 전라도 '균전'문제과 더불어 흥덕현 이외 5곳에 설치된 명례궁 장토이 대표적이었다. 명례궁장토는 1888년에 흥덕일대에 설치되었다. 장토의 대부분은 원래 흥덕현 현내면에 살고 있던 진기섭(陳基燮)이 소유하던 토지였다. 그는 더 이상 전장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소유한 전답을 모두 명례궁에 '원납(願納)'하려고 하였다.⁴¹⁾ 이때 그가 바친 토지는 전북지역 흥덕, 부안, 무장 등 3개 현에 걸쳐 무려 130여 석락(石落)으로 2,600여 두락이나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례궁은 우선 1888년 초에 영읍의 색리나 당해 지역의 현감 및 현지인으로 하여금 진기섭의 전답을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따로 작성하게 하였다.⁴²⁾ 이 양안작성은 1월에 무장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무장현

40) 한우근, 1971, 『동학난기인에 관한 연구』 2장, 참조.

41) 실제 명례궁에 방매하는 과정은 “기섭(基燮)의 처가 (중략) 무자(戊子, 1888)년분에 잠자상경(潛自上京)하여 차 장토를 명례궁 궁속배(宮屬輩)와 부동(符同)하고 해궁(該宮)에 암촉(暗囑)하여 몰수탈입(沒數奪入)하고 진기섭(陳基燮)이가 투탁(投托)한 양으로 양안을 선출(繕出)하고 매년 추수를 자궁점탈(自宮占奪)이라”(『각도군각곡시가표(各道郡各穀時價表)』(규 21043) 2책, 임시재산조사국 결의안, 참조).

42) 이 때 작성된 양안은 현재 3지역 모두 규장각에 남아있는데, 이 양안의 해제에서는 이 3종의 양안이 '한말임시재산정리국에서 혼탈입지 청원시 제출되었던 것으로 이들 토지는 '혼탈인지 부인(混奪入地否認)'으로 처리되었다'(『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사부 2, 411~413쪽)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토지의 대부분은 명백하게 '혼탈입지승인(混奪入地承認)'으로 결정되었다. 기재형식중에 양안의 상단에 있는 첩지는

감 신모(申某)의 지휘하에 김락서(金洛瑞)와 양문화(梁文化)가 지심을 담당했다. 2월에는 고창현(高敞縣)에서 현감 이모(李某)의 지휘하에, 흥덕현에서는 4월에 현감 조모(曹某)의 지휘하에 이덕수(李德洙)와 박연중(朴淵鍾)이 각각 지심을 담당했고 이 중 이덕수는 고부군의 부안면(富安面)도 담당했다. 5월에는 부안현에서 현감 임모(任某)의 지휘하에 양안이 각각 작성되었다. 명례궁은 종전 양안의 자호와 지번을 그대로 수록하되 토지면적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소작인의 인명을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의 장토 경영은 양안을 완성한 직후인 그해 가을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납의 대가로 주기로 한 대금을 지불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해 추수가 끝난 이후에나 겨우 대금이 지급되는 편법이 동원되었다. 명례궁은 1889년 12월까지 1만 냥과 1891년 8월에 5천 냥 등 모두 15,000냥을 지급했다.⁴³⁾

당시 명례궁의 장토 조성은 강제로 양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전의 혼입과 탈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때 명례궁장토는 흥덕현 8개 면에 걸쳐 160여결, 고부군 부안면 11결여, 고창현 5개 면 24결여, 무장현 6개 면 24결여, 부안군 남하면 5결여 등 모두 226결 69부이며, 두락으로는 무려 5,383.5두락으로 크게 늘어났다. 답의 비율도 98.5%로 나타나 답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⁴⁴⁾ 명례궁 장토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된 이유는 진기섭의 토지수용만이 아니라 주변 민전의 소유자와 농민들의 토지가 함께 혼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례궁은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 지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지주층의 불만을 회유하면서 이후 궁방의 지주경영

환급대상자를 구별해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왕복서류철(往復書類綴)』(규 20610), 175~188쪽, 참조).

43) 『명례궁봉하책(明禮宮捧下冊) ②』(규 19075) 16책 중 기축(己丑), 신묘(辛卯)조, 참조.

44) 명례궁 토지 중 고부군 부안면에 있는 토지규모는 모두 283두락, 결부로는 11결 25부 9속이었다(『명례궁속부흥덕현소재 진기섭(陳基燮)답토개록양안』(규 18224) 2책, 고종 25년(1888)).

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라도 북부 일원에 설치되는 ‘균전(均田)’은 1891년부터 전주 토호 김창석(金昌錫)이 전주, 김제, 금구, 태인, 부안, 옥구, 임피 등 7개읍에 균전사(均田使)로 파견되었다. 이는 무자진전(戊子陳田)을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하여 ‘균전양안’을 작성하였다. 이 균전에도 역시 개간된 진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경전도 탈·혼입(混·奪入)되었다.

이렇게 균전으로 편입되면 국가에 납부하는 결세를 낮추어주고 3년 이후부터 부과되는 균도(均賭)도 가볍게 해준다고 선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자진하여 자기 토지를 납입하게 되었다.⁴⁵⁾ 조가(朝家)로부터 균전사를 특별히 파견하여 각군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덜어 내고 개간을 권하였고, 또한 명례궁으로부터 사람들을 모아 경작을 돕고 또한 지방관의 공첩에 의거하여 일일이 답험하여 따로이 양안을 만들었다.⁴⁶⁾ 이 사업은 1891년부터 93년까지 진행되었는데, 바로 명례궁(明禮宮)이 자금을 대고 균전사를 파견하고 지방행정기관을 이용하여 별도로 양안을 작성하였다. 이 균전은 이후 내장사(內藏司)의 장토(庄土)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진전개간자에게 3년간 균도와 결세도 면제해 준다고 했으나 바로 1893년부터 도조를 수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명례궁은 “궁속(宮屬)을 파송하여 토지를 측량한 후에 일체 점유하였으나 해궁(該宮)세력을 저항치 못하고 영군(營郡)에 여러차례 정소(呈所)하여도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지적과 같이,⁴⁷⁾ 토지소유자들은 몇 차례 집단적인 소장을 제출하면서 저항하였다. 소작농인 영세소농·빈농층의 입장으로서는 당시 이중적 소유관계하에서 소

45) 『내장원각부래첩(內藏院各部府來牒)』 7, 광무 8년 7월 15일 조회 제86호, 참조.

46) 『일성록』, 기해(己亥, 1899) 3월 5일조.

47) 『각도군각곡시가표』(규 21043)제2책 「인정을 경하고 고미하금건(認定을 經하고 姑未下給件)」(14. 흥덕군 답12석락 유장규(柳章奎)외 17명에 대한 전답하금건) 및 『전라도장토문적(全羅道庄土文績)』(규 19301) 제7책 「전라북도흥덕군소개 최봉권(崔鳳權) 제출도서문적류」 「최봉권 상소문」(무자 4월), 참조.

작료는 더욱 수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세를 작인에 전가하여 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각종 부세도 점차 증대되었으므로 농민들은 거둬진 흉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면세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부담이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면 19세기 이후 전라도 고부지방 각 공방 둔전의 분포와 부세징수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⁴⁸⁾

〈표 5〉 고부군 지역 공방 전답(단위 : 결.부.속)

공방명칭	답	전	합계	비고	
충훈부	26.36.7	6.15.8	32.52.5	50개 지역 341필지	
육상궁	80.00.0	0	80.00.0	31개 지역 472필지	덕림면
용동궁	278.67.3	17.18.9	295.86.2	115개 지역 2,132필지	덕림면(105결 71부 4속), 동부면(135결 63부 4속), 북부면(9결 51부 4속)
명례궁	8.18.8	0	8.18.8	20개 지역 63필지	
금성위방	4.43.6	5.56.4	10.00.0	14개 지역 72필지	백산면
명혜공주방	5.13.0	1.27.9	6.40.9	23개 지역 57필지	
계	402.78.4	30.19.0	432.98.4	253개 지역 3,137필지	
비중	93%	7%	100%		
실전답과의 비교	10.1%	2.6%	8.4%		

출전 : 『고부군소재 충훈부전답양안』(1813) 등 참조.

48) 『고부군소재 충훈부전답양안』(1813), 『전라도 고부군육상궁면세답고장광복성책』(1747), 『전라도 고부군소재 용동궁전답양안』(1830), 『명례궁속부 고부』, 『전라도 고부군소재 금성위방 은사전답십결타량성책』(1789), 『명혜공주방 고부지매득전답타량성책』(1671)(이상 최기성, 1992, 「고부군 위상의 재조명」, 『전북사학』 15, 21쪽, 각주 48 참조).

위의 표와 같이 고부군 지역 각 공방 전답은 모두 432결여로 추산된다. 이중 95%인 402결여가 답에 해당되므로 공방전의 대상이 의도적으로 답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부지역 공방전의 규모는 고부군 전체의 수세 실결과 비교해 보면, 답의 경우 10.1%이고, 전의 경우는 7%로 전체로는 8.4%나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1880년대 이후 명례궁 및 균정이 대규모로 추가된 것이었다.

또한 고부군 소재 기로소 둔전답의 경우도 추가되었다. 갑오개혁 이후이지만 둔전 수조방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1896년(건양 1)에 재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전답은 105결 5부 2속 중에서 진전이 3결 24부 5속을 제외하고 기경전이 101결 8부 7속이었다.⁴⁹⁾ 답의 두락수는 95석 3두 7승락으로 실기답는 93석 7두 8승락이었다. 이에 따라 상답 2석 16두락에 대하여 매두락당 도전 1량 5전씩 부과하여 84량, 중답 38석 2두 5승락에 대하여 매두락당 도전 1량식으로 780량 5전, 하답의 경우 52석 9두락 3승락에 대해 매두락당 도전(賭錢)은 7전식으로 하여 734량 5전 1푼으로 거두어들였다. 또한 전의 경우에는 31석 9두 4승락 내에 진전을 제외하고 실기전으로 29석 1두 9승락을 대상으로 매두락당 도전을 3전식으로 하여 합전 174량 5전 7푼으로 거두어들였다. 이에 따라 고부군 소재 기로소 둔전의 수세량은 도전(賭錢)으로 1,773량 5전 8푼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기로소 둔전의 도전 수취방식에서 주목할 사항은 상답, 중답, 하답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대체로 중답과 하답으로 편성하여 수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⁵⁰⁾ 이는 고부지역 만석보의 수세 차등 부과와도 관련해서 동일한 관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고부군소재기로소둔전답개양안(古阜郡所在耆老所屯田畝改量案)』(규 20137), 건양 1년(1896), 1책, <성포면 기로소둔답>(105결 5부 2속), 참조.

50) 기로소 둔전답 중에서 3개 등급의 농지 면적은 각기 56두락, 762.5두락, 1049.3두락 등으로 각기 비중은 3%, 41%, 56% 등이었다(위의 자료, 참조).

전라도 북부 일대에서는 전주 등 7개 군의 균전수도와 명례궁장토 5개 지역 문제가 1893년 이후에는 아예 결합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1893년 전주농민봉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1894년 고부농민봉기에서는 ‘진답기간처 도조(陳畚己墾處 賭租也)’라는 읍폐 시정 요구와 바로 연결되었다.⁵¹⁾ 또한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은 ‘원세(願稅) 보세(淤稅) 및 궁답물시(宮畚勿施)’라는 폐정개혁안을 제기하였다.⁵²⁾ 농민들의 요구는 토지소유권 확보와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협하는 제침탈을 방지하고 소상공생산자로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고부지역 토지문제의 해결 요구는 이 시기 영세소농·빈농들의 요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상층농·부농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⁵³⁾

당시 조선정부로서도 균전 도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해 9월 17일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은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균전(均田)의 백지정세의 자세한 곡절은 7읍의 제보를 기다려서 사핵하여 등문하겠사옵습니다. 그 연유를 생각하여 먼저 이미 보고하여 아뢰었거니와, 전주·김제·금구·태인 등 읍의 보고한 바로는 백지정세에 대한 거론이 없으며, 임피의 진답에서 도세를 징수한 것이 1,196 석령(石零), 부안의 진답 징수 도조가 350석령, 옥구 진답의 징도가 76석령으로 성책되었사옵습니다. 균전소 영리 유민구(柳敏九)가 보고한 바의 7읍 진토는 비록 일시에 모두 기간(起墾)코자 하더라도 진폐된 지가 오랜 것과 가까운 것이 있어 힘이 미치지 못하여 먼저 무자(戊子) 진토부터 손을 대어 소와 양곡을 공급하여 차례로 경작을 권고하여 양안에 기재하고, 추수시

51) 『일성록』 갑오(고종 31년) 4월 24일조, <안핵사 장계(狀啓)의 읍폐(邑弊) 7조>, 참조.

52) 한우근, 1971,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한우근전집 8, 한국학술정보, 2001), 88~121쪽.

53) 정창렬, 1982, 「한말 변혁운동의 정치 경제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 1, 창작과 비평사, 50쪽.

정도(定賭) 후에 경작할 수 없는 병자(丙子) 진토(陳土)로서 균전안에 집어넣어서 도조를 징납한 것입니다. 그 사정을 조사한 즉, 균전 도조(賭租)가 읍결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균안(均案) 결총(結摠)에 함부로 집어넣어 해당 읍의 결역을 면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비록 심히 가공하다 하더라도 허실은 변별해서 둘 것은 두고 뺄 것은 빼어 양안을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⁵⁴⁾

김학진은 전주, 김제, 금구, 태인 등의 보고한 바대로 백지징세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다만 임피의 진답에서 1,196석, 부안의 350석, 옥구 76석 등이 도세를 징수하였음을 밝혔다. 균전의 조성 경위에 관해서도 가까운 무자년, 1888년 진토로부터, 그리고 이전에 병자년, 즉 1876년 진토의 경우도 혼입되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전라감사 김학진은 균전의 도조는 읍결보다 도조가 가볍기 때문에 민인들이 함부로 들어오게 한 것이므로 향후 균전 양안에서 무자·병자의 진토를 구분하고 경작하는 답토는 다시 집총하여 올해부터 수조안에 돌려넣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김학진의 조치는 1894년 균전의 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방안이었지만, 실제 그동안 진토의 개간과정에서 혼탈입된 농민들의 토지 재조사를 배제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간과정에서 수행한 농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몫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지주와 농민들이 원래 소유한 토지가 혼·탈입되었다는 점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전라감사 김학진의 조치는 잠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었으므로 1894년 이후에도 명례궁 도조와 균전수도의 문제가 재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1898년 12월 말과 1899년 봄에 이 고부 일대 지역에서 흥덕군과 영학당의 농민봉기로 이어졌다.⁵⁵⁾ 1899년 봄에는 영학당이 고부, 흥덕,

54) 『공문편안』 제4책, 「완영장계(完營狀啓)」, 갑오 9월 17일 감사 김학진 보고.

무장 등지를 습격하고 고창을 거쳐 영암의 민란을 도운 다음, 곧 광주, 전주를 거쳐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고창 습격시 수성군과 민병의 반격으로 패배하고 말았다.⁵⁶⁾ 개화파 관료인 김윤식(金允植)은 그동안 왕실에 의한 민전 침탈을 비판하였다. 그는 “호남 고부 등 여러 읍에서는 민답이 궁장토에 빼앗겼는데, 서로 모여 원통함을 호소하고 무기를 가지고 소집하는 도중이 있으니 크게 난리가 일어날 모양”이라고 하였다.⁵⁷⁾ 김윤식은 이곳 고부, 흥덕, 무장 등지에서 발생한 민전 침탈 문제가 전북 일대 7개 군의 균전문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고부일대 명례궁 장토가 균전수도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었다는 착시가 이어진 이유는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과 농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일원에 광범위한 궁·장토의 민전침탈, 도조의 문제는 1890년대 내내 지속되고 있었다.

55) 흥덕, 고창, 무장군은 1895년 5월 지방제도가 ‘23부제(府制)’의 개편되어 전주부에 편입되었다가 1896년 8월에 ‘13도제(道制)’의 실시로 전라남도도 편입되었다. 1906년 다시 전라북도도로 편입되었다. 당시 농민 봉기 중심지는 바로 흥덕, 고부, 무장이었으며 전북일대 여러 지방의 농민들이 참여했다.

56) 흥덕민란(興德民亂)과 영학당(英學黨)에 대해 다음 연구가 있다. 김도형, 1983, 「대한제국의 개혁사업과 농민층동향」, 『한국사연구』 41, 한국사연구회; 오세창, 1988, 「영학당 연구」, 『계촌민병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서울 : 계촌 민병학교수 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이영호, 1991, 「대한제국시기 영학당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영호, 2020,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제4장, 영학당의 결성과 기독교, 푸른역사, 134~177쪽.

57) “대개 근일 수령 및 여사 시찰이 탐학함이 날로 더하였다. 또한 고부 등지에서는 균전사 김창석이 민전을 빼앗아 명례궁에 속하게 하니 여러 민들이 호소하였으나 궁내부 대신 이재순이 민의 소를 들어주지 않고 억압하여 민전을 빼앗았으니 이러한 소란이 있게 된 것이다”(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상), 광무 3년(1899년) 6월 13일, 24일조).

2. 고부지역 만석보의 설치와 보세의 부담 가중

1890년대 고부군의 최대 부세 문제는 만석보의 신보 설치와 과중한 수세 수탈이었다. 앞서 만석보의 수세 문제가 폐정 중 7조목 중의 하나라는 것을 언급하였지만, 정작 최근까지도 만석보의 위치와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973년에 만석보 유지비를 세운 이래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정확한 위치 비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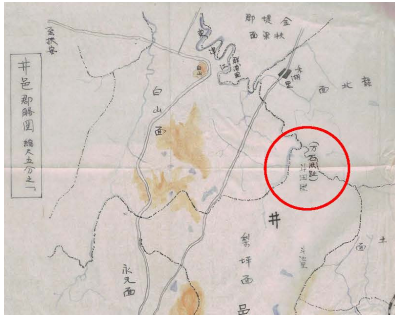
그런데 1934년 10월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전라북도 일원에 대한 사료조사 활동에 착수한 바 있었다. 이때 조사관으로 참여한 사람은 다가와 고조(田川孝三)과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이었다.⁵⁹⁾ 다보하시 기요시는 이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이며, 조선사편수회에서 편찬하고 있는 『조선사』의 제6편에 편찬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의 주된 관심은 1894년 동학비란(東學匪亂)의 원사료 수집과 고노(古老)들의 구술증언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이때 작성한 『사료채방복명서』에는 「정읍군약도」를 추가하면서 만석보 위치를 기록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 관련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민간에 가장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만석보(萬石淤)의 수리였다. 만석보는 고부군 담내면(畓內面) 두전리(斗田里, 지금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두리(斗里)) 동진강 남안에 설치되어 고부군 태인군이 수리에 혜택을 받았지만, 그 수세가 매우 가혹하여 지방민이 여러차례 경감해 줄 것을 청원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만석보가 파손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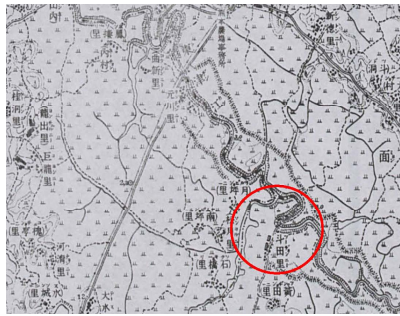
58)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관, 정읍시 주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2023.11.3.) 발표문 주제발표 2 <전라북도 기념물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 검토>(홍성덕), 주제발표 3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조광환) 등 발표문 참조.

59) 『충청남·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국편 B17B 100, 1934년 10월 18일~10월 27일), 참조.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보(舊湫)의 아래 신보(新湫)를 축설하였다. 그 역을 담당하여 부역을 징수하고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새 보가 완성되자마자 고부군민으로부터 상답(上畝) 1두락당 2두(斗), 하답(下畝)은 1두락당 1두의 비율로 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그 총액 700여석을 사사로이했다.⁶⁰⁾



〈그림 3〉 만석보 지(趾) 위치도
(두전리 맞은편)
(『충청남·전라남북도사료채방북명서』
15쪽 지도)



〈그림 4〉 〈전라북도 김제 지형도〉
(1917년 제작, 1921년 수정,
1924년 발행)

이러한 다보하시 기요시의 만석보 보세에 관한 서술은 1934년 고부담사로 인하여 얻은 것이었다. 이는 전봉준 공초의 진술 기록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통하여 만석보 신보의 위치를 지리적으로도 고증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⁶¹⁾

60) 『전봉준공초』, 『전라도동학비란조사보고』 ; 이 본문은 원래 『東學變亂의研究』(田保橋 潔, 출판년 미상) 34쪽에 있다. 또한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제23장, '동학변란', 제67절 '갑오동학변란'에도 수록되어 있다(『近代日鮮關係의研究』 조선총독부 중추원, 1940, 원문, 244쪽, (김중학 번역, 2016, 일조각, 231쪽) 참조.

61) 만석보의 위치가 표시된 「정읍군약도」는 축척이 5만분의 1로 되어 있고, 토지조사사업 당시 김제의 지형도도 역시 5만분의 1지도이므로 해당 지형도에가다 유적지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전라도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담한 보세의 부담정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부지역 농업생산성과 지대 수취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조선왕조국가에서 작성한 농업생산성에 대한 통계는 거의 없으므로 이후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각종 토지 관련 문서를 통해서 역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통감부 임시재산정리국은 조선말기 국유지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전국의 각군 단위의 농업통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이 작성한 『토지조사참고서』에는 고부지방과 이웃한 김제, 태인 등 지역의 벼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⁶²⁾

〈표 6〉 전라북도 3개 지역(고부, 김제, 태인) 100평당 농지상황표(1909)

구분 지역	매매가격(답)			임대가격(답)			수확고(현미)			비고 (단위)
	최고	중위	최저	최고	중위	최저	최상	중위	최저	
고부	20.00	10.00	5.00	3.40	2.55	1.70	750	520	340	매매가격 : 원, 석두승홉
김제	9.00	6.00	4.00	1.00	0.85	0.71	500	333	250	
태인	13.00	10.00	7.00	0.69	0.48	0.37	393	224	146	
전북평균	15.96	8.78	4.53	3.21	2.11	1.13	570	402	262	

해당 지역의 농지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미 백평당 수확은 전라북도의 경우 백평당 4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매매가격은 15.95원으로 1석당 8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고부의 경우 1두락을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답의 매매가격은 최고의 경우 40원, 중위 20원, 최저 10원 등 토질에 따라 4배의 차이가 났다. 고부 지역의 토지의 등

62) 이 표는 1909년 임시재산정리국이 토지 100평당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토지 100평당 매매가격은 최근 사례에 의하여 조사하였고, 임대가격은 실제 지불된 곡물의 지불 당시 평균 곡가로 환산한 것으로 토지의 공과와 수선비는 지주 부담으로 하는 방식이었고, 수확고는 조사 당시에 가장 가까운 5개년 동안의 평균을 계상했다고 한다(대한지적공사, 2005, 『한국지적백년사』(자료편 II : 토지조사참고서 외), 187~230쪽, 참조).

급은 주변 태인과 김제보다 월등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00평당 임대 가격은 고부는 김제에 비해 최고 등급의 토지에는 3.4배, 최저의 경우에도 2.4배에 이르렀다. 또한 수확고도 역시 고부 지역의 최상위토지가 7두 5승으로 전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1.5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부지역 수확고,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일대의 평균치보다 공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고부지역 1두락당 수확고는 최고 토지에서는 15두, 최하의 경우에는 6.8두 정도로 편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4년에 제출된 <동진강 수리조합 설립 계획서>에 의하면, 동진강 수리조합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이후 고부 일대 토지수확량의 비교를 찾아볼 수 있다.

〈표 7〉 동진강 수리시설 관내 지역 토지 수확량 비교표(1914)

토지 등차	구역	면적 (정보)	반당벼 수확량	단가 (엔)	가액	반당벼 수확량 증가	가액	시행전과 비교
1등답	고부군 답내면, 태인군 용산면	850	1석 360	5.50	63,580.00	2석	93,500.00	4.7강
2등답	김제군 부량면	550	1석 80	5.50	32,670.00	1.4석	204,050.00	7.8강
3등답	기타 지역	2,100	710	5.50	82,005.00			
			평균 926	5.50	178,255.00	1.571석	294,550.00	6.7강

동진 수리조합 관련 몽리구역의 경우, 반당 인(粃) 수확량은 해당 지역의 일본인 농장에서 수확한 5년간의 평균 수확량을 통계한 것이다. 1등답은 우기(雨期) 전에 용수는 자못 족하였지만, 우기후 보결궤를 하여 용수에 곤란함이 많았으며, 또한 다소 수해를 입고 있었다. 2등답의

경우에는 동춘(冬春)기간에 약간의 저수를 하여 식부 용수에 곤란한 해가 많고 수해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고, 3등답의 경우에는 용수(用水)하여도 수해를 많이 입었다.⁶³⁾

그렇지만 동진 수리조합측에서는 용수를 조절하는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는 농작물의 경작 조건이 크게 향상되리라 전망하였다. 고부 답내면 지역의 경우 단보당 1석 3.6두로서 1두락으로 환산하면 12.4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토지조사참고서』의 중위답(10.4두)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김제의 2등답과 기타 지역의 3등답의 경우에는 고부 지역에 비해 각각 79.4%와 52.2% 등의 낮은 수확량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1894년 고부군 만석보의 보세 문제는 앞서 전봉준이 언급한 것과 같이, 민보아래 별도의 보를 쌓고 상답은 1두락에 2두의 세를 거두고 하답은 1두의 세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고부민의 부세징수가 어느 정도 부당하고 과중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보세의 수납 대상과 관련해서 이들 농지의 비중과 수확량과의 대비는 쉽게 측정하기 어렵다.⁶⁴⁾ 다만 만석보의 위치와 몽리지역은 아마도 고부군 답내면과 그 주변 면으로 추정된다.⁶⁵⁾ 고부군 군민의 보세의 부담은 1850년대에 비해서 2배나 올라 두락당 2두에 이르기까지 추

63) 국가기록원, 『동진강 수리조합 설립 계획서』(1914) 국가기록원, MF 90-0741, 0412-0422;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농업』, 한길사, 381~387쪽, 참조.

64) 고부군 지역의 상답을 1893년 수조안에서 지적되었듯이 하지중 이상 답을 상답(上畓)으로 하고, 그 아래 하지하의 답이라고 볼 때, 상답의 비중은 실기답 40.8%와 그 외 59.2%로 추정할 수 있다. 또 기로소 둔답의 두락수와 결부를 연관하여 산정하면 대락 결당 14두락으로 추정되므로, 고부군 보세 대상은 대개 7,800두락으로 추정되며, 고부군 전체 답 면적의 10% 전후로 추정된다(『고부군 수조안』(1893년) 및 『기로소둔전개량안』(1895년) 설명 부분 참조).

65) 고부군 만석보의 위치와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홍성덕의 발표문(「전라북도 기념물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 검토」,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2023.11.3.), 48~49쪽 참조.

가로 부담한다면, 고부 지역 면민에게는 커다란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고부지역과 이웃한 여러 지역 명례궁 장토의 도조액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장현 명례궁 장토에서는 1889년부터 1891년까지 소작료 수취가 두락당 6.3두 정도였으며, 흥덕현 명례궁 장토의 경우에도 1895년 대개 5~6두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⁶⁶⁾ 만일 고부지역에서는 만석보의 보세가 두락당 1~2두로 추가로 부과되었다면, 일반 민전에서 6두이상의 소작료 부담이외의 보세(漕稅)를 추가 부담해야 하였으므로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소 자영 농민보다는 소작농·빈농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현실로 인하여 고부농민들과 이웃한 지역의 농민들은 전라도 일대에서 부당한 보세의 수탈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지방 민들이 가장 크게 제기하였던 부세 수탈의 시정 요구 중에서 진답의 도조 징수와 만석보의 보세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고부 봉기에 대한 1894년 4월 24일 안핵사 이용태의 의정부 보고서, 전라감영의 4월 장계, 그리고 전봉준의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만석보의 보세에 관한 증언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당시 고부지역 만석보의 부세 부과와 징수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고부군 지역 제언과 보의 설치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호남지방에는 “땅에 수전이 많고 관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부 지

66) 왕현중, 2016,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제3장, 19세기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혜안, 155~166쪽.

역에는 18세기까지 조촌제를 비롯하여 답내제까지 모두 23개 제언이 있었으며, 조선후기 내내 일정 규모로 관리되어 벼농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 1852년 좌의정 이현구의 보고와 같이, 각도의 제언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1857년 전라우도 암행어사 성이호의 보고서에도 궁방과 내수사 등 축보, 방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보세를 사사로이 징수하면서 매두락 많으면 1두에 이르고 적어도 8승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19세기 중반 호남지방에서 보세에 관한 폐단을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고부 지방의 경제적 변화는 주로 개항 이후 미곡유통의 확대와 대전남 경향의 증대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에 각종 부세와 부가세 등이 첨가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다. 1878년 전라어사 어윤중의 장계에서는 고부 전군수 이수은의 비리와 각종 부세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폐단의 원인은 당시 고부지역의 전결세 부과와 부세 수탈 운영에 있었다. 1893년과 1894년 고부군 수조안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갑오조세개혁 이전에는 원장부와 면부세질, 면세출부질 등으로 관리되었으나 각종 조세감면 조치 이후에 실전답결로 약 5,167결여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원장부결총의 58.6%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여기에 조세 부과이외에 각종 부가세, 보세 등이 첨부되어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였다던 것이다.

다음으로 고부 지역 농업 문제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 전라도 일대 주기적인 흉년의 발생과 이로 인한 진전의 확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888년 무자의 흉작이 크게 영향을 미쳐 진전 개간과 관련하여 고부 흥덕 일대의 명례궁 장토가 설치되었다. 이어 1891년 전주, 김제 등 7개읍에 대한 ‘균전수도(均田收賂)’라는 명목하에 대규모 개간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진전의 수세와 관련하여 궁방과 지주, 농민 간의 대립은 이 시기에 최고조로 달했다. 이로써 농민들은 가혹한 봉건부세의 폐지, 전결부담의 경감, 균전과 균전관의 폐지, 만석보, 팔왕보의 수세(水稅)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는 1차 농민전쟁 시기에 동학 농민군에 제기한 폐정개혁안의 주요한 주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894년 9월 전라감사 김학진은 균전의 백지징세에 대하여 민전 혼탈입지를 조사하여 지적하지 않고 단지 수조(收租)의 폐단을 개선하는 미봉책에 그쳤다.

고부지역 만석보의 설치는 기존 동진강의 물길 위에 설치되었던 광산보와 용산보 이외에 하류에 별도로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일제하 새로운 조사자료의 발굴을 통하여 이제 만석보의 위치와 범위를 비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세기초 전라북도 고부, 김제, 태인 등지의 농업생산력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부지역의 농지상태를 검토하였다. 고부지역의 높은 수확고와 토지매매가격은 당시 수리 운영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가 크게 났으므로 고부지역 수리시설의 확충이 관건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수리시설의 문제는 1857년 전라우도 암행어사 성이호의 별단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보와 제언에 대한 공적 관리보다는 왕실과 세력가에 의한 사적 보세의 부과로 나타났으며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 1894년 시기 전주 등 7개군의 균전수도와 백지징세와 보 제언의 수축과 관리가 도리어 농민부담으로 전가되었으므로 고부 농민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만석보는 고부 농민들에게는 새로 설치된 신보를 파괴할 정도로 원한의 상징물이었다. 당시 조선정부와 지방관들은 전라도 고부 일대 부세와 균전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1894년 이후에도 고부 농민들은 폐정 개혁요구를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5.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 「도량조사표」(한국정부 재정고문본부, 『재무주보』 39호 부록, 1908).
- 1897, 『전라도각읍계사조수조실결마련책』(규 17933), 2책.
- 『각도군각곡시기표(各道郡各穀時價表)』(규 21043) 2책, 명례궁봉하책(明禮宮捧下冊) ②].
(규 19075) 16책.
-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
- 『고부군면 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 장관, 1913년).
- 『고부군소재기로서둔전답개양안』(규 20137), 건양 1년(1896), 1책.
- 『고부군읍지』(奎17407) 1권.
- 『고부군지도』(규 10496, 참조).
- 『고종실록』.
- 『공문편안』 제4책, 「완영장계(完營狀啓)」(갑오 9월 17일).
- 『나주부흥양군도양목장전답두락결수급시작성명병록성책(羅州府興陽郡道陽牧場田畝斗落結數及時作姓名並錄成冊)』(규 20137) 중 「고부군소재기로서둔전답개양안(古阜郡所在耆老所屯田畝改量案)」.
- 『내장원각부부래첩(內藏院各部府來牒)』 ⑦].
- 『만기요람』 5권.
- 『명례궁속부흥덕현소재 진기섭(陳基燮)답토개록양안』(규 18224) 2책.
- 『비변사등록』.
- 『속음청사(續陰晴史)』 (상).
- 『승정원일기』.
- 『암행어사고부군부세리정절목』(古大 5127-7).
- 『역둔토 및 목장이외 국유 각지종(各地種) 조사』 1. 제언답, 증추원 조사자료.
- 『왕복서류철(往復書類綴)』(규 20610), 「전라북도고부군명폐합일람표」.
- 『일성록』.
- 『임원경제지』 예규지(倪圭志) 3.
- 『전(前)전라도각읍감오조수조실결마련책』 규17934 v.1.
- 『전라북도 통계연보』(전라북도, 1914년).
- 『전봉준공초(開國五百四年二月初九日東徒罪人全瑋準初招問目)』 1895년 2월 9일.
- 『종정년표(從政年表)』 권2.
- 『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全羅古阜民擾 日記 寫本 送付](巴溪生, 1894년).
- 『증보문헌비고』.

『통상휘찬』 17호(1994).
『호남지도』(규 12155-1).

<단행본>

- 김용섭, 2001, 『한국근대농업사연구』 3(전환기의 농민운동), 지식산업사.
왕현종, 2016,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해안.
이영호, 2020,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최기성, 2006, 『동학농민혁명운동연구』, 서경문화사.
한우근, 1979, 『東學亂 起因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총서 7:(한우근 전집 8, 한국학술정보, 2001, 재수록).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농업』, 한길사.
田保橋 潔, 1930, 『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경성제국대학.
_____,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조선총독부 중추원, 1940:(일조각, 김종학 번역본, 2016).
田川孝三·田保橋 潔, 1934,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논문>

- 김도형, 1983, 「대한제국의 개혁사업과 농민층동향」, 『한국사연구』 41, 한국사연구회, 99~134쪽.
김용섭, 1958, 「성격문제를 中心으로」, 『역사교육』 3, 역사교육연구회, 292~301쪽.
_____, 1958, 「全株準 供草의 分析-東學亂의 性格 一斑-」, 『사학연구』 2, 한국사학회, 1~49쪽.
_____, 1968, 「高宗朝의 均田收賂問題」, 『동아연구』 8,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61~120쪽.
_____, 1992, 「古阜郡聲浦面量案」의 분석: 1719년 古阜民의 農地所有, 『동방학지』 76, 연세대 국학연구원, 75~101쪽.
_____, 2001, 「고부민란의 사회경제사정과 지적환경 - 동학란. 농민전쟁의 배경 이해와 관련하여」, 『한국근대농업사연구 3 -전환기의 농민운동-』, 지식산업사.
박명규, 1994, 「19세기 말 고부지방 농민층의 존재형태」,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59~86쪽.
소순열, 1996, 「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研究-全羅北道」, 京都大 博士學位論文, 1994(國譯:

- 『근대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오세창, 1988, 「영학당연구」, 『계촌민병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계촌 민병학교수 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 왕현종, 1991,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 윤원호, 1994, 「19世紀 古阜의 社會經濟」,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27~58쪽.
- 이민우, 2009, 「19세기 수리시설의 사점과 수세 갈등」, 『한국사론』 5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59~121쪽.
- 이영호, 1991, 「대한제국시기 영학당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36쪽.
- 이헌창, 1985, 「한국 개항장의 상품유통과 시장권-한국 개항기에서의 시장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일차적 요인-」, 『경제사학』 9, 경제사학회, 119~294쪽.
- 정승진, 2008, 「일제시대 釜盆水利組合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농촌경제』 3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9~102쪽.
- _____, 2009, 「한말 일제초 전통 堤堰契의 근대적 수리조합으로의 전환-만경강 하류 沃溝西部 水利組合의 사례분석」, 『전북사학』 34, 전북사학회, 105~144쪽.
- 정창렬, 1982, 「한말 변혁운동의 정치 경제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 1, 창작과비평사.
- 최기성, 1994, 「19세기 후반 古阜의 弊政實態」,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87~106쪽.
- 최원규, 1992, 「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 39, 국사편찬위원회.
- 허수열, 2012, 「일제강점기 하천개수의 식민지적 성격-만경강개수를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51-2, 대한민국학술원.
- 吉野誠, 1975, 「조선국개국후 곡물수출에 대하여(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2.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Water Facilities in
the Gobu Area and the Collection of Manseokbo
Water Tax in the Late 19th Century

Wang Hyeon Jong*

We examined how the collection of taxes at Jindap's dojo and the bonded tax issues at Manseokbo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concerns of wealth expropriation by the people of the Gobu region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Initially, we scrutinized the Uijeongbu report by Anhaeksa Lee Yong-tae on April 24, 1894, the April report from Jeolla Gamyong, and Manseokbo's testimony regarding bondage raised during the trial of Jeon Bong-jun. Subsequently, we investigated the Gobu-gun region proposal and the situation regarding weir installations. In the Honam region, it was reported that "there are numerous water reservoirs in the land, and efforts are being made for irrigation." In the Gobu region, there were a total of 23 proposals from the Jochon system to the Dapnae system until the 18th century, as highlighted in the 1852 and 1857 reports by the secret royal inspector of Jeolla Province. The palace and Naesusa were noted to have caused a commotion and privately collected bonded taxes, with the maximum number of maedurak reaching 1 du and never dropping below 8 seung at least.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port, tax issues in Gobu intensified due

* Professor of History&Culture at Yonsei Univ.

to the expansion of rice distribution and the increasing tendency to pay in large sums. Similar to the Janggye of Jeollaeosa Eo Yun-jung in 1878, numerous problems arose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deposit taxes and wealth expropriation in the Gobu region. Through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Gobu-gun water tank plans of 1893 and 1894, it was confirmed that, in addition to taxes, various value-added taxes and bonded taxes were also imposed.

To ascertain the true extent of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of the Gobu region during that period,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ansion of poverty resulting from poor harvests and the *dojo*. Following a poor harvest in 1888, the Myeongnyegung burial ground was established in the Gobu Heungdeok area. Subsequently, in 1891, a large-scale land reclamation initiative known as 'Gyunjeonsudo (均田收賭)' was undertaken in seven towns, including Jeonju and Gimje. Consequently, during the First Peasant War, the Donghak peasant army advocated for reforms such as the abolition of harsh feudal taxes, reduction of deposit burdens, abolition of Gyunjeon and Gyeonjeon-gwan, and addressing water tax issues for Manseokbo and Palwangbo. However, in September 1894, Kim Hak-jin, the Jeolla governor, failed to investigate and rectify the mixed position of the people's *jeon* regarding the blank tax collection of the Gyunjeon. Instead, he merely implemented temporary measures to mitigate the injustices of the *sujo* (收租).

Furthermore, in the Gobu area, besides Gwangsanbo and Yongsanbo, which were installed along the existing Dongjin River waterway, Manseok Weir was separately installed downstream. According to agricultural statistics from 1909, the sale price of rice paddies and land yields in the Gobu area exceeded those in surrounding area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sparity in productivity due to the expansion of hydraulic facilities. As evidenced in the 1857 report, the issues of bonding and proposals escalated due to the destruction of dams and weirs in Jeonju, Gimje, Iksan, Mangyeong, Impi, and Okgu. This was

attributed to the perception of it being a private imposition of bonded taxes by the royal family and influential families rather than public management of bonds and proposals.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the uprising of Gobu farmers resulted in the implementation of uniform capital and blank land taxes in seven counties, including Jeonju. Additionally, the reconstruction of Shinbo under Manseokbo imposed an excessive burden on all Gobu farmers. Subsequently, the Joseon government and local officials were unable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of property tax and water management in the Gobu area of Jeolla-do. Therefore, even after 1894, Gobu farmers had no choice but to continue demanding reform and abolition of the government's policies.

Key word : Gobu Peasant uprising, Manseokbo, Taxes on the levee, Royal Lands, Gyunjeonsudo (均田收賭)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조광환**

〈목 차〉

머리말

I. 만석보의 개요 및 관련사료 검토

II. 조선 후기 만석보의 변천과정

III. 일제강점기의 만석보

IV. 만석보 유적지의 기념사업

V. 만석보 유적지의 향후 정비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후기 고부농민봉기의 발단이 된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수리시설인 만석보(萬石湫)는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첫 도화선을 당긴 시설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은 기존의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新湫)인 만석보를 축조한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쌓게 하고, 가을에 수세를 받아 700여 섬을 착복하는 등 온갖 탐학한 행동을 다하였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894년 1월 10일, 마침내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한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였고 다음날 수탈의 상징이자 원성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1897년 11월에 새로 부임한 고부 군수 안길수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만석보를 1898년 9월에 철거하였다. 그러나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다시 보를 보수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용산보라 칭하였고 실제로 그 보를 중요 수원으로 활용했다.

해방 이후 만석보가 있던 이 역사적 장소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1973년에 건립한 '만석보유지비'와 1987에 세운 '만석보유지정화기념비'가 세워져있다. 맞은편에는 1999년에 세운 양성우의 '만석보' 시비(詩碑)가 있다.

현재 만석보유지비에서 서쪽 백산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제방 길을 따라가면 정읍시에서 2000년 5월 11일에 건립한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다.

이곳이 아홉 번째 막은 보가 있었던 자리라는 촌로들의 고증과 일치하는 관련사료인 「全羅道古阜民亂始初」에서 언급한 구막보(九幕湫)가 바로 아홉막이보를 의미하므로 만석보의 자리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있는 만석보의 위치는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는 자리보다는 현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는 자리가 더 유력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주제어 : 만석보, 고부, 조병갑,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만석보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동진강에 합류하는 곳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라는 표석만이 남아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수탈을 목적으로 축조하였기에 원한의 대상이 된 만석보는 고부농민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완전 훼파되지 않고 일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흔적을 1898년 9월에 철거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보를 보수하여 용산보라 칭하고 인근 경작지의 중요 수원으로 활용했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후 1973년 5월 11일에 갑오동학기념사업회(甲午東學記念事業會)에서 정읍군에 건의하여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가 현 위치에 세워졌다.

그러나 만석보의 위치에 대한 논란은 만석보유지비 건립 당시부터 거론되었으며 이후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유적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논란이 되는 거듭되는 이유는 몇 안 되는 관련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이를 분석한 연구자들의 견해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만석보에 대한 사료인 『전봉준 공초』, 최영년의 『동도문변(東徒問辨)』,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 장봉선의 『全琿準實記』등을 검토하고, 김상기의 『東學과 東學亂』,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 정창렬의 『古阜民亂의 研究』등 연구자들의 견해와 현지인들의 증언 등을 살펴보고 만석보의 실재와 위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만석보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화재 지정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하여, 이를 통해 향후 만석보 유적지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I. 만석보의 개요 및 관련사료 검토

1. 만석보의 개요

만석보(萬石湫)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있는 수리시설로서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의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고부 지역 농민

들은 정읍천과 태인천 상류에 보(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독을 쌓고 냇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를 막아 이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에도 풍년이 들었다 하여 만석보 또는 예동 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예동보(禮洞湫), 또는 광산보(光山湫)라 불렀다.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은 수탈의 목적으로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하류지점에 새로 신보를 축조하였는데 이를 통상 만석보라고 칭하였다. 조병갑은 축조과정에서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주인이 있는 산에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다가 사용했다.

계다가 보를 쌓은 첫해에는 수세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두락(一斗落)에 상답(上畓)은 두말(二斗), 하답은 한말(一斗) 씩을 받아 총 7백여 석을 횡령 착복하였다. 또 군민에게 황무지를 개간시키고 강제로 세미(稅米)를 징수하여 사복을 채웠다.

1893년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흉년이 들자 40여 명의 농민들은 고부관아로 몰려가 만석보 수세(水稅) 감면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쫓겨났다. 1893년 12월에 60여 명의 농민들이 다시 고부관아로 몰려가 만석보 수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사발통문 거사계획은 곧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그 이유는 고부군 농민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던 군수 조병갑이 1893년 11월 30일자로 익산 군수로 발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893년 11월 30일에 고부 군수로 새로 임명된 이근용(李根鏞)이 부임을 미루다가 12월 24일 다시 황해도 안악군수로 전임 발령되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신좌묵(申佐默)이 고부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다음 날인 12월 25일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고, 12월 26일에 이규백(李圭白)이 고부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역시 병을 핑계로 12월 26일 사직하고 말았다. 이날 이후 하금일(河肯一)·박희성(朴喜聖)·강인철(姜寅喆) 등이 차례로 고부 군수에 임명되었지만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이처럼 12월 한 달 사이에 고부 군수로 5명이 임명되었으나 모두 핑계를 대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관찰사 김문현이 조병갑을 고부 군수로 천거하자 조병갑은 1894년 1월 9일자로 다시 고부 군수로 임명되었다. 1894년 1월 10일, 마침내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한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였고 다음날 수탈의 상징이자 원성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만석보가 있던 이 역사적 장소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1973년에 건립한 ‘만석보유지비’와 1987에 세운 ‘만석보유지정화기념비’가 있다. 맞은편에는 1999년에 세운 양성우의 ‘만석보’ 시비(詩碑)가 있다.

2019년에 만석대교와 신태인대교 사이에는 흙을 쌓아 만든 만석보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로를 따라 언덕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만석보 쉼터에서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와 만석보가 있던 동진강 상류 물줄기, 저 멀리 두승산과 천태산의 산줄기, 그리고 주변에 드넓게 펼쳐진 배들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 만석보 관련 사료 및 연구기록 검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만석보 위치 고증 및 재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 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회의’(이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 검토내용과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검토 내용

- 사료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음
- 당시 보가 하나였는지 두 개였는지 기록마다 차이가 있음
 - 보가 하나인 경우 : 동도문변(명례궁보), 전봉준실기(만석보 개축), 김상기(만석보 개축)

- 보가 두개인 경우 : 동학사(만석보와 팔왕보), 최현식(만석보와 만석보신보), 정창렬(만석보와 새로 쌓은 독)

□ 검토 의견

-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르므로,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문화재 지정 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그러나 이 자료에서 인용한 사료와 연구기록들을 검토해보면 ‘회의’에서 내린 검토내용이나 검토의견과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전라감사 김문현의 군사마(軍司馬)인 최영년(崔永年)이 저술한 『동도문변(東徒問辨)』¹⁾ 「고부기요변(古阜起擾辨)」에는 “갑오정월십일일, 음면수백이 明禮宮湫에 수세한 일로 모두 모여 연달아 소송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여 만석보를 명례궁보로 보아 명례궁보의 수세문제가 고부농민봉기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만석보의 존재나 개수를 파악할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직접 참여한 오지영이 1920년대 후반에 작성한 『동학사』 초고본과 1940년에 간행한 간행본 『동학사(東學史)』²⁾에서 “古阜民亂事件에 收稅米濫捧件이라고 하는 것은 古阜北面에 있는 萬石湫와 八王湫를 백성의 賦夫로서 防築을 하게하고 그 湫收稅는 畚每斗落에 租三斗式이라는 세를 거두어 고부군수 조병갑이 가져 私腹을 채우려 한 것이오.”라고 하여 만석보와 팔왕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동도문변」,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0쪽.

2) 오지영, 1940, 『東學史』, 永昌書館.

1936년에 간행되어 당시의 일을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장봉선은 『全琿準實記』에서 “郡內 배들坪(梨坪平野)은 有名한 平野로 泰仁, 井邑, 古阜三郡의 溪流가 中央으로 貫流하여 地元農民이 其上流에 築淤하고 灌溉에 引用함으로 此 平野는 旱水災가 無別한 關係上 淤名을 萬石淤라 하였다. 無義한 趙秉甲은 이 名目, 저 名目으로 民財를 膏取하고 例에 없는 淤稅라 名稱하여 農民 一戶當 五斗乃至十斗의 穀物을 抑徵다가 그 것도 不足던지 自費로 萬石淤(從前의 四五倍以上)를 改築貯水하니 水로 因하여 被害 甚多함은 물론이오 收稅라 稱하며, 淤內, 淤下를 不問하고 灌不漑 與否없이 每斗落 最高 五六斗 最下 二三斗의 穀物을 搾取하여 禮洞, 斗田, 白山 三處에 數千石式積置하였으므로 民怨이 滿天하였으니 時는 거금 四十三年 前 癸巳冬이었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 글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고부지역 농민들이 강의 상류에 보를 쌓았고 그 보의 이름은 만석보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병갑은 이 만석보에서 보세를 징수하다가 더 욕심이 나 자신이 비용을 들여 종전의 보를 4~5배 이상의 크기로 개축하여 수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상기는 『東學과 東學亂』³⁾에서 “그리하여 계사년 봄에 東津江 上流에 있는 萬石淤가 파괴되었음을 기회로 인부 수만을 징방하여 개수공사를 시키고 그해 가을에 이르러 蒙利畚 每斗落에 收稅로 평균 세말 가량 썩을 強徵하였다.”라고 하여 원래 있었던 보인 만석보가 1893년 봄에 파괴되자 고부 농민들을 동원하여 개수공사를 시키고 수세를 강제 징수했다는 것이다.

최현식은 『갑오동학혁명사』⁴⁾에서 “배들평 농민들이 정읍천의 하류에 보를 막고 물을 대어 농사를 지어왔으니 부근의 동명(洞名)을 따서 예동보(禮洞淤)라 하였다. 또 흑심한 가뭄에도 배들평만은 매년 풍년농

3) 김상기, 1947, 『東學과 東學亂』, 대성출판사.

4) 최현식, 1980, 『甲午東學革命史』, 신아출판사, 30쪽.

사를 지어왔음으로 일명(一名) 만석보(萬石湫)로 불리웠다. 그런데 조병갑은 고부군수로 부임하여 그해 겨울 만석보의 아래에(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보(湫)를 높이 새로 막는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여 예동보를 일명 만석보라 하였으며 배들평 농민들이 정읍천 하류에 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병갑이 새로 막은 신보는 그 위치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하였다.

최현식은 이어 “그리고 날이 밝아서 한 부대는 마항시장으로 나와 배들농민들의 원성의 표적이 된 萬石湫의 신보를 허물고 예동(禮洞) 두전(斗田)에 쌓아 놓은 보세미를 농민들에 돌려주었다.”⁵⁾라고 하였다. 이는 만석보와 만석보 신보가 있었는데, 고부봉기과정에서 신보를 허물었다는 것이다.

김용덕은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瑋準』⁶⁾에서 “동학혁명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조병갑의 탐학 중에서도 만석보(萬石湫)수세(水稅)문제였다. 배들평야에서는 태인(泰仁)·정읍·고부 三군의 계류(溪流)가 중앙을 흐르고 있어 농민들이 상류에 축보(築湫)하여 이를 관개(灌漑)에 이용하므로 이 평야에는 한수해(旱水害)가 별로 없는 옥답(沃畝)이라 보명(湫名)을 만석보라 하였다. 조병갑은 자비로 종전의 五배 가량으로 만석보를 개축하고는”라고 하여 대체로 장도빈의 기록과 유사하다.

정창렬은 『古阜民亂의 研究』⁷⁾에서 “수세로 거두어 들인 양곡 1,400여 석을 몰수하고 진전에서 거둔 곡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萬石湫 밑에 새로 쌓은 독을 허물었다.”라고 하여 만석보가 있었고 그 밑에 새로 쌓은 독이 있었는데 고부농민봉기 당시 새로 쌓은 독을 허물었다고 기록하였다.

이상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오지영과 최현식, 정창렬 등은 보를 두 개

5) 최현식, 위의 책, 45쪽.

6) 김용덕, 1973,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瑋準』, 同學出版社, 110쪽.

7) 정창렬, 1985,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연구회.

로 보았으며 장봉선과 김상기, 김용덕은 기존의 만석보가 있었으나 이를 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의에서는 검토의견으로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르므로”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토사료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사료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 사료에서 빠진 사료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인 전봉준이 남긴 1차 사료로 평가되는 ‘전봉준공초’이다.

전봉준은 공초⁸⁾에서 “민보(民湫) 아래에 보(淤)를 쌓고 녹정(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전봉준이 말하는 민보는 광산보를 의미하며 그 민보 아래에 보를 조병갑이 쌓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가 두 개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II. 조선 후기 만석보의 변천과정

1. 구보(舊淤)의 축조

전봉준이 말한 민보(民湫)인 광산보(光山湫)는 일명 예동보. 또는 만석보라 불렸는데 내장산에서 발원한 정읍천과 초강천이 만나는 지점에 축조되었으며 취수구는 이평면 팔선리 석정마을 부근이다.

조선 숙종 때 고부군 답내면 송산(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살던 현곡(玄谷) 김명(金溟)이 쌓았다고 전한다. 김명은 영상 유척기(兪拓基)의 천거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6쪽.

로 산림직(山林職)인 자의(諮義: 三司에 속하는 중앙관직으로 정사품) 벼슬에 나갔으나 1721년(경종 1)에 물러나와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김명은 스스로 호를 지어 현곡거사라 하였는데 이는 심오한 도리를 취한다는 뜻이었고, 사는 집은 만은당(晩隱堂)이라 하였으니, 일찍 관직에서 물러나지 못함을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다. 김명은 배들(梨坪)의 관개(灌溉)를 위하여 모천(茅川, 정읍천)에 광산보를 쌓았다.⁹⁾

광산보 축조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군수 김우현 흠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에 새겨진 비문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소재지에서 신태인 방면으로 지방도를 따라가면 우측에 예동 마을 입구가 나오는데 진입로 광장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비각(碑閣)이 있다.

비각 안에는 2기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 좌측에 있는 비가 ‘군수 김우현 흠민선정비’이다. 이 비는 1862년(철종 13) 5월에 건립한 비로, 비문은 서한풍이 짓고, 글씨는 유명원이 썼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의 동쪽 이십리 쯤을 이평이라 하는데, 이평은 곧 세 고을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다. 농토는 비록 비옥하지만, 물이 늘 고였다가 다시 흘러간다. 침수의 피해가 많은 곳이다. 지난 무술년 만은(晩隱) 김공(金公)이 지암(止菴) 권공(權公), 동리(同里) 이공(李公)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淤)를 쌓고 둑을 높여 물을 흐르게 했다. 둑 때문에 홍수를 피하고, 보 때문에 가뭄을 피하게 되어, 농민들은 즐겁게 경작하고 해마다 곡식이 잘 여물게 되었다.<이하 생략>¹⁰⁾

김명은 정읍시 이평면 연화동에서 1663년에 태어나 1739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위의 비문에서 언급된 무술년은 1718년을 의미하니 광산보는 이때 시축(始築)된 것으로 보인다.

9) 이평면지편찬위원회, 2022, 『梨坪面百年史』, 100쪽.

10) 위의 책, 184쪽.



〈도 1〉 만석보 심터에서 바라본 정읍천



〈도 2〉 광산보터(정읍시 이평면)



〈도 3〉 김명묘비(정읍시 이평면 팔선리에 제방을 쌓았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2. 신보(新湫)의 축조

조병갑은 1892년(고종 29년) 1892년 4월 28일에 고부군수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수탈에 나섰다. 조병갑은 기존의 광산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다시 신보(新湫)를 막아 수세를 거둬들였는데 이 신보를 만석보라 하였다. 만석보 수세 문제에 관련하여 1894년 4월에 전라감영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고부민란의 시작점[全羅道古阜民亂始初]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이 국령(國令)을 칭탁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리기를, “크게 백성을 모아 구막보(九幕湫, 만석보)를 쌓아라.” 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따라 이 보를 쌓았다.

전답이 수천 석이었는데 각 마지기마다 조세 5두(斗)를 거두어 수천 석이 된 것이다. 몰래 전운사(轉運使, 조필영)와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국세(王稅)를 내는 논이라도 기경(起耕)한 지 삼년 뒤에 세포(稅布)를 바치는 법인데, 올해 보를 쌓게 하고 조세 5두를 거두어 가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온 읍(邑)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로 상소하였는데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민란이 일어난 것인데 소장의 컷머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狀頭]이 전녹두(全綠斗)이다. 이 사람은 동학도에 도통해 조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장두(狀頭)가 된 것이다.¹¹⁾

위의 보고서는 만석보 수세문제로 인하여 1894년(고종 31년, 甲午)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배들평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전봉준 또한 이에 대하여 공초¹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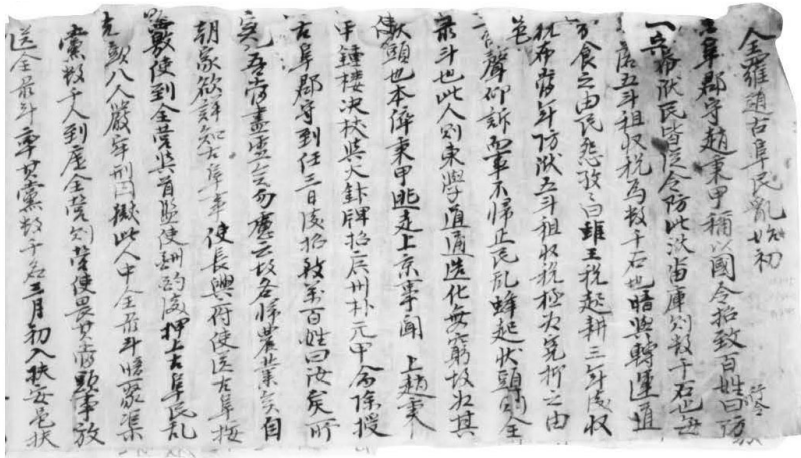
문(問) :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이 반드시 있는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概)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洩) 아래에 보(洩)를 쌓고 노력(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요, 진황지(陳荒地)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요, 하나는 부민(富民)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e-donghak.or.k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 정보 시스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6쪽.

에게 억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노력(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요, 하나는 대동미(大同米)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미(精白米)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은 추미(麤米)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 이요,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도 4〉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이와 같이 조병갑은 만석보 수세를 빌미로 1두락에 상답은 2두, 하답은 1두씩을 받아 무려 700여석을 거두어 예동·두전·백산에 등지에 쌓아 놓았다.

3. 만석보 파괴

1894년 1월 10일 밤,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인근 예동(禮洞)에 집결한 농민들이 대오를 갖추어 말목장터로 옮겨왔다.¹³⁾ 이 자리에는 사전에 통문을 받고 각 마을에서 봉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많은 농민들이 있었다. 전봉준은 집결한 군중 앞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자행한 그간의 학정과 수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맞서 함께 봉기할 것을 역설하였다.

전봉준은 연설을 마친 후 인근 대밭에서 죽창을 만들어 무장을 시킨 뒤 2개진으로 나누어 1진은 전봉준과 정익서가 인솔하여 전라도 고부군 북부면(전라북도 정읍시 영월면의 옛 지명) 운학리(雲鶴里)을 거쳐 고부군 뒷모실 방죽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2진은 김도삼이 인솔하여 전라도 고부군 담내면(番內面) 산매리(山梅里)와 도계리(道溪里)를 거쳐 뒷모실 방죽 끝에서 전봉준 부대와 합세하여 고부관아를 일시에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이미 조병갑은 도망치고 없었다. 이로써 마침내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고부농민봉기가 시작된 것이다.

고부관아를 점령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창고에 쌓인 곡식을 인근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농민들을 풀어주었다. 날이

13) 『석남역사』에는 1월 8일 장날에 말목장터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석남역사』는 박문규가 73세가 되던 1951년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국한문혼용체 필사본 문서이다. 당시 고부농민봉기와 황토현 전투 등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쓴 회고이기 때문에 날짜 등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파계생의 「전라도고부민요일기」는 줄포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수집하여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있다고 본다. 1894년 5월 31일 재부산 총영사 무로타 요시부미가 외무성 차관 하야시 타다스에게 보낸 보고서 “동학당 소요는 월래 고부군 민란에서 시작되어 일어난 것으로...정월 10일 부청습격에서 시작되었다.”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있는데 1894년 6월에 출판한 「갑오조선내란시말」 간나미 하야토,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5쪽 “음력 갑오년 정월 10일에 한 무리의 폭민이 군수의 성문에 침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부군수 조병갑은 이를 몰래 알아차리고 단신으로 도주하였다.”

「이륙신보」 1894년 6월 10일자 기사 조선의 요란을 보면 1894년 정월 10일에 동학당 500여명이 동진의 진두에 열을 이루어 봉기하여 관아의 조병갑 침소를 돌입하게 된 것으로 게재되어 있다.

「고종시대사 3집」 “지난 1월 10일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민란이 일어난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학이 심하여”라고 나와 있다.

박자 전봉준은 그동안 조병갑 밑에서 농민을 수탈했던 아전(衙前)들을 잡아 조사한 후 벌을 내렸다. 다음 날인 1월 11일 원한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부수었다. 그 날짜와 정황에 대하여 장봉선은 「全琿準實記」¹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卽 夜에 二路로 分하여 邑內로 向할제 所過處에 竹田을 달하면 竹槍을 製持하였다. 東軒을 襲擊하였으나 乘甲이 不知去處이므로 곳곳이 搜查하였으나 蹤迹이 杳然하였다. 興奮된 群衆은 乘甲의 부하 卽傲吏輩를 一一이 찾았으나 亦是 避身하였으므로 家屋만 顛覆하고 刑獄을 毀破하여 冤囚를 放送한 후 軍器庫를 激波하여 軍器를 所持하고 翌日에 馬項市場에 退屯하였다. 一方으로 萬石湫를 切斷하고 水稅로 積置한 穀物을 糧食에 充用하여 白山城의 築造를 始作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지에는 만석보 파괴 일자가 다음과 같이 잘못 소개되어 있는데 향후 정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부민들의 만석보 파괴, 백산성 축조
 난민들은 진영을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지도부는 수차례 회합하여 향후대책을 논의하였고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다.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1월 17일 말목장터로 옮겨 주둔한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백산(白山)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全琿準實記」).

4. 만석보 혁파 선정비(萬石湫 革罷 善政碑)

군수 안후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郡守 安候吉壽 萬石湫 革罷 善政碑)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예동에 있는 비석이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소재지에서 신태인 방면으로 지방도를 따라가면 우측에

14) 최현식, 1994, 「전봉준실기」,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406쪽.

예동 입구가 나온다. 입구의 예동복지회관 맞은편 광장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비각(碑閣)이 있다.

비각 안에는 2기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 우측에 있는 높이 153cm의 화강암비가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제8호인 만석보 혁파 선정비이다. 전면에 '군수 안후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 무술구월일(郡守 安候吉壽 萬石湫 革罷 善政碑 戊戌九月日)'이라 새겼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1897년 11월에 새로 부임한 고부 군수 안길수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만석보를 1898년(고종 35년) 9월에 철거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관의 수탈과 학정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이에 1898년 9월, 농민들은 '군수 안후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郡守 安候吉壽 萬石湫 革罷 善政碑)'를 세웠다. 그 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비문(碑文)이 마모되어 판독이 어렵게 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자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하여 비각(碑閣)을 세우게 되었다.



<도 5> 만석보 혁파 선정비(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예동)

Ⅲ. 일제강점기의 만석보

1. 만석보의 개축

만석보가 있었던 동진강은 최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야로 이뤄졌다. 동진강은 유로연장이 45km로 짧고 하상 경사가 완만하여 물살이 느린데다 조석으로 인하여 해수가 깊숙이 올라와 범람이 잦은 사행천이다. 밀물 때 담수의 수면이 해수에 밀려 높아지므로 이때 뚝을 터놓았다가 썰물 때 뚝을 막아 물을 가둬놓으면 쉽게 관개가 된다.

동진강의 상류이기는 하지만 하상표고가 4~5m인 감조구간 말단부에 있는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필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관개를 하였다. 방조수문(防潮水門)의 기능을 가진 보를 축조하여 하류의 해수를 차단하고 상류의 담수를 관개에 이용했다.

그러나 동진강 유역의 너른 평야는 가뭄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였으며 비가 늦으면 이앙이 늦어져 옥답의 구실을 못하였다. 상시 동진평야를 할거하고 있었던 일본인 대지주들은 매년 가물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수리관개시설의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0년에 동진북부수리조합과 동진남부수리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양자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면 모두 용산보를 개량하고 수로를 개수 정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중 동진남부수리조합에서는 광산보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911년에는 이 양자를 통합하여 동진강수리조합으로 재신청하였는데, 이때 주요 공사로 꼽은 것은 용산보를 석조갑문으로 개축하고 강물의 배출을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광산보를 철폐한다는 계획이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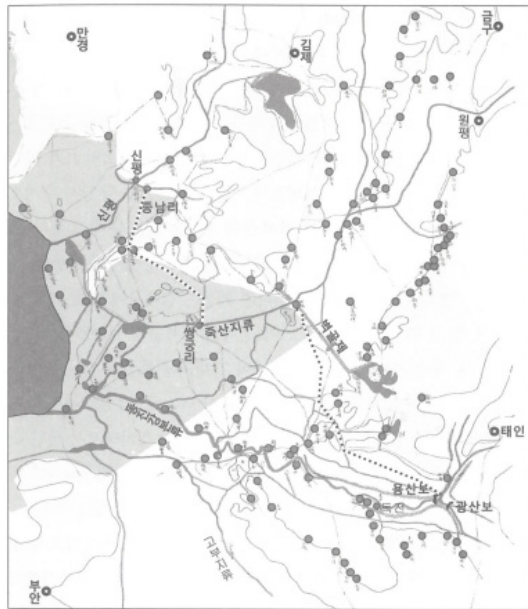
여기서 말한 용산보는 만석보를 말한다. 허수열은 그의 저서 『일제초

15)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55~57쪽.

기 조선의 농업』에서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1911)에서 동진강 부근 일대와 만석보 관련지도를 소개하였는데 지도에서 용산보로 표기된 것이 만석보라고 하였다.

“용산보는 동진강과 정읍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축설된 보로서,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 만석보를 말하는 것이다. 단 고부군수 조병갑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용산보이고, 그 전부터 존재하던 것은 광산보라는 명칭으로 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만석보는 동진북부수리조합, 동진남부수리조합, 동진강수리조합 등 이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된 모든 수리조합의 가장 중요한 수원으로 꼽고 있던 보(洑)이기도 하였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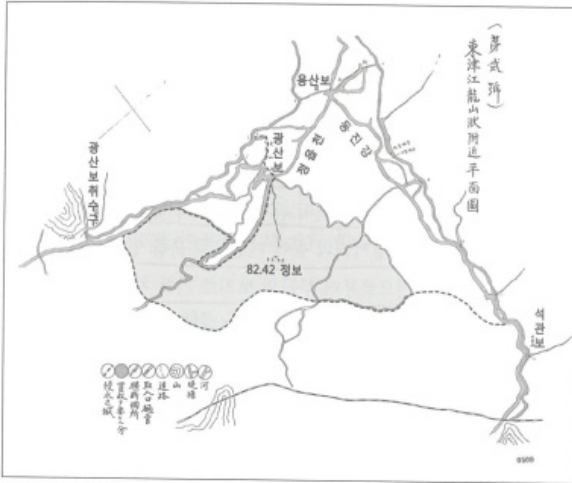
그림2-24 김제·만경평야지역의 수리체계(1910년 무렵)



〈도 6〉 허수열의 위의 책, 55쪽.

16) 허수열의 위의 책, 86쪽, 아래 지도도 허수열의 책에서 재인용함.

그림2-19 동진강 용산보 부근 평면도



자료: MF 90-0741, 509쪽.

<도 7> 허수열의 위의 책 86쪽에서 재인용.

『수리에 관한 구관』¹⁷⁾이란 조사자료에서 보(洑)는 강물의 수면과 관개 수전(水田)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라 그 구조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상설보(常設洑)는 수면이 관개 수전보다 높은 경우에 이를 설치하는데 대다수가 이 종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대개 돌 또는 나무로써 흐르는 물을 필요한 만큼의 높이로 독을 쌓아 막고, 도랑을 파서 물을 통하게 함으로써 관개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물이 끊이지 않고 보 위쪽으로 넘치기 때문에 매년 터지거나 혹은 수리하여 다시 쌓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동축춘결(冬築春決)의 보는 강물의 수면이 관개 수전보다 낮은 경우로 매년 구력(舊曆) 10월 내지 11월에 강기슭의 높이 이상으로 흙을 쌓아서, 겨울과 봄의 두 계절에는 물을 하천으로부터 부근의 토지

17) 『수리에 관한 구관』(중추원 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로 가득 차게 하였다.

전북 동진강(東津江)의 보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였다. 동진강의 수면은 매우 낮고 강의 양쪽 기슭을 따라 펼쳐진 관개 수전은 점차 용기하였기 때문에, 겨울철에 앞에서 서술한 보를 설치하면, 늦은 봄 모내기를 할 때에는 양쪽 기슭이 한편으로 바다와 같이 물이 출렁거리게 된다.

물은 물두레를 이용해 낮은 지역에서 점차 높은 지역으로 물을 길어 보내게 되는데, 그 노력의 심대함은 대개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모내기가 끝난 후에는 보를 터뜨려 물이 빠지게 하였다. 용산보는 매년 적어도 1회 터뜨렸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봐서 고부 군수 안길수가 1898년(고종 35년) 9월에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만석보를 철거했으나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어느 때인가 다시 보를 보수하여 용산보라 칭하였고 실제로 그 보를 중요 수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제에 빼앗긴 배들평

배들평 농민들의 애환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1920년 5월 30일자 매일신보(18)에는 ‘대정오년(1916년) 토지조사령이 실행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측량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기는 일 발생’이라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군청 면소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새로 난 법령을 교묘히 이용 민간에 대한 원한을 사는 일이 한국시대 탐관오리보다 더 흑독한 버르장머리를 하는 일이 종종 없지 않은 바이다. 우선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들건대 전라북도 정읍군 정도면 산복리에 있는 산복평이란 들은 본래 양전옥답으로 수십 년 이래로 정당한 민유지로써 서로 매매하여 오던 증거서류가 소연하며 그 외에도 국세를 납

18)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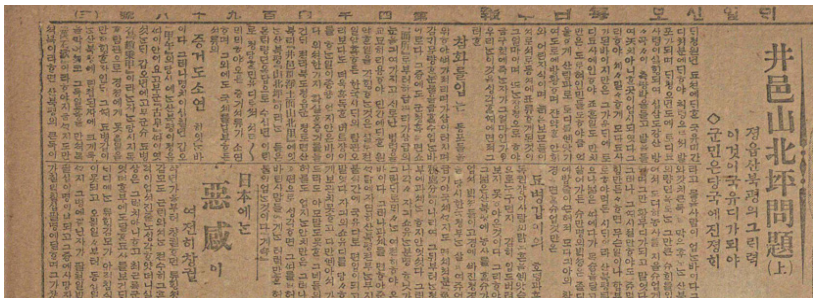
부하던 서류의 증거도 소연하였는 바이다.

그러나 명치 이십 칠년 갑오의 당시에는 산북평이 정을 땅이 아니요 고부군 땅이었는데 갑오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자는 당시 지독한 탐관으로 경성에서 못할 일을 많이 행한 자인데 그대 조병갑이는 산북평에 인접된 땅에 크게 독을 막아놓고 그 독 이름을 만석보라 하여 지금까지도 만석보라하면 산북평의 큰독이라 물을 사람이 없는 바이다.

그와 같이 큰 독을 막은 후에는 산북의 양전옥토는 그만큼 수해를 입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며 그만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 시절만 하여도 힘만 든든하면 무슨 일이나 함부로 하여먹는 시대이라 산북평 넓으나 넓은 땅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수만 명의 백성은 줄지에 밥줄이 끊어져 모두 기아의 참경을 면할 수 없건 만은 조병갑의 흑명과 흑독권장이 사람의 맑은 혼을 빼앗음으로 누구든지 감히 입도 별려보지 못하여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넓은 산북평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고경에 빠진 정경을 당시 한국정부는 살려주어 급기야 국세까지도 면세처분이 내리어 그 뒤부터는 정부에 과세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각각 자기소유는 분명하니까 그런대로 매매는 여전하여 온 바이다.

그러나 과세를 면하여 준 까닭에 자연히 산북평 전부는 부지불식간에 국유지로 편입이 되고 말았다. 자기 소유지를 당당하게 보관치 못하고 다만 빼앗아가더라도 아무 말도 못할 그네들의 허물도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터럭만한 허물이 없는 것이다.



〈도 8〉 1920년 5월 30일자 매일신보

IV. 만석보 유적지의 기념사업

1. 만석보유지비(萬石淤遺址碑) 건립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 1963년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당시 전북일보 기자 이치백이 서울대 역사학과 김상기 박사를 취재하면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 결과 가람 이병기 선생을 건립위원장으로 선출,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이 뜻대로 이루어지자 정읍을 중심으로 1967년 30여명의 민간인이 모여 최초의 동학관련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이듬해부터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기념제 성공에 고무된 사업회의 활동은 만석보유지비 건립으로 이어졌다. 갑오동학기념사업회(甲午東學記念事業會)에서 정읍군에 건의하여 1973년 5월 11일에 만석보유지비(萬石淤遺址碑)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석보유지비는 만석보가 있었던 자리로 가는 중간에 세워졌다. 실제 만석보가 있었던 장소로 가려면 비가 있는 곳에서 500여m가량 독길을 더 가야 한다.

그 당시 정부에서 국토 도로변 정비사업 지시가 내려와 만석보유지비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그 정확한 위치를 당시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임원이신 최현식 선생께 고증을 구했다고 한다. 최현식 선생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지정하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공사 당일 날 가보니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아

닌 국도 변에 가깝게 자리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중단을 시키고 만석보가 실제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에 세워야 그 의미가 살지 않겠냐고 설득하여 본래의 자리로 이동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윗분들이 큰길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한다며 공사인부들에게 지시하여 다시 도로 쪽에 가깝게 옮겨 놓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최현식 선생과 공무원들이 서로 몇 십 걸음씩 양보하기로 합의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석보유지비문(萬石湫遺址碑文)

이곳은 갑오동학혁명(甲午東學革命)을 유발(誘發)한 민원(民冤)의 일대표적(一大標的)이 었던 만석보(萬石湫)의 유지(遺址)이다. 당시 고부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은 상류(上流)에 민보(民湫)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강제로 사역(使役)하여 이 보(湫)를 막고 보(湫)의 윗논은 일두락(一斗落)에 이두(二斗), 아랫논은 일두락(一斗落)에 일두식(一斗式), 일찍이 없었던 보세(湫稅)를 받는 등 갖은 폭정(暴政)을 자행(恣行)하였다. 이에 억울한 농민들은 1894년 갑오(甲午) 2월에 전봉준 장군(全瑋準 將軍)의 영도(領導) 아래 궤기(蹶起)하여 고부 관아(古阜 官衙)를 습격(襲擊)하고 마침내 만석보(萬石湫)를 훼파(毀破)하고야 말았으니 이것이 바로 동학혁명의 발단(發端)이었다.

이에 우리는 이 유지비(遺址碑)를 세워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하던 선열(先烈)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나아가서는 갑오동학혁명의 대의(大義)를 받들어 길이 기념코자 하는 바이다.

서기 1973년 5월 11일

문학박사(文學博士) 김 상 기(金庠基) 근식(謹識)

건립자(建立者) 정읍군수(井邑郡守) 김삼주(金三柱)

주관(主管) 갑오동학기념사업회(甲午東學記念事業會)

송 성 용(宋成鏞) 전면서(前面書)

서 병 익(徐秉翊) 후면서(後面書)”

전북 정읍시 이평면 33-1에 소재한 만석보터는 지난 1976년 4월 0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됐다.



〈도 9〉 만석보유지비(전북 정읍시 이평면)

2.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

1987년 10월 1일 전라북도가 만석보유지비 왼쪽에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를 세웠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때 널리 유행했던 단어 중 하나가 ‘정화’였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전라북도지사 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비가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을 찾는 답사 객들에 의해 독재정권에 대한 반발 의식으로 ‘정화’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감사격인 전라북도지사가 마치 자기 업적을 드러내듯이 이름을 새겨놓았다 하여 그 이름을 돌로 쪼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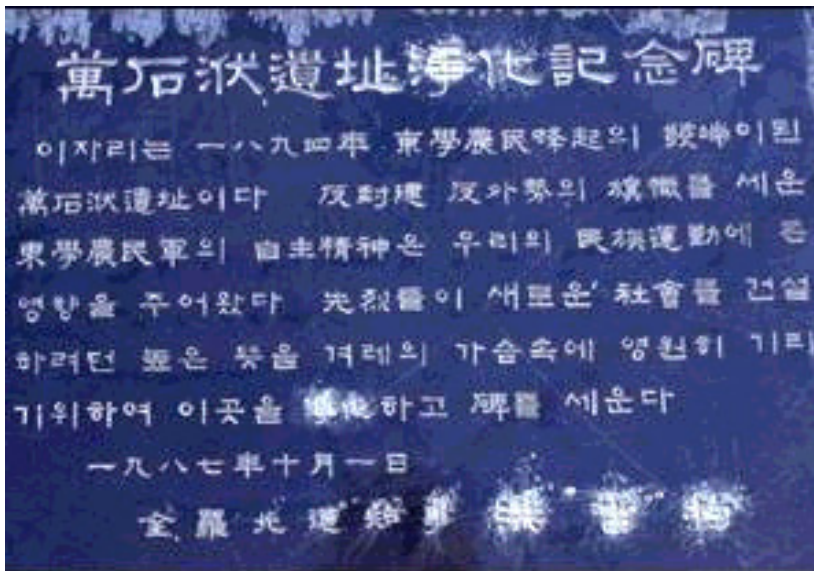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문(萬石淤遺址 淨化 記念碑文)

이 자리는 1894년 동학농민(東學農民) 봉기(蜂起)의 발단(發端)이 된 만석보(萬石湫) 유지(遺址)이다. 반봉건(反封建) 반외세(反外勢)의 기치(旗幟)를 세운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의 자주정신(自主精神)은 우리의 민족운동(民族運動)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

선열(先烈)들이 새로운 사회(社會)를 건설하려던 높은 뜻을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이 곳을 정화(淨化)하고 비(碑)를 세운다.

1987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全羅北道知事) 홍석표(洪哲杓)*



<도 10> 답사객들에 의해 돌로 조각된 만석보정화유지비

3. 고부봉기역사맞이곳과 만석보

1967년 12월 정읍에서 최초의 민간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以下 사업회)를 창립하였다. 이듬해인 1968년부터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이하 문화제)를 매년 치러왔다. 그러던 1980년 5월 행사에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제5공화

국 신군부에 의해 제13회 문화제를 끝으로 사업회는 그 해 12월 1일 강제해체 당하였고 문화제 또한 관주도 행사로 치러지며 명맥만을 유지하였다.

한편 1993년 4월 정읍지역의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모여 문화제를 다시 민주도로 환원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조직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1994년 2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여는 첫 행사로 전국민예총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여 '고부봉기역사맛이 굿'을 기획하고 정읍천변과 고부와 이평면 일대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5백여 명의 놀이패 일꾼들과 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행사기획은 임진택, 총연출은 채희완이 맡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정읍군의 행정적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당시는 정읍의 진보세력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1994년 1월 임진택의 큰형 임성택이 정읍군수로 발령받게 되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1994년 2월 26일 전국에서 모여든 1만 여명의 인파속에서 '고부봉기역사맛이 굿'이 성대히 열렸다. 정읍천변에서 길놀이 및 가장행렬 '갑오세 가보세'로 시작된 전야제는 개막 열림굿 '때가 왔네 때가 와'를 비롯한 마당굿 '났네 냈네, 난리가 났어', '칼노래, 칼춤' 등이 공연되었고 영화「서편제」의 주인공 소리꾼인 김명곤의 판소리와 국악인 공옥진의 춤사위로 신명을 더했으며 민족무예 경당패의 무술 조련 시범 등이 이어졌다.

마무리 '햇불춤' 행사 때에는 모인 시민들에게 햇불을 나누어 주어 깃발과 불꽃이 어우러진 대동 한마당을 이루었다. 공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구석에서는 동학 농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다음날인 2월 27일 아침, 본격적인 역사맛이굿이 벌어졌다. 오전 10시경부터 열렸던 '판얼음고사굿'과 전봉준 역할을 한 김명곤의 연설은 단순한 과거 재현이 아닌 현대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후, 말목장터에서는 '고부 관아 진격 재현곳'이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남녀노소 관객들의 직접참여로 그들 스스로가 곧 동학농민군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 행사의 대미는 만석보에서 이뤄졌다. 동학농민군과 시민들은 한데 어울어져 말목장터에서 3km 정도를 걸어 만석보 옆 논에 도착하여 '만석보타파 재현곳'을 가졌다.

논 가운데 짚단을 길게 엮어 만석보를 형상화시켰다. 마침내 전봉준의 호령 끝에 불화살이 만석보를 향해 날아들자 군중들의 함성이 터졌고 이를 신호로 횃불이 곳곳에서 날라들어 만석보를 타파하는 장면은 장관 그 차체였다.



〈도 11〉 고부봉기역사맞이곳(만석보에서)

4. 양성우의 「만석보」 시비(詩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는 흉물이 되었다. 1998년 겨울 당시 정읍시 이평 면장을 뵈고 흉물이 된 이 비를 철거하자고 건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사업에 의욕이 컸던 이평 면장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다. “만석보 터에 오면 이곳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조차 없으니 그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묘한 표지판 대신 시인이자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양성우 씨가 쓴 ‘만석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그 어떤 설명문보다 더 와 닿는 내용이니까 그 시비(詩碑)를 대신 세웠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면장은 당시(1999년 1월)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철거 신청을 했으나 그만 반려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석공에게 ‘만석보 시비’ 제작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이 완성된 상태였다.

원래의 계획은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만석보 시비’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고 ‘만석보 시비’를 놓을 자리가 없게 돼 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흉물이 된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는 치우지 못하고 시비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된 것이다.

양성우의 ‘만석보’가 실린 이 시비는 흑돌 3개를 옆으로 붙인 가로 4백67cm 세로 97cm의 직사각형 돌판에 총 1999자의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만석보 시비’는 1999년 4월 18일 이평면민(梨坪面民)의 날에 제막식을 가졌다.



〈도 12〉 만석보 시비(양성우)

5. 만석보유지(萬石湫遺址)와 만석보의 위치

현재 만석보유지비에서 서쪽 백산 방면으로 약 500m 정도 제방 길을 따라가면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3m 정도 크기의 화강암 자연석에 전면에는 한자로 만석보유지(萬石湫遺址)라고 새겨져 있으며 글자의 바로 우측에는 기념물 제33호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는 정읍시 이평면에서 2000년 5월 11일을 기해 건립하였다. 건립목적은 이곳이 과거 만석보가 있었던 곳임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이다. 현재 만석보유지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진짜 만석보가 있었던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석보유지비만 보고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만석보가 있었던 자리에 표식을 남기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비의 건립위치는 정읍시 이평면 주민인 고(故) 박필훈(1906년생)의 고증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이평면사무소에서 만석보유지 건립업무를 담당한 김경섭(1960년생)은 “건립 당시에 말뚝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소나무로 박아놓은 말뚝은 천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이평면 주민 이희청(1950년생)은 “이곳에 부친의 논이 있었는데 부친이 논을 갔다 왔을 때 모친께서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아홉맥이보를 갔다 왔다고 하셔서. 보가 여덟 개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홉 번째 보가 있었던 자리라는 뜻이여. 우리 논이 이 근처 있었기 때문에 아홉맥이보라고 하면 논에 갔다 왔다는 말이지.” 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맥이란 막았다는 뜻이다. 앞에서 나온 「全羅道古阜民亂始初」에서 언급한 구막보(九幕湫, 만석보)가 바로 아홉맥이보를 의미하므로 만석보의 자리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는 청소년 시절 이곳에서 콘크리트 수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훗날 성장해서 와보니 수문이 사라졌는데 없어지고 말

있다는 것이다. 이 수문은 용산보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근처에 매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¹⁹⁾라는 보고서에서 만석보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만석보의 위치는 현재 기념물이 조성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이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는 현재 유구가 강바닥에 남아 있으며, 1930년대 제작된 5만분의 1지도에 도강소의 위치를 표시하면 박필훈(94세) 노인의 녹음증언과 일치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김경섭이 증언한 말뚝이 2004년 현지조사 당시에 강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남아 있다는 말뚝과 콘크리트 수문 등의 유구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정읍시와 관련 연구원들이 당시 정읍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용역 연구원 연석회의(2004.1.7.)’자료²⁰⁾에서 만석보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회의내용(고증에 관한 사항 : 만석보의 위치)

- 1974년 위치 지정 당시 예동 박형규 노인과 함께 정했는데 다만 독 아래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그러나 2km 정도는 아닌 것 같다.
- 박노인의 말에 의하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를 막은 돌이 있었다고 했으나 그 후 독을 막으면서 그 돌을 써 버린 걸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만석보의 위치는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는 자리보다는 현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는 자리가 더 유력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19) 정읍시, 2004,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 27쪽.

20) 위의 책.



〈도 13〉 만석보유지(전북 정읍시 이평면)

6. 만석보 쉼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5월 8일에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인 만석보 쉼터의 조성을 하였다. 만석보 쉼터는 동진강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 언덕을 쌓아 조성했다.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문화, 관광을 어우르는 친수형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했다. 만석보 쉼터 정상에 오르면 만석보터는 물론 백산, 황토현 등의 유적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도 14〉 만석보 뚝에서 내려다본 동진강

V. 만석보 유적지의 향후 정비방안

1. 만석보 유적지의 상징성

만석보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1894년 부패와 수탈 등 불의에 항거한 민초들의 저항정신은 만석보의 파괴라는 상징적 행위로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9월 고부농민들은 고부군수 안길수에게 압박을 가해 남아있던 만석보마저 훼파시켰다. 이는 단순한 보의 헐파라기보다는 관의 부당한 수탈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낸 것과 다름없다.

이렇듯 만석보는 조선후기 부패한 봉건정부가 벌린 수탈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석보가 지니는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은 문학작품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특히 만석보가 지닌 이러한 상징성은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도 구현되어왔다. 2023년 8월 10일자 한국농정신문²¹⁾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쌀값 보장』 죽창 들고 나락 불태우다」지난 2023년 7월 28일 오전 전북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터에서 열린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논 갈아엎기 투쟁’에서 콤바인이 일부 수확한 벼를 논에 쏟아내는 가운데 농민들이 미처 갈아엎지 못한 벼를 불태우고 있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땅의 농민들이 질곡의 세월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아픔은 130여 년 전이나 일제강점기, 그리고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저항정신이 만석보 유적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만석보가 담고 있는 역사는 과거의 역사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날 우리의 현실의 삶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 15〉 2023년 8월 10일자 한국농정신문

21)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2. 만석보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방안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만석보지(萬石湫址)의 위치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33-1 일원으로 되어있다. 전라북도 기념물은 지방기념물 중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만석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는 도지정문화재를 넘어 국가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향후 사적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다. 국가 사적 지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적)〉²²⁾

- 목적 :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사적)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수행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27조, 시행령 제11조·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 ① 시·도지사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22) 문화재청(<https://www.cha.go.kr>)

- 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를 함
-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청 자료를 해당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에 따라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는 검토 의견서, 심의자료, 도면, 학술, 고증자료, 사진, 위치, 지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관련한 범위 지정, 토지이용계획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지정문화재(기념물)인 만석보지를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한다면 지정에 필요한 문헌조사, 발굴조사, 학술대회라는 3요소가 필수적이다.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이뤄지고 말뚝 등 당시의 유구가 발견되면 사적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장흥석대들전적지(長興石臺들戰蹟地)나 고창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의 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9월 16일 사적으로 지정된 울산 약사동 제방(蔚山 藥泗洞 堤防)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필자는 만석보에 대한 관련 사료와 연구자들의 견해를 통해 당시 광산보와 만석보 등 2개의 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봉준공초』를 제시하였다.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인 전봉준의 증

언이야말로 어느 사료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봉준이 공초에서 언급한 민보는 광산보를 의미하며 그 민보 아래에 보를 조병갑이 쌓았다고 하였다. 광산보는 ‘군수 김우현 흠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에 언급된 것처럼 1718년에 시축되어 농민들이 사용해 왔으며 나머지 신보인 만석보는 조병갑의 지시에 의해 1893년에 축조된 것이다.

1894년 4월에 전라감영에서 작성한 보고서인 『全羅道古阜民亂始初』과 현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만석보의 위치 또한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는 자리보다는 현재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는 자리가 더 유력하며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석보가 위치한 동진강변은 풍요의 상징이자 수탈의 역사를 담고 있다. 1894년 1월 11일 만석보의 파괴는 단순히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패와 수탈에 대한 표출이 아니라 한양으로 진격하여 조선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의 강력한 개혁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발발 130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만석보의 위치와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정읍시에서 만석보 종합정비사업을 수립하여 동학농민혁명 주요 핵심 유적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희망을 가져본다.

향후 본격적인 학술연구와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만석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널리 드러나게 되길 바란다. 끝으로 만석보유적지가 도지정문화재를 넘어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투고일 : 2024. 3. 21. 심사일 : 2024. 4. 24.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동도문변」,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공초」, 2014,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단행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이평면백년사』, 이평면지편찬위원회.
김상기, 1947, 『東學과 東學亂』, 대성출판사.
김용덕, 1973,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瑛準』, 同學出版社.
오지영, 1940, 『東學史』, 永昌書館.
정창렬, 1985,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연구회.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살림터.
_____, 2020,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기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e-donghak.or.k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수리에관한구관』(중추원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한국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

〈Abstract〉

Transformation Process of Manseokbo and Current Status of Commemoration Projects

Cho Kwoang Hwan*

Manseokbo, a repair facility located in Ipyeong-myeon, Jeongeup-si, Jeollabuk-do,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historical value as a facility that pulled the first fu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On January 10, 1894, farmers who were angry at Jo Byeong-gap's tyranny finally attacked Gobu Gwana and destroyed Manseokbo, a symbol of exploitation and object of resentment the next day.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hn Gil-soo, the governor of Gobu demolished the remaining Manseokbo in September 1898, which had been partially destroyed and left unattended to soothe public sentiment.

In this historical site where Manseokbo was located after liberation, there are "Manseokbo Maintenance Monument" built in 1973 by the Gabo Donghak Revolution Memorial Project and "Manseokbo Maintenance and Purification Monument" built in 1987. On the opposite side is Yang Seong-woo's Monument to Manseokbo, which was built in 1999.

Currently, if you follow the embankment road about 500m from the Manseok Maintenance Monument to Baeksan Mountain in the west, there is a Manseok Maintenance Monument built by Jeongeup-si on May

* Director of Donghak History Culture Research Institute

11, 2000.

The ninth act here is related historical materials 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research of the villagers that the place where the reservoir was located. Since Gumakbo mentioned in the book means nine maekib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ite of Manseokbo is here.

Therefore, the controversial location of Manseokbo is more likely and valid than the location where the current Manseokbo is built than the location where the Manseokbo Maintenance Monument and the Manseokbo Purification Monument are located.

Key word : Manseokbo, Gobu, Cho Byung-kap, Donghak Peasant Revolution,
Jeon Bong-jun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홍성덕**

〈목 차〉

머리말

I. 만석보 터 문화재 구역

II. 만석보 관련 기록 검토

III. 만석보 위치 재검토

VI. 만석보 위치 재지정을 위한 과제

맺음말

〈국문초록〉

1894년 1월 10일 말목장터에 모인 농민들이 고부관청을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시작되었다. 만석포가 파괴된 지 130년이 되었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만석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973년과 1997년 만석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지만 그곳이 만석보가 있었던 곳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위치 역시 만석보가 있었던 곳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만석보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는 1914년 동진수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리조합 설립 신청 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 역시 측량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2004년 당시 확인한 나무 말뚝 역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념비는 역사적 현장에 세워졌을 때만 그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다. 현재 만석보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지역은 만석보의 위치와 다르다. 문화유산 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석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다. 하천의 특성상 나무 말뚝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억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위치를 재확인하고 바로 잡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만석보, 광산보, 말목장터, 동진수리조합, 만석보기념비

머리말

1894년 1월 농민들의 만석보 혁파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제적 행동이었다. 1894년 1월 10일 말목장터에 모인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고 그 다음 날 만석보를 파괴함으로써 봉기의 결의를 드러내었다. 학정의 상징인 만석보를 파괴한 것은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통치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탐관오리들에 대한 적극적 항의의 표시이었다. 고부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거론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만석보 파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고부민요(古阜民擾)’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석보 파괴라는 역사적 행위에 대한 기억은 1973년 5월 11일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만석보유지비’와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의 현장화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973년 유지비 건립 위치가 ‘만석보지(萬石湫址)’로 지정되면서 위치의 역사성이 퇴색되는 문제를 낳았다.

유지비 건립 당시에도 이미 만석보의 원위치가 아니라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2000년 5월 자연 화강석에 ‘萬石湫遺址’라 새긴 비를 다시 세워 역사의 현장성을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새로 새운 만석보유지비의 위치 역시 고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구술을 기초로 추정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 ‘만석보유지’의 위치 재지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I. 만석보 터 문화재 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만석보지(萬石湫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이하 보호조례) 제8조 지정기준(별표 1) 기념물 6목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한다. 문화유산¹⁾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보호조례 별표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만석보 터의 경우 “바.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호구역 지정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적정성 검토에 따라서 법에 정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976년 4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만석보지’의 문화유산 범위²⁾는 다음과 같다.

-
- 1) 2024년 5월 17일자로 기존 ‘문화재’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문화재의 명칭은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무형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민속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등으로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통칭은 문화유산으로 하며, 지정된 기념물 만석보지(萬石湫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칭한다.
 - 2) 전라북도 고시 제2008-455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자료구역·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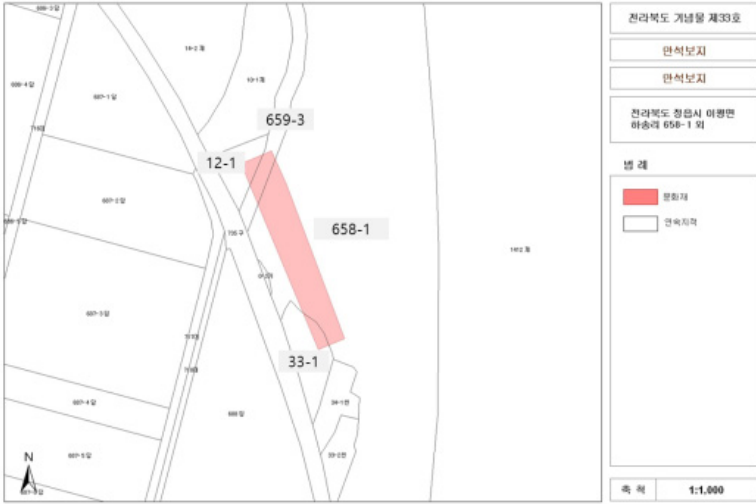
〈표 1〉 만석보지(萬石湫址) 문화재 구역(단위 : ㎡)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658-1	제방	7398	1,307	1,307	-	건설부
659-3	제방	374	223	223	-	"
12-1	천	565	70	70	-	"
33-1	천	846	90	90	-	"
계		9,183	1,690	1,6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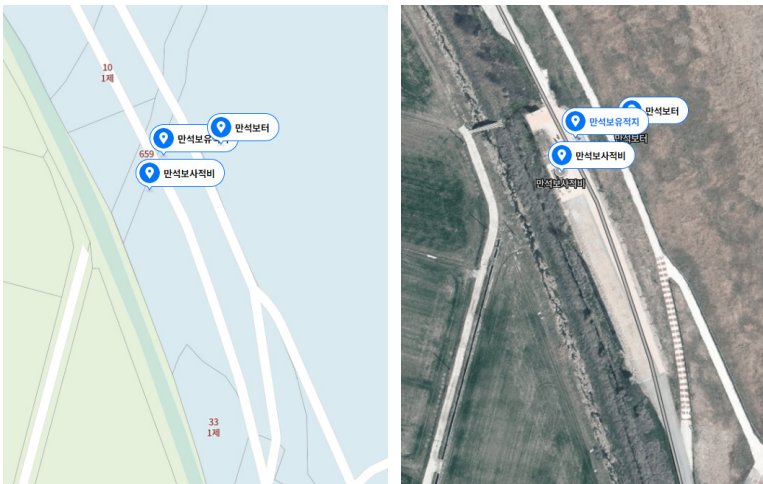
만석보 터는 문화재 구역만 지정되었을 뿐 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만석보의 위치가 하천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만석보지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4필지 지적 면적 9,183㎡에 지정구역 1,690㎡로 약 5백 여 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다. 현재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 시비’가 세워진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 해당한다.

만석보의 위치가 〈표 1〉의 위치로 지정 고시된 것은 1973년 만석보유지비의 건립과 관련되어 있다. 즉 만석보유지비가 건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방과 제방 아래 둔치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만석보의 위치가 1973년 만석보유지비 건립 당시에도 500미터 하류 지역이라는 고 최현식의 일화나 2004년 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예당마을 박형규의 고증 내용³⁾ 등으로 보아도 1894년 만석보가 있었던 장소는 아니다.

3) 정음시, 2004,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 266쪽.



〈도면 1〉 ‘만석보지’ 고시 도면(국가문화공간정보)



〈사진 1〉 만석보지 지도와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만석보 터의 위치는 지정 당시부터 역사적 위치 고증 없이 만석보유지비가 세워진 위치를 중심으로 지정된 결과물이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이 20년이 된 지금 잘못 지정된 문화유산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II. 만석보 관련 기록 검토

만석보에 대한 기록은 1894년 4월 24일 의정부에서 고부군 안핵사 이용태가 올린 일곱 가지 조목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고부군 안핵사(古阜郡按覈使) 이용태는 (중략) 단지 백성들이 우려하는 일 중 몇 가지 문제만 조사한 성책(成冊)을 올려보내면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른바 읍(邑)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일곱 조목으로 이관된 토지, 전운소(轉運所)에서 양여미(量餘米)를 모두 더하고 새로 생긴 부족되는 쌀, 유망(流亡)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결세(結稅), 진답(陳畝)을 개간한 논, 도조(賭租), 진답(陳畝)을 개간하지 않은 논, 땔나무, 만석보(萬石湫)의 수세(水稅), 팔왕보(八旺湫)의 수세입니다.⁴⁾

의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용태가 고부군의 폐단으로 보고한 것 중 만석보와 팔왕보의 수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고부군 내 수세 문제로 만석보와 팔왕보에 대해서 오지영 역시 『동학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고부민란 사건에 수세미를 몇대로 거두었다는 것은 고부 북면에 있는 만석보와 팔왕보를 백성의 贖夫로서 防禦을 하게 하고 그 보 수세는 답매 두락에 조 세 말씩 세를 거두어 고부군수 조병갑이 가서 私腹을 채우려 한 것이오’

4)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경오

그렇지만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⁵⁾에는 ‘고부 북면에 있는 만석보라는 것을 백성의 부역으로 수축케하고’라 하여 팔왕보가 누락되어 있다.

「전봉준 공초」에 의하면

‘지금 그 세세한 조목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그 개요를 대략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湫) 아래 보(湫)를 쌓고 가혹하게 민간에 명령하여 상답(上畚)은 한 두락에 두말을 거두고 하답(下畚)은 한 구락에 1말을 거두니…’

라 하여 조병갑이 새로 민보 아래에 쌓은 보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민보(民湫) 아래에 새로 쌓은 보가 곧 만석보에 해당하며, 민보는 만석보 상류에 있던 옛 보를 칭하는 것이다. 민보는 ‘광산보(光山湫, 廣山湫)’, ‘예동보’로 알려져 있다. 광산보 즉 옛 보는 1718년 김명에 의해 처음 축조된 뒤 1861년 고부군수 김우현이 다시 쌓았다.⁶⁾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에는 통영에서 온 고부민란염탐기가 기록되어 있는 데 이에 의하면 조병갑이 쌓은 보를 ‘구막보(九幕湫)’라 칭하고 있다.

통영에서 고부민란염탐기가 와서 이를 기록한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라의 명령이라 칭하면서 백성을 불러 모아 구막보를 쌓도록 명령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듣고 이 보를 쌓으니 (혜택을 받은) 논이 수천 석이었고 매 두락마다 5말을 세금으로 거두니 수천 석이 되었다.’⁷⁾

5) 오지영, 『동학사(초고본)』(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권) 「全羅各郡의民亂」(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이하 사료아카이브)

6) 「군수김후우현홀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文)」, 『이평면백년사』(『서남저널』 2023년 3월 21일. 「만석보 주변의 물의 역사」)

7)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 1894년 4월 22일.

『동도문변』에 의하면

갑오년 정월 11일 (고부)읍민 수백명이 명례궁보(明禮宮湫)에 세금을 더 거둔 일로 연명으로 소청하면서 해산하지 않으니 군수 조병갑이 감영에 와 말하기를 병사 수백명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들을 도륙하고자 한다 하였다.⁸⁾

라 하여 만석보를 '명례궁보'로 칭하고 있다. 다만 '명례궁보'가 명례궁에 소속된 보를 의미하는 지, 보의 명칭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부 일대는 명례궁의 궁방전이 있었던 곳으로 궁방전을 운영하기 위한 관개 시설 역시 명례궁의 관할로 생각할 수 있어 명례궁보라 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학농민혁명 후 40여 년이 지난 뒤 장봉선이 쓴 『전봉준실기』(1936)에 의하면

군내 배들평은 유명한 평야로 태인, 정읍, 고부 세 군의 지류가 중앙으로 관통해 흘러 지역 농민이 그 상류에 보를 쌓고 관개에 활용함으로 이 평야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없어 보의 이름을 만석보라 하였다. (중략) 의롭지 못한 조병갑이 (중략) 자비로 만석보(중전의 4-5배 이상)를 개축하여 물을 가두니 물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심한 것은 물론이요

라 하여 배들평에 지역 농민들이 보를 쌓았는데 그 보의 이름을 만석보라 하였으며, 이후 조병갑이 4-5배 이상 개축하여 오히려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였다고 하였다. 기존에 있던 만석보를 다시 크게 개축하였다는 견해는 『전봉준실기』보다 앞선 1931년 9월 22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김상기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동도문변』,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6권, 160쪽. 고부기요변(古阜起撥辨)

계사년(1893) 봄에 동진강 상류에 있는 만석보가 파괴되었음을 기화로 인부 수만(명)을 징발하여 개수공사를 시키고 그해 가을에 이르러 몽리답 때 두락에 수세로 평균 3말 가량씩을 강제 징수하였다.⁹⁾

그리하여 癸巳年(1893) 동진강 상류에 있는 만석보가 파괴되니 江上流에 있는 萬石淤가 破壞되 었음을 奇貨로 人夫數萬을 徵發 하여 改修工事를 시키고 그해 가을에 이르러 蒙利畓 每斗 水稅로 平均 三斗 가량씩을 徵收 徵稅하였다 (水稅에 잇치셔는 大

또한 1933년 2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고부의 만석보민요」라는 제하의 내용에는

고부군 마항(속칭 말목이라고 하는 데 지금의 정읍군 이평면 일원의 지역)에는 만석보라고 칭하는 신보(新淤, 원문에는 臣淤)가 있었다. 이 보를 막음으로 해서 관개의 이익을 입은 토지가 많은 반면에 또한 수해를 입은 지역도 많았다. 그럼으로 (물이) 보를 넘을 때마다 피해 지역의 인민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관례이었고 (하략)¹⁰⁾

라 하여 만석보를 쌓은 이후 강물이 보를 넘어 수해를 입은 지역도 많았다고 하여 『전봉준실기』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1936년 10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신태인지국 김용○이 쓴 기사에 의하면

신라시대 수리사업으로 만들어 진 벽골제 그 제방이 중심이고, 금만평야 이조시대의 수리사업으로 만들어 진 광산(보)가 중심이고, (이)평(梨?坪), 백산평야와 갑오년 동학란의 분화구인 고부 조군수(조병갑)가 만든 만석보가 중심이 된 신태인 정도평야는 일구무(언)의 옥야 천리요 ...¹¹⁾

라 하여 동진강 개수와 관련하여 수해 근절을 위한 기사에서 벽골제와,

9) 『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

10) 『조선일보』 1933년 2월 10일자. 「古阜의 萬石淤民謠」

11) 『조선일보』 1936년 10월 11일. 「十三萬農民關係의 東津江改修問題(完)」

광산(보), 만석보 등 이 신태인의 정토(淨土)평야를 기름지게 한 것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1974년 조선일보에 '민요의 고향'이라는 기획기사에 실린 정읍
군 정우면 대신리의 '방개소리'에는 두 개의 보가 나온다.

어헤야-야-해 해히에-용아 혀엥게 웅가리로다

사람이 많아도 대답이 적어 (중략)

저건네 갈피봉 비 물어 오니

우장을 허리다가 둘러입고

기십이나 매세

어허리사오

어헤야-야-해 해히에-용아 혀엥게 웅가리로다

뱃작뱃작 우겨를 주소

앞 독 벼루는 뒷 독을 보고

뒷 독 벼루는 앞 독을 보면서

어허리 사오

어허리 사오¹²⁾

정우면 대신리는 이평면 오소리와 10여 리 떨어져 있는 마을로 노래에
나오는 앞 독과 뒷독은 광산보와 만석보를 칭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만석보는 구막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만석보
상류에는 광산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광산보와 만석보 등에
관해서는 연구자별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동학관련 기록과 기존
연구의 만석보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조선일보』 1974년 4월 12일. 「民謠이 故鄕」 ⑥

〈표 2〉 만석보 개축 및 위치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출처
동도문변	만석보를 '명례궁보'로 칭함	『동도문변』
전봉준	민보 아래 새로 보(만석보)를 쌓음	「전봉준 공초」(1894)
장봉선,	기존 만석보를 조병갑이 크게 개축	『전봉준실기』(1936)
오지영	조병갑이 만석보와 팔왕보를 축조	『동학사』(1940)
김상기	1893년 동진강 상류 만석보 파괴 후 개수공사	『동학과 동학란』(1947)
최현식	만석보(예동보) 아래 새로 만석보를 축조	『갑오동학혁명사』(1980)
김용덕	기존 만석보를 5개 가량 개축	『동학혁명 혁명투사 전봉준』(1973)
저창렬	만석보 및 새로운 쌓은 둑	『고부민란의 연구』(1985)

만석보에 관한 지금까지의 의견은 보의 명칭을 제외하면 조병갑에 의해 쌓여진 만석보와 그 이전에 있었던 보의 관계 문제로 기존 만석보를 조병갑이 크게 개축하였다는 견해와 기존 보 아래에 새로 보를 쌓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위치 고증과 관련해서 볼 때 기존의 견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존의 만석보 위치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지점 아래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조병갑이 새로 쌓게 한 만석보의 위치가 합류지점 아래 인지 상류인지에 따라서 위치 확인 장소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4~5 배 크게 쌓아 수세를 늘렸다는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기존 만석보 보다 하류에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보를 쌓은 후에 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도 기존의 보를 개축했다기 보다는 새로 보를 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만석보와 새로 쌓여진 만석보의 위치는 다르고, 1894년 농민이 허물어 버린 만석보는 하류에 새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만석보 위치 재검토

만석보는 정읍군 용동면 상산리에서 시작된 용호천이 태인면 궁사리에서 태인에서 내려오는 동진강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신태인에서 이명면사무소를 잇는 736 지방도에서 정읍천과 합류하여 북서진하는 초입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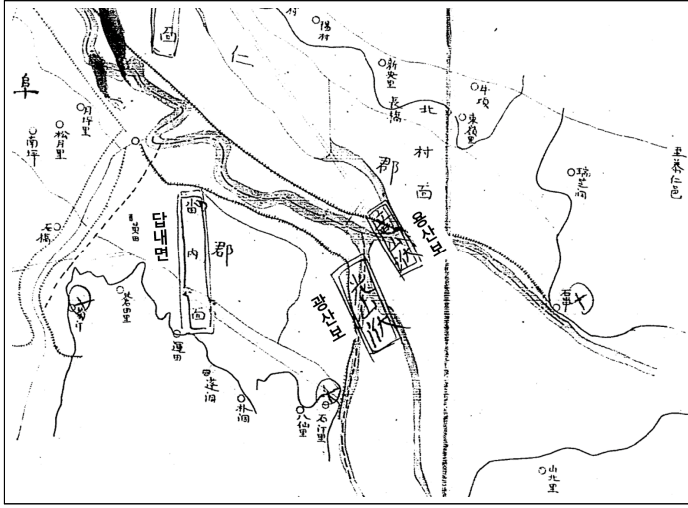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 고부군 지도에 의하면 만석보는 답내리 우측에 태인 대각교에서 흐르는 하천과 달천면 좌측을 흐르는 정읍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지방지도의 경우 벌말면(伐末面)이 답내면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나 해동지도 등 다른 지도의 고부군 지도에는 답내면의 동북쪽 즉 합류지점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고지도 내에서 만석보나 광산보의 위치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고지도 뿐 아니라 『여지도서』 등의 지리지에서도 보의 현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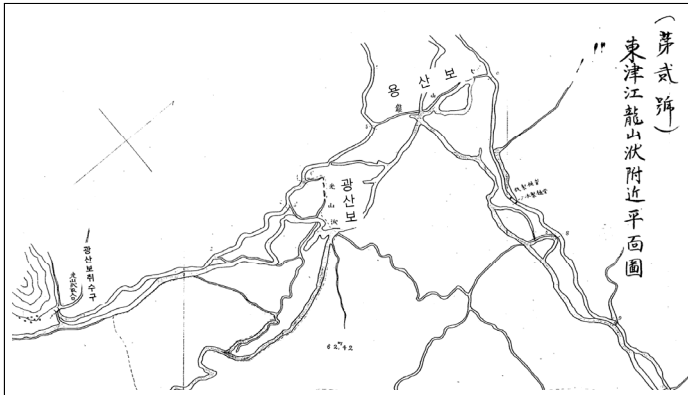


〈지도 1〉 1872년 고부군 지도

만석보 위치에 보가 표시된 것은 1914년 조선총독부 수리조합에서 생산한 「동진강수리조합설치인가에 관한건」 중 동진강 수리조합 예정 구역도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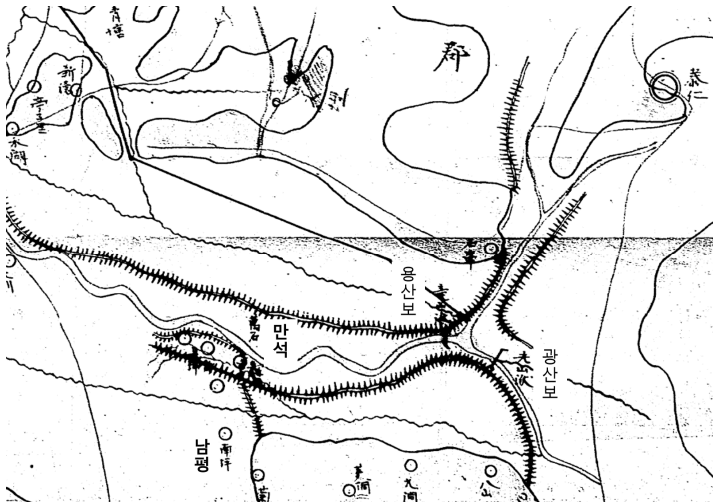
<지도 2-1> (제1호) 동진강 수리조합 예정 구역도



<지도 2-2> (제2호) 동진강 용산보 부근 평면도

13) 「동진수리조합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건」, 1914. 국가기록원 소장.

위의 <지도 2-1, 2-2>를 보면 <지도 2-1>에서는 용산보의 위치가 태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용산보 부근 평면도인 <지도 2-2>에서는 용산보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산보의 위치는 <지도 3> 동진북부수리조합 구역도 내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용산보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지점 바로 아래에 보의 표시까지 분명하게 그려 놓고 있다.



<지도 3> 동진북부수리조합 구역도

허수열은 위 지도를 토대로 용산보가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된 만석보이고 그 전부터 존재하던 것은 광산보였다고 설명¹⁴⁾하였으나 1911년 당시에는 이미 만석보가 없어진 상태였다. 1897년 11월 고부 군수로 부임한 안길수가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던 만석보를 1898년 9월에 철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10년 동진북부수리조합에서 용산보를 개량하고 수로를 개수 정리한다고 한 것을 토대로 <지도 3>의 용산보가

14)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55~57쪽

만석보이다라고 단정한다면 1898년 철거 이후에도 보의 기능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지도 3>에는 용산보의 하류에 ‘萬石’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만석이라 쓰여진 위치는 동진강 둔치에 해당하는 곳이다. 마을 표시 ‘○’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만석이라는 마을이 없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동진강 둔치에 써 놓은 이 만석이 조병갑이 쌓은 만석보의 위치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제방 표시가 만석 아래 쪽에 남평에서 북쪽으로 올라다 동서로 있는 제방을 교차해 둔치에 있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제방을 강 건너편 제방으로 연결할 경우 만석보의 위치는 용산보가 아닌 그보다 하류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도 4> 1937년 만석보 부근(상), 동진강 수계(하)

수리조합 구역도와 1934년 지도를 보면 정읍천과 동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제방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방을 일찍부터 축조한 것은 합류 지점에 수량 증가로 장마기에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병갑이 만석보를 크게 개축해서 오히려 수재를 입었다는 기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1961년 3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문제의 만석보는 정읍천과 동진강의 방축공사로 수십년 전에 헐리우고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태인장을 보고 돌아오는 이평 장꾼들이 법석대고 있었다. 만석을 증수하겠다면 이 보는 만민을 착취하고 헐리워 버렸으며 지금은 섬진강의 「댐」이 이 만석보 역할을 하고 있다.¹⁵⁾

당시 취재를 한 이규태 기자는 “당시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분은 2, 3년 전까지도 몇 분 살아있었다는 데 이젠 찾아볼 수 없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해서 기억하고 있는 분은 두어 명 만나볼 수 있었으나 아흔살이 넘어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하여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의하면 만석보 자리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한다. 그러나 1969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다리는 현재 신태인과 이평면을 잇는 736번 지방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만석보(용산보)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류 지점이 아니라 정읍천과 태인천을 각기 연결하는 다리이다.

15) 『조선일보』 1961년 3월 26일. 「동학혁명의 발자취」



〈사진 2〉 태인천에 놓인 콘크리트다리(사진 3의 ○ 표시).
지금은 새로 다리가 놓이면서 폐쇄되었다.



〈사진 3〉 1969년 만석보 부근 항공사진

한편, 만석보의 위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72년 8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한 것이 1892년, 이듬해 봄부터 (탐관)오리의 표본으로 기록될 탐학을 저지른 것이 동진강의 상류인 태인천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만석보의 개수공사 명령이었다.

이곳엔 이미 팔왕리보(八旺里淤)와 구보(舊淤) 등이 있었는데도 일손이 달리는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 그 밑에 만석보의 수축을 강행한 것이다. 조병갑은 처음 농민들에게 '새로 만석보를 수축하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공사장에 나온 사람에게는 가을세 수세를 탕감해준다고 피었다.¹⁶⁾

이 기사에 의하면 원래 팔왕리보와 구보가 있었고, 조병갑이 그 밑에 만석보를 수축한 것이다. 이는 기존 의견과 달리 정읍천과 태인천 합류 지점에 팔왕리보, 구보, 만석보 등 세 개의 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만석보의 위치를 처음 비정해 놓았다.



〈사진 4〉 만석보 위치 비정 사진(경향신문)

이 〈사진 4〉에 “동학혁명의 불씨가 됐던 만석보 자리(○표).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지만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된 곳에서 하류로 1km 쯤 밑에 있었다.”고 하여 합류지점에서 하류로 1km로 비정하였으며,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고 명기하였다.

1973년 5월 만석보유지비가 갑오동학기념사업회의 건의로 세워졌다. 1972년 경향신문의 기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

16) 『경향신문』 1972년 8월 11일. 「한반도 백년」 기획시리즈 58 ‘동학혁명 기수 전봉준(7)’

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석보유지비의 위치는 건립 당시에도 본래의 위치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¹⁷⁾ 당시 고증을 한 최현식이 정확한 지점을 적시하였음에도 유신정권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현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면서 1997년 당시 이평면장이었던 김동길에 의해 기존에 잘못 세워진 유지비에서 약 500m 하류 지점에 새로운 만석보유지비가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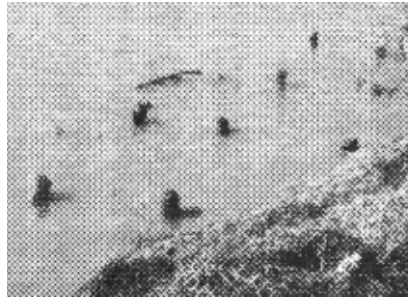
한편, 만석보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고증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보고서에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1930년대의 지도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만석보의 축조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목을 확인하여, 1997년에 설치한 유지비 위치가 조병갑이 축조한 만석보의 위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석보 말목 발견지는 새로 세워진 만석보 유지비 건너편이다. 말목 발견지의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위치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4년 발견된 만석보 말목으로 추정된 말목은 조사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목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말뚝이 만석보와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만석보유지비보다 500m 쯤 더 하류라는 증언 등의 내용과 1972년 경향신문에서는 합류지점으로 부터 1km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과의 관계성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합류지점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의 사진은 말목 발견

17) 조광한, 2023,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83쪽.

18) 2023년 11월 3일,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서인석(전 동학사업소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만석보 말목이 발견되었을 당시, 말목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분석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 북쪽에서 합류지점을 향해 촬영한 것이다. 합류지점을 만석보 전망대로 잡을 경우 말목 발견지까지는 1km 정도의 거리이다. 최현식이 구유지비로부터 500m 내려가야 한다고 한 점 역시 만석보 전망대로부터는 1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다.



〈사진 5〉 2004년 발견된 만석보 말목(추정)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사진 6〉 말목 발견지 도면과 위성사진(좌)

만석보의 위치와 관련하여 『쇼와 9년 11월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¹⁹⁾에서는

19)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도서등록된 자료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

백산은 약 46·7미터의 구릉으로 동진강 일대의 옥야를 내려다 보고 갑오동학당비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만석보(정읍군 이평면 두전리 부근에서 북쪽의 용북면에 이른다. 옛날에는 답내면이라 칭하였다)와 동도(東徒)와 전주감영 병사의 첫 총돌지인 황토치(黃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가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고 하여 만석보가 두전리 부근과 용북면을 이어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전리는 현재 새로 세워진 만석보유지비보다 더 하류지역이다. 두전리 부근에서 용북면으로 만석보가 설치되었다는 이 기록은 <지도 3>에 만석이라고 쓰여진 도면의 내용과 일치한다. <지도 3>이 정확한 측량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만석이라 쓰여진 위치는 지금 황전마을과 송월남평마을회간 사이 하천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략 만석보 터로부터 2.5Km 정도 하류이다.

새롭게 새운 만석보유지비가 만석보의 위치라는 증언이나 2004년 발견된 말뚝이 실재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용산보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으로 보면 만석보의 것으로 추정할 말뚝이 있는 곳에 보(洑)의 시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말뚝이 당시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 시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만석보가 있었던 곳에 이후 다시 보를 설치했었을 수도 있으나, <지도 3>에 쓰여진 만석의 글씨를 고려해 볼 때 만석보의 위치는 새로 새운 만석보유지비보다 더 하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다. 본 자료는 왕현중교수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공한 자료로 기념재단으로부터 제공 받았음을 밝힌다.

VI. 만석보 위치 재지정을 위한 과제

‘만석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만석보 위치 고증에 따른 문화재 재지정 관련 법령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조례 제4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의 해제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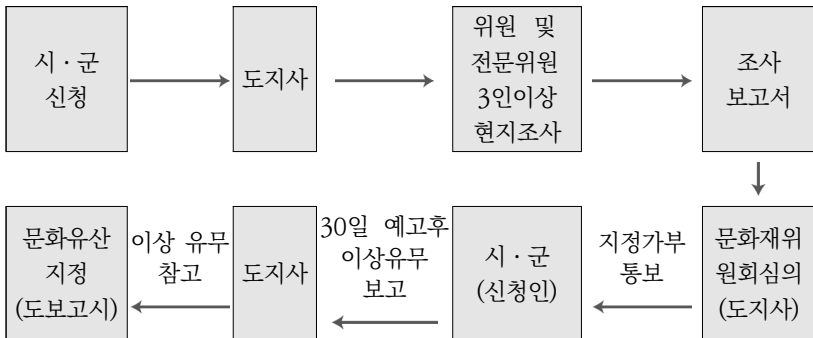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인정 또는 해제 사유



만석보지(萬石湫址) 위치 재지정 문제는 현재 지정 고지된 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고지 지역을 해제하고 새로 고증된 지역을 지정(또는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만석보지의 지정 구역 면적은 1,6980㎡이며 지적상 면적은 9,183㎡이므로 지정 면적을 고증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한 문화유산 지정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지정 구역을 해제하고 고증된 지역을 새로 지정(변경)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에 준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유산 지정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검토의견서를 비롯 12종이다.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등 심의 참고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타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사진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전·후·좌·우 전경, 세부현황, 이미지파일 포함), 탁보사진
7.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도면(문화재 위치도, 지정/보호구역 지적도(1:500~1:1,500), 지정/보호구역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 파일 포함)
8.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9. 문화재 보존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양)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12. 구비서류는 책자(칼라인쇄, 50페이지 이상, 15부) 및 CD(1매)로 제출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위의 구비서류를 볼 때 선행해야 하는 과제는 학술고증자료의 확보이다. 기존 보고서와 논문 등에서 만석보 터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문화재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특성상 물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물적 증거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통상 발굴조사는 추정 지역의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석보의 위치가 지금까지 알려진 지역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발굴조사는 위치 고증에 대한 문헌이나 구술 등의 자료를 좀더 수행하여 일정 정도 특정할 수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만석보는 동진강에 설치된 수리시설이다. 따라서 동진강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동진강 수리조합 및 도수로 설치 관련 자료와 일제강점기 이후 동진강 직강화 공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동진강 수리조합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 이외에도 동진수리조합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이관되어 있다. 만석보가 위치한 일대의 동진강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진북부수리조합 구역도에 쓰여진 만석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지형분석은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원도, 토양도, 고지도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²⁰⁾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항공사진, 지도 이외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지적원도와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지적도 등을 포함해서 동진수리조합 등 일제강점기 문서자료 등에서도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석보 위치 비정이라는 관점에서 동학관련 1차 사료

20) 이진주, 2023, 「정읍 만석보 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정량적 연구 제언」,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61~62쪽.

및 신문, 잡지 등의 기록을 수집 보완한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추적 최대한 수집하며, 만석보 일대의 하천 정비 사업 등의 이력을 추적 보완한다.

최근 발굴에 앞서 시행하는 지하 물리탐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리탐사는 지하투시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전기비저항탐사(Resistivity), 자력탐사(Magnetomerty)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물리탐사의 경우 다양한 조건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기나 동절기에 추정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발굴조사에 앞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맺음말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역사적 주요 사건 또는 인물에 대한 기억과 전승의 중요성 때문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기존의 체제에 도전했던 역사성을 가진 경우 가시적인 흔적을 남기거나 보존하기는 쉽지 않았다. 역사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는 필수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실체의 역사적 존재성을 확보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존재성을 시각적으로 전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비는 역사적 현장에 세워졌을 때만 그 기능을 바로할 수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만석보 혁파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

동학농민혁명을 답사할 때 구차한 위치 설명을 덧붙여야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설이라도 듣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곳을 역사 현장으로 인지하게 된다.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연관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의 역사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의 현장을 복원해 내는 것은 역사적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좀 더 일찍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이라도 남겨 놓았으면 좋았겠지만, 가시적인 기록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전승된 기억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고, 사료를 찾고, 발굴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만석보의 말뚝을 추정되는 목재를 발견한 것은 비록 당 시대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004년으로 비교적 멀지 않은 시기이다. 그 흔적을 학문적으로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 수집을 통해 만석보 터의 현장을 새롭게 확정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4.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
『고종실록』.
『동학사(초고본)』(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
『전봉준공초』(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
『동도문변』(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6).
「군수김후우현휼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文)」(『이평면백년사』).
「동진수리조합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건」, 1914. 국가기록원.
『경향신문』 1972년 8월 11일.
『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
『조선일보』 1933년 2월 10일, 1936년 10월 11일, 1961년 3월 26일, 1974년 4월 12일.

<단행본>

- 김상기, 1947, 『東學과 東學亂』, 대성출판사.
김용덕, 1973,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琿準』, 同學出版社.
오지영, 1940, 『東學史』, 永昌書館.
정읍시, 2004,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
정창렬, 1985,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연구회.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논문>

- 이진주, 2023, 「정읍 만석보 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정량적 연구 제언」,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조광한, 2023,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시스템 <https://gis-heritage.go.kr>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 시스템. <http://www.e-donghak.or.kr>

〈Abstract〉

Reviewing the Site of the Manseokbo(萬石湫)
in Gobu(古阜), 1894

Hong, Seongduk*

The destruction of Manseokbo was the begin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gan on Jan. 10, 1894, when farmers gathered at the Malmok Marketplace attacked the government office and destroyed Manseokbo. However, the exact location of Manseokbo is unknown.

In 1973 and 1997, a monument was erected to commemorate the Manseokbo,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t was where Manseokbo used to be. The location of the monument is also different from where Manseokbo used to be. A map depicting the location of Manseokbo is included in the record of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ongjin Repair Association in 1914. Since this map is also not a survey map,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loc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wooden pegs identified in 2004 were not from the tim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monument should be erected at the historical site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The area where there was the Manseokbo is different from where the Manseokbo was located.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determine the cultural heritage area. The most reliable way is to excavate the area where the Manseokbo is believed to have

* Jeonju University, Professor

been. Due to the nature of the river, there is a possibility to check the wooden stake. In addition, the location needs to be reconfirmed and modified through memory and data collection.

Key word : Manseokbo, Gwangsanbo, Malmok Marketplace(말목장터), Dongjin Repair Association, Manseokbo Monument

▣ 일반논문 ▣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조재곤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이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김종규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영우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신순철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조재곤**

〈목 차〉

- 머리말 : 일본군의 조선 출병 명분이 된 고부농민항쟁
I. 「전라고부민요일기」 분석
II. 외교당국과 토벌군 대대장의 기록
III. 신문 및 개인 저술기록
IV. 1895년~일제강점기의 이해
맺음말

〈국문초록〉

동학농민전쟁의 전사(前史)로서 고부농민항쟁의 의미는 적지 않다. 1894년 1월 조선의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그리 크지 않았던 농민봉기가 결국 동학농민전쟁으로 비화하였다. 고부농민항쟁과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그로 인한 청군 출병은 일본 정국의 국면전환 계기로 작용하여 정부와 군부는 의회 해산과 출병의 구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글은 고부농민항쟁 발생부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 이 논문은 2023. 9. 15 정읍시 주최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정부와 언론, 개인을 포함한 일본인이 이해하고 있던 고부농민항쟁의 전모를 같은 시기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용은 첫째, 1894년 봄 고부농민항쟁 직후에 작성된 「전라도고부민요일기」의 작성 경위와 필자를 추정하고 그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다. 둘째, 같은 해 주한 일본공사관 보고 기록과 조선 주재 각 언론사 특파원의 보고와 개인 저술 등에 나타난 고부농민항쟁의 이해와 실상을 살폈다. 셋째, 1895년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작성된 서적에서 이해하고 있는 고부항쟁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주제어 : 고부농민항쟁, 동학농민전쟁, 이치지 코스케, 전라도부민요일기, 파계생

머리말 : 일본군의 조선 출병 명분이 된 고부농민항쟁

일본은 1876년 함포의 위력으로 조선을 강제 개국시켰고, 1882년과 1884년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개입하여 조선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끝내 청국으로부터 그 우위권을 빼앗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청국과의 전쟁을 겨냥하면서 조선 지배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1884년부터 1894년까지 10여 년간 계속 군비(軍備)와 군비(軍費)를 증강하면서 그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청국의 ‘속방’인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군대 파견을 통한 조선 침략의 기회를 넘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94년 1월 조선의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그리 크지 않았던 농민봉기가 결국 큰 전란으로 비화하였다. 시골 백성들이 일으킨 자그마한 날갯짓이 동학농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킨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침략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외사(外事)’였고 출병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결정적 시기를 모색하던 중 전라도 농민군의 전주 점령 소식을 듣고 이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군대의 파견

을 결정하게 된다.

고부농민항쟁과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그로 인한 청군 출병은 일본 정국의 국면전환 계기로 작용하여 정부와 군부는 의회 해산과 출병의 구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군 출병의 가장 큰 명분은 ‘거류지 보호론’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학농민군이 투쟁을 일시 중단하여 치안이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류지 보호론’을 들어 동양의 평화와 자국의 안전보장을 내걸고 출병했다. 즉, 「텐진조약」과 「제물포조약」을 근거로 드디어 천황 메이지는 조선 파병 결정을 재가하는데, 이는 민씨 정권의 청국군 개입요청보다 하루 빠른 것이다.¹⁾ 결국 일본의 침략 의도는 이미 짜여 있었으며 향후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고부농민항쟁 발생 시기부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언론, 개인을 포함한 일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고부농민항쟁의 전모를 같은 시기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²⁾ 그간의 연구가 한국인의 처지에서 한국인의 시각으로 고부농민항쟁을 다뤘다면 이 글은 진압자였던 일본인의 시각과 인식을 다루어 동학농민전쟁의 다양한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894년 봄 고부농민항쟁 직후에 작성된 「전라고부민요일기」의 작성 경위와 필자를 추정하고 그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다음은 같은 해 주한 일본공사관 보고 기록과 조선 주재 각 언론사 특파원의 보고와 개인 저술 등에 나타난 고부농민항쟁의 이해와 실상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1895년 이

1) 朴宗根, 1982, 『日淸戰爭と朝鮮』, 靑木書店(朴英宰 역, 1989, 『淸日戰爭과 朝鮮 : 外侵과 抵抗』, 一潮閣, 16쪽).

2) 고부농민항쟁(고부민란, 고부농민봉기)에 관한 그간의 많은 연구 중 정창렬·김용섭·배항섭의 연구가 주목된다. 정창렬은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민란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였다(鄭昌烈,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上·下), 『韓國史研究』 48·49). 김용섭은 고부지역의 역사적 조건을 통한 고부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였다(金容燮, 2001, 『韓國近代農業史研究』(III), 知識産業社). 배항섭은 동학농민전쟁 발발의 배경으로서 고부민란에 주목하였다(裨亢燮, 2002,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景仁文化社).

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작성된 서적에서 이해하고 있는 고부항쟁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 「전라고부민요일기」 분석

1. 작성 경위와 필자

일본 정부는 청국과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조선의 정세와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 가운데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동학의 연원과 동학농민군의 동향, 일본군과의 전투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공사관기록’ 중 특히 필명 ‘파계생(巴溪生)’의 「전라고부민요일기사본(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은 동학농민군의 초기활동인 고부농민항쟁의 전모를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일기는 부산 일본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가 임시대리공사 일등서기관 스키무라 후카시(杉村瀧)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계생’이라는 필명을 쓰던 일본인이 1894년 5월 16일(갑오년 음력 4월 12일) 군부와 외부 당국에 보고한 문서의 사본이다. 내용은 1894년 2월 15일(음력 정월 10일)의 고부 관아 습격부터 이후 백산봉기와 황토현 전투까지 4개월간의 사건을 고부군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내호(萊湖)라는 곳에서 보고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다.³⁾ 이 기록은 당시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비망록 『비서유찬(秘書類纂) 조선교섭자료(朝鮮交涉資料)』 중권(中卷)에도 「전라도고부민요일기(全羅道古阜民擾日記)」라는 제목으로 수

3)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는 일본인 某가 본 항구에 거류하는 某에게 보내온 동학당의 소요 반란에 관한 일기를 얻었으므로 별지 사본 1책을 참고로 올립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全羅民擾報告 宮闈內騷擾의 件(二) : (8) 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送付」, 1894년 5월 30일 在釜山 總領事 室田義文→在京城 臨時代理公使 杉村瀧.

록되어 있다.⁴⁾ 다만 ‘공사관기록’과 ‘비서유찬’의 차이는 ‘전라고부민요일기’와 ‘전라도고부민요일기’, ‘내호(萊湖)’와 ‘채호(菜湖)’, 사본과 원본 일 뿐으로 서술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참모본부 역사 초안』에 따르면, “동학당 사건에 대해 좌관(佐官) 1명(이치지[伊地知])은 5월 15일 도쿄를 출발해 해당 지역으로 향함. 2~3일 내로 되돌아올 것임. (중략) 좌관 1명(이치지), 속관(屬官) 1명은 군사 및 지형정탐을 위해 조선과 동부 시베리아에 파견되어 있음”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1894년 6월 1일~12일 사이에 참모총장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타루히토 친왕(熾仁親王)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그 앞머리에 “이 여러 건은 월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무엇 때문에 이를 조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개는 조선에 출병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기입하였다”고 조선 출병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조사 일시 관련 부분은 일부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여행은 청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한 일본군의 상륙지와 행동 루트에 대한 사전답사의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5월 30일 귀국한 이치지 소좌의 복명을 받은 후 일본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청국과의 전쟁을 미리 계획한 일본 군부는 동학농민군의 동향파악 등 첩보활동에 주력하였고 계속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었다. 참모차장 중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는 1893년 4월 이치지 코스케(伊地知幸介)와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與造) 두 명의 소좌를 조선과 청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들은 첩보 활동을 마치고 동년 8월 귀국하였다. 이 시찰에 기초하여 이후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던 1894년 5월경에는 경성공사관 소속 무관 포병 대위 와타나베

4)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校, 1936,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卷), 祕書類纂刊行會, 343~356쪽.

5) 『參謀本部歴史草案』17(資料), 參謀總長 熾仁親王, 明治 27년 6월 1일~12일.

데스타로(渡邊鐵太郎) 및 참모본부원 이치지 소좌가 부산과 서울에서 첩보 활동을 하였다.⁶⁾ 와타나베의 경우 경기·강원·함경·충청·경상 5개 도를 유람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정부가 발급한 호조(護照)를 소지하고 조선의 정황을 정탐하고 있었다.⁷⁾ 그러나 그는 전라도를 간 적이 없었다. 전라도 집강소 활동 등에 관한 일본 상인 시라키 히코타로(白木彦太郎)의 보고도 1차 봉기 후의 상황이었다.⁸⁾ 따라서 고부농민항쟁을 비밀리에 정탐한 자는 이치지 코스케이며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감추기 위해 ‘파계생’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1893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는 참모본부 제2국원 소좌 이치지 코스케, 육군감독 사카다 겐산(坂田嚴三) 등과 함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조선과 청국을 정찰한 경험이 있었다. 이때 카와카미는 카와카미 로쿠조(河上六藏), 이치지는 이치지 타다스(伊地知正), 사카다는 사카다 하지메(酒田元)로 변성명하였다. 이들은 기사(技師)로 신분을 속이고 대구·상주·충주를 관광하고 경성으로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3월 1일 조선 정부에 호조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부산을 경유해서 해로로 인천으로 들어온 이들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조선 국왕 고종을 알현하고 흥선대원군과도 면담하였다.⁹⁾

일본 육군대학 제1기 수석졸업생으로 육군 소좌이자 대본영 참모 도조 히데노리(東條英教)의 비망록에 따르면, 참모본부의 명을 받아 조선에서 동학농민군과 내부 상황을 탐지하던 이치지는 귀국 당일인 1894년 5월 25일 카와카미 관저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때 참모

6) 參謀本部 編, 1904,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爭』 1, 東京印刷株式會社, 94~95쪽; 葛生能久, 1938, 『日支交渉外史(上)』, 黑龍會, 225쪽.

7) 『各司謄錄』 13, 『書契所報關錄』 3, 慶尙道篇 3, 甲午四月十九日.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월 14일부터 전라·충청지방을 여행한 상인 白木彦太郎의 聞取書 要點」, 1894년 7월 23일.

9) 大澤博明, 2019, 『陸軍參謀川上操六: 日清戰爭の作戰指導者』, 吉川弘文館, 53~54쪽.

본부 제1국장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등도 동석하였다. 다음 날 카와카미는 참모총장 다루히토 친왕에게 이치지의 보고 내용을 상신하여 조선 출병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이치지와 함께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관저도 방문해서 출병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동학당의 난이 일어났다는 변보가 도달하자 우리 참모본부는 일찌감치 일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에 국원 이치지(伊地知) 소좌를 조선에 보내 비밀리에 사정을 정탐시켰다. 소좌는 5월 15일 도쿄를 출발하여 그곳으로 가서 상세하게 실정을 탐사하고 떠도는 말은 결코 와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달 25일 동경으로 되돌아와 곧바로 참모차장의 관저로 가서 보고하였다. 이때 참석한 자는 카와카미(川上) 중장을 주로 하여 제1국장 테라우치(寺內) 대좌, 부관 타이세이(大生) 중좌 등이었다. 이에 정좌하여 소좌의 보고를 들었다. 이에 우리도 또한 군사를 조선에 보내야 한다는 논의를 결정하였다. 다음 날 카와카미 중장이 문서로서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출병의 승낙을 얻었다. 31일 중장은 이치지 소좌를 수행하고 이토(伊藤) 총리대신의 관저를 방문하여 출병의 논의를 제출하였다”.¹⁰⁾

이에 일본군의 출병이 긴급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수상 이토는 드디어 카와카미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출병을 승낙하였다는 것이다.¹¹⁾ 앞의 부산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의 보고와 대본영 참모 도죠 히데노리의 비망록으로 유추해 볼 때 이치지 소좌는 고부농민항쟁의 실

10) 東條英教, 『征清用兵 隔壁聽談』,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자료, #.1636. 1897. 도죠 히데노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수상이자 패전 이후 전범으로 처형된 도죠 히데키(東條英機)의 아버지다(나카스카 아키라, 한혜인 역, 2014, 『청일전쟁을 둘러싼 기억』,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30쪽; 쿠로노 타에루, 최종호 역, 2015,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 논형, 68~69쪽).

11) 東條英教, 앞의 책, #.1638.

상을 정탐하기 위해 이름을 숨기고 비밀리에 해당 지역에 출장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는 이후 조선 주재 외교관에게 참고를 위해 「전라고부민요일기」의 ‘사본’을 전달하고 원본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에게 건네져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에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죠의 기록 『정청용병(征淸用兵) 격벽청담(隔壁聽談)』에서 이토에게 ‘출병의 논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고부항쟁과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관한 「전라(도)고부민요일기」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이토의 외교비망록인 『비서유찬 조선교섭자료』에도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부농민항쟁이 일본군 출병의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청일전쟁 시기 정보 장교로서 활동하던 이치지의 보고가 개전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¹²⁾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에 의하면, “이토 내각총리대신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 참모총장 타루히토 친왕 전하 및 동 차장 카와카미 육군 중장의 임석을 청하여 전하와 중장이 내회(來會)하게 되었다. 여기서 금후 조선에 군대 파출의 내의(內議)를 협의하여 각의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각의 및 의회 해산을 주청(奏請)할 의제를 들고 곧바로 (황실로) 참내(參內)하는 형식에 따라 성재(聖裁)를 청하고 재가를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¹³⁾고 한다. 외무차관 하야시 타다스(林董)의 회고록에도 6월 2일 밤 외무대신 관저로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가 비밀리에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자리에서 이들 세 명은 조선 출병을 논의했고 모두 동의했다.¹⁴⁾ 다음 날인 6월 3일에 열린 내

12) 長南政義, 2011, 『坂の上の雲に描かれなかった謀將 伊地知幸介』(ゲームジャーナル編, 『坂の上の雲5つの疑問』, 並木書房, 65쪽).

13) 陸奥宗光, 『蹇蹇錄』(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資料, 外務省記録圖書 官41), 第1章 東學黨ノ亂.

14) 由井正臣 校注, 1982, 『後は昔の記 他(林董回顧錄)』, 平凡社, 75쪽.

각회의 석상에서 겐로[元老]인 중장 야마가타 아리도모(山縣有朋)는 이토 히로부미가 출병을 저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가 그날 밤 무쓰와 논의하여 출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파계생은 먼저 고부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부는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과 부산의 일본 상인들에게는 관계가 적은 지방이라서 그 읍 이름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만, 김제 및 만경 등에 연속된 대평야로서 28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토지는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며 줄포(茁浦)·염소(鹽所)·동진(東津)·사포(沙浦)의 네 항구로부터 원근 각지에 수출하는 양이 적지 않은바(상납액 1만 8,000여 석, 세고(稅庫)는 부안 줄포에 있음), 무역상 중요한 곳의 하나라고 한다.

다음은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인물 됃됨이다. 그는 함경도 방곡령(防穀令)으로 유명한 조병식(趙秉式)의 조카로 가혹한 세금과 잘못된 정치는 실로 일본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터라면서 조병갑의 실정(失政)에 관해 기록하였다. 첫 번째는 지난해 가을 이 지방은 풍작이었음에도 방곡령을 선포하고 측근을 시켜 미곡을 많이 사들였다가 쌀값이 폭등할 때를 노려 이를 방매해 순식간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에서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다.¹⁵⁾ 두 번째는 세미(稅米) 징수 시 극악무도한 짓을 하여 작년 10월경 민심이 적잖이 불온하였다. 같은 해 9, 10월경 승려로 하여금 벽보를 배부하게 하고 보수를 걷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또 수리(水利)와 관개(灌溉)를 빙자하여 하천에 보를 막고 수세(水稅)를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일이 있어 이 또한 원한을 산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 吳知泳, 1924, 『東學史』(草稿本), 104~105쪽.

고부농민항쟁의 발생과 확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력 정월 10일(2월 15일) 새벽 동진강 가에서 세력을 정돈한 민군(民軍)은 모두 흰 무명을 머리에 두르고 길이 5자 남짓한 죽창을 지녔다. 처음 모인 사람은 약 500명 정도로 성부(城府)의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여 군수가 사무 보는 곳의 앞까지 왔다. 군수의 침소를 짓밟고 나아가 내부의 여러 건물을 샅샅이 수색하였다. 놈이 이미 달아나 뒤쫓았으나 잡지 못하고 정읍 쪽으로 도망쳤음을 알았다. 수령 7명이 먼저 조당(朝堂)에 들어가서 아전과 악정에 조력한 자들을 소환하였고 오지 않는 자는 잡아들였다. 진영은 정숙하였고 호령은 명석하였으며 여느 반란군 같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악정의 시말을 엄중히 조사하기 위해 매일 구류된 사람들을 국문하였다. 양식으로는 제언의 수세로 강제 징수하여 놓았던 벼 1,400여 석이 제공되었다. 1월 11~14일에 가담한 촌락이 15개 마을, 전체 1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장정을 뽑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는 돌려보냈다. 이를 통솔하는 자는 한 마을에 5명씩이고 인근 군의 도처에서 동정을 표했으며 대체로 악평하는 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동학당의 두령과 조직화에 관한 서술이다. 두령이란 전명숙(全明淑)·정익서(鄭益瑞)·김모(金某) 세 사람으로 명숙은 상관이고 다른 두 명이 그를 보좌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명숙은 현재 동학당의 한 사람으로 당내에서도 다소 명망이 있는 자이고 다른 두 사람은 그 지방의 사족으로 정익서는 글을 배웠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은 젊어서부터 친구이며, 사건을 일으킨 시초부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이 세 명의 수중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마을의 동장·집강(執綱) 등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하여 하루아침에 실패하게 된다면 18구역 면의 동장·집강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백성들을 함부로 흩어지거나 싫증을 내지 않게 하여 한층 굳게 단결하는 듯했다고 한다. 향촌 자치조직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김모’는 김도삼(金道三, 1856~?)으로 추정된다. 사발통문 서명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 그는 전봉준의 이웃 마을인 정읍 이평면 산매리 산매부락에 거주하던 고부 토반 의성 김씨

의 후예로 학식과 덕망이 두터운 선비였다고 한다. 정익서(?~?)는 정음 정우면 초강리 연지평 출신으로 그 위인이나 문벌이 전하는 바 없으나 민소(民訴) 때마다 선두에 나섰던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¹⁶⁾

동학당의 격문과 전운영(轉運營) 해체 문제도 기술하고 있다. 전라도 전역을 관장하는 ‘민군의 수령’ 즉, 전봉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하 각 군현의 농민군에게 전운영을 파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에 58주(州)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워서 자기들의 목적은 다만 한 군의 이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전운영(轉運營)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 병사들은 양식은 먼저 군의 세곡 창고를 빼앗아 이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인심이 흉흉하여 미곡상 등도 따라서 감소되었다.”¹⁷⁾

이는 ‘전봉준 판결문’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미 고부항쟁 직후 농민군 수백 명이 합세하여 부안 줄포의 세고(稅庫)를 파괴한 일도 있었다. 전운영 해체는 고부농민항쟁이 개별 고을 단위의 민란의 단계에서 농민전쟁의 단계로 성격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⁸⁾ 따라서 동학농민군들은 초기 고부항쟁 단계부터 여러 가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다. 이는 호남의 농민들과 농민군의 중점 해결사항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것이다.¹⁹⁾

16) 崔玄植, 1980, 『甲午東學革命史』, 郷土文化社, 41쪽.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録』「全羅民擾報告 宮闕内騷擾의 件(二) : (8) 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送付」, 1894년 5월 30일.

18) 정창렬, 2014, 『갑오농민전쟁』, 선인, 172~173쪽.

19) 전봉준 등 농민군들은 제1차 봉기 이후 전주화약 당시 27개 조의 ‘폐정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轉運所를 혁파할 일’이었다(法務衙門, 「(第37號) 判決宣告書原本」, 開國 504年 3月 29日[總務處 政府記録保存所 編, 1994, 『東學關聯判決文集』, 29쪽).

다음은 농민군의 백산 집결과 항쟁 진행에 관한 것이다. 2월 25일(양 3월 31일) 민군은 공격과 수비에 이롭지 못한 점이 있어 백산(白山)으로 이전하였고, 3월 1일(양 4월 6일) 민군 수백 명이 줄포의 세고를 파괴하였다. 그러던 중 3월 13일(양 4월 18일) 완전히 해산하였다가 3월 20일(4월 25일) 동학군 수만 명이 무장(茂長)의 굴치(屈峙)를 넘어서 덕흥리를 지났다. 장꾼의 말을 들었다. 음력 3월 20일 이날은 농민군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에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사포(沙浦)를 지나 줄포로 왔다. 23일(양 4월 28일) 수백 명이 집합해 있었는데 물어보니, 동학당 수만 명이 바야흐로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며 선도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다. 농민군의 깃발은 척후기(斥候旗) 외에 청홍백황색의 구별이 있었고, 병기는 구제(舊制)의 화승총과 죽창·활·화살·창 등이었다고 한다.

농민군들은 점심을 먹고 난 후 고부로 향해 떠나면서 격문을 사방의 출구에 부착하였는데, “폐정혁신의 요점은 우리 태조(太祖)의 혁신편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으로 파계생은 글이 꽤 길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날부터 “후군이 날을 정하지 않고 뒤따라올 것이고, 이때 통과할 인원은 3,000여 명이다”, “동학당이 고부의 군기고를 약탈했는데 실수로 화약에 불이 붙어 수십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냈다”, “제주의 동학당이 사포에 상륙하였다”, “동학군의 후진이 서상(西上)한다”, “경군이 장포강구(長浦江口)의 군창(軍倉)으로 상륙하여 전주 감영과 서로 통하였다”, “동학군은 고부를 출발하여 전주 감영과 십리쯤 떨어진 곳에 대진(對陣)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다고 한다.

4월 4일(양 5월 8일) 동진강을 건너 부안성을 함락시킨 동학군은 부안의 지형이 불리하므로 전군을 고부로 옮겨 줄포에 주둔하는 경군과 전주 감영과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농민군이 부안관아를 점거하던 이날 대군이 동진강을 건너 부안에 들어가고 경군은 고부로 들어갔다. 4월 5일에는 지방민이 도망가는 상황을 글로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

였고 파계생 또한 배로 이동하였다. 그는 피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군의 상황을 묻고 답하거나 아니면 인가를 정리하여 피할 땅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날 경군은 영병(營兵) 250명을 중견으로 7,000~8,000명의 고용병을 이끌고 동학군과 대치하였고 줄포의 경군과 함께 합공하려고 하였다.

4월 6일(양 5월 10일)에는 동학군의 낙오자 수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밤 줄포의 경군이 전선에 도달하였고 한 발의 신호포가 울리면서 전투가 벌어졌다. 경군이 돌진하여 일거에 동학군이 짚으로 만든 가성(假城)에 들어가자, 전후에서 탄환을 비 오듯이 쏘아 장병 대부분이 죽어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었고 패잔병은 사망으로 흩어졌다. 7일(5월 11일) 아침 패주하여 온 병사들이 빈번히 배를 구하려고 애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얼마 안 있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도 왔는데, 처음에는 어느 편의 군대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덕으로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길로 달음질쳐 오는 자 등 그 수가 2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고부의 황토산(黃土山)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경군이 대패하여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걸어서 도망친 병졸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도망쳐 온 패잔병들은 이날 아침 우연히 세미(稅米)를 실으러 온 조선 기선에 구조되어 그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황토현 전투와 패잔 정부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후 4월 8일(양 5월 12일) 동학군은 흥덕을 지나갔는데 부내에서 밥을 지어 먹인 사람이 1만 8,000명이라고 했다. 4월 10일(양 5월 14일) 경군이 고창으로 진군한다는 설이 있어 민심은 흥흥하였고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자가 많았고, 4월 11일(양 5월 15일) 방곡령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으로 파계생은 끝을 맺고 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농민군들은 영광 관아를 점령하게 된다.

II. 외교당국과 토벌군 대대장의 기록

고부농민항쟁에 대해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은 통상보고 제5호로 본국 정부에 ‘전라도고부민란휘보(全羅道古阜民亂彙報)’라는 제목으로 보고한 바 있다.²⁰⁾ 이에 의하면, 고부민요(古阜民擾)의 무리에 동학당이 부화(附和)하여 그 무리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전라감사는 실정을 탐문하기 위하여 영관(領官)을 내려보냈더니 난민 등이 죽창으로 그에게 대항하여 영교(營校)는 살해되었고, 영관은 다행히도 화를 면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라감사의 전보에 고부의 난민은 만여 명으로서 대홍기(大紅旗)를 세우고 성을 쌓고 도랑을 파고 농기구를 모아 창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감사는 다시 전보하여 고부 등 7개 읍의 민란을 정탐하기 위하여 영관 1명을 파송하였는바 난민에게 타살되었으며 그 기세가 심하여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정부에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하였다고 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급히 전라병사에게 병을 출동시켜 난민을 도륙하라는 전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고부 난민’의 죄수는 동학당의 수령 최시형(崔時亨)이라는 자와 한때 이속이었던 은세하(殷世河)라는 자라고도 한다. 이에 의정부에서는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을 월봉(越俸) 3등에 처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금부에 잡아 가두어 논죄해야 한다고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것이 조보(朝報)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지 난민 휘보(各地民亂彙報)」라는 제목의 보고에서는 고부 외에 평안도 의주, 황해도 황주·중화, 경상도 거창·상주 등의 7읍 및 충청도에서도 민란이 일어나 수령을 축출하고 혹은 백성의 재물을 약취하는데 대체로 소규모 민요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간 일본공사관의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근래 민란이 일어나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古阜 및 各地民亂彙報 외 4件」, 發第27號, 在京城日本公使館通常報告 第5號, 1894년 월일 미상.

는 추세는 세도가 민영준(閔泳駿)의 세력 강화와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집권 민씨 일족들의 권력다툼 속에서 민영준을 탄핵하는 민영환(閔泳渙)의 비밀 상주문(上奏文)이 나오게 되었다면서 그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요즘 고부(전라도에 있음) 각 읍의 민요(民擾)는 국가의 크나큰 걱정거리입니다. 예부터 간신이 권력을 농간하면 백관이 인심을 잃고 백관이 인심을 잃으면 만민이 생업을 잃게 되며 만민이 생업을 잃으면 도당을 불러 모으는데 그것이 작으면 도적이요 크면 역적이 됩니다. 신이 엿드려 고서를 보건대, 매양 나라에 난리가 처음 일어남에는 화적을 별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근원은 오로지 권신이 하는 일을 그의 하고 싶은 바에 맡기는 데 있습니다. 권력이 임금보다 크고 부가 나라보다 더하다면 어찌 애통하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아는 일입니다. 어찌 직언하는 신화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쟁간(爭諫)하여 그 권력을 두려워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²¹⁾

다음 「전라도(全羅道) 고부민란(古阜民亂)」이라는 항목에서는, 전라 감사가 그들이 바라는 안을 받아들여 시행하겠다고 타일렀기 때문에 난민들이 점점 흩어져 귀농하려는 모양이지만, ‘오직 동학당의 일단은 무리를 지어 지금도 이산하지 않고 있다’²²⁾면서, 일반 난민과 동학당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한편 일본공사관에서 작성한 동학당을 견문한 일본인의 보고문서라는 내용의 문서가 5월 21일 일본 외무성과 부산총영사·원산영사에게 제출되었다. 이 사람은 신임 만경현감 이 아무개의 부임에 수행하여 음력 3월 21일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달 29일에 만경 도착 후 방향을 바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權臣 彈劾密奏와 古阜民亂件 의 2件」, 報告 第6號, 1894년 월일 미상.

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위와 같음.

꾸어 4월 1일 전주로 나와 이곳에서 8~9일간 머물렀다가 귀경하였다 고 한다. 그는 고부농민군의 두령과 봉기원인을 설명하고 항쟁의 내용과 무장기포로 가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동학당의 근거는 고부이며 그 수령은 고씨와 박씨인데 이 당이 봉기한 원인은 도백과 군수의 가렴에 기인한 것이다. 일찍이 작년 10월 중 군민은 지방관이 탐욕스럽기 그지없음에 분개하여 관청에 몰려들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하자 군수는 겁이 나서 전주로 도망쳐 감사의 보호를 청하였다. 이에 군민들은 전주로 가서 감사에게 하소연하였는데, 감사는 지극히 냉담하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라의 비용이 급하여 군수로 하여금 불시의 징발을 시켰던 것으로서 결코 군수가 탐욕한 데서 온 것이 아니다”라며 도리어 탐관오리를 비호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군민은 크게 격앙하여, “더 이상 지금의 지방관에게 공명 청렴을 기대할 수가 없다. 차라리 울분을 풀고 스스로 설욕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 고부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군에서 10여 리쯤 떨어진 바닷가에 지방관이 창고 3동을 설치하여 양곡을 쌓아 두었었는데, 군민들은 이를 파괴하고 미곡 수만 석을 탈취하여 군읍(郡邑)으로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였다. 또한 관청에 있던 군기를 끄집어내어 군비를 가다듬고, 이해 음력 2월에는 ‘보국안민 창대의(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펴며 반항의 결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방에서 이 기세에 휩쓸려 찾아와 가담하는 자가 많았고 칭하기를 동학당이라 하였는데, 그 수가 1,200~1,300명 혹은 800~900명이라고도 한다.²³⁾

일본공사관뿐 아니라 조선 각 지역 소재 영사관에서도 동학농민군 봉기 내용을 외무대신에 전보하였다. 인천영사관에서 파견한 인천항 리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월 18일 全羅道 全州에서 歸京한 者의 直話」, 發第97號(釜山總領事), 發第60號(外務省), 發第56號(元山領事), 1894년 5월 21일.

키다케상점(力武商店) 고원(雇員) 쇼우지마 도라노스케(城島虎之助)의 조사보고는 다음과 같다.

3월 30일(음 2월 24일) 광제호(廣濟號)로 출발하여 다음 날인 31일 군산진의 남쪽 군창(郡倉)에 도착한 이후 조선 배로 4일 만에 김제에서 육상 80리, 수로 20리 거리의 죽산포(竹山浦)에 도착하여 죽산 동쪽 40리 되는 곳에 동학당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4월 30일(음 3월 25일)에는 동학당 3,500명이 고부 백산으로 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한편 순오선(順五船) 선장 카와무카이 에이노스케(川向榮之助)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전명술(田明述)이라는 자를 대장으로 하는 동학당은 고부의 백산에 3,000명, 고부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1만여 명이나 둔집하였다. 그런데 약 20~30일 전부터 동학당은 사냥꾼에게 명하기를 핑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2관문(貫文)을 준다는 구실로 대대적으로 충기를 약탈하였다고 한다.²⁴⁾ 농민군 모집과 충기 보급을 위한 유인책을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명술은 전봉준의 또 다른 이름인 전명숙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성 2등 영사 우치다 사다쓰치(內田定槌)도 외무대신에게 대한 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상신하면서 조선 지방관의 폐해를 언급하였다. 그는 지방관은 혹은 흉년이라는 명분 아래 방곡령을 발포하여 시세 하락을 틈타 다액의 곡식을 매점한 후 갑자기 금령을 풀어서 보통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는 등, 난폭하고 낭자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⁵⁾ 우치다는 토색 수단으로서 지방관의 방곡령 발포를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군 토벌대장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東學黨에 관한 報告」, 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臨時代理公使 杉村濬, 1894년 5월 16일.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對韓政策에 관한 意見 上申의 件」, 在京城 二等領事 內田定槌→外務大臣 陸奧宗光, 1894년 6월 26일.

소좌의 기록도 공사관기록에 일부 수록되었다. 미나미는 원래 고부현(古阜縣)은 동학도의 본거지이고 고부가 그 본거지로 된 연유를 군수 조병갑의 탐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부의 현령(縣令)이 본시 탐욕스럽고 잔혹하기 짝이 없었으므로 고부의 인민들이 그를 갈아 치워 달라고 여러 번 정부에 청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마침내 200명 정도의 인민이 봉기하여 죽창과 깃발을 들고 힘으로 이를 경질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다음 전봉준의 추대와 봉기를 언급하였는데, 동학도의 거괴(巨魁) 전봉준(全琫準)은 고부현 사람으로 본시 몹시 가난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 가산을 모두 학자금으로 써 더욱더 빈곤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명의 농민이 봉기하자 이를 통솔할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전봉준에게 와서 청해 말하기를, “원하건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힘을 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봉준은 이를 거절하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거듭 청해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중개인이 되었고, 글을 써서 현령을 경질해 달라고 전주부사에게 여러 차례 애원했으나 끝내 용납되지 않았다. 전봉준은 이에 이르러 비로소 ‘폭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고부 근방의 인민은 모두 봉기하여 그에게 호응했다고 기술하였다.²⁶⁾

Ⅲ. 신문 및 개인 저술기록

고부농민항쟁 당시부터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일본 내의 주요 관심사였다. 한 상업출판사에서서는 1894년 3월부터 신문에 『소설(小說) 동학당(東學黨)』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제1차 봉기가 일어나자 5월부터 각 신문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東學黨征討略記」, 後備歩兵 獨立第19大隊長 南小四郎 少佐, 1895년 5월.

매체들도 ‘동학당의 폭동’으로 공식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당시 회자되고 있던 소문들을 정확한 확인 없이 흥미 위주 내지는 추측성 기사로 윤색하고 있다. 대부분 일본 외무성과 육군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제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94년 4월 8일자 『지지신보(時事新報)』는 「전라도 고부군에서 반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봉기의 원인은 ‘학정과 과도한 세금 징수’²⁷⁾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4월 22일 자는 아래와 같이 고부농민항쟁을 보도하였다.

“전라도의 민란(21일 오사카(大阪) 특보/전라도 고부(古阜)의 민란이 더욱 창궐이 극에 달하였다. 이 고부 이하 7개 읍의 수만 명이 흰 두건을 쓰고 칼과 창을 들고 황색의 깃발을 펴리며 밤에 고부의 관리 3명을 참살(斬殺)하였다. 더욱이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을 살해하고 자 동인(同人)이 이끄는 배를 탈취하였고 그 창고를 부수고 수천 석의 쌀을 반출하였다. 다시 병기(兵器)를 준비하여 경성(京城)으로 향하고자 하였는데 그 수괴는 동학당원(東學黨員) 최차춘(崔次春)이라는 자로서 전라감영에서 수십 명의 병사를 보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임).”²⁸⁾

특이한 내용은 고부봉기를 모의한 농민군의 ‘사발통문’에서 나타난 경성진출설이 일본 자료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내용은 파계생의 「전라고부민요일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최차춘’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지도자로 적기한 것도 이채롭다.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4월 29일 자 기사도 전운소(轉運所)의 가렴주구에 고부 7개 읍의 인민 수만 명이 봉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체적 맥락은 『도쿄아사히신문』과 유사하다.²⁹⁾ 반면 6월 9일 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전란

27) 『時事新報』, 1894년 4월 8일.

28) 『東京朝日新聞』, 1894년 4월 22일.

의 기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전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군수의 실정(失政)에 따른 것으로, 난민 지도부 3인은 전명숙, 정익서, 김모인데 전명숙이 우두머리고 2명이 이를 보좌한다고 하여 『전라고부민요일기』와 내용상 동일하다.³⁰⁾ 6월 10일 자 『니로쿠신보(二六新報)』의 「조선의 요란(속보)」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측근에게 쌀 수 천 석을 매수케 하여 이득을 취했고 조세징수 시에는 학정을 일삼자 음력 정월 10일 동학당 100여 명이 동진 나루터에서 봉기하고 군수의 침소로 돌입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³¹⁾ 파계생의 기록과 동일하다.

동학농민군 봉기와 활동상에 관한 각종 서적들도 경쟁적으로 출간되었다. 1894년 6월 도쿄에서 발행한 『조선폭동실기』는 고부의 지세, 군수 조병갑과 방곡령, 갑오 정월 10일 동진강 가의 봉기와 조병갑의 도망, 전명숙과 그의 동지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 인쇄 겸 발행자인 다카하시 이우타로(高橋友太郎)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그 ‘서언(緒言)’에 “본편은 하루아침에 계림(鷄林)에서 난이 일어나자 특별히 통신자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각기 보도케 하였지만 지금은 그 재료가 무릇 산을 이루어 도저히 작은 책으로 기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중략) 이번 조선의 요란에 관해 혹은 확신할만한 입수된 보도에 근거하여 그 요란의 기인을 다음에 열거한다”³²⁾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고부농민항쟁 관련 기사는 『전라고부민요일기』와 똑같다.

1894년 6월 오사카에서 발행된 『갑오조선내란시말』 제1편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³³⁾ 이 책을 저술한 니시지마 칸나미(西島函南, 1870~1923)의 또 다른 이름은 시라이 소메노스케(志良以染之

29) 『大阪毎日新報』, 1894년 4월 29일.

30) 『讀賣新聞』, 1894년 6월 9일.

31) 『二六新報』, 1894년 6월 10일.

32) 高橋友太郎 編輯 發行, 1894, 『朝鮮暴動實記』(東京), 1쪽.

33) 志良以染之助, 1894, 『甲午朝鮮內亂始末』(第1編), 駉々堂(大阪).

助)인데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성 중국어 통역으로 종군하였다. 그는 동학농민군을 ‘폭민(暴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오합지졸의 소동과는 다른 것으로 이번의 소란이 한국 혁명의 시기를 일보 전진시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폭민 봉기의 원인’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니시지마는 첫 번째로 조병갑의 탐학과 방곡령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즉, 폭민의 봉기는 온전히 인민의 분노가 쌓인 나머지 나온 것으로, 전라도 고부군은 지난 가을 수확 당시 뜻밖의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조병갑이 갑자기 그 부하에게 방곡령을 발포하여 미곡의 매매를 금지하게 하였다. 그 뒤 자신의 측근에게 명해 미곡 수천 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시세의 변동을 이용해 횡재한 일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미(租米)를 징수할 때에도 가렴주구하였기 때문에, 인민 중 그 비의비도(非義非道) 함에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수가 공미 운송과정에 개입하여 착복한 사실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공미(貢米) 운송사업을 위해 이운사(利運社)를 만든 이후부터는 정규의 공미 독촉뿐 아니라, 선박 수선비 및 정박비 외에 조선 범선과 운임의 차액까지 함께 징수하는 등으로 인해 인민의 불평은 더욱 쌓였다고 한다. 이 글에서 이운사가 처음 등장한다. 민영준(閔泳駿)·정병하(鄭秉夏) 등의 발기로 설립된 이운사는 공미 운반과 연안무역을 위한 민관 합작의 특권회사³⁴⁾로, 전운국에서 인수한 조선 기선 창룡호(蒼龍號)·현익호(顯益號)·광제호(廣濟號)와 독일 세창양행(世昌洋行, Edward Meyer & Co.)에서 구입한 이운호(利運號)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운사 조필영은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거둠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결국 고부농민항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³⁵⁾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録』 「利運社處理方法」, 在釜山 總領事 室田義文→特命全權公使 井上伯, 1894년 10월 24일; 仁川府 編, 1933, 『仁川府史』, 近澤商店印刷部, 1,030쪽.

35) 이에 대해서는 조재곤, 2018,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 『역사연구』 34, 참조.

세 번째는 ‘난민’과 ‘동학파’의 구분이다. 니시지마는 동학파 무리는 고부에서 폭민의 봉기를 보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여겼지만 처음에는 난민이 주인이었고 동학파는 객(客)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뒤 기세가 더욱 왕성해짐에 따라 형세가 일변하여 동학파가 주동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동학파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⁶⁾

다음 ‘동학당의 실력’이라는 소제목의 글은 고부농민항쟁과 동학당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동학당의 일파가 고부의 난민과 합세하여 그들의 기세는 더욱 창궐하여 고부 관아를 습격해 지방관을 내쫓고 무기와 양식을 빼앗고 각지의 공미 창고를 훼손하고 약탈하였다고 하였다. 부대와 훈련, 동학당의 근거인 고부군의 촌락 구성 상황 등에 관한 내용³⁷⁾은 파계생의 「전라고부민요일기」와 동일하다.

이 책에서 니시지마는 ‘조선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들을 폭도로 보아 가볍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³⁸⁾ 그들은 관리의 가렴주구와 압제에 저항하여 봉기한 이른바 ‘국민적 대동맹군’으로, 이것은 그들의 충정과 고심의 결과이자 결국 큰 파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은 순치(唇齒)의 관계이고 조선은 동양의 발칸반도와 같기 때문에 약소국이라더라도 천하의 이목이 이에 쏠려 그 성패 여하에 주의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음 『조선사건:내란실기』는 같은 해 7월 도쿄에서 발행된 책으로 편집 발행 겸 인쇄자가 오카다 쇼페에(岡田庄兵衛)라는 점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책의 「전란일기 (1) 깃발을 들다. 명치 27년 2월 15일 한력 갑오 정월 10일」과 「적세(賊勢)」의 서술³⁹⁾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36) 志良以染之助, 앞의 책, 5~7쪽.

37) 志良以染之助, 앞의 책, 7~9쪽.

38) 志良以染之助, 앞의 책, 81~86쪽.

탄압과 방곡령 발포, 고부군의 촌락 구성 상황, 주도층 관련 내용으로 「전라고부민요일기」·『갑오조선내란시말』과 대동소이하다. 8월 도쿄에서 발행된 『일정한전황실기』의 필자는 요우부쇼군(揚武將軍)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필명으로 편집 겸 발행자는 쓰지오카 분스케(辻岡文助, ?~?)로 되어 있다. 쓰지오카는 에도 말기~대정시대에 걸친 도쿄의 서적 도매업자로 1894년 10월 『일청전쟁평양지역(日淸戰爭平壤之役)』(金松堂)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고부의 민란」이라는 항목에서는, “전라도 고부에도 역시 민란이 일어나 조금 광맹(狂猛)을 가해 동 지역을 시작으로 흥덕·나주·경흥(敬興)·흥양(興陽)·고창·부안 등 7읍의 인민 수만 인이 둔집하여 최시경(崔時京)이라는 자를 괴수(魁首)로 삼아 각각 흰 두건을 쓰고 칼과 창을 들고 황기(黃旗)를 세우고 일거에 고부의 관리 3명을 참살(斬殺)하고 나아가 전문사 조필영(趙弼詠)을 살해한다고 하니 조씨는 이를 듣고 몰래 배를 타고 도주. 난민은 동소에 이르러 창고를 부수고 수천 석의 저장미를 꺼내서 그 양식으로 삼음. 혹은 경성으로 나간다는 세력도 있었다. 전라감영은 곧바로 수십 명의 병사를 보내 진무의 전령서를 내리고자 하였지만 난민 때문에 쫓겨 되돌아오게 되었다”⁴⁰)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앞의 『도쿄아사히신문』, 1894년 4월 22일 자 기사 내용을 가공 전재한 것에 불과하다.

『일정한전황실기』와 같은 달 오사카에서 출간된 키타무라 소스케(北村宗助)의 저술 『조선문제 출사사정』의 내용 중 「제8. 동학당 봉기」의 조병갑과 방곡령 부분은 『갑오조선내란시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지난해 일어났던 동학당의 잔당은 때가 왔으니 폭민(暴民)을 도와 관리를 때려죽이자는 격문을 사방에 전하였다. 당원 모두는 폭민과 마찬가지로 지방청에 돌입하고 관리를 살해하고 관사를 때려 부수는 등 낭자(狼藉)가 극에 달하였다. 이때 동학당은 오직 폭민에게 힘을 더하는

39) 岡田庄兵衛, 1894, 『朝鮮事件: 内亂實記』 2版, 文眞堂(東京), 3~6쪽.

40) 揚武將軍, 1894, 『日淸韓戰況實記』, 金松堂(東京), 5쪽.

데 그쳤고 주도하는 폭도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⁴¹⁾라 하여 ‘동학당’과 ‘폭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코자 하였다.

‘골피도인(骨皮道人)’이라는 필명을 쓴 니시모리 다케키(西森武城, 1862~1913)는 메이지 시대의 소설가이자 골계작가(滑稽作家)로 같은 해 10월 『일청교전실기』를 저술하였다. ‘조선 내란 동학당의 기인(起因)’은 고부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고 고부농민항쟁의 원인을 고부군수 조병갑의 방곡령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라고부민요일기」·『갑오조선내란시말』의 내용이 섞여 있다. 반면 고부군민이 세를 몰아 조세미를 비축하던 전운청(轉運廳)에 진격하여 창고 안에서 미맥(米麥) 수백 석을 약탈하여 미리 병량(兵糧)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어윤중(魚允中)을 안핵사(按檢使)로 파견하여 차차 위무 해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²⁾ 어윤중 관련 내용은 1893년 충청도 보은취회 관련 상황과 혼동한 것이다. 당시 안핵사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였다. 니시모리는 동학을 학파의 하나로 보았고 유생들이 정부에 원한을 품고 모여 당의 명칭을 동학으로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타다 쇼우켄(多田省軒, ?~?)이 『일청전쟁실기』를 발간하였다. 본명이 타다 키타로(多田喜太郎)인 그는 메이지 중기의 인기 작가의 한사람으로 탐정소설을 많이 썼다. 이 책의 ‘제2집 조선 동학당의 내란, 제1회 동학당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다’에서는 집권 민씨의 학정으로 조선 전국이 도탄에 빠지고 이로 인해 민심이 들끓게 됨에 전라도 고부의 동학당의 봉기는 일시 매우 창궐하였으나 국왕이 타일러 달램으로 인해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다시 봉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⁴³⁾ ‘제2회 흥 초토사 동도를 진무하기 위해 달려나감’의 서술내용에서는 동학당의 민란은 그 세를 맹렬히 해서 고부 현관을 붙잡아 그를 불에

41) 北村宗助, 1894, 『朝鮮問題 出師事情』, 岡島寶文館(大阪), 9쪽.

42) 西森武城, 1894, 『日清交戰實記』, 弘文館(東京), 2~3쪽.

43) 多田省軒, 1894, 『日清戰爭實記』, 辻本尙古堂(東京), 22~23쪽.

태워 죽이고[火殺] 전운청의 창고에 있는 공미 수백 가마를 약탈하여 파죽의 용맹을 떨치고 곳곳을 습격함에 따라 고부 부근은 경악하여 곧바로 급히 전라감사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⁴⁴⁾ 그런데 고부 현관을 불태워 죽였다는 내용은 오보이자 이글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다.

IV. 1895년~일제강점기의 이해

미토번(水戸藩) 출신으로 호가 시잔(紫山)인 가와사키 사브로(川崎三郎, 1864~1941)는 1893~1894년 '신문기자동맹'의 리더로서 이른바 대외경파(對外硬派)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청일전쟁 시기인 1894년 7월 『조선혁신책 : 일명 일청개전론』(博文館)을 저술한 바 있다.⁴⁵⁾ 이후 주오신문(中央新聞) 중군기자로서 9월 5일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일행과 동행하여 8일 히로시마 우지나(宇品)에서 조선으로 향했다. 인천·서울을 경유 9월 16일 북방으로 향해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후 평양전투와 제1군의 진군에 관한 많은 기사를 보냈는데, 「중군일기」 13회 연재, 「북정(北征)」 21회 연재 등 2종의 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질[赤痢病]에 걸려 중군을 단념하고, 다음 해 시모노세키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서울에서 기사를 계속 작성하였다.

가와사키는 귀국 후 저작에 집중하여 『일청전사』 전7권(博文館, 1896~1897)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의 저작 중에서는 가장 질 정리된 청일전쟁 통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에서 1894년 3~4월부터 전라도 고부현 부근에서 난민이 집회하여 일을 모의하는 자가 많았는데, 5월에

44) 多田省軒, 앞의 책, 23~24쪽.

45) 大谷正, 1998, 「忘れられたジャーナリスト・史論家・アジア主義者川崎三郎」, 『専修史學』 29.

이르러 고부·흥덕·태인·영광·정읍·부안·여산·백산 등 여러 지역에서 봉기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농민군 봉기원인을 그는 지방관이 오랫동안 취렴(聚斂)하는 것에 분개하여 폭관(暴官) 혹리(酷吏)를 제거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였는데 이를 지휘 조종한 것은 동학당(東學黨)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⁶⁾ 한편 그는 일본인 이민의 조선 이식론을 주장하였는데, 『조선 혁신책』에서는 개전의 결과 청국 세력을 조선으로부터 추방한 후에 구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이왕가를 추방하고 조선의 명족(名族) 중에서 조선공(朝鮮公)을 선정하여 조선공국(朝鮮公國)을 만들고 이를 일본의 보호 아래에 두어 내정개혁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1903년 간행된 『천우협(天佑俠)』이라는 책에서도 고부농민항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 겸 발행자는 세이토 코시치로(清藤幸七郎)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필자는 요시쿠라 요우세이(吉倉汪聖)이다. 천우협에서는 1894년 월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스즈키 텐칸(鈴木天眼)·다나카 지로(田中侍郎)·요시쿠라 요우세이 4인을 ‘담판 위원’으로 삼아 사전 논의한 후에 전봉준의 본영을 방문하고 필담으로 밀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때 전봉준은 “애당초 우리 무리의 의를 고부에서 주창한 주요 내용은, 본래 백성 구제의 염원이다. 불민하게 단지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함일 뿐이다. 이 때문에 진을 치고, 병사들을 이끌 때라 할지라도, 아직 연도에서 무고한 단 한 사람도 일찍이 해치지 않았고, 추호도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다. 이후 지금에 이르는 수개월 또는 관찰사에게 호소하거나, 격문을 사방에 전하여 우리들의 인의(仁義)의 뜻을 밝혔다”⁴⁷⁾라고 한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이자 조선사편수회 편수주임과 편찬주임을 역임하였던 역사학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는 1930년 자신의 저서 중 ‘2. 동학당 변란’이라는 소제목의 서술내용에서

46) 川崎三郎, 1896, 『日清戰史』(第一卷), 博文館(東京), 28쪽.

47) 清藤幸七郎, 1903, 『天佑俠』, 新進社(東京), 111쪽.

“1893년 충청도 보은현에서 동학도도(東學道徒)의 소요는 다행히 큰 희생을 치루지 않고 진압되었지만 동도의 폭동은 도리어 이보다 빈발을 예상하게 되었다. 과연 보은집회로부터 1개년을 지나서 전라도 고부에서 일대 요란(擾亂)이 발발하게 되었다”⁴⁸⁾라고 하여 보은취회의 연속으로서의 고부항쟁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만석보 개수와 세금 징수가 고부봉기의 발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당시의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은 조선 말기에는 일반 지방과 같이 오랫동안 지방 관헌의 가렴주구에 고통받았고, 농민의 소요가 끊이질 않은 형세였는데, 1892년 내임한 고부군수 조병갑은 흑리(酷吏)의 대표적인 자로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만석보(萬石湫) 개수(改修)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또한 수세(水稅)는 대략 일정한 비율이었지만 조병갑은 1894년 초 인부 수만을 동원하여 대 개축 공사를 하였고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수세를 모두 사적으로 하였으며 수세의 비율도 예전에 비해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⁴⁹⁾ 다보하시는 이후 조선사편수회 촉탁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와 함께 조선사편수회장 정무총감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清德)의 청탁을 받아 1934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정읍군 소재 고부면 사무소·만석보·항토현·고부 객사와 부안군 백산 등을 현지답사하고 촌로들을 만나 1894년 당시의 상황을 듣고 사진과 지도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⁵⁰⁾

갑오년 당시 『고쿠민신문(國民新聞)』 특파 기자로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취재하였고 이후 『조선왕국(朝鮮國王)』(1896)·『대원군전(大院君傳)』(1910) 등을 저술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1870~1953)는 1932년 10월 10일 ‘동학변란’의 사적을 찾아 전봉준의 옛 거주지인 고부를 방

48) 田保橋潔, 1930, 『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京城帝國大學, 58쪽.

49) 田保橋潔, 앞의 책, 59~60쪽.

50) 朝鮮史編修會 編, 『忠清南道·全羅南北道史料採訪復命書』(昭和九年 十一月 二十一日)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문한 적이 있었다. 기쿠치의 기록은 당시 촌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고부의 민란」이라는 소재목 내용에서 그는 고부군수 조병갑을 ‘폭학강복(暴虐剛腹)한 탐관(貪官)’으로 규정하면서 농민항쟁의 근본 원인을 만석보 수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조병갑은 앞서 만석보의 수리비(水利費)를 군민에게 부과하여, 그 수리 지역의 인민으로부터 1천 석의 보세(淤稅)를 징수하였는데, 만석보는 정읍의 남에서 분류(分流)하여 이평면의 동남을 관통하여 부안평야의 반 대수리(大水利)를 담당하는 큰 보였다는 것이다.⁵¹⁾ 이때는 갑오 정월 16일로 군수의 엄령에 따라 검속 구치된 읍민 몇 명은 고�형(苦刑)에 처해졌고, 군의 아전은 그 접주(接主) 등을 끌어가서 사실을 캐물었다. 정월 10일 고부붕기가 발생하였다는 파계생과는 달리 기쿠치는 정월 16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읍민 심덕명(沈德明)·조성국(曹成國)·최시중(崔時中)·김봉현(金鳳賢)·은세방(殷世邦)·은인식(殷仁植) 등은 쫓기하여 군청으로 쳐들어가서 강하게 담판하는 중에 읍민이 일제히 군아에 쇄도하여, 관의 공문서를 찢어버리고 무기고를 파괴하였는데, 읍민이 더욱 가세하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심덕명 등은 여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자를 일부 달리하는 김봉현(金鳳鉉)이 1896년 4월 태인에서 체포되어 장(杖) 30대에 처해진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⁵²⁾

「전봉준 일어나다」·「전봉준의 인물」에서는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도 소개하고 있다. 지휘자 전봉준은 이평면 장내리에 거주하는 촌부의 아들로, 읍내의 노인들은 관군 정토가 도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의 퇴산을 원했고 읍민들도 소란한 동네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을 떠나려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전봉준은 일동에게 소

51) 菊池謙讓, 1939, 『近代朝鮮史』(下), 鷄鳴社(京城), 213쪽.

52) 『司法稟報』(甲) 第六冊, 「報告書」, 全州府參書官 廉圭桓→法部大臣 李範晉, 建陽元年 四月九日.

리치며 ‘백산(白山)에 집합하자, 백산의 창고를 개방하자, 그리하여 관곡을 탈거(奪去)하자’고 명하고 궁민(窮民)을 구제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백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당시 백산의 창고는 4천 석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전봉준은 ‘구미위원(救米委員)’을 선정하여 이를 여러 이웃에 분배하자 부근의 궁민이 이를 듣고 다투어 참가하여 이들 만에 3천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기쿠치는 이평면장을 동반하고 전봉준의 옛 거주지 장내동(長內洞)에 도착하여 거주하던 초가를 찾고 동내의 부로(父老)를 불러 그의 인물됨을 묻기도 하였다. 이때 촌로가 말하기를 “그가 고부의 민란에 가기 며칠 전 어디에선가 내객 3~5명이 왔는데 모두 낯선 사람들로서 후에 이들 손님은 모두 동학당의 요인들이었다”⁵³⁾고 하였다. 고부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인사들이 연합하여 대규모 민중항쟁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맺음말

고부농민항쟁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는 「계사 십일월 사발통문」과 파계생의 「전라고부민요일기」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전자는 전주영을 함락하고 변혁세력을 구축하여 서울로 직향한다는 항쟁의 대체적인 계획과 여기에 참여 인물을 잘 알려주는 문서이다. 후자는 고부농민항쟁의 단초를 제공한 조병갑의 인물평, 항쟁의 발생일과 확산 및 조직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항쟁의 가장 큰 원인은 방곡령과 보세 징수, 전운영 문제 등을 들고 있다. 1894년 당시의 일본인의 기록은 공사관과 영사관 작성 보고문서를 제하면 대부분은 「전라고부민요일기」를 토대로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각색한

53) 菊池謙讓, 앞의 책, 214~216쪽.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반면 고부지역 농민군의 경성진출 모의는 ‘사발통문’의 내용과 유사하다. 농민군 모집에 유인책을 쓰거나 이운사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일부 보인다. 또한 난민과 동학도를 구분하여 여타 민란과 고부항쟁과 차별성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실체가 없는 허구의 지도자를 실명으로 제시하거나 고부군수 타살 및 3명의 관리 참살(斬殺) 등에 대한 언급 등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오보도 적지 않다.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후부터 일제강점기에도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방관의 탐학과 농민항쟁 지도자 전봉준에 대한 평가,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한 농민군 지도부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파계생’이 이치지 코스케가 맞았다면 전라도 고부농민항쟁의 진상 파악은 동시기 일본 참모본부의 기획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독일 군제를 모방하여 1878년 육군성 참모국이 독립하여 군령기관으로 창설된 참모본부는 정부 조직체계뿐 아니라 육군성과도 독립된 기관으로 작전계획과 지휘·수행 등에 관해 천황에 직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⁵⁴⁾ 고부농민항쟁의 동향파악에 참모본부가 동원되었다. 그 내용은 각종 신문매체와 상업서적 등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상세하게 전파되었고, 이를 명분으로 일본 군부는 일찌감치 기획하고 있던 청일전쟁 준비와 조선 출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즉, 고부농민항쟁의 실상파악과 일본군의 조선 출병은 천황제를 토대로 한 ‘군국주의

54)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參謀本部』, 中公新書.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참모본부는 광개토태왕 비문 탁본 번조, 왕궁점령 전말 역사기록의 체계적 위조, 왕후 민씨 살해 주도 등 조선의 역사 및 정치 현상과 관련한 사실 왜곡의 역사적 경향이 적지 않게 있었다(中塚明, 1997,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金文子, 2009,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1904년 참모본부에서 편찬한 『명치이십칠팔년일청전사(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전8권)는 청일전쟁과 동학농민군 토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제43장 병참(兵站)」에서 전신선을 절단하고 양식 조달을 방해하는 ‘폭민(暴民) 즉, 동학농민군과의 대결이 필요하여 재봉기한 동학과의 전투 즉, 섬멸 작전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군부의 기획(planning)과 실행(practice) → 대중 매체(mass media)를 통한 선전(propaganda)과 확산(diffusion) → 국민적 인지(cognition)'라는 연쇄 과정을 거쳐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제(mechanism)가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과 영사관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

투고일 : 2024. 3. 29. 심사일 : 2024. 4. 27.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 『各司謄錄』 13, 『書契所報關錄』 3, 慶尙道篇 3, 甲午四月十九日.
法務衙門, 「(第37號)判決宣告書原本」, 開國 504年 3月 29日[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編, 1994, 『東學關聯判決文集』].
吳知泳, 1924, 『東學史』(草稿本).
『司法稟報』(甲) 第六冊, 「報告書」, 全州府參書官 廉圭桓→法部大臣 李範晉, 建陽元年四月九日.
仁川府 編, 1933, 『仁川府史』, 近澤商店印刷部.
朝鮮史編修會 編, 『忠清南道·全羅南北道史料採訪復命書』(昭和九年 十一月 二十一日)[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 葛生能久, 1938, 『日支交渉外史(上)』, 黒龍會出版部(東京).
岡田庄兵衛, 1894, 『朝鮮事件 : 內亂實記』 2版, 文眞堂(東京).
高橋友太郎 編輯 發行, 1894, 『朝鮮暴動實記』(東京).
菊池謙讓, 1939, 『近代朝鮮史』(下), 鷄鳴社(京城).
多田省軒, 1894, 『日清戰爭實記』, 辻本尙古堂(東京).
東條英教, 『征清用兵 隔壁聽談』,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자료, #.1636. 1897.
陸奥宗光, 『蹇蹇錄』(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資料, 外務省記錄調書 官41), 第1章 東學黨ノ亂.
北村宗助, 1894, 『朝鮮問題 出師事情』, 岡島寶文館(大阪).
西森武城, 1894, 『日清交戰實記』, 弘文館(東京).
揚武將軍, 1894, 『日清韓戰況實記』, 金松堂(東京).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校, 1936,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卷), 祕書類纂刊行會(東京).
田保橋潔, 1930, 『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京城帝國大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志良以染之助, 1894, 『甲午朝鮮內亂始末』(제1편), 駸々堂(大阪).
參謀本部 編, 1904,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爭』 1, 東京印刷株式會社(東京).
川崎三郎, 1896, 『日清戰史』(第一卷), 博文館(東京).
清藤幸七郎, 1903, 『天佑俠』, 新進社(東京).
『大阪每日新報』.
『讀賣新聞』.
『東京朝日新聞』.
『時事新報』.
『二六新報』.

『參謀本部歴史草案』 17(資料), 參謀總長 熾仁親王, 明治 27년 6월 1일~12일.

〈단행본〉

- 金容燮, 2001, 『韓國近代農業史研究』(III), 知識産業社.
- 朴宗根 著, 朴英宰 譯, 1989, 『淸日戰爭과 朝鮮 : 外侵과 抵抗』, 一潮閣.
- 裴允燮, 2002,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景仁文化社.
- 정창렬, 2014, 『갑오농민전쟁』, 선인.
- 崔玄植, 1980, 『甲午東學革命史』, 郷土文化社.
- 金文子, 2009,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參謀本部』, 中公新書.
- 大澤博明, 2019, 『陸軍參謀川上操六 : 日淸戰爭の作戰指導者』, 吉川弘文館.
- 由井正臣 校注, 1982, 『後は昔の記 他(林董回顧錄)』, 平凡社.
- 長南政義, 2011, 『坂の上の雲に描かれなかった謀將 伊地知幸介』(ゲームジャーナル編, 『坂の上の雲5つの疑問』, 並木書房).
- 中塚明, 1997,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 쿠로노 타에루 著, 최중호 譯, 2015,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 논형.

〈논문〉

- 鄭昌烈,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 한국사연구회, 117~144쪽.
- _____,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下), 『韓國史研究』 49, 한국사연구회, 99~134쪽.
- 조재곤, 2018,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 『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121~152쪽.
- 나카스카 아키라 著, 한혜인 譯, 2014, 「청일전쟁을 둘러싼 기억」,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 大谷正, 1998, 「忘れられたジャーナリスト・史論家・アジア主義者川崎三郎」, 『專修史學』 29.

<Abstract>

Japanese Perception of Gobu Peasant Uprising

CHO JAE GON*

As a previous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War, the meaning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is not small. The small-scale peasant uprising that occurred in January 1894 in Gobu, Jeolla-do, of the Joseon Dynasty eventually turned into the Donghak Peasant War. The Gobu Peasant Uprising, the Donghak Peasant Army's first uprising, and the subsequent dispatch of the Qing army served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 tide in Japanese politics, so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were able to dissolve the parliament and provide an excuse for the dispatch of troops. This article examines the whole story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which was understood by the Japanese, including the government, the media, and individuals, focusing on data prepared during the same period, from the outbreak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to the subsequent Japanese colonial era. First, the process and author of the "Jeollado Gobu Peasant Uprising Diary" written immediately after the Gobu Peasant Uprising in the spring of 1894 were presumed and the core contents were examined. Second, in the same year, the understanding and reality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which appeared in the records of the Japanese mission to Korea, the reports of correspondents of each media company in Joseon, and personal writings, were examined. Third, it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Gobu

* Research Professor of SGKI at Sogang University

Peasant Uprising, which was understood in books written from 1895 to Japanese colonial era.

Key word: Gobu Peasant Uprising, Donghak Peasant War, Ichigi Kosuke, Jeolla Gobu Peasant Uprising Diary, Fagye-Saeng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이병규**

〈목 차〉

머리말

I. 1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II. 2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III.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성격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임피·옥구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초기과정에서 옥구, 임피,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1894년 6월부터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0월까지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은 군산진을 장악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세(收稅) 활동을 하기도 하고 배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는 등 군산진은 완전히 동학농민군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군산진에 대해 최건수를 군산첨사로 임명하여 조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최건수는 군기와 아전을 점고하고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그는 성하영의 진압부대를 통해 군산진을 동학농민군으로부터 회복하고,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해 수성군 조직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피지역은 세 지역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김해룡과 김문화가 대표적인 지도자로 이들은 2차 봉기 과정에서 임피 북일면 성동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옥구지역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진호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구관아에서 처형되었으며, 최증여 역시 전주감영에서 처형되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 군산, 임피, 옥구, 문규선, 최건수

머리말

현재 군산시는 1894년 당시에는 옥구현, 임피현이 있었고 군사기구로서 군산진이 있었다. 군산지역이라 하면 옥구, 임피, 군산진을 포함한다. 옥구현은 군산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하며 만경과 서해를 접하는 지역이다. 서쪽으로는 서해와 고군산군도를 접하고 남쪽으로는 만경강 넘어 김제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임피, 익산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군산진과 접하는 지역이다. 임피현은 군산의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익산, 함열, 함라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강과 강 건너 서천군 한산면과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군산진, 남쪽으로 옥구현과 접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9년 5월 ‘군산 동학에 몰들다’¹⁾라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9년 5월, 『군산 동학에 몰들다』(특별전시 도록).

특별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같은 해 5월 18일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면서부터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작고하신 고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군산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주셨고, 이어서 필자가 ‘동학농민군, 새로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이 ‘동학농민군, 군산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 전시와 특별세미나를 통해 군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었다. 김중규 관장은 특히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새롭게 정리하여 『동학학보』(51호, 2019년)에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²⁾이라는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군산근대역사 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군산진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고문서가 발견되었다.³⁾

2)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3)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894년 전후 군산진 관련 고문서는 다음과 같다.

「行群山鎭水軍僉節制使馳報」, 1894.12.

「群山鎭水軍節制使牒報」, 1895.8.

「鄉所列名記」, 1894.11.

「奴今番記」, 1895.1.

「匪類囚徒記」, 1895.2.

「全羅右道群山守城軍座目」, 1895.

「軍器汁物點關記」, 1894.10.

「守城軍名單」, 1894.10.

「吏校番記」, 1894.10.

「各里明記」, 1895.1.

「群山各里明記」, 1894.10.

「人吏番把任記」, 1895.3.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1894.

「최건수 군산첨사 도입 문서」, 1894.

「訓令(群山)」, 1895.

「군산진 첩매 관련문서」, 1895.

「甘結(群山)」, 1895.2.



〈그림 1〉 군산지역 지도(군산진, 옥구현, 임피현)

그러나 이후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동안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이 군산을 경유하는 과정, 2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진·임피현·옥구현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 그리고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성격 등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I. 1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군산지역에서 동학교도의 활동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군산시사』에 의하면 옥구현 대접주 정경화가 1893년 보은 집회 때 참

「군산진 첩사 보고」, 1895.

여했으며, 장원경(1866년생)이 1893년 입도했으며, 허공집(1864년생)이 동학에 입도해서 접주, 교장의 직을 역임했으며, 오시옥(1857년생)이 1894년 입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이를 통해 볼 때 대체로 1893년 전후에서 동학이 전파되고 동학교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차 봉기과정에서 군산지역의 농민군의 활동은 옥구에서 허진이 백산봉기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동학사』와 『천도교회사초고』에서 확인된다.

(1894년)東學軍이 古阜城을 陷落한後 白山에 도라와 陣을 치고 再度의 檄文을 發한 後로 南一帶는 勿論이오 全朝鮮江山이 古阜白山을 中心으로 하고 흔들흔들 하였었다. 이때 전후로 모혀든 將領級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總括的으로써 檢閱하여 보면 …… 沃溝에 許鎭이오 萬頃에 陳禹範이오 …… 여러 사람이 각기 軍長이 되었었고 …… 5)

(1894년) 三月에 全瑋準이 또한 除暴救民의 策으로써 古阜郡 馬項里에서 起包하여 …… 是時에 …… 許鎭은 沃溝에서 起包하다⁶⁾

이와 함께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이 1차봉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은 「전라도고부민란시초(全羅道古阜民亂始初)」 전문이다.

전라도 고부민란시초[全羅道古阜民亂始初]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이 국령(國令)을 칭탁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리기를, “크게 백성을 모아 구막보(九幕洑, 만석 보)를

4)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1,038쪽.

5) 오지영, 1940, 『東學史』, 아세아문화사, 1979, 112~113쪽.

6) 天道敎中央總部, 1920, 『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1, 亞細亞文化社, 1979, 455~456쪽).

쌓아라.” 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따라 이 보를 쌓았다. 전답이 수천 석이었는데 각 마지기마다 조세 5두(斗)를 거두어 수천 석이 된 것이다. 몰래 전운사(轉運使, 조필영)와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랐다.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국세(王稅)를 내는 논이라도 기경(起耕)한 지 삼 년 뒤에 세포(稅布)를 바치는 법인데, 올해 보를 쌓게 하고 조세 5두를 거두어 가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온 읍(邑)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로 상소하였는데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민란이 일어난 것인데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 [狀頭]이 전녹두(全綠斗)이다. 이 사람은 동학도에 도통해 조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장두(狀頭)가 된 것이다. 우리 군의 군수[本倅] 병갑이 한양으로 도주하였다. 이 일이 보고되자 임금께서 조병갑을 종루(鐘樓) 거리에서 결장(決杖)하고 화침(火針)을 놓았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박원갑(朴元甲)을 패초(牌招)하여 고부 군수에 제수(除授)할 것을 명하였다.

부임한 지 3일 뒤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너희들이 억울해하는 점을 내 응당 다 풀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기에 농업으로 돌아갔다. 조정에서 고부군의 일을 자세히 알고자 해서 장흥 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를 고부군 안행사(古阜郡按察使)로 보냈다. 전라 감영(全羅監營)에 도착해 감사(監使, 使는 시의 오류)와 사건에 대해 말을 주고받은 뒤 고부민란을 일으키고 선동했던 8인을 압송하여 엄히 주리를 틀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전녹두가 몰래 동학도 수천 명을 모아 전라 감영에 이르니 감영의 영사(營使)가 앞에 닥친 일을 두려워하여 풀어 주었다.

전녹두가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3월 초에 부안읍에 들어가니 부안 수령이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자 이상의 동학도들이 텅 빈 이 기회를 틈타 병장기를 수탈한 뒤 연이어 옥구(玉溝)·태안(泰安)·고부 등 읍의 병장기를 탈취하고서 고부군 뒤편 두등산(頭嶺山)에 진을 쳤다. 전라도 관찰사가 이 일을 듣고 상장군(上將軍) 이재섭(李再燮)과 부장군(副將軍) 송사천(宋泗川)에게 위임하였다. 사천은 전라 좌우도(全羅左右道) 보부상[左右商]의 도반수(都班首)이다. 임소(任所)의 사람 수만 명을 불러와 일시에 전라 감영의 병장기로 무장하고서 두등산의 앞에 있는 낮은 산(案山)에 도달해 녹두의 진영을 살펴보니 군중의 깃발과 검극(劍戟)이 눈서리처럼

엄하였다.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수차례 싸움을 걸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 적진에 격문을 보내니, “상장군 정일창(鄭一昌)의 나이는 14세이고, 부장 전녹두의 나이는 30세이며, 말장(末將) 이일해(李一解)의 나이는 30세이고, 모사(謀士) 노성범(盧聖凡)의 나이는 40세이다.” 라고 격문에 답을 해 왔다. 송 사천이 군정(軍丁)을 거느리고 두등산에 오르니 때가 황혼이 되었다. 정일창이 장검으로 지휘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송 사천이 적의 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재섭과 도망치니 대군(大軍) 가운데 죽은 사람을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적장(賊將)이 전라 감영의 병장기를 빼앗으니 7개 고을의 병장기가 탈취당했다. 그 가운데 몰래 숨은 병졸이 요행히 몸을 피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죽은 사람이 산처럼 쌓여 있고 흐르는 피가 천(川)을 이루고 있었다. 상장군 이재섭이 돌아와 군졸(軍卒)을 점고(點考)해 보니 죽은 사람이 914명이었다.

일이 임금께 보고되자 대대적으로 경군(京軍)을 보냈다. 상장군 홍재희(洪在熙), 부장 이 대인(李大人) 말장 김 대인(金大人)이 병대(兵隊) 500명과 청나라 병사 300명과 대포 12문(車)을 거느리고 전라 감영에 이르렀다. 판관(判官)이 수항(藪港)으로 나와 대군의 행차를 영접했다. 흑자가 이르기를 “4월 초10일에 고부군으로 떠났다.” 하였다.

완영에서 기록하다.⁷⁾

7) 「全羅道古阜民亂始初」

全羅道古阜民亂始初 古阜郡守趙秉甲，稱以國令，招致百姓行令曰，防[九]幕狀，民皆從令防此狀。畚庫則數千石也，每斗落五斗租收稅，爲數千石也。暗與轉運道分食之由，民怨孜孜曰：“雖王稅起耕，三年後收稅布，當年防狀，五斗租收稅，極爲冤抑之由。”一邑冤聲仰訴，而事不歸正，民亂蜂起，狀頭則全泉斗也。此人則東學道通，造化無窮，故爲其狀頭也。本倅秉甲，逃走上京，事聞上趙秉甲鐘樓決杖與火針。牌招廣州朴元甲，命除授古阜郡守。到任三日後，招致萬百姓曰：“汝矣所冤，吾當盡雪矣，勿慮”云。故各歸農業矣。自朝家欲詳知古阜事，使長興府使，送古阜按覈使。到全營與首監使酬酌後，押上古阜民亂起鼓八人，嚴牢刑囚獄。全泉斗暗聚渠黨數千人，到底全營，則營使畏其當頭事放送。全泉斗率其黨數千名，三月初入扶安邑，扶安倅暫爲避身，右東學黨乘此空虛，奪去軍器後，連以玉溝·泰安·古阜等邑軍器奪取，而屯陣于古阜後頭嶺山。完伯聞此，寄上將軍李再變副將軍宋泗川，泗川則全羅左右道左右商都班首也，招致任所之人數萬名，一時發全營軍器，到古阜郡，屯陳頭嶺案山，望泉斗陣，旗幟劍戟，嚴如霜雪。不勝憤激，數挑戰，日已暮矣。馳檄敵陣，上將軍鄭一昌年十四，副將全泉斗年三十，末將李一解年三十，謀士盧聖凡年四十，

「전라도고부민란시초」는 고부봉기 직후 전라감영에서 ‘고부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이후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와 황토현전투 그리고 초토사 홍계훈의 진압군 파견 등에 대해 작성한 문서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병갑 후임으로 임명된 박원명을 박원갑이라고 기록하거나 태인을 태안으로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록의 오류가 많다. 특히 군산지역과 관련해서는 “전죽두가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3월 초에 부안읍에 들어가니 부안 수령이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자 이상의 동학도들이 텅 빈 이 기회를 틈타 병장기를 수탈한 뒤 연이어 옥구(玉溝)·태안(泰安)·고부 등 읍의 병장기를 탈취하고서 고부군 뒤편 두등산(頭燈山)에 진을 쳤다.”라고 하여 전봉준이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부안읍에 들어갔고, 이어서 동학도들이 옥구, 태안, 고부의 병장기를 탈취하여 두등산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안은 태인의 오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옥구는 군산지역의 옥구라고 보기 어렵다. 한자도 옥구(沃溝)와 옥구(玉溝)로 다르다. 당시 농민군의 이동 동선 상 백리 이상 떨어진 옥구에서 병장기를 탈취하여 두등산(고부에 있는 두승산으로 추정됨)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는 옥구는 고부인근 지역의 지명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군산, 옥구, 임피)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학사』나 『천도 교회사 초고』에 허진이 옥구를 대표해서 활동했다고 하지만 이후 2차 봉기 과정에서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허진과 세력을 형성하여 활동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임피지역에서도 활동한 인물이

以此答檄，故宋泗川率軍丁登頭燈山，時也黃昏，鄭一昌揮長劍，宋泗川不當敵勢，與李再燮逃去，則大軍中死者，不可勝數，賊將奪去全營軍器，則七邑軍器奪去也。其中隱匿之卒，僥幸避身，舉眼視之，死者如山，流血成川。上將軍李再燮，歸點軍卒則，死者九百十四名。事聞上大發京軍，上將軍洪在熙，副將李大入，末將金大人，率兵隊五百名·清兵三百名·大炮十二車，抵到全羅道營，判官出于藪港，迎接大軍行次，或云四月初十日，發行古阜云。完營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면 1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군산, 옥구, 임피)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허진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1896년 최시형이 손병희에게 도호를 주었고, 시찰할 때 허진이 최시형을 찾아 뵙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여겨진다. 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허진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포덕 37년(1896) 병신(丙申) 정월 5일에 신사가 손병희의 의절(義節)을 매우 칭찬하여 도호(道號)를 의암(義菴)이라 주시고 몰래 의암으로 하여금 충주에 가서 도유의 향배를 시찰케 하시다. 이때 호남도인 박치경(朴致景), 허진(許鎭), 장경화(張景化), 조동현(趙東賢), 양기용(梁琦容)이 신사를 찾아뵙다.⁸⁾

한편 군산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과정에서 진압군의 이동로이기도 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지자 고종은 1894년 4월 2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고 진압군을 내려 보냈다.

고종 31년 4월 2일,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에서 온 전보를 연이어 보건대, 동학(東學) 무리의 정형이 갈수록 더욱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홍계훈(洪啓薰)을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로 차하(差下)하고 장위영(壯衛營)의 병정(兵丁) 몇 대(隊)를 임시로 품지(稟旨)하여 거느리게 하고 윤선(輪船)을 오늘 중에 내려 보내어 진압하고 쓸어버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⁹⁾

이때 고종은 홍계훈에게 밀부유서를 주어 군사에 대한 권한을 명확

8) 『천도교서』, 제2편 해월신사편.

9) 『고종실록』, 고종 31년 4월 2일.

하게 해 주었다.¹⁰⁾ 그런데 이들이 바로 군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홍계훈이 이끄는 양호초토군이 군산을 거쳐 전주까지 이르는 과정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토사는 이달 4일 申時에 仁川港에서 輪船을 타고 출발하고, 隊官 李斗璜은 1隊의 병정들을 인솔하고 漢陽船을 타고 가서 5일 申時에 군산포에 먼저 도착했고, 隊官 元世祿은 1대의 병정을 인솔하고 蒼龍船에 탑승하여 戌時에 군산포에 도착하였으며, 臣은 3대의 병정을 인솔하여 중국의 兵船 平遠號를 탔는데, 이달 4일 酉時에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으나 수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닻을 내려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은 자욱한 안개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일찍 떠나지 못하고 안개가 개기를 기다렸다가 배를 운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酉時에 겨우 群山鎮의 外洋에 도착하였으나, 兵艦의 船體는 크고 물은 매우 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닻을 내리고, 다시 蒼龍號와 漢陽號 두 선박에 병정들을 나누어 태우고 6일 申時경 군산포에 도착하여 상륙한 즉시 전주로 갔었습니다.¹¹⁾

10) 「홍계훈밀부유서」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에게 내린 유서(1894년 4월 2일)

승정대부(崇政大夫)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정령관(正領官)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에게 교유(教諭)함[諭崇政大夫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洪啓薰] 경이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에 관한 일을 위임받았으니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릇 병사를 출동시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일체 평상시 사안은 자연히 옛 법도가 있다. 그러나 혹여 내가 경과 독단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또 뜻밖의 간사한 계락을 예방하지 않아선 안 되니 만약 비상한 명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뒤에야 응당 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압(御押) 을 찍은 제38 밀부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교유한다. 광서(光緒) 20년(1894, 고종31) 4월 초2일

諭崇政大夫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洪啓薰

卿受委兩湖，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爲。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三十八符，卿其受之。故諭。光緒二十年四月初二日。

이 자료에 따르면 4월 2일 임명된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4일 신시(15~17)에 인천항을 출발하였는데, 대관 이두황은 한양호를 타고 5일 신시(15~17)에 군산포에 도착하였고, 대관 원세록은 창룡호를 타고 술시(19시~21)에 군산포에 도착하였으며 홍계훈은 중국 병선 평원호를 타고 4일 유시(17~19)에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으나 수로를 알지 못하여 닻을 내려 하룻밤을 지내고 5일 유시(17-19)에 군산진의 외양에 도착하였다. 결국 이들은 6일 신시(15~17)에 군산포에 도착하여 상륙하였고, 이후 바로 전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때 홍계훈의 진압군이 전주로 이동할 때 군산진에서 물자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작년 4월에 경영대군이 본진으로부터 감영으로 행진할 때에 영문의 감결에 따라서 군대에서 필요한 문건을 수송하기 위해 전주부집꾼과 우마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무른 지가 몇날 몇일이 되어서 식비 전 65량 9전을 그들이 올린 발괄문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해당 관청에 여러 차례 이문을 보내 재촉하였으나 해가 지나도 보내지 않으니 보고한 바에 따라 즉시 감독하여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¹²⁾

이때 홍계훈의 진압군이 전주로 이동할 때 군산진에서 물자를 제공하였고, 추후 이를 받기로 하였으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이행되지 않아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산 백성들이 경병의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1) 국사편찬위원회, 199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2) 「군산진 첩사보고」, 189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II. 2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 시기의 경우, 군산진, 임피, 옥구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바로 군산진이다. 군산진은 별도의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첨사가 파견되어 별도의 행정구역과 같이 운영되었고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1. 군산진

군산진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2월 22일 [同日]

출진한 서산군수가 보고합니다. 이번에 서천과 한산에서 적을 격파한 후에 흩어진 나머지 무리들이 곳곳에 숨었기 때문에 여러 날 순행하여 뒤쫓아 체포한 자가 자못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진(群山鎭)이 땅은 비록 전라도의 경계에 있으나 다만 본도로부터 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듣자니 흩어져 도망한 적들이 그곳 진으로 달아나 모여서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 부대가 떠난 후에 다시 서천·한산으로 침입할 염려가 없지 않은 듯하여, 지난 달 29일 서천 송동리(松洞里)로부터 한산 지호(芝湖)에 이르는 길로 행군하여 한산 두문리(斗文里)를 지나갔습니다. 이 마을은 곧 지난날 비류들이 모여 있던 곳이라 200여 호가 불에 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근심스럽고 참담하였으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길을 막고 통곡하며 하소연하는데 그 떠도는 상황을 보자니 참으로 가슴이 아

팠습니다.

그 이튿날 그믐에 바다를 건너 즉시 군산(群山)쪽으로 30리를 가니 비류가 이미 먼저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대를 주둔하고 뒤쫓아 정탐하니 온 진《군산진》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특함에 몰들어 비류의 거괴와 한통속이 되어 방비한다는 핑계로 그곳 진의 무기를 빼앗아 가서 아전과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배는 그 용도의 공사를 막론하고 내왕할 때에 총을 쏘아 배를 대도록 강요하여 곡식이건 물건이건 모두 다 탈취해 진의 창고에 쌓아 두고, 용도에 따라 출납할 때는 책자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는 것이 마치 거만하게 관부의 문서와 같이 하였습니다.

탄환·깃발 등의 물건을 숨겨 놓은 것도 또한 많아서 낱낱이 수색하여 거두어들였으며, 군수 물건으로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얼마간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창고에 저장해 둔 쌀과 콩은 숫자를 밝혀 모두 기록하고 그곳 진의 첨사 최건수(崔建壽)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비류들의 미곡 지출 장부 1건, 돈과 재물의 출납부 1건, 군수 물건 지급 장부 1건, 진 공형의 다짐[考音] 2건을 모두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 진의 문규선(文圭璇)은 10년 가까이나 오랫동안 동도에게 물든 자이기 때문에 곡식 담당의 박가(朴哥), 염초 담당의 최가(崔哥), 도포수(都砲手) 문가(文哥) 등과 같이 네 놈을 함께 잡아서 조사하여 총살하였습니다.¹³⁾

이 자료는 서산군수 성하영이 군산진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고 보고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군산진의 아전과 백성들이 동학농민군과 한통속이 되어 무기로 무장하고, 배가 왕래할 때 총을 쏘아 배를 대도록 강요하고 곡식과 물건을 탈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들이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¹⁴⁾이 동학농민군들과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

13)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2일.

1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에서 문규선과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성하영은 문규선과 이러한 활동을 함께 했던 곡식 담당 박가(朴哥), 염초 담당 최가(崔哥), 도포수(都砲手) 문가(文哥) 등 4명을 총살하였다고 한다. 성하영이 이렇게 급박하게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을 총살한 것은 그만큼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강력하였으며 이들이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최건수가 군산첨사로 부임한 이후에 군산진의 상황을 정리한 문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첨사가 1894년 10월 22일 도입하여 관속들을 불러 동학의 작폐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하기를 5월까지의 동학의 명색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6월 이후에 각처에서 동학이 등장하여 다른 사람의 무덤을 굴충하기도 하고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개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지켜내기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 즉 6월 이후 군산진에서 급속하게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확장되어 군산진을 장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군산진의 첨사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좌수를 비롯한 아전들이 첨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깊이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이다. 즉 아전들이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곡식창고를 장악

고문서가 있다.

「甲午十一月日 鄉所列名記」

鄉長 高啓春

執綱 田大昌

座首 文周善

別監 高興用

群山

原

行使(압)

여기에 나오는 문주선이 문규선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 15) 「僉使今十月二十二日到任」, 僉使今十月二十二日到任後招致鎮屬先問東學之作弊皆曰本鎮今五月轉運所中撤以前初無東學名色矣忽於六月日各處東都課日來侵勒掘人塚橫奪家山箇箇人不得支保雖欲散使作網羅乾坤無所歸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문서.

하고 있었다. 이시기 군산진은 완전히 동학농민군이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최건수를 군산첨사로 임명하였다.¹⁶⁾ 이때가 1894년 9월 22일이다. 그러나 최건수가 바로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실제 최건수가 부임한 것은 10월 22일이다. 최건수 군산첨사는 부임한 다음 날인 10월 23일 바로 군산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군기를 점고하여 기록해 놓았다. 이는 최건수가 첨사로서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군산진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 十月 二十三日 軍器汁物點閱記

鳥銃 37柄

鐵身 3柄

鐵槍 23柄

令旗 2箇

破傷皮甲 5걸

木道里打 1箇

長箭 20部

大碗口 1箇

大鐵丸 10箇

破傷木弓 10張

破傷頭凱 9箇

大將軍箭 14箇

無匣環刀 2柄

行使(압) 17)

16) 『고종실록』 고종 31년 9월 18일.

17) 「軍器汁物點閱記」, 1894.1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문서.

최건수는 이와 함께 각 아전에 대해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전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동학농민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이상 아전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甲午十月 日 吏校番記

吏房 車共洛

戶房色

軍器色

貿販色 一邊 車鳳仁

禮房

兵房色

貿販色一邊

烽燧色

民庫色 徐文燮

首刑吏 車斗勳

工房色

戰船色

上南書員

均役色 車碩九

18) 「吏校番記」, 1894.1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都書員 全炳植

下南書員

結錢色 林俊桓

承發

傳關色 車文玉

原

執事 金日瓚¹⁹⁾

이어서 11월에는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아래 문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최건수 군산첨사와 연관성이 있는 문서로, 시기적으로 1894년 11월에 작성되었다. 문서의 내용은 도회장을 정하고 마을별로 책임자로서 회장이 기록되어 있다. 진내의 방수장이란 표현을 통해 볼 때 최건수가 첨사가 된 후에 동학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수성군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甲午十一月 日

都會長 金商坤

鎮內會長 崔斗任

防守將 徐用淳

上南面會長 田大煜

下南面會長 高明得

19) 「吏校番記」, 1894.1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竹城里會長 洪寬弼
京浦里會長 安正信
五龍洞會長 田大鉉
算項里會長 高午順
石峙里會長 金顯聲
新豐一里會長 高致成
 二里會長 田溶宜
沼隴里會長 權用杓
沙場里會長 文圭鳳
羅雲里會長 高萬興
井星里會長 李永培
富興里會長 李允永
大田里會長 李圭桓
白土里會長 文章弘
築洞里會長 文振錫
屯栗一里會長 崔春五
 二里會長 安子順
鉢山里會長 田昌裕
京場里會長 朴允淑
新興里會長 金才權
弓乙里會長 金俊文
行使 20)

이렇게 수성군을 조직한 후에 성하영 서산군수가 이끄는 진압군이
군산에 들어오도록 하여 좌수 문규선 등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것으로

20) 「수성군 명단」, 1894.1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보인다. 즉 최건수 첨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최건수 첨사는 1895년 2월에 다시 한번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1894년 11월 도회장이었던 김상곤이 이때는 수성장으로서 역시 책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전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커졌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데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乙未二月 日 守城郡番記

守城將 金商坤

左統領 朴正守

右統領 徐用淳

一番長 金基周

二番長 車能轍

一番

番長 金基周

車升安, 金應必, 李光瑞, 金奉瑀, 車斗容, 車斗奉, 金興祚, 李文圭, 徐相文, 金成贊,

金文燦, 車逸泰, 金永八, 林學祚, 車文玉, 車振軾, 車文樂, 金宜春, 李文坐, 金東生,

申千五, 金喜豐, 權池同, 陳俊己, 文奉汝, 李士成, 崔德甫

二番

番長 車能鐵

趙式京, 徐相浩, 朴乃守, 車斗煥, 朴亨仲, 金成燦, 趙俊明, 林啓玄, 車宗伯, 李采德,

金學先, 崔升祚, 金尙模, 金宜仁, 金吉用, 崔達安, 車孟述, 丁致云, 俞會俊, 朴完根,

李君培, 車億日, 權京祚, 車宗必, 李德敏, 金泰燦, 金采允

行使 (압)

全羅道群山守城郡座目

1895년 2월 군산첨사 최건수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군산진수성군좌목(全羅道群山守城郡座目)」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군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군산진의 행정조직과 함께 군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乙未 二月日 匪類囚徒記

京浦 金士元

安德良

石峙 金應方

金學水 次知其子 從來

新豐 田斗容 次知三寸 俊汝

田行先

臨陂 梁哥

群山京浦²¹⁾

이 문서는 1894년 2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다. 경포, 석치, 신평, 임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들은 체포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바로 이때 조직된 수성군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匪類囚徒記」, 1895.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전곽산군수 최건수는 본래 노련하였다. 전에 동학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특별히 군산첨사로 제수되어 10달간 군산첨사로 있으면서 맑은 덕과 위엄있는 믿음으로 다스렸다. 비도를 정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여 모든 군산진이 편안해져 사방에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한 軍器가 하나도 잃은 바가 없었다. 그런데 군산진이 폐기되어 해임되자 이민들이 길가에 나와 통곡하기를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하였다. 그 치적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제 사람을 택할 때 이러한 충신을 발굴한다면 어찌 모자람이 있으리오. 바라옵건데 살펴 주십시오²²⁾

이 문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작성 시기는 대략 1895년 9월 전후로 추정된다. 이때 군산진이 철폐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 문서를 통해 볼 때 최건수가 동학농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군산진을 회복하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후 군산진을 잘 운영해나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군산진이 철폐되자 이민들이 이를 대단히 아쉽게 여기고 그들의 의견을 상부에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군산진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훨씬 이전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1894년 1차 봉기 과정에서는 크게 활동하지 않았다. 1차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이 승리하고 그 세력이 강성해지자 1894년 6월 이후 크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좌수 문규선과 아전세력은 동학농민군에 적극 가담하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세 하기도 하고 배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인근의 동학농민군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그리

22)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前郭山郡守崔建壽素以老鍊在昔東擾時時除爲群山僉使在鎮十朔以清德威信爲治戡定匪徒撫恤貧歎一鎮 賴安四鏡誦碑支如軍器一無所失矣及其罷鎮解任吏民擁路號哭如失慈母其治蹟推次可知見今公道擇人之時屈此赤忠之材則豈非有欠哉 恭希 台照.

고 이 과정에서 군산첨사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조선 정부는 1894년 9월 최건수를 군산첨사로 임명하였고, 한참 후인 10월 22일 최건수가 군산첨사로 부임하여 활동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최건수는 부임하자마자 군기를 점고하였고 아전을 점고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세력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갔던 것이다. 이어서 1894년 11월 수성군을 조직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11월 말 서산군수 성하영이 이끄는 정부 진압군이 문규선 등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최건수 군산첨사는 을미년에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수성군을 재정비하고 직접 농민군 토벌에 나섰으며 결국 군산진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끝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이 군산진을 장악한 기간은 189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정도이다.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1894년이란 격동의 시기에 시시각각으로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다시 상황이 바뀌어 동학농민군이 크게 토벌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군산진의 상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변화는 매우 급변했으며 안정된 사회의 관점으로는 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정의 시기와 변화의 시기는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만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바로 1894년 군산진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즉 기록된 내용은 매우 소략하고 짧지만 1894년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5개월의 기간은 역사 속에서 짧고 희미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역사 속에서는 패자로 반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진정한 역사 속의 진실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임피현

임피지역은 세 지역 중 농민군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임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임피현령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894년 9월 17일)

아뢰기를, “호남의 비도들이 곳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전후로 무기를 잃어버린 수령과 진장(鎭將)으로서, 관찰사의 계사에서 처벌을 요청한 자가 29명이나 됩니다. 평소에 엄히 단속하고 방어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道) 전체가 소란스러운 이때에 처벌하는 동안 각 고을과 진(鎭)의 업무가 방치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임실 현감(任實 縣監) 민충식(閔忠植)·임피 현령(臨陂 縣令) 송순혁(宋淳爨)·동북 현감(同福 縣監) 유치성(兪致誠)·무안 현감(務安 縣監) 이증익(李重益)·옥과 현감(玉果 縣監) 홍우석(洪祐奭)·흥양 현감(興陽 縣監) 조시영(曹始永)·익산 군수(益山 郡守) 정원성(鄭元成)·화순 현감(和順 縣監) 민영석(閔泳奭)·용안 현감(龍安 縣監) 민진호(閔進鎬)·법성 첨사(法聖 僉使) 권인하(權寅夏)·격포 첨사(格浦 僉使) 유협(柳) 등은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고,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해남) 이규환(李圭桓)은 전에 이미 문비(問備)하였으므로, 지금은 잠시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²³⁾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 고을과 진의 업무가 방치될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 임피 현령 송순익 등은 이미 죄가 있지만 상황이 급박하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피지역에서의 동학농민군

23) 『啟草存案』, 1894년 9월 17일.

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수령인 임피현령 송순혁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봉기 과정에서 임피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유원술, 김상철, 진관삼, 홍경식, 최순봉 등이다.

(1894년) 十月에 京畿道砥平郡 孟英在 …… 是時에 湖南道人이 海月神師의 命敎에 依하여 全瑋準으로 더불어 起包치 아니하였던 者 또한 四方에서 起包하니 …… 臨陂 劉原述, 金相喆, 陳寬三, 洪敬植, 崔順奉²⁴⁾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학·천도교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피지역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한 동학농민군 중의 하나가 바로 김해룡이다.

출진서산군수가 첩보합니다.(개국 503년 11월 22일)
서산(瑞山)과 한산(韓山)의 경계에서 적을 격파한 사유는 어제 이미 치보(馳報)하였거니와, 한산의 역촌(驛村)에서 21일 묘시(卯時, 오전 5~7시) 무렵에 내산(內山), 외산(外山), 길산(吉山) 등지로 행군하여 서천 경계에 이르러 여당(餘黨)으로서 김제(金堤)에 사는 강명선(姜明善) 등 7명과 대기수(大旗手)라는 명색의 4명을 뒤쫓아 붙잡아서 모조리 즉시 총살하였고, 이어 한산읍의 신아포(新牙浦)로 향하여 강을 건너 달아나던 임피(臨陂)의 적 김해룡(金海龍) 등 7명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그대로 신아포에 유진(留陣)하였습니다.²⁵⁾

충청도와 전라도 접경지역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주도했던 서산군수 성하영이 1894년 11월 21일 한산읍의 신아포로 향하여 강을 건너던

24) 『天道教會史草稿』, 天道教中央總部, 1920, 『東學思想資料集』 1, 亞細亞文化社, 1979, 462~465쪽.

25) 『순무사정보첩』, 1894년 11월 22일.

임피의 동학농민군 김해룡 등 7명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즉 김해룡이 임피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김해룡은 임피를 근거지로 하면서 충청도 지역까지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임피지역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접주인 김문화이다. 『미나미고시로 문서』의 「고도정의 문보」를 통해 접주 김문화가 임피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임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다.

고도정의 문보

임피 북일면 성동의 탁지대신택 산지기 고도정이 문보합니다. 본동의 접주 김문화는 동학의 괴수라고 일컬으면서 한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습니다. 도정은 7월에 그의 행패를 견디기 어려워 집을 버리고 달아나 숨어 버려 저희 집은 회소(會所)가 되었습니다. 본동의 잔민(殘民) 들에게는 세미를 어느 명목으로든 두세 번이나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거주민들이 대부분 유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연변에 오가는 배들을 마음대로 붙잡아 들었으며, 장사꾼의 전곡을 무수하게 탈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정은 다만 이 형편을 틈타 곧장 본동으로 들어가 이달 25일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즈음에 마을 앞에 불을 지르고 동 성동리의 접주 김문화를 결박하고 불에 던져 곧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놈의 집도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그밖에 무지한 동도(東徒) 거주민으로 구타를 두려워하여 입도(入道)한 자들과, 도박빚을 피하여 걸로만 도를 받드는 체하는 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림자처럼 배도(背道)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문보하오니, 삼가 첩정을 일일이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첩정(右牒呈)

경대장 처분(京大將處分)

1894년 11월 26일 도정 고태홍[서압]²⁶⁾

26) 「고도정의 문보」, 『미나미고시로 문서』
高都政文報

이 문서는 임피 북일면 성동리의 탁지대신택 산지기 고도정(태흥)이 상급기관에 보고한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북일면 성동리의 접주 김문화가 동학의 지도자였고, 그 세력이 매우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정은 동학농민군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 집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도정의 집이 동학농민군의 본거지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고도정이 7월에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는 1894년 7월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동학농민군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미 7월 이전에 세력을 형성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임피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적어도 5~6월 경부터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조직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동학농민군들이 세미를 거두고 배들의 이동하는 것에 관여했으며, 장사꾼들의 상행위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상황이 변하자 그 반대 입장에 있던 고도정이 불을 지르고 접주 김문화를 잡아 죽였던 것이다. 고도정의 문서를 통해 당시 엄혹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접주 김문화가 임피지역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임피 북일면 성동리는 현재 군산시 성산면 지역으로 북쪽에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와 접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임피지역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조직이 남아

臨陔北一面聖洞度支大臣宅山直高都政爲文報事本洞接主金文化稱以東學魁首一村行惡去益甚焉都政則 七月初難堪行惡而擻家逃竄矣家則仍作會所是遭本洞殘民處稅米何等名色是喻再三勒捧居民學皆流離之境是乎乙遭沿邊行船任爲捉入商賈輩錢穀無數奪取故都政乘此勢卽入本洞而今二十五日薄暮村前放火 同聖洞里接主金文化結縛投火卽殺而其漢之家亦衝火是遣其外無知居民東徒畏其毆打入道者避賭錢外樣 奉道之民一併如影背道是乎所等以緣由文報爲臥乎事合竹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京 大 將 處 分

甲午十一月二十六日都政高泰興[署押]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준홍이다. 1900년 동학을 이어받아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받는 중에 그들의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본부 산하 상무사 도장무원(都掌務員) 정인택(鄭寅澤)의 보고서를 접하니
그 안에,

“본사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사원 10명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동학 무리를 체포하려고 각처를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체포해 온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金準弘)·류덕장(柳德長)·김성초(金成初)·장한여(張漢汝)·이치옥(李致玉) 및 고산 용암리(龍巖里)의 이관동(李關東)·이용구(李龍九) 등 일곱 놈이 무리를 모아서 움직이고자 상의하는 정황을 염탐하여 모두 체포하고,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 투서(念珠套罽)와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준홍 등 일곱 놈을 곧바로 압송하게 하고 압수한 물건을 일일이 살펴보니 곧 과연 상무사의 보고에서 나열한 것과 같고, 갑오년(1894)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괴한 흔적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준홍 등 일곱 놈을 본 재판소로 잡아들여 전후 정황과 무리들이 몇 명인가를 엄격히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김준홍이 진술하기를,

“저의 나이가 지금 38세인데 갑오년(1894) 7월에 장경하(張敬夏)에게 동학의 도를 받았으나 장경하가 곧 몇 해 전에 사망하고, 작년 11월 천만뜻밖에 평소 친하지 않던 상주(尙州) 이관동(李關東)이 통문 1통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다른 접(接)의 말을 듣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곧 돌아갔습니다. 금년 정월에 이관동이 고산 등지로 이사할 뜻으로 글이 왔고, 일전에 들으니 이관동이 고산 운남산(雲南山) 아래 용암리에 사는 이용구와 더불어 친분이 있어 그 마을로 이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 이성동(伊成洞)의 김성초(金成初)와 서곡(書谷)의 류덕장(柳德長)과 수하(水下) 신기(新基)의 장한여(張漢汝) 등이, 이관동

이 장차 임피 신정리(新正里)의 김윤국(金允國) 삼길리(三吉里)의 이치옥(李致玉)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김성초·류덕장·장한여 3명이 마침 저의 집에 도착했다가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은진 강경포(江鏡浦)의 류산춘(柳山春)이 이관동의 지휘로 인하여, 올해 4월 초8일에 전주 수하(水下) 배산(益山) 아래 넓은 들판(野地)에서 모임을 갖고 외국인(異國人)의 배척을 도모할 뜻으로 상의하였습니다. 저는 곧 다시 설포한 동학의 새로운 접주가 되었습니다. 산하에 거느린 사람은 고문선 이하 30여 명이며, 다른 무리들은 강경포 류산춘이 거느린 것이 40명이 됩니다. 모여서 일을 같이 꾀한 자는 익산(益山) 의동(蟻洞)의 김경재(金敬裁), 김제(金堤) 남면(南面)의 강문숙(姜文叔), 고부 남면의 홍경삼(洪敬三)과 김명중(金明仲),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仲)과 명중(明仲) 형제로, 이들이 호남 동학 중에 두목(居首)입니다. 또 제가 급하게 무리를 불러 이관동을 찾아갈 뜻으로 저의 집에서 상의하다가 지금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²⁷⁾

임피출신 김준홍은 갑오년(1894년) 7월에 장경하로부터 동학의 도를 받았다. 장경하는 임피지역 동학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준홍은 고문선이 다시 동학을 이어받아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3월 15일 제1호
 법무 전훈(電訓) 안에,
 ‘무주(茂朱) 덕유산(德裕山)의 동학의 남은 무리가 점차 성하여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설이 낭자하게 들리니, 순검을 파견 염탐하여 잡아서 급히 보고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곳에 순검을 파견하여 몰래 염탐하고, 한편으로 해당 군에 훈령을 내리고 비밀리에 신칙하였으나, 지금 이 무리가 종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듣기로 고산(高山), 여산(礪山)과 은진(恩津), 연산(漣山) 등지에 이 무리들 몇 명이 몰래 통하고 서로 만나니 자못 수상하다

27) 『사법품보』,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고 합니다. 기찰을 두지 않고 나타나는 대로 사냥하여 은밀하게 움직여 잡을 뜻으로, 말을 만들어 각 군에 훈칙(訓飭)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또한 다방면으로 정탐할 때 상무사(商務社) 도장무원(都掌務員) 정인택(鄭寅澤)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그 안에,

“본사의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각처를 두루 다니다가 여산 북면(北面) 죽림동(竹林洞)에 사는 고문선(高文詵)이 동학도 중의 유명한 거괴(巨魁)로, 갑오년(1894, 고종31) 동학도의 소요 때에 법망에서 빠져 있다가 지금 또 우리들을 불러 끌어 모으는 정황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집에 도착하여 힘을 써서 체포하여 오고, 그 이른바 ‘전도차첩(傳道差帖)’과 ‘염주투서(念珠套署)’와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향촉(香燭) 등의 도구들과 모임을 약속하는 통문과 주술 부적(呪符)과 경문(經文) 등의 책자와 보자기 1개를 숨겨 놓은 것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문선을 곧바로 압송하여 압수한 물건을 낱낱이 살펴보니 곧 과연 상무사의 보고 중에 나열한 것과 같으니, 갑오년(1894)부터 지금까지 해괴한 흔적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문선을 본 재판소로 잡아들여 전후 정황과 우리들이 몇 명인가를 엄격히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의 나이가 지금 46세인데 본래 전주(全州) 용두치(龍頭峙)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지난 갑오년에 동학에 입도하여 대접주로서 그해 가을에 무리 백여 명을 이끌고 진영(鎭營)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곧 거처를 동헌(東軒) 상방(上房)으로 하고, 본주(本州)의 읍촌(邑村) 각처의 부잣집 [饒富人家]에 포군(砲軍)을 나누어 보내고 재물을 청하는 도움을 구하여, 돈을 혹 20~30냥 혹은 70~80냥을 얻어 와서 접중(接中)에 보태어 썼습니다. 부내(府內)에 백가(白哥)란 자가 있어 도를 매우 훼손한다고 하므로, 진정(鎭庭)에 잡아와서 곤장 30여 대를 때리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백가가 그로 인하여 죽었으며 겨울 사이에 이르러 중앙군(京兵)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허물어져서 흩어졌는데, 저는 곧 도망하여 여산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임피(臨陂) 오성산(五城山) 산막리(山幕里)에 사는 김준회(金俊會)가 와서 말하길, ‘다시 동학을 설(設)하면 실효를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흉(凶)한 것을 피하고 길(吉)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몇 군데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동학을 다시 설할 뜻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권했습니다. 비록 흑시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으나, 또한 흑시 응하여 따르는 자가 있었으므로 단지 기쁘게 따르는 자에게 도를 전하였습니다. 도를 받은 자는 여산 황화정(皇華亭)의 고성화(高成化)·정낙현(鄭洛玄)·정봉술(鄭奉述)·서찬경(徐贊京)·이노돌(李老突)과 고산(高山) 대치리(大峙里)의 김금석(金今石)·김갑동(金甲同)·강윤실(姜潤實)·강완실(姜浣實)·배종갑(裴宗甲)과 은진(恩津) 강경포(江鏡浦)의 류화인(柳化仁) 등이었습니다. 전해 들으니 즉 은진 남산리(南山里)의 손광현(孫光玄)과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中)이 모두 동학의 거물입니다.”²⁸⁾

고문선은 전주 출신으로 갑오년에 동학에 입도하여 대접주로 활동하다가 여산에 숨어지냈다. 그런데 1899년 9월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 사는 김준희가 다시 동학을 설하면 실효를 볼 것이라고 하여 동학을 다시 설할 뜻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권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동학 세력이 모였던 것이다. 즉 임피의 김준희(김준홍)가 고문선에게 동학을 다시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아 김준홍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체포되었던 류덕장은 역시 김준홍의 휘하로 1894년부터 활동을 같이 했으며, 김성초, 장한여 등도 이때 김준홍과 더불어 임피지역에서 동학을 재건하려다가 체포되었다.²⁹⁾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임피지역은 1차 봉기 때는 크게 활동하지 않았지만 이후 시기부터 세력이 성장하여 2차 봉기 과정에서는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충청도 인근지역과 연계하기도 하고 인근의 익산지역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동학을 재건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8) 『사법품보』,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3월 15일 제1호.

29) 『사법품보』,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3. 옥구현

2차 봉기 이후 옥구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옥구현감의 첩보를 통해서 확인된다.

옥구현감이 첩보합니다.

방금 도달된 비밀 감결 내에 ‘비류는 지금 이미 흩어졌고, 거물급 괴수는 반드시 촌리(村閭)에 숨어있을 것이다. 각 당해 면리(面里) 및 연해(沿海) 등처에 각별히 신칙하여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일체 잡아들이고, 유명한 거물급 괴수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接主) 및 비록 협종(脅從)한 자라도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범죄 사실을 알아내어 굳게 가두고 나서 보고해 오며, 이 경우 영(營), 진(鎭), 역(驛), 산성(山城), 목관(牧官)이 있는 곳은 행차(行次)에 매이(枚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왕사(王師 : 官軍)가 지경에 다다라 토벌이 극도로 행해지고 있는데, 비류가 비록 날마다 흩어져 외딴 섬과 궁벽한 골짜기로 도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감히 넓게 쳐진 하늘의 그물에서 새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엄한 감교(甘教)를 받았으니, 별도로 신명(身命)을 아끼고 근간(謹幹)한 이교(吏校)를 선정해서 본현 경내를 면밀히 정탐하여 소위 ‘동도(東徒)의 거물급 괴수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 및 협종한 자’들을 나타낸 대로 잡아서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범죄사실을 알아내어 굳게 가두고 난 뒤에 보고할 계획이오며, 본현은 영(營), 진(鎭), 역(驛), 산성(山城), 목관(牧官)이 없기 때문에 매이(枚移)하지 않을 것이니, 그에 대한 연유를 아울러 우선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인) 12일 행현감(行縣監) 김(金) (화압)³⁰⁾

30) 『선봉진정보첩』, 개국 503년 12월 12일.

옥구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으며 이를 옥구현감이 적극적으로 토벌하겠다고 양호순무선봉진에 보고하고 있다. 옥구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허진을 비롯하여 고진호, 최중여, 주성갑, 최두환 등이 확인된다.

고진호는 동학도로서 옥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되어 1895년 2월 옥구현 동헌에서 관군에게 처형되었다. 고진호의 사망일이 1895년 2월 21일임을 『濟州高氏文忠公派譜』(1947)에서 확인된다. 고진호가 옥구 동헌에서 총살당하자 친지들이 수소문 끝에 시신을 수습하여 옥구현 서문 밖으로 옮겨 현재의 군산시 나운동 대전부락 앞산에 묘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묘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³¹⁾ 최중여는 1894년 9월 옥구지역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12월에 체포되어 전주감영에서 사망하였다.³²⁾ 이밖에 옥구지역

31) 고진호 후손 증언

고진호의 증손 고○석은 중학교 1학년 때 조부 고창영(高昌榮, 1889~1971)과 동네 어른들로부터 증조부 고진호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고○석은 바둑을 좋아해서 이것을 배우려고 어른들 계신 곳에 자주 있었고 이때 어른들이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증조부 고진호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고○석의 증조모 담양전씨(潭陽田氏, 1856~1912)는 조부에게 공부를 많이 하면 역적이 되니 이름이나 쓸 줄 알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고진호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집안이 파산되고 조부가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진호는 동학도로서 1894년 옥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누군가의 밀고로 잡혀가 1895년 2월 옥구현 동헌에서 관군에게 처형당하였다. 고진호의 사망일이 1895년 2월 21일임을 『濟州高氏文忠公派譜』(1947)에서 확인된다. 고진호가 옥구동헌에서 총살당하자 친지들이 수소문 끝에 시신을 수습하여 옥구현 서문 밖으로 옮겨 현재의 군산시 나운동 대전부락 앞산에 묘소를 만들었고 이 묘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32) 최중여 후손 증언

최중여의 증손자인 최○환은 15세를 전후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조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부친은 이 사실을 그의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한다. 제적부에는 최중여의 사망일이 1894년 1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중여의 시신수습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으며, 최중여의 묘소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한다. 최중여의 제사는 제적부에 나와 있는 12월 10일을 근거

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수접주로 활동한 주성갑³³⁾이 있으며, 1894년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최두환³⁴⁾ 등이 있다.

III.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성격

이상에서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임피현, 옥구현, 군산진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옥구현, 임피현, 군산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각각 구별되

로 하였으며, 제사는 최중여의 장손이 모시다가 문증으로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1900년 6월에 천도교에서 발행한 경통(敬通)에는 최운철이 이웃에 살던 천도교인 노춘만, 최태경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옥구에서 동네사람의 집 수리 중 벽에서 천도교 및 항일운동관련 자료가 다수 나왔으며, 여기에 최중여의 아들 최운철의 천도교 및 항일운동 관련 기록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최운철이 노춘만 등과 항일운동을 한 사실은 『전북지방애국지사약전』(광복회 전북지회, 1983, 20쪽)에도 기록되어 있다. 최운철은 최중여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천도교 줄포 교구장을 역임하는 등 천도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1977년 최금풍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최운철이 그의 부친 최중여의 인도로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현재 최○환의 집안에서는 최○환(천도교 선도사, 道號 知菴)과 조카 2명이 천도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33) 『天道教會月報』 184(天道教中央總部, 1926년 4월호, 43쪽)에서 “還元一束 …… 金成樺氏 氏は 沃溝郡羅浦面江亭里人이니 故朱聖甲氏夫人이라 朱氏は 本來甲午에 首接主로 東學亂에 指目이 太多함으로 沃溝로 避身하야 居生하다 信教如一하던 中 十餘前에 還元하고 ……”와 같이 주성갑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이 확인된다.

34) 『天道教會月報』 184(天道教中央總部, 1926년 4월호, 43쪽)에서 “還元一束 …… 崔斗煥氏 氏は 沃溝郡臨陂面成山里人이라. 布德三十五年(1894)七月一日에 入教하야 原職은 接主와 奉訓을 經하고 …… 不幸이 布德六十七年(1926)三月二十一日에 還元하다 ……”와 같이 최두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이 확인된다.

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1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옥구지역에서 허진이 백산봉기에 참여하였다고 『동학사』에 기록되어 있으나 허진은 이후 2차 봉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1차 봉기 과정에서는 군산지역 옥구, 임피, 군산진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2차 봉기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지역은 바로 군산진이다. 그동안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은 1894년 6월부터 10월까지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세하기도 하고 배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는 등 군산진은 전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동학농민군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들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1894년이란 격동의 시기에 시시각각으로 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다시 상황이 바뀌어 농민군이 크게 토벌당하기도 하다는 것을 군산진의 상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변화는 매우 급변했으며 안정된 사회의 관점으로는 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정의 시기와 변화의 시기는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만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바로 1894년 군산진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즉 기록된 내용은 매우 소략하고 짧지만 1894년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5개월의 기간은 역사 속에서 짧고 희미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역사 속에서는 패자로 반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넷째,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군산진을 최건수라는 군산첨사를 임명하여 조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군산첨사로 임명된 최건수는 군기와 아전을 점고하고 이어서 수성군을 조직하였으며 성하영의 진압

부대를 통해 군산진을 동학농민군으로부터 회복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수성군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조선정부의 기강이 매우 해이해져 있었지만 한편으로 조선 정부의 조직이 어떤 면에서는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건수가 군산첨사로 임명된 이후 군산진의 기능은 급속하게 회복되었다. 이 때문에 특히 문규선 등 동학농민군이 군산진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은 거의 기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섯째, 임피지역은 세 지역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김해룡과 김문화가 대표적인 지도자로 이들은 2차 봉기 과정에서 임피 북일면 성동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곳은 현재 군산시 성산면으로 북쪽에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와 접하고 있으면서 특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피지역은 동학농민군이 조직을 계속 유지하여 1900년대까지 활동을 이어 나갔다.

여섯째, 2차 봉기 과정에서 옥구지역에서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진호는 옥구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체포되어 옥구관아에서 처형되었으며, 최중여는 1894년 옥구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전주감영에서 처형되었다. 이밖에는 많은 옥구지역 동학농민군들이 참여하였다.

맺음말

이상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임피, 옥구를 포함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군산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대단하였음이 이제야 밝혀졌다. 군산진에서 접주 문규선 등의 활동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산진을 동학농민군이 장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

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피현과 옥구현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이 드러났다. 역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의미가 있다.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활동을 지속해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4.	게재확정일 : 2024. 4. 29.
-------------------	--------------------	----------------------

참고문헌

<자료>

- 「全羅道古阜民亂始初」.
- 「홍계훈밀부유서」.
- 『啟草存案』.
- 『고종실록』.
- 『東學史』.
- 『미나미고시로 문서』.
- 『사법품보』.
- 『선봉진정보첩』.
- 『순무사정보첩』.
- 『순무선봉진등록』.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천도교서』.
- 『天道教會史草稿』.
- 『天道教會史草稿』.
- 『天道教會月報』.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 「甘結(群山)」, 1895.
- 「群山各里明記」, 1894.10.
- 「軍器汁物點關記」, 1894.10.
- 「吏校番記」, 1894.10.
- 「鄉所列名記」, 1894.11.
- 「守城軍名單」, 1894.11.
- 「군산진 철폐 관련 문서」, 1895.
- 「군산진 침사 보고」, 1895.
- 「群山鎭水軍節制使牒報」, 1895.8.
-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1894
- 「人吏番把任記」, 1895.3.
- 「匪類囚徒記」, 1895.2.
- 「奴金番記」, 1895.1.

- 「各里明記」, 1895.1.
 「全羅右道群山守城軍座目」, 1895.
 「최건수 군산첨사 도입 문서」, 1894.
 「行群山鎭水軍僉節制使馳報」, 1894.12.
 「訓令(群山)」, 1895.

〈단행본〉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9년 5월, 『군산 동학에 물들다』(특별전시 도록).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논문〉

-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동학학회, 341~375쪽.
 배향섭, 2023,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9~36쪽.
 신영우, 2023,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구성」,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09~311쪽.
 유바다, 2023,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동학농민혁명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47~184쪽.
 이병규, 2021,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60, 동학학회, 447~488쪽
 _____, 2023, 「태인 지금실 김개남 고택지의 문화재적 가치」, 『건지인문학』 36,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03~146쪽.
 정을경, 2023,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5~212쪽.
 조재곤, 2023, 「『홍재일기(鴻齋日記)』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사회의 변동양상」,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13~254쪽.

〈Abstract〉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Lee Byeonggyu*

This essay examines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regions of Gunsan, Impi, and Okgu regions, which were not well known until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e 1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re was almost no movement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regions of Okgu, Impi, and Gunsan.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egan in Gunsanjin (military organization at Gunsan) in June 1894. Starting from this time until October, Mun Kyuseon, the Jwasu (a position at Gunsanjin) of Gunsanjin,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took control of Gunsanjin and carried out their activities. Their activities included taxation and controlling the movement of boats and ships, indicating that Gunsanjin was complet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government of Joseon sought to recover the organization of Gunsanjin by appointing Choi Geonsu as a military attaché in response to the control of Gunsanjin by the Donghak Peasant Army. Choi Geonsu organized the defense militia, thoroughly investigating their numbers as he individually marked every military standard and official. He recovered Gunsanjin from the Donghak Peasant Army through a suppression force under Sung Hayoung and reinforced the defense

* Director of research at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militia to defend it.

Meanwhile, the Impi region was where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the most active among the three regions. Kim Haeryong and Kim Moonhwa, two key leaders, carried out their activities during the 2nd uprising centered around Seongdong-ri, Bukil-myeon, Impi. The Donghak Peasant Army also carried out much of their activities in the Okgu region. Ko Jin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ut was arrested and later executed in the Okgu government office, with Choe Joongyeo also being executed in the Jeonju provincial office.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Army, Gunsan, Impi, Okgu, Mun Kyuseon, Choi Geonsu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김중규**

〈목 차〉

머리말

I. 참여자 특징 및 현황

II.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중요 활동거점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연구자의 2019년 발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특징”과 연계된 군산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논문이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참여자의 성격 규명과 참여자 현황 및 그들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결과 군산지역 참여자의 특징은 이들이 동학의 남,북접 측면에서는 옥구와 임피지역은 북접계열로 확인되며 군산진은 남북접 구분이 어렵다. 또한 참여자의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장

성씨로 본 신분계층 확인의 경우 옥구와 임피지역은 지배계층의 참여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군산진은 상업 및 수군기지라는 환경 때문인지 중인 이상 계층의 참여가 많은 측면을 보였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활동 거주지는 옥구의 경우 옥구와 임피의 경계지역인 대야면과 지경리 일대, 임피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는 금강변 포구와 나루터, 군산진은 경포리 지역이 주요 활동지역으로 추정된다.

군산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50명이다. 이들을 1894년 행정구역에 따라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옥구지역은 5명, 임피지역이 30명, 군산진지역은 15명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산진 좌수 문규선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이다. 그 이유는 좌수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지위이기 때문이다. 좌수는 그 지방의 권력자들인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유림들이 선출하였기에, 좌수 문규선이 동학에 오랫동안 물든 자라서 충살하였다는 내용은 동학 참여자들에 대한 신분계층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놀라운 내용이다. 이처럼 좌수가 동학군에 참여한 사례는 전북지역에서도 그 세력이 컸던 남원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에 의하면 군산진은 1894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학군의 세력이 유지되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산지역이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산지역 농민군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총 7개소로 특정하고 있다. 거점지역 7개소를 살펴보면 옥구지역은 2개소이다. 첫 장소는 “구 옥구현 관아터”이다. 이곳은 허진이 이끄는 옥구동학농민군이 옥구현의 무기를 탈취하여 백산봉기에 참여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거점은 옥구지역 동학 참여자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야 지경리와 천도교 옥구교구 교당”이다.

임피지역의 주요거점은 3개소이다. 첫 장소는 “나포면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이다. 이곳은 이두황의 진압군에게 나포 동학군 14명이 포살 당한 곳이다. 두 번째 장소는 김분화 접주가 활약한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이다. 세번째 장소는 김준홍접주가 1900년 동학 재기를 꿈꾼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인근 산막”이다. 군산진은 중요 거점지역이 2곳이다 첫 장소는 1894년 경군 초토사 홍계훈의 진압군이 상륙한 “군산진 성터 (내항 수덕공원)”이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군산진에서 가장 활발하게 동학군의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중동 경포천변 (서래당산)”이다.

이 논문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간악한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일념으로 일어난 힘 없는 백성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위로하고 되살리는 방법은 그들의 백성과 국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인정해주고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해 주는 일에서 부터 시작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시작은 참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

이 자신들의 소망을 소리높여 외친 장소를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입을 말하고 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동학, 군산, 임피

머리말

2019년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의미 있는 해였다. 본 연구자는 우연한 기회에 군산지역 서래접주 김학배의 후손을 만나 군산 동학의 실체를 확인하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1894년 갑오년 자료를 확인하며, 군산지역과 관련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그간의 무지함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후 박물관에서 “군산 동학농민혁명에 물들다”라는 제목의 군산의 동학농민혁명 특별 기획전과 제1회 군산의 동학혁명연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연구자가 2019년 발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특징” 논문과 연계된 내용의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논문이다. 글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참여자의 특징과 현황 그리고 그들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자가 이러한 내용을 논문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향후 군산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군산과 동학농민혁명의 상관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연결점이 군산지역 참여자에 대한 조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향후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활약한 중요장소 즉 거점지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참여자)과 장소(활동거점)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함에 있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다행히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노력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또 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제1회 군산의 동학농민혁명 세미나에서 이이화는 “동학농민

혁명과 군산지방의 역할”을 통하여 군산지역 동학농민군들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병규는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전라도지역 농민군의 활동”에서 군산진 관련 참여자에 대한 성격¹⁾을 논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조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학계의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군산지역이 호남의 북쪽 끝에 위치하여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 등 중요 사건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는 심리적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자는 그간의 연구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 자료와 군산 거주 가문들의 구전 내용을 취합하여 군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특징과 현황을 1894년 당시 군산지역 행정구역에 따라 옥구, 임피, 군산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활동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중요거점이라는 명칭으로 역시 옥구, 임피, 군산진 지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이 군산지역에서 활동할 때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였거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지역을 정리하는 일은 일반인들에게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역사 차원의 사실로 재인식 시킴으로서 향후 추모와 기념의 토대가 되리라고 본다.

I. 참여자 특징 및 현황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특징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동학농민혁명군의 남북점과 관련한 구분이다. 남북점의 구분은 가장 단순하게 동학농민혁명 기간 그 지역 동학군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기준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자

1) 이병규, 2016,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전라도지역 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15쪽.

성씨(姓氏)를 통해서 신분계층과 거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참여자 성씨(姓氏)를 이용한 신분계층의 조사는 참여자의 성씨와 본관이 명확한 경우가 많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통사회의 경우 씨족 구성원의 이동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군산지역은 특정 혈연 집단이 동일 장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는 동성촌(同姓村)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참여자의 정보가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찌보면 유일한 정보인 성씨(姓氏)를 활용하여 신분계층과 거주지를 추정해보는 비교조사는 시도해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씨(姓氏)를 통하여 신분계층과 거주지를 추정하는 비교방법은 4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와 그가 활동한 지역을 옥구, 임피, 군산진으로 구분한다. 둘째 지역별 지배계층의 성씨와 참여자의 성씨를 비교하여 지배계층과 평민을 구분한다. 셋째 지역 지배계층은 토착 지배계층(토반 土班), 이주해온 지배계층(객반 客班), 행정실무 지배계층(中人)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넷째 지역별 동성촌과 참여자의 성씨를 비교하여 참여자의 근거지와 주요 활동지를 추정한다.

참여자 현황의 경우 등록된 명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록)에 등록된 명단²⁾을 근거로 하되 군산지역의 지역사 자료인 「천도교 옥구교구사」³⁾, 「군산시사」⁴⁾에 기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 인물 그리고 지역에 구전으로 전하는 인물들을 참여자로 정리하였다. 체계적인 참여자 정리의 필요성으로 참여자 출신지 구분은 참여자의 특징 조사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서울: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3)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교육구교구.

4)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군산: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038쪽.

동일하게 1894년 군산시의 행정구역에 따라 옥구, 임피, 군산진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출신 지역을 확인하는 일은 그간에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행정구역의 잦은 변화에 따라 혼돈의 여지가 있어 갑오년 당시의 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생지와 거주지를 모르는데 사망 장소만 확인된 경우는 사망 장소를 출생지와 사망 장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활동지역을 거주지로 분류하였다,

130년 전의 사건과 관련자를 확인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처럼 실패한 혁명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이 죽거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에 그들의 행적은 더욱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년재단”에서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록⁵⁾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당시 관련 자료들을 발굴 연구하고 있어 다행히 많은 참여자의 이름과 출신지들이 밝혀지고 있다. 군산지역은 현재까지 총 50명의 참여자가 확인되었다.

1. 옥구(沃溝)지역

옥구는 군산의 서남부에 위치 곳이다. 과거 옥구현이 관할하던 지역으로 당시에는 8개 면(面)으로 가구 수 4,366호에 14,389명이 거주하였는데 그중 남자가 6,322명, 여자는 8,067명이었다.⁶⁾ 중요 성씨로는 제주 고(高)씨, 두릉 두(杜)씨, 진주 강(姜)씨, 남평 문(文)씨, 담양 전(田)씨가 있다. 옥구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현재까지 5명이 확인되었다.

1) 참여자의 특징

옥구지역 참여자의 성격을 이해하는 특징중에 하나는 옥구지역이 호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서울: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6) 『여지도서』, 전라도 옥구편, 1760.

남에 위치하지만 북접 계열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옥구의 장경화 대접주 등 지도부들이 북접의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들이 다수 있어 천도교 기록 및 각종 문헌에 활동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⁷⁾ 그 사례로 옥구 동학의 지도자 장경화는 1893년 최시형을 따르는 북접이 주도한 보은 장내리 집회에 옥구를 알리는 것 발을 앞세우고 대접주라는 호칭을 쓰며 참여했다. 당시 남접의 주요 세력이 원평에 모였던 것과 비교된다. 또한 장경화 대접주는 농민군의 2차 봉기에 앞서 남북접이 서로 배척하며 갈등하던 상황에서 전북지역 북접 우두머리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만난 모임에 옥구 대표로 참석하기도 한다. 이후 양측이 화합하여 북접이 2차 봉기에 거병하기로 결정되자 옥구의 허진 등과 함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북접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장경화는 농민혁명 실패 후 1896년 최시형이 강원도 횡성의 치악산 골짜기인 수레너미재 인근에 은신하고 있을 때, 최시형을 찾아온 최초의 두령급 인물 중 한 명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⁸⁾ 그런데 이때 동행한 5명의 우두머리급 방문자들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명 즉 장경화, 허진, 양기용이 옥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대접주(장경화), 장령(허진), 두목(양기용)임을 볼 때 옥구의 동학 참여자들이 최시형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옥구지역 참여자의 또 다른 특징인 참여자 성씨(姓氏)를 통한 신분계층과 거주지 추정과 관련하여, 옥구는 군산지역 내에서도 오래된 마을들이 많이 자리한 고장이다. 주요 성씨(姓氏)는 변화를 거쳐 왔지만 이른바 전통적 토착 지배계층이라고 칭하는 제주 고(高)씨, 두릉 두(杜)씨, 남평 문(文)씨, 담양 전(田)씨, 진주 강(姜)씨 등 다섯 성씨와 중간에 이주해 왔다고 칭하는 전의 이(李)씨, 창령 성(成)씨, 경주 김(金)씨, 광산

7) 오지영, 1975, 『동학사』, 민학사.

8) 박인호, 1921, 『천도교서』.

김(金)씨, 해주 오(吳)씨 등 다섯 성 씨가 있다. 그리고 역시 지역의 행정 실세였던 집안으로 여산 송(宋)씨, 밀양 박(朴)씨, 달성 서(徐)씨, 인동 장(張)씨, 연안 차(車)씨 등의 다섯 가문이 있다.

이들 지배계층 성씨를 참여자 성씨(姓氏)와 비교해 보았다. 참여자 5명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결과를 보면 참여자 5인 중 옥구지역 토착 지배계층의 성씨는 참여자가 없었으며, 이주 지배계층(오씨 1명)과 행정실세 지배계층(장씨 2명)에서는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옥구지역 참여자 중 거주지역이 확인 가능한 「천도교 옥구교구사」⁹⁾에 기록된 참여자들의 주소지를 볼 때 옥구와 임피의 경계인 현 대야면과 지경리 일대가 주요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2) 참여자의 현황

옥구의 참여자는 다섯명이다. 이들은 장경화(옥구대접주), 허진(두목), 오사옥(천도교옥구교구 기록 여성으로 추정)¹⁰⁾, 장원경(천도교옥구교구 기록)¹¹⁾, 양기용(두목) 등이다¹²⁾. 이들 중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기록된 오사옥과 장원경은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목록에 등록 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 장경화 (張景化 생몰연대 미상)

장경화는 현재까지 확인된 군산지역 동학혁명 참여자 중 지위가 가장 높은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그는 보은 장내리 집회에 참여한 전국 19개 포(包) 중 한 곳인 옥구지역의

9)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10) 오사옥 1857년 출생, 1894년 입도.

11) 장원경 1866년 출생, 1893년 입도.

12)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군산: 군산시편찬위원회, 1038쪽.

대접주였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각 포와 접마다 지역을 표시한 깃발을 세웠으며 참여자를 보면 충의대접주 손병희, 금구대접주 김덕명, 정읍대접주 송화중, 옥구대접주 장경화 등 이후 농민혁명의 주역들임을 볼 때 장경화 대접주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후 장경화는 백산봉기가 일어나자 본인 휘하의 허진을 장령으로 옥구농민군을 이끌고 백산에 합류하게 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장경화는 9월 농민군의 2차 봉기에 앞서 남북접 간의 갈등 시기에 북접에 속한 전라도 출신 두목으로 분류되는 금구 김방서, 전주 서영도 허내원 등과 회합을 하여 동학농민군 내부 남북접 갈등의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후 남북접 화해와 동시에 동학농민군 2차 거병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장경화 등 전라도 내 북접들은 익산에서 만나 회합 한후 장경화 대접주는 허진 등과 옥구의 농민군을 이끌고 거병하여 논산으로 진군하였다.¹³⁾

장경화는 우금치 전투의 패배 등 동학농민혁명 실패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아 1896년 도피 중인 해월 최시형과 만난 호남지역 지도자로 천도교 측 기록¹⁴⁾에 등장한다. 당시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 횡성 수레너미재 아랫마을 초막에 은신 중이었다.

1896년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색출과 체포로 긴박한 시기였음에도 살아남은 지도자급 인물들이 은신 중인 해월 선생의 은신처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동학 내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다. 당시 방문자는 호남지역 고산의 박치경, 옥구의 장경화, 허진, 양기용, 그리고 출신 지역을 알 수 없는 조동현 등이었다. 이들은 최시형과 만나 안부를 묻고 동학의 재기를 모색했다고 한다. 천도교 기록에는 이 만남을 계기로 위축된 교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기록한다.

13) 오지영, 1975, 『동학사』, 민학사.

14) 박인호, 1921, 『천도교서』.

그는 1896년 김방서를 따르다 패전 후 숨어 지내던 익산 출신 정용근을 1896년 본인 휘하로 받아들여 동학의 재건을 모색하기도 한다. 장경화에 대한 기록은 1896년을 마지막으로 찾을 수가 없다.

㉠ 허진 (許鎭 생몰연대 미상)

허진은 1894년 3월 전라도 옥구의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 「동학사」에서는 백산에 집결한 장령급 인물 중에 옥구의 허진이 등장한다. 다른 기록인 「천도교회사초고」, 「천도교교서」에서 “허진은 옥구에서 참여하다”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자료인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에는 “1894년 3월 8일 전죽두가 거느린 수천 명이 부안읍에 들어가 군기고를 탈취하였고 옥구, 태안, 고부의 군기고도 탈취하여 고부에 진을 쳤다”라고 하여 허진이 농민군을 이끌고 옥구의 군기고를 탈취하여 기포하였으며 백산봉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허진은 농민군의 2차 거병 때 남북접 간의 화해에 따라 옥구의 장경화와 함께 병사를 일으켜 논산, 삼례에 집결하였다. 이후 농민군의 패전 속에서 살아남은 허진은 1896년 같은 옥구 출신 장경화, 양기용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 수레너미에 은신 중인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동학의 재건을 도모한다. 이후 허진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허진은 옥구의 대접주 장경화와 함께 장령으로 백산봉기와 동학농민군 2차 거병 및 동학의 재개 노력 등을 함께 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 오사옥 (吳士玉 1860~1935)

오사옥은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기록된 참여자이다. 그녀는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에서 1860년 태어났다. 34세인 1894년 입교하여 전교사를 역임하며 교인 접대의 공로가 컸다고 전한다. 오사옥은 여성으로 추정 된다.

㉢ 장원경 (張元敬 1866 ~ 1927)

장원경은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기록된 참여자이다. 그는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에서 1866년 출생하였다. 1894년 4월에 28세의 나이로 입도하였다. 「천도교 옥구교구사」에서는 장원경에 대하여 “장원경은 동학혁명 이후 지목이 극심하여 동지 셋달 눈 내릴 때 집에서 밥을 먹어 먹지 못하시고, 지풀 속에 숨어서 밥을 먹었으며, 때문에 집안 살림은 거의 파산지경에 달하였으나 의지는 추위도 굶히지 않으셨다” 라고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다.¹⁵⁾

1993년 교구사를 정리할 때 기록이 없어 원로 교도 네 명의 증언을 토대로 교구사를 편찬했다고 하는데 증언자 중 한 분인 장맹연 여사가 장원경의 근친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 양기용 (梁琦容 생몰연대 미상)

양기용은 「군산시사」와 천도교 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옥구지역 두목급 참여자다. 「군산시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허진과 양기용이 참여했다고 기록한다. 또한 천도교 측 기록에는 동학혁명에서 패배 후 1896년 강원도 횡성 수레너미재에 은신 중인 최시형 선생을 찾아가 동학의 재건을 논의한 호남지역 방문자로 박치경, 허진, 장경화, 조동현, 양기용이 전한다. 이후 천도교 측 기록¹⁶⁾에서 “1896년 4월 각 처의 두목들을 연락하니 믿을만한 두령은 반석처럼 온전했다. 연락이 되는 두령은 옥구의 양기용 등이 있다.”고 하여 양기용이 옥구지역 두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기용은 출생지 및 생몰연대를 알 수 없다. 옥구지역의 양씨는 남원 양(梁)씨가 옥구 대야 일대에 세거하여 남원 양(梁)씨로 추정된다.

15)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16)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 1920, 『천도교회사초고』.

2. 임피(臨陂)지역

임피지역은 군산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다. 1895년 임피현¹⁷⁾은 13개 면(面)에 가구수 4,545호이고 인구가 22,291명이었다. 그중 남자가 8,427이고 여자가 13,864명이다. 주요 성씨는 여양 진(陳)씨, 전주 이(李)씨, 평강 채(蔡)씨, 우주 황(黃)씨, 해주 오(吳)씨, 남원 양(梁)씨 등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¹⁸⁾에 기록된 토산품은 대나무, 닥나무, 뽕나무, 게, 가시연밥, 도미, 뱀어 등인데 특산품을 보면 임피가 강을 낀 산간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임피는 군산지역에서는 가장 큰 면적의 행정구역이었다. 임피는 익산과 접하고 있어, 1884년 6월 최시형이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서 전북지역 포교를 할 때 동학이 전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현재까지 확인된 임피지역 동학농민군은 30명이다.

1) 참여자의 특징

임피지역은 동학의 남북접 구분 시 북접에 속하는 고장이다. 그 이유는 농민혁명군 2차 봉기 때 북접으로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거병을 한 지역으로 임피가 거론되며,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진관삼이 「동학사」에 북접계 인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관삼은 1894년 전라도 익산 각지에서 집강소 설치 활동을 하며 사무을 본 인물이다. 특히 그가 설치한 회소들 중에는 임피의 나포가 있다. 진관삼은 임피지역에 여양 진씨가 많이 거주하기에 임피가 고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임피지역 참여자의 성씨(姓氏)를 통한 신분계층과 거주지 확인 결과를 보면 임피지역의 토착 지배계층으로는 청송 심(沈)씨, 우주 황(黃)씨, 평강 채(蔡)씨 등 3개 성씨를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주해온 지배계층

17) 『임피현 읍지』, 임피현, 1895.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임피현, 1530.

19) 신순철, 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 혁명사』, 서울: 서경문화사, 27쪽.

으로는 여양 진(陳)씨, 초개 최(崔)씨, 신천 강(康)씨를 들 수 있다. 또한 행정실무 지배계층으로는 한양 조(趙)씨, 전주 이(李)씨, 평택 임(林)씨 등이 있다. 임피지역의 주요 9개 성씨와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 30명을 비교해 보면 토착 지배계층인 심(沈), 황(黃), 채(蔡)씨는 참여자가 한 명도 없고, 이주해온 지배계층 문중에서는 본관의 확인은 불가하지만 진(陳 1명), 최(崔 3명)씨 문중의 4명이 성씨가 동일하다. 행정실무 지배계층인 조(趙 3명), 이(李 5명)씨 두 가문에서도 8명이 성씨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임피지역의 참여자 성씨 조사에서는 토착 지배계층은 참여자가 없고, 이주 지배계층과 행정실무 지배계층은 12명의 참여자가 발견되어 참여자 30명 중 절반 이상이 지배계층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동학 참여자의 주요 거주지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는 금강변 포구와 나루터 지역인 성산면 성동, 오성산 기슭 서포와 나포 지역이 동학농민군의 주요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2) 참여자의 현황

임피지역은 최시형이 1880년대 중반경 익산에서 호남지역 포교를 시작할 때²⁰⁾ 포교의 거점이었던 익산과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옥구보다도 먼저 동학을 받아들였고, 때문에 익산과 함께 최시형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현재까지 확인된 농민혁명 참여자의 숫자에서도 임피는 군산의 3개 지역 중 가장 많은 30명의 참여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회소의 경우 성산면 성동²¹⁾과 나포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진관삼 (陳官三 생몰연대 미상)

20) 신순철, 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 혁명사』, 서울: 서경문화사, 27쪽.

21)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5』, 동학혁명기념재단, 139쪽.

진관삼은 임피의 토착성씨인 여양 진(陳)씨로 추정된다. 그의 주요 활동지역은 익산 인근 지역이다. 그는 여러 곳에 집강소와 회소를 설치하였고 이들 집강소와 회소의 운영을 하다 같은 해 10월에 최시형의 명령에 복점이 총 거병하는 2차 봉기에 임피 동학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② 김해룡(金海龍 ? ~ 1894. 11. 21)

김해룡은 전라도 임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1월 21일 우금치 전투 패배 후 퇴각하다 서천에서 사망한다. 최현식은 「갑오동학혁명사」에서 김해룡과 관련하여 “호우(湖右 충청서남지방)에서도 10월 이후 동학의 세력이 떨쳐 그 가운데서도 남포(藍浦), 임천(林川), 한산(韓山), 서천에서 추용성, 추성재, 이우삼, 이성구, 김윤선 등 동학의 수접주들이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했으며 여기에 호남의 김제 강명선(姜明善), 임피 김해룡(金海龍) 등이 거느리는 호남의 동학농민군이 금강을 건너 이에 합세하니 그 세력은 능히 호우 지방을 한때나마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11월 19일(陽 12월 15일) 남포(藍浦)에서는 관군이 패하여 홍주, 보령, 남포 비인의 패잔병들이 도망하여 서천으로 돌아왔는데 그 수가 2천 명이었다고 남포주방장 최재홍(崔再弘)은 보고했다.”라고 하여 김해룡이 임피의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음을 기록한다²²⁾ 김해룡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압군이었던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로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11월 20일 한산을 점령하고 한산 서천 전투에서 동학도 수백을 격살하였으며, 21일 서천과 한산에서 도망한 김제 출신 강명선 등 7인과 지도자급 4명을 포살하였다. 신하포에서 강을 건너 임피의 김해룡 등 7명의 적을 급습하여 총살하였다”고 적고 있다.²³⁾ 신하포는 서천군 신아포를 칭하는 것으로

22)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서울: 신아출판사, 巡撫先鋒陣膽錄 甲午 十一月二十二日 條.

23)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

추정된다. 그곳에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고, 그 하천을 넘으면
임피 월포로 넘어가는 서천 망월리 나루터가 있다. 아마도 김해룡은 망
월리 나루 인근에서 금강을 넘어가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추정 된다.

③ 김문화 (金文化 ? ~ 1894. 11. 25)

김문화는 임피 북일면 성동(성산면 성덕리) 출신이다. 성동마을은 제
주고씨와 김해김씨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하여
접주가 된 후 성동마을에 회소를 설치하고 주민들로 부터 세미를 거두
었으며 성동마을의 포구인 원포(달개나루)에서 금강을 오가는 장사꾼들
로부터 전곡을 징수하였다. 「미나미 고시로 문서」²⁴⁾와 전라감사에게 올
린 문서에 의하면 같은 마을사는 도정 고태흥과 같등하여 1894년 11월
25일 동학군이 패퇴하자 고태흥 무리에게 붙잡혀 화형을 당하고 그의
집도 불태워졌다.

④ 최중여 (崔仲汝 1860 ~ 1894)

최중여는 임피면 영창리 출신이다. 그는 1894년 9월 당시 35세의
나이에 농민으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 최중여은 1894
년 12월에 체포되어 투옥 후 전주 감영에서 사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참여자 자료²⁵⁾에 등록되어 있다.

⑤ 주성갑 (朱聖甲 생몰연대 미상)

주성갑은 「천도교회 월보」에 “김성화씨는 옥구군 나포면 강정리 사

명기념재단, 43쪽.

24)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 동학농
민혁명기념재단, 139쪽.

2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백서』.

람으로 고(故) 주성갑의 부인이다. 주씨는 본래 갑오년에 수접주로 동학란에 지목이 커서 나포로 피신하여 생활하다 10여 년 전에 환원하였다”라고 활동을 기록하여 동학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기념사업의 참여자 자료²⁶⁾에 기록되어 있다.

⑥ 최두환 (崔斗煥 ? ~ 1926. 3.21)

최두환은 「천도교 월보」 184(1926. 4. 43쪽)에서 옥구군 입피면 술산리(戌山里)인이며, 1894년 7월에 입교하여 접주가 되었다. 최두환은 동학혁명 실패 후 피신하였다가 1926년 3월 21일 사망하였다.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참여자 자료²⁷⁾에 등록되어 있다.

⑦ 김준홍 (金準弘 1863~1900.4)

김준홍은 전라북도 입피 오성산 삼막 출신이다. 1863년 출생하여 1894년 7월에 입피에서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동학혁명 실패 후 살아남아 1899년 9월 동학 재기를 도모하다. 입피 오성산 산막에서 체포되어 1900년 4월 전주 감영에서 처형되었다. 김준홍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재판소에서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본사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사원 10명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동학 무리를 체포하려고 각처를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입피 오성산 산막리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체포해 온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金準弘)·류덕장(柳德長)·김성초(金成初)·장한여(張漢汝)·이치옥(李致玉) 및 고산 용암리(龍巖里)의 이관동(李關東)·이용구(李龍九) 등 일곱 놈이 무리를 모아서 움직이고자 상의하는 정황을 엿따

26)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2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여 모두 체포하고,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 투서(念珠套署)와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 한다.²⁸⁾

김준홍은 오성산 산막 혹은 산막리의 집에서 체포된다. 현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인근에 산막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산면 수심마을 오성산 주봉 능선 아래에 위치한 조씨문중 제각 일대를 과거 마을사람들이 산막이라 칭하였다 하는데 이곳이 김준홍의 거주지인 산막으로 추정된다.

⑧ 장한녀 (張漢女 생몰연대 미상)

장한녀는 1894년 9월 전라북도 임피에서 동학에 입교하였다. 농민 혁명에 참여했다 실패 후 은신하다가 1900년에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서 김준홍 등 7명과 함께 동학 재기를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종신징역에 처해 졌다.

⑨ 홍교식 (洪教植 생몰연대 미상)

홍교식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김상철 등과 함께 동학 농민군으로 2차 봉기에 참여했다.

⑩ 홍경식 (洪敬植 생몰연대 미상)

홍경식은 1894년 10월 전라도 인피에서 유원수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2차 봉기에 참여했다.

⑪ 최순봉(崔順奉 생몰연대 미상)

최순봉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유원술 등과 함께 동학농민

2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별계 사법품보」,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군으로 2차 봉기에 참여했다.

⑫ 김상철 (金相哲 생몰연대 미상)

김상철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동학 2차 봉기에 유원술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⑬ 유원술 (劉原述 생몰연대 미상)

유원술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김상철 등과 함께 동학 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

⑭ 이정문 (李正文 생몰연대 미상)

1894년 전라도 임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⑮ 신관순 (申官順 1870~1952)

전라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에서 출생한 신관순은 자는 현성이다. 삼형제 중 첫째 아들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이후 천도교 신도로 3.1 만세운동 때 군산 대야 지경장터에서 3월 4일날 만세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⑯ 문학수 (文學淳 생몰 연대 미상)

문학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1894년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하여 정봉준장군의 백산봉기에 함께 하였고 우금치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다.

⑰ 하치홍(河致弘 ? ~ 1894. 11.24)

하치홍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²⁹⁾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

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 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⑱ 이경한 (李敬漢 생몰연대 미상)

이경한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⑲ 김래경 (金來敬 생몰연대 미상)

김래경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⑳ 이증백 (李仲白 생몰연대 미상)

이증백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29)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6쪽.

㉑ 김기서 (金奇瑞 생몰연대 미상)

김기서는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㉒ 조학동 (趙學東 생몰연대 미상)

조동학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㉓ 권덕수 (權德秀 생몰연대 미상)

권덕수는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㉔ 김윤칠 (金允七 생몰연대 미상)

김윤칠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㉕ 김달환 (金達煥 생몰연대 미상)

김달환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㉖ 서경삼 (徐京三 생몰연대 미상)

서경삼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㉗ 김영언 (金永言 생몰연대 미상)

김영언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㉘ 이기찬 (李起贊 생몰연대 미상)

이기찬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㉘ 조만홍 (趙萬弘 생몰연대 미상)

조만홍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㉙ 박경희 (朴京喜 생몰연대 미상)

박경희는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3. 군산진(群山鎭) 지역

군산진은 현재 군산시 내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이 그 범위이다. 본래 옥구현 북면 지역이었다가 세종 8년(1426) 조운창고인 군산창을 방어하고자 군산진이라고 하는 수군진이 만들어지며 유래한다. 이후 1879년 군산진이 독진(獨鎭)³⁰⁾으로 승격되어 27개 리(里)가 군산진 첨사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며 독자적인 세력을 지니게 된다. 특히, 군산진은 전북지역 7개 읍의 세곡인 쌀과 콩을 저장하는 조운 창고와 조운선이 있는 포구였다.

군산진은 당시 수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필요성에 조성된 특별 행정구역이다. 군산진의 관리자는 종오품 첨사가 임명되었다. 군산진³¹⁾이 옥구

30) 조선 후기 변방이나 군사요지에 설정한 독립진영.

31) 『여지도서』, 전라도 옥구편, 1760.

현 북면에 속해있던 1872년 기록에 의하면 가구수 741호에 2,83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옥구현 8개면 중 가장 큰 규모의 면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³²⁾에 “군산은 옥구현 북쪽의 진포에 자리하고 있는데 전함이 중함 4척, 별함 4척, 군사 461명, 초공 4명 등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

군산진의 관청 건물은 군산진성 내에 위치하며 아청과 아내, 책당, 군기고 등이 모여 있고 조금 남쪽으로 이청, 조복청, 장청 등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군산진성 인근에는 군산창과 구영리, 강변리 등의 마을들이 있었다. 군산진성 인근의 포구인 군산포에는 주막과 객주, 여각 등이 줄지어 서 있고 장사꾼들이 많았다. 군산진은 1895년 갑오개혁으로 진영은 폐지되고 옥구현에 복속된다. 군산진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기간의 역할은 연구자의 앞 논문에서 언급하였다.³³⁾

1) 참여자의 특징

군산진은 남북접과 관련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나 군산진에 동학 전파와 농민군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동학의 전래와 관련하여, 1894년 11월 30일 군산진을 점령한 서산군수 성하영의 장계³⁴⁾에 의하면 “그리고 그곳 진의 문규선은 10년 가까이나 오랫동안 동도에게 물든자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여 좌수 문규선이 동학을 믿은 지 10년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영사관 기록³⁵⁾에는, 1894년 6월 군산진이 주민들의 봉기로 동학에 점령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군산진의 남북접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동학이 전래 된 것은 1884년 해월 최시형

32)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옥구현, 1454.

33)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34) 순무선봉진등록, 1894, 「순무선봉진등록 제6」,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편 1894, 7월, 236~237쪽.

이 미륵산 사자암에서 호남 포교시 군산의 임피, 옥구와 함께 군산진도 포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씨로 보는 참여자 신분계층과 주요 활동거점을 확인해보면 군산진은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화 되어 주요 지배계층 성씨가 남아 있지 않아 참여자 성씨(姓氏)와의 비교가 어렵다. 다만 지도자로 지목된 좌수 문주선은 양반 가문인 남평 문(文)씨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군산진의 참여자 중에는 제주 고(高)씨(1명), 김해 김(金)씨(4명), 담양 전(田)씨(2명) 등 주소지가 확인되어 본관을 알 수 있는 참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들 성씨는 인근 옥구와 임피의 지배계층 성씨들로 확인되어 군산진지역이 군산포와 조운에 따른 상업 및 군사적 환경 때문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옥구와 임피와는 다르게 중인 이상의 지배계층이 다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거주지역은 1895년 2월 19일 작성된 군산진의 〈비퇴수도기〉³⁶⁾에 기록된 참여자들의 거주지를 볼때 경포리, 석치리, 신흥리 등으로 보이며 특히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기록인 〈비퇴수도기〉를 볼 때 경포리는 군산진의 최대 동학 활동지로 추정된다.

2) 참여자의 현황

군산진 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15명이다. 군산진의 농민군은 지역 지도자인 좌수나 곡식 담당자, 화약인 자초 담당자, 포수 중에 우두머리인 도포수 등 중인 이상의 신분 계급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① 문규선 혹은 문주선(文奎善 혹은 文周善 ? ~ 1894. 11. 29)
문규선은 군산진의 좌수다. 1894년 11월 29일 서산군수 성하영이

36) 〈乙未二月日匪類囚徒記 (을미2월 비퇴수도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1895.

보고37)하기를 “서천과 한산읍 동학도를 격파한 뒤에 달아난 적이 군산진에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에 바다를 건너 군산에 도착하니 일개 진(鎭)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악한 데 물들어 비류와 한통속이 되어있었다. 좌수 문규선은 오랫동안 동학에 물든 자로 붙잡아 총살하였습니다.”라고 문규선에 대하여 언급한다. 좌수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지위로, 좌수는 그 지방의 양반 중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유림들이 선출하였기에, 좌수 문규선이 동학에 오랫동안 물든 자라서 총살하였다. 하면 놀라운 내용이다. 문규선은 군산지역의 토착 가문인 남평문(文)씨로 추정된다. 1894년 11월 29일 성하영의 보고서에서는 좌수 문규선(文奎善)으로 기록되지만, 갑오년 11월 군산진에서 작성한 문서인 〈향소 열명기〉에는 좌수 문주선(文周善)으로 표기되어, 문규선이 아닌 문주선이 맞는 이름으로 추정된다.

② 박모 (朴某 ? ~ 1894. 11. 29)

박모는 성하영이 1894년 11월 29일 군산진에서 처형한 4명 중 한 명이다. 이름은 알 수 없어 박아무개 라고 기록하였는데, 곡식의 출납을 담당할 박가로 기록된 것을 보면, 장부 정리가 가능한 아전 이상의 신분으로 보인다. 다만 군산진의 주민들이 처형당한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군산진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으로 추정된다.

③ 최모 (崔某 ? ~ 1894. 11. 29)

이름을 알 수 없는 최아무개는 성하영의 진압군에 의하여 군산진에서 처형된 네 명 중 1인이다. 최모씨는 자초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성하영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여기서 자초란 화약을 의미한다. 즉 화약 담당

37)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자 였던 것이다. 화약의 제조인지 만들어진 화약의 관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화약의 책임자인데 다만 당시 군산진의 아전들이 이름을 몰랐음을 볼 때 최모씨 역시 외지 사람이라 이름을 알 수 없었지 않나 추정된다.

④ 문모 (文某 ? ~ 1894. 11. 29)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아무개는 성하영의 진압군에 의하여 1894년 11월 29일 군산진에서 총살당한 당한 4명의 지도자 중에 한명이다. 문모씨는 도포수로 기록돼 있다. 도포수란 포수 중의 우두머리를 뜻하기에 문모씨는 화승총부대의 지휘관급으로 추정된다. 다만 박모, 최모 씨와 더불어 이름이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⑤ 허공집 (許公執 1864 ~ 1916)

허공집은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유공자로 기록된 인물이다. 그는 군산시 증동(경포 혹은 설애) 출신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인 1894년에 30세의 장년으로 입도하여 두목으로 활동하였다. 허공집은 접주와 교장을 역임하였다 허공집의 다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⑥ 김현창 (金賢彰 1875 ~ 1937)

김현창은 군산시 산상동 출신이다. 「천도교 옥구교구사」의 서문에서 기록자인 문태표씨는 1894년 이전에 허공집, 김현창씨가 동학에 입도하였고 두목이 되었으며, 교세 확장에 지극한 활약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기록했다.

김현창은 19세인(포덕 36년)에 입교한 후 바로 두목이 되었고, 아기 두목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는 교구장을 하였고, 익산에 천도교당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⑦ 고진호(高鎭號 1859 ~ 1895. 2. 21)

고진호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신평마을에서 출생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에 참여하였고, 1895년 2월 체포되어 2월21일 옥구현 동현에서 관군에게 처형되었다. 친지들은 수소문 끝에 고진호의 시신을 수습하여 현 군산시 나운동 대전마을 앞산에 안장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참여자 자료에 등록되어 있다.

⑧ 김학배 (金鶴培 1862 ~ 1910)

김학배는 군산진 관내인 석치마을에서 1862년 출생하였다. 갑오년에 32세의 장년이였다. 족보 이름은 학배이고, 초명은 항배이며, 자는 문명이다. 석치마을은 김해김씨 안경공파의 집성촌으로, 김학배는 석치마을 김씨 집안에서 장손 개념의 위치였다. 김학배는 학문이 깊어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으며, 동학에 입도한 후 갑오년 동학혁명 기간에는 설애(경포)의 접주로 활동하였다.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기록인 <비퇴수도기>에 석치리 출신 김해김씨 두명과 신평리 출신 담양전씨 두명이 기록되는 것은 이일대의 유명한 접주였던 김학배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⑨ 김사원 (金士元 생물연대 미상)

김사원은 1895년 2월 19일 작성된 군산진의 <비퇴수도기>³⁸⁾에 체포된 동학농민군의 명단에 이름이 있다. <비퇴수도기>를 통해서 김사원의 출생 혹은 사망일은 알 수 없지만 그의 거주지가 경포(설애) 임은 알 수 있다. 경포는 서울로 가는 포구라 하여 설앤포구라 칭하는 곳으로, 군산진 석치마을 출신 김학배가 경포의 접주였다 하여 설애포구로 불리었다. 따라서 김사원은 김학배 접주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38) <乙未二月日匪類囚徒記 (을미2월 비퇴수도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1895.

⑩ 안덕량 (安德良 생물연대 미상)

안덕량은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안덕량의 출생 및 사망일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김사원과 같이 경포 출신임은 <비퇴수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경포는 설애포구라 불리던 곳으로 군산진이 칠읍해창이 자리한 군산포를 중심으로 한 관용 포구였다면 경포는 민간인 포구로서 규모가 큰 포구였다. 그리고 설애접주 김학배가 활동하던 곳으로 안덕량과 김사원도 김학배 접주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⑪ 김응방 (金應方 1869 ~ ?)

김응방은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김응방은 군산진에 속한 석치마을 출신이다. 석치마을은 김해김씨 안경공파가 거주하는 집성촌 마을로 이 마을 출신인 김해김씨 종손이며 배움이 깊었던 김학배가 설애포구의 접주를 하였기에 석치마을 출신들이 동학혁명 때 농민군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김응방은 족보 이름은 남식이며, 응방은 어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1869년생으로 갑오년에는 25세의 혈기 왕성한 청년으로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다.

⑫ 김종록 (金從祿 1878 ~ ?)

김종록은 자는 영숙이다. 군산진에서 기록한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비퇴수도기>에 따르면 김종록은 군산진 석치마을 출신이다.

김종록은 석치마을을 근거로 한 김해김씨 안경공파 집안의 일원으로 동학혁명에 참여 할 때 나이가 1878년생으로 16세였다. 요즘 나이로는 청소년이었던 김종록을 잡지 못하자 기록에 의하면 연좌제에 따라 그 아버지인 김학수(족보이름 달배 자 학수)를 대신 체포했다고 한다. 체포 당시 김학수는 45세였다. 김종록은 김학수의 두 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었다.

⑬ 전준여 (田俊汝 1877 ~ ?)

전준여는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전준여는 군산의 신흥리 출신이다. 신흥리는 담양전시 야은파들의 집성촌이다.

<비퇴수도기>에 따르면 그는 체포되지 않고 대신 연좌제에 따라 조카인 전두용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전두용은 담양전씨 족보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전준여는 1877년생으로 족보의 이름은 전용균이다. 준여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신흥리는 군산진 내에 위치한 마을로 1리와 2리의 두 마을이 있었다. 석치리와 이웃하고 있어 설애접주 김학배와 함께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⑭ 전행선 (田行先 1865 ~ 1940)

전행선은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체포된 인물로 기록된다. 전행선은 군산진에 속한 신흥리 출신이다. 신흥리는 담양전시 야은파들의 집성촌이다. 전행선은 호적 이름은 윤수이고 자가 행선이다. 1865년 출생하여 갑오년에 29세의 젊은이였다. 전행선은 학문이 높고 효행이 지극하여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1940년에 사망하여 옥구 선재리에 묻혔다.

⑮ 양가 (梁哥 생물연대 미상)

양가는 이름은 확인할 수 없는 양씨 성의 인물이다. 군산지역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체포된 인물로 기록된다. 기록에 임피 출신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양가는 임피의 양반 가문인 남원 양씨로 추정된다.

II.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중요 활동거점

1894년 군산의 전 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당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늦게서야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조명되고 있다. 오늘의 연구가 연구자들만의 학문이 아닌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바르게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갑오년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함께 알려질 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중요 활동거점과 장소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요활동 거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군산시 지역사 측면의 장소성이 있을것. 둘째 중요 활동거점은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 앞서 군산지역 참여자의 특징 및 주요 활동지에서 언급된 장소들 역시 대상의 후보로 검토한다. 중요활동 거점에 대한 서술은 옥구(2개소), 임피(3개소), 군산진(2개소)으로 나누어 한다.

1. 옥구지역

1) 옥구읍 상평리 읍내마을 구 상평초등학교 “구 옥구현 관아터”

“구 옥구현 관아터”는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옥구 읍내리는 과거 옥구현의 현치가 있던 옥구읍 상평리 읍내마을이다. 현재는 폐교된 상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과거 옥구현을 다스리는 동헌이 자리하고 있던 마을로 돌로 쌓은 옥구읍성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읍성마을이었다. 지금도 옥구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향교의 입구에는 과거 옥구를 다스렸던 수령들의 영세불망비가 줄지어 서 있어 과거의 영화를 말해 준다.

옥구 상평리 읍내마을은 1894년 3월 녹두장군 전봉준이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올린 백산봉기에 참여한 옥구 동학농민군 두목 허진³⁹⁾과 관련된 곳이다. <전라도고부민란시초>⁴⁰⁾에 의하면 “~1894년 3월 8일 전죽두가 거느린 수천명이 부안읍에 들어가 군기고를 탈취하였고 옥구, 태안, 고부의 군기고도 탈취하여 고부에 진을 쳤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당시 전국각지의 동학교도와 농민들 8천여 명이 백산에 집결했는데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는 “백산봉기에 참여한 각 지역의 두목들 중 옥구의 허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옥구의 허진 두목이 옥구현의 무기를 탈취하여 백산봉기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1894년 옥구현의 현감은 조병징이었다. 그는 세금 징수와 운송의 부패로 고부군수 조병갑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전운감 조필영의 아들이었다. 조필영, 조병징 부자와 군산의 인연 또한 차후 화인이 필요하다.

2) 대야면 “지경리와 천도교 옥구교구교당”

“지경리와 천도교 옥구교구교당”은 옥구지역 참여자들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지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이다. 옥구 지경리 금반에는 군산에 하나뿐인 천도교 옥구교구 교당이 남아 있다. 지금은 교도가 없어 운영하지 않는 교당이다. 천도교가 동학을 계승했다 하지만 1894년 농민혁명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는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이곳을 중요 장소로 생각하는 이유는 갑오년 옥구지역 동학농민군의 상황과 그 이후 일제강점기 3.1만세운동과 민족해방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한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장경화 대접주 등 갑오년 옥구지역 농민군들의 흔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지경리는 초기

39)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백서』.

40) 『전라도고부민란시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자료.

옥구지역 동학교도들이 어떤 상황속에서 포교를 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지경리의 명칭은 임피와 옥구 땅의 경계라는 의미이다. 즉 초기 동학교도들은 현청이 있는 읍내리나 양반들이 자리 잡은 큰 마을에서는 포교와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고을과 고을의 경계에 위치 한 한적한 곳 그리고 평민들이 거주하는 한미한 마을을 거점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옥구현 남북면에 속하는 지경리는 당시에는 옥구현과 임피현의 경계에 위치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군산에 한곳 뿐인 옥구 천도교 교당도 동학농민혁명의 패배 후 정부의 탄압과 감시속에서도 은밀하게 살아남은 교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소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곳이 1917년 대야면 지경리 우덕마을 교당이다, 오늘날 대야면 소재지(대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우덕마을에 군산 최초의 천도교 옥구교당이 만들어졌다. 또한 「천도교 옥구교구사」에서 갑오년에 활동했다고 기록하는 인물인 장원경과 오사옥 등이 지경리에서 출생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3.1만세운동으로 천도교가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일제강점기 옥구교당은 우덕마을에서 멀리 않은 회현면 증석리 방채마을과 대야면 지경리 금암마을로 옮겨 다니며 명맥을 유지한다. 그런데 방채마을과 금암마을은 소속면 만 다르지 이웃한 마을이다. 면(面)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들이었다.

2. 임피지역

1) 나포면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는 이두황의 진압군이 나포일대에서 임피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총살한 지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현재 나포면에 위치한 원나포마을은 명칭 그대로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 나포리가 위치 한 곳이다. 당시에는 임피현 북삼면 지역으로 옥곶리, 장상리가 북삼면의 지역이었다. 금강 변에 자리한 공주산을 중심으로

위치한 나포리는 금강의 포구마을로 유명한 곳이었다. 갑오년 나포에는 임피의 동학지도자인 진관삼이 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곳을 중요거점 장소로 보는 이유는 회소 운영 이외에도 죽산부사 이두황의 진압군이 나포에서 동학 가담자 14명을 체포하여 강변에서 포살하였기 때문이다.

이두황은 근대기 가장 문제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1894년 4월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 지휘부 장교로 군산에 상륙하여 군산과 인연이 있다. 그런데 동학군의 우금치 패배 후 농민군이 패퇴하는 과정에 이두황이 다시 군산에 오게 된다. 그곳이 나포이다.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동학군을 쫓아 1894년 11월 14일 이인(利仁)에 도착했다가 15일 새벽 노성(魯城) 공격에 참가하고, 황화대(黃華臺) 싸움을 치르고, 노성으로 환군하였는데 18일 다시 노성·은진을 거쳐 금강을 따라 남하하며 강경, 용안, 용포를 거쳐 22일에는 나포(羅浦)에 도착한다. 이두황 군은 나포에서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 또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西浦)를 수색하여 임피(臨陂)에 다다랐고,”고 기록한다. 『갑오농민혁명사』⁴¹⁾에서는 “나포(羅浦) 하치홍(河致弘), 이경한(李敬漢), 김래경(金來敬), 이중백(李仲白), 김기서(金奇瑞), 조학동(趙學東), 권덕수(權德秀), 김윤칠(金允七), 김달환(金達煥), 서경삼(徐京三), 김영언(金永言), 이기찬(李起贊), 조만홍(趙萬弘), 박경희(朴京喜) 등 14명을 나포에서 총살”하였다고 기록한다. 이두황이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짧게 보고 한게 14명의 나포리 동학도인 것이다. 당시 총살이 강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장소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주산 기슭은 포구이며 나포리의 상징적 중심지이기에 중요 장소로 보고자 한다.

41) 최현식, 1994, 『갑오농민혁명사』, 신아출판사, 285쪽.

2) 김문화 접주가 활약한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와 지역 반대세력 간에 갈등이 폭력적 상황으로 전개된 장소로 지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성산면 성동마을은 군산의 동학 관련 사건 중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장소이다. 월포라고 하는 금강의 나루터를 외부 출구로 이용하는 오성산 서쪽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은 한마을에 살던 동학교도와 그 반대 입장의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웃 사촌지간이었던 그들이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은 조선왕조 말기의 사회적 부패가 원인이었다. 타락한 왕조와 지배계층의 문제를 모두 백성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아픔이 벌어진 곳이었다.

성동마을 사건은 가해자인 고태흥과 진압군으로 참여한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문서>⁴²⁾에 기록되었다. <미나미 고시로 문서>에는 “임피 북일면 성동⁴³⁾의 탁지대신택⁴⁴⁾ 산지기 고도정이 문보합니다. 본동의 접주 김문화는 동학의 괴수라고 일컬으면서 한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습니다. 도정은 7월에 그의 행패를 견디기 어려워 집을 버리고 달아나 숨어 버려 저희 집은 회소(會所)가 되었습니다. 본동의 잔민(殘民)들에게는 세미를 어느 명목으로든 두세 번이나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거주민들이 대부분 유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

42)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5』, 동학혁명기념재단, 139쪽.

43) 성동은 현 성산면 성덕리를 칭함. 옥구문화원, 「우리 마을의 유래」, 1994 / 연구자 조사에 의하면 성동마을은 군산시 오성산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북쪽으로 금강을 접하여 월포라는 나루터가 있는 제주 고씨와 김해 김씨가 100여 호 거주하였던 마을이었다.

44) 탁지부대신택 묘지기란 1894.6.25. 김홍집 내각 때 탁지부대신이 된 어윤중의 부모 묘를 모신 선산의 산지기를 의미함 관련 자료로는 고종30권,30년(1893 계사 - 8월 21일 : 경오) 정언(正言) 김만제(金萬濟)가 올린 상소에 “어윤중이 임피(臨陂)에 가서는 부모의 무덤을 돌아보느라고 마을에 폐를 끼쳤으며”

다. 그리고 연변에 오가는 배들을 마음대로 붙잡아 들었으며, 장사꾼의 전곡을 무수하게 탈취하였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긴다. 또한 “~ 다만 이 형편을 틈타 곧장 본동으로 들어가 이달 25일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즈음에 마을 앞에 불을 지르고 성동리의 접주 김문화를 결박하고 불에 던져 곧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놈의 집도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그밖에 무지한 동도(東徒) 거주민으로 구타를 두려워하여 입도(入道)한 자들과, 도박 빚을 피하여 걸로만 도를 받드는 체하는 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림자처럼 배도(背道)하였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문서인 도정(都正) 고태흥이 전라감사에게 올린 소지⁴⁵⁾에는 앞부분은 미나미 고시로 문서의 고도정 문본과 같으나 뒷부분은 “~ 그런데 지금 경군이 내려와 동학도들을 제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11월 25일 성동에 들어가 김문화를 불에 태워 죽이고 나머지 일당들도 모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밖에 입도자 4~5인은 동학도들의 구타에 못 이겨 돈을 내고 명색만 입도한 자들로서 이때를 타 김문화 일당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모두 춤추며 나와 큰소리로 배교 한다고 외쳤습니다.”라고 좀 다른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미나미 고시로 문서의 고도정은 전라감사에게 글을 올린 도정 고태흥이며 그가 접주 김문화 뿐만 아니라 김문화와 함께한 동학농민군들을 같이 불태워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동마을은 김문화접주의 비극과 함께 근대기 조선왕조 최고의 경제관료였던 탁지부대신 어윤중 부모의 묘가 위치하여 어윤중과 동학의 연관성도 흑인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3) 김준홍접주가 동학 재기를 꿈꾼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인근 산막”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인근 산막”은 갑오년 전쟁이 이후 동학

45) 군산시사편찬위원회, 2000, 『군산시사』, 제3장 제3편, 911쪽.

재기 노력의 현장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성산면 수심마을에 위치한 물탕골 아래쪽 조씨제각 일대는 갑오동학농민혁명 기간 접주로 활동한 김준홍(金準弘 1863~1900.4)이 동학의 재기를 노리며 하던 산막이 자리한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김준홍은 전라북도 임피 오성산 삼막 출신이다. 1863년 출생하여 1894년 7월에 임피에서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동학혁명 실패 후 살아남아 1899년 9월 동학 재계를 도모하다 새로운 동학 접주로 추대되어, 1900년 4월 8일 익산 배산에서 야유회를 가장하여 모임을 갖고 일본인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다가 임피 오성산 산막에서 체포되어 1900년 4월 전주 감영에서 처형되었다. 김준홍은 오성산 산막 혹은 산막리라 불리는 집에서 체포된다. 현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인근에 산막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산면 수심마을 오성산 주봉 능선에 위치한 조씨문중의 제각 인근 우물터 옆 집터는 과거 마을사람들이 산막이라 칭하던 가옥 한 채가 있었다 하는데 이곳이 김준홍의 거주지인 산막으로 추정된다. 수심마을 산막은 농민전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외세 저항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3. 군산진 지역

1) 홍계훈의 진압군이 상륙한 “군산진 성터 (내항 수덕공원)”

“군산진 성터 (내항 수덕공원)”는 홍계훈의 경군이 상륙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⁴⁶⁾ 군산진성터는 군산시 해망로 내항에 위치한 수덕공원을 과거 이곳은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진성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군산진성이 위치했던 수덕산도 일제강점기 군산내항 축항공사의 토사로 깎여나가 나지막한 동산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군산진성의 포구였던 군산포(현 군산 해양경찰서)는 1894년 4월 동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894, 5, 18 동학당에 대한 속보.

학군을 진압하려는 홍계훈의 경군이 상륙한 곳이며⁴⁷⁾ 1895년 3월에는 전킨과 두루 선교사가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하였던 곳이다. 갑오년 군산진 첨사는 신영희(申永熙)와 최건수(崔健洙)였다. 군산진의 관청 건물은 토성인 군산진성 내에 위치하며 아청과 아내, 책당, 군기고 등이 모여 있고 조금 남쪽으로 이청, 조복청, 장청 등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군산진이 동학농민혁명 때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포구로서의 기능이다. 군산진에는 군산포가 위치하고 있어 영광의 법성포와 함께 중부 서해안의 중요 조운 포구였다. 둘째는 육상 교통로의 거점이었다. 군산진에서 운영하는 군산창으로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서 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전북의 중부와 동부지역 고을들은 군산까지 우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교통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때문에 군산진은 전라북도 각지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원점이었다. 셋째는 군사기지였던 군산진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군산진성은 해자를 갖춘 토성으로 판옥선이 배치되었던 수군기지였기에 군산진성을 확보하면 금강 수운을 장악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 넷째로 군산진은 금강의 물류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관문이었다. 군산진은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강의 입구에 자리하여 한해 수만척의 배들이 왕래하는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⁴⁸⁾와 고도정의 문보⁴⁹⁾ 내용을 볼 때 갑오년 전쟁의 와중에도 자체적으로 통행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군산의 동학농민혁명을 언급하며 군산진성을 빠트릴 수는 없다.

4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6, 『반란의 역사를 넘어세계의 역사로-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도록』, 53쪽.

48)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49)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문서」,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39쪽.

2) “중동 경포천 변 (서래당산)”

“중동 경포천 변 (서래당산)”은 군산진의 동학세력 중요 거점지역으로 지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중동은 일제강점기부터 불리기 시작한 지명이고 본래 한자로는 경포(京捕), 우리말로는 서래 혹은 슬애(서울가는 포구)라 불리던 곳이다. 지금도 경포천이 금강과 만나는 곳에 당산이 남아있어 매년 당제가 이루어진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지역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장소로서 기억 될만 한 곳이다. 그 이유는 이곳이 군산진의 핵심적인 동학활동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첫째 경포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산진의 실질적 경제활동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산진은 27개 리(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군산포와 경포 두 곳으로 볼 수 있다, 그중 군산포는 군산진성을 중심으로 한 수군의 진영이며, 조운 조창을 기반으로 한 관용포구 기능을 하는 곳이다. 반면에 경포는 어업을 주로 하는 민간인 중심포구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포는 거주민도 많았고 서천 화양의 용두리(용맹이)로 나룻배가 왕래하여 유동인구도 많은 객주 및 상인들의 거주지였다. 때문에 동학의 포교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포의 인근에는 경포에서 내륙으로 뱃길이 닿는 경장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일명 서래장이라 불리던 경장시장은 군산지역 인근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포는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군산지역 참여자 중 김학배 설애접주 그리고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김사원, 안덕량, 김응방, 김종록, 전준여, 전형선, 임피의 양가 등이 경포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이였다. 이밖에도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동학참여자로 거론되는 허공집 역시 군산시 중동(경포 혹은 설애) 출신이다. 특히 서산군수 성하영이 군산진에서 포살한 군산진의 동학 주모자 좌수 문주

선(文周善 혹은 문규선)과 박모, 최모, 문모 역시 경포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그 이유는 본인의 논문에서 확인했듯이 갑오년 11월 30일 서산군수 성하영이“달아난 적이 군산진에 몰래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 부대를 주둔하고 뒤쫓아 정탐해 보니 일개 진(鎭)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악한 데 물들어 비류와 한통속이 되어 무기를 빼앗았으며 ~ (창고에) 쌓아 둔 쌀 602섬과 조(租) 80섬, 콩 7섬은 군산진의 첨사(僉使) 최건수(崔健洙)가 있는 곳에 맡겨 두었습니다”⁵⁰⁾등의 기록을 보면 최건수 첨사가 군산진에 부임하여 있는 기간에도 군산진(鎭)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악한 데 물들어 비류와 한통속이 되어 무기를 빼앗았으며, 공사로 내왕하는 배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실은 곡물을 충을 쓰며 빼앗아 창고에 쌓아 두고 출납할 때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마치 관청의 장부와 같이 하고 한다. 그런데 성하영은 빼앗은 곡식을 군산진 첨사 최건수가 있는 곳에 맡겨 두었다고 한다. 이 글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군산진에는 최건수 첨사가 있는 공간과 동학에 물든 아전과 백성들이 있는 두 곳의 서로 다른 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전과 백성이 있는 공간도 내왕하는 배들에게 세금을 빼앗을 수 있는 포구였다.

이를 볼 때 군산진 27개 리(里)중에서 군산진영의 군산포와 견줄 수 있는 포구는 경포 즉 설애포구인데 외지에서 온 진압군들은 그냥 경포, 군산포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군산진으로 통칭하며, 빼앗은 곡식을 최건수 첨사가 있는 군산진영이 있는 진성 내에 보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포 오늘날의 증동 일대는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에서 가장 변화의 열기가 뜨거워던 곳이다.

현재의 증동 포구는 포구를 지켜주던 서래산도 깎이어서 사라지고 서래산 증터에 있다가 이전된 서래산 당산만이 경포천 옆에 복원되어 남아 있다.

50)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맺음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참여자의 특징과 성격 규명 그리고 그들이 활동한 중요거점 확인에 있다. 연구결과 군산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특징은 이들이 동학의 남북접 측면에서는 옥구와 임피는 북접 계열로 확인되며 군산진은 확인이 어렵다. 또한 참여자의 성씨(姓氏)로 본 신분계층 확인은 옥구지역의 경우 참여자 5명의 성씨를 확인해 본 결과 토착 지배계층의 성씨는 참여자가 없었으며, 이주 지배계층(오씨 1명)과 행정실세 지배계층(장씨 2명)에서는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임피지역은 30명의 참여자 성씨 중에서 토착 지배계층은 참여자가 없고, 이주 지배계층 4명(진씨 1명, 최씨 3명), 행정실무 지배계층 8명(조씨 3명, 이씨 5명) 등 12명의 참여자가 확인되며, 참여자 30명 중 나머지 절반 이상이 지배계층이 아닌 성씨임을 확인했다. 군산진은 주요 지배계층 성씨를 확인할 수 없어 참여자 성씨와의 비교가 어렵지만 15명의 군산진 참여자 중에서 지도자로 지목된 좌수 문주선은 양반 가문인 남평문씨로 추정되며, 이밖에도 제주고(高)씨(1명), 김해김(金)씨(4명), 담양전(田)씨(2명) 등 인근 옥구와 임피의 지배계층 성씨들이 다수 참여자로 확인되어 군산진이 옥구, 임피와 달리 상업 및 군사적 기능의 환경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중인 이상 계층의 참여가 많은 것은 확인되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활동지는 옥구의 경우 「천도교 옥구교구사」⁵¹⁾에 기록된 교인들의 주소지를 볼 때 옥구와 임피의 경계인 현 대야면과 지경리 일대가 주요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임피의 동학 참여자 주요 거주지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는 금강변 포구와 나루터 지역인

51)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성산면 성동, 오성산 기슭 서포, 나포 지역이 주요 거주지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산진의 동학농민혁명군 주요 활동지역은 경포리, 석치리, 신평리 등으로 추정되며 특히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기록인 〈비퇴수도기〉⁵²⁾를 볼 때 경포리는 군산진의 최대 동학 활동지로 추정된다.

군산지역에서 확인된 참여자는 50명이다. 이들을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옥구(5명), 임피(30명), 군산진(15명)으로 구분된다. 참여자 중에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이다. 그 이유는 좌수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지위이기 때문이다. 좌수는 그 지방의 권력자들인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유림들이 선출하였기에, 좌수 문규선이 동학에 오랫동안 물든 자라서 충살하였다는 내용은 동학 참여자들에 대한 신분계층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놀라운 내용이다. 이처럼 좌수가 동학군에 참여한 사례는 전북지역에서도 그 세력이 컸던 남원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⁵³⁾에 의하면 군산진은 1894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학군의 세력이 유지되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산지역이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산지역 농민군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총 7개소로 특정하고 있다. 거점지역 7개소를 살펴보면 옥구지역은 “구 옥구현 관아터”와 “대야 지경리, 천도교 옥구교구교당”이다. 임피지역은 “나포면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일대 산막” 등 3개소이다. 군산진의 중요 거점지역은 “군산진 성터(내항 수덕공원)”와 “중동 경포천변(서래당산)”이다.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52) 〈乙未二月日匪類囚徒記 (을미2월 비퇴수도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1895.

53)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향후 지속적인 연구보완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간악한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일념으로 일어난 힘 없는 백성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위로하고 되살리는 방법은 그들의 백성과 국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인정해주고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시작은 참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소리높여 외친 장소를 기억하는 일에서부터라고 생각한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6. 게재확정일 : 2024. 4. 29.

〈표 1〉 군산지역 동학혁명 진행 연표

1884년	•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미륵산 사자암에서 호남 포교시 군산 지역 포교
1893년 3월	• 보은 장내리 집회 옥구현 대접주 장경화 참여
1894년 이전	• 입도자 장경화, 허공집, 김현창, 문주선
1894년	• 동학 입도자 오사옥, 신관순, 문학순, 허진, 장원경
1894년 3월	• 옥구현의 허진 옥구현 무기 탈취하여 백산집회에 옥구농민군을 이끌고 참여
1894년 4월	• 군산진에 동학 집압군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경군 800명 상륙(4일~6일)
1894년 6월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 주민이 모두 동학에 입도 〈군산진 내부문서〉 군산진 금구두령 김응화, 유사현 등 외지동학농민군에 점령
1894년 7월	• 군산진의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강경으로 이동 성산면 김준홍 동학 입도 접주활동 김학배 설애접주 경포에서 활약 김문화접주 임피북일면 성동마을에 동학 회소설치 최두환 동학 입도
1894년 9월	• 옥구 장경화, 허진 임피 진관삼, 김해룡 2차 농민군 봉기 장한여, 홍교식, 홍경식, 김상철, 최순봉, 유원술, 이정문 입도 거병에 참여
1894년 10월	• 군산진 최건수 첩사 부임(22일), 군산진 군기점검(23일)
1894년 11월	• 성하영의 진압군 서천군 신아포 인근에서 임피 김해룡 등 7명 포살(21일) 죽산부사 이두황의 진압군 나포에서 동학군 14명 포살(22일) 나포사망자 : 하치홍, 이경한, 김래경, 이증백, 김기서, 조학동, 권덕수, 김윤칠, 김달환, 서경삼, 김영언, 이기찬, 조만홍, 박경희 임피 성동마을 김문화 접주 등 다수 지역 반대 세력에게 화형당함(26일) 서산군수 성하영의 진압군 군산진 점령 후 좌수 문주선 등 4명 포살 군산진사망자 : 문주선, 박모, 최모, 문모
1894년 12월	• 옥구출신 동학농민군 최중여 전주감영에서 처형(10일)
1895년 2월	• 옥구출신 동학농민군 고진호 옥구 동헌에서 처형(21일) 군산진 경포에서 동학가담자인 김사원, 안덕량, 김응방, 김학수(아들 김중록 대신), 전두용(삼촌 전준여 대신), 전행선, 임피의 양가 체포 (19일)
1896년 1월	• 옥구출신 동학 지도자 장경화, 허진, 양기용은 강원도 횡성 수래 너미재 아랫마을 은신중인 최시형을 찾아가 동학 재기도모
1896년 4월	• 최시형 각처의 두목들 연락하니 옥구 양기용 등은 온전했다. 기록됨
1899년 9월	• 김준홍, 장한여 동학재기 도모하다 오성산 산막에서 체포
1900년 4월	• 김준홍 전주감영에서 처형, 장한여는 종신형

참고문헌

<단행본>

- 군산시사 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군산: 중앙인쇄.
- _____, 1991, 『군산시사』, 군산: 군산인쇄.
- 김민영·김종규, 2006, 『금강 하구의 나루터 포구와 군산 강경지역 근대상업의 변용』, 선인.
- 김종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군산: 나인기획.
- 김태웅, 2018, 『어운증과 그의 시대』, 아카넷.
- 남원향토박물관, 2018, 『남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 남정근, 1991, 『옥구인물지』, 옥구 문화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도록』, 동학기념혁명기념재단.
- _____, 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16,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특별전 도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18, 『강원도와 북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18,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특별전 도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23,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시찰 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오지영, 1975, 『동학사』, 민학사.
- 옥구군지 편찬위원회, 1990, 『옥구군지』, 중앙인쇄.
- 이병훈, 1995, 『군산개항장 100년』, 군산문화원.
- 조시영, 2015,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소모사실 창계일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황현, 2016, 『오하기문 오동나무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역사비평사.

〈논문〉

-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37~62쪽.
-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동학학회, 341~375쪽.
- 박걸순, 2010,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 『중원문화연구』 1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21쪽.
- 박대길, 2012,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 사진 자료」,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343~249쪽.
- 박맹수, 2002, 「『일사(日史)』와 강진·장흥 지역 동학농민혁명」, 『호남사학』 19, 호남사학회, 353~368쪽.
- 성주현, 2013, 「보은·금구집회의 전개와 동학농민혁명」, 『중원문화연구』 2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49~83쪽.
- _____, 2017, 「아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역사와교육』 24, 역사와교육학회, 215~243쪽.
- 신영우, 2010,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와 전망」, 『중원문화연구』 1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75~303쪽.
- _____,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동학학회, 99~140쪽.
- _____, 2013, 「내포 일대의 갑오년 상황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학보』 29, 동학학회, 7~58쪽.
- 신진희, 2014,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131~148쪽.
- 우수영, 2016, 「1894년 경상도 구미·선산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채길순 『옷방데기』와 김용락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39, 동학학회, 161~190쪽.
- 이병규, 2018, 「원주지역 동학농민군과 의병」, 『동학학보』 49, 동학학회, 103~126쪽.
- 이상식, 1994, 「동학농민혁명과 광주, 전남」, 『향토문화』 33.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Base of Revolutionary Activities around
the Gunsan Region

Joong Kyoo Kim*

This writing is the second research paper delving into the second pha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Gunsan, following the first paper titled “The Develop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This research primarily revolves arou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participants and key operational bas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ithin the Gunsan region during the revoluti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conducted around the Gunsan region show noticeabl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mong participants. When it comes to their alignment with the southern and northern *jeopju*, the regions of Okgu and Impi are categorized as dominated by the northern *jeopju*, while Gunsan-jin shows any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them.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social status based on the surnames of the participants, it appears that the dominant class is less represented in the Okgu and Impi regions compared with Gunsan-jin, in which a significant number of the middle class and above are detected, like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its commercial and naval infrastructure.

* Director of a Museum of Gusnan Museum

It is presumed that the focal points of activity for the Donghak Revolutionary Army include Daeya-myeon and Jigyeong-ri areas in the case of Okgu, bordering Okgu and Impi, and ports and ferry terminals along the Geumgang River bordering Seocheon-gun and finally, the Gyeongpo-ri area in the case of Gunsan-jin.

Rigorous research has confirmed that fifty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ary action in the Gunsan region. In terms of geography, these individuals were distributed as follows: five in the Okgu area, thirty in the Impi area, and fifteen in the Gunsanjion area. Particularly, a case study of *Jwasu* Moon Kyu-seon attracts attention. The reason is that he served as *jwasu*, which was the highest position in *yuhangso*, a civic autonomous organization in the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Moon's involvement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underscores the diversity of social classes within the ranks of the participants of the revolution given the fact that he was executed by firing. Such instances of 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elite in the Donghak army were uncommon, except in the Namwon area where Donghak's influence was particularly strong. Additionally, reports from Seong Ha-yeong, the head officer of Seosan-gun, suggest that Gunsan-jin was one of the few areas where Donghak's influence persisted from June to November 1894.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Gunsan region as a significant area for future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is writing also identifies seven different key bases of military action for the peasant army in the Gunsan region,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areas. Important locations include the former OKgu-hyun Regional Office site, where weapons were seized for the Backsan Uprising and the second key base was located in Daeya Jigyeong-ri and Cheongdogyo Okgu District Church, which accommodated numerous participants of the revolution.

In the Impi area, three main bases are highlighted, including the Gongju Mountain area where Donghak soldiers were executed, The second

location is the Seongdong Village in Seongsan-myoen, where Kim Mun-hwa, as *jeopju*, a director of a regional headquarter, participated. The third location was found in a mountain hut near the Cho clan where Donghak resurgence was envisioned. Two significant stronghold areas are identified in Gunsan-jin: the Gunsanjin Castle Site (Sudeok Park in the Inner Port), where suppressing forces led by Hong Gyeo-hun, a general responsible for suppressing the revolution, landed in 1894, and the Middle East Gyeongpo area (Seorae Dangsang), believed to be a hub of Donghak military activities.

This author hopes that given the fact that fifty participants and seven major activity locations are identified in this paper at the beginning of research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continuous research supplement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e writer also expects that more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so that the record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ogress in the Gunsan region (Table 1) will be filled with new research results.

This writing aims for a method to console and rejuvenate the sincere aspirations of disenfranchised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 with the singular goal of safeguarding their nation from collapse and resisting malevolent foreign forces. It suggests that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objective is to acknowledge their genuine devotion to their nation and its people, and to reinstate their dignity and sense of national pride. This pap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itiating this process through tangible action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documenting the identities of participants and commemorating the sites where they fervently voiced their aspirations.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Donghak, Gunsan, Impi area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영우**

〈목 차〉

머리말

I. 양호도순무영의 공문서 기록인 『갑오군정실기』 검토

II. 양호도순무영의 설치

III. 양호도순무영의 직제와 인원

IV. 양호도순무영의 출진장졸과 주요 활동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를 진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양호도순무사 신정희(申正熙)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최고지휘부인 양호도순무영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894년 9월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국왕이 인질로 된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공사가 내정간섭을 공공연히 자행하던 때였다.

* 이 논문은 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한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순무사 신정희가 일본과 협력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공사관 뿐 아니라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증파해온 일본군 후비보병제19대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순무사 신정희는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진압하기 전에 다른 관직을 받고 군직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호도순무영의 마지막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도서가 반납되었을 때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가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순무영의 유사가 작성한 기록이고, 순무영 조직과 설치 내용, 그리고 존속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군사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은 『갑오군정실기』를 근거로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어 : 양호도순무영, 순무사 신정희, 동학농민군, 일본군, 갑오군정실기

머리말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은 갑오년 9월 22일 정부에서 호위부장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임명한 후 12월 27일 폐지할 때까지 95일 동안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최고지휘부였다.¹⁾ 활동기간을 양력으로 보면 1894년 10월 20일부터 1895년 1월 22일 까지 해당된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호위청을 비롯 경군 병영인 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용호영 경리청을 망라해서 도순무영을 구성하고 전국 각 지방에 임명한 소모사 소모관 별군관 조방장 등을 지휘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1) 1894년에 설치된 순무영의 명칭은 양호도순무영이다. 당시 기록에 양호순무영이나 도순무영, 또는 순무영으로 나온다. 아래에 기술하듯 양서순무영(兩西巡撫營)과 기보순무영(畿輔巡撫營)이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해 양호도순무영으로 써야 하지만 이후 이 글에서는 1894년에 설치된 양호도순무영을 줄여서 도순무영, 그리고 도순무사로 표기해서 구분하려고 한다.

이끌었다. 강화도의 심영은 물론 지방 요지에 설치된 병영과 수영의 병사와 수사도 도순무사의 명을 받았고, 각 군현의 관아와 밀접하게 협력했던 민보군과 부보상들도 그 지시를 따랐다.

각 병영과 군사 조직뿐 아니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의 감사들도 동학농민군 진압에 관해 일체를 도순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개 도의 지방관도 순무영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나 도순무영은 활동 여건도 매우 어려웠고, 전투 역량도 그리 크지 않았다. 첫째, 동학농민군의 규모와 비교하면 군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 둘째, 신식무기를 일본군이 탈취해가서 무기가 없었다. 선봉진을 비롯 파견된 병사들은 일본군이 돌려준 일부 소총으로 무장했으나 탄환 보급이 순조롭지 못했다. 셋째,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작전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지 못했다. 넷째, 많은 병력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면서 군량 등 지원물자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경군 파견군의 지휘권을 일본군 장교가 장악하였다.

경북군이 일본군 혼성 제9여단에 의해 기습 점령된 이후 조선정부의 주요 정치문제는 일본공사의 간섭 아래 결정되었다. 조선정부의 군사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일본군이 경군 병영을 기습해서 무장해제를 시킨 까닭에 경군 병대는 일본군에게 일부의 무기를 돌려받아서 사용해야만 했다.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일본 히로시마대본영은 그 진압을 목적으로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증파시켰는데 도순무영이 파견한 경군 병대의 지휘권을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에게 넘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이던 경군 각 병영의 파견군은 도순무영에 전투보고를 올렸고, 도순무영은 갖가지 군무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각 도의 감영과 군현에서 군사관련 첩보와 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보고를 직접 올린 곳이 도순무영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

명의 2차봉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순무영의 활동을 상세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12월 27일 도순무영이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이보다 4일 앞서 강화유수에 임명되었다. 도순무영을 이끌던 최고지휘관이 직책에서 물러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시기는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꺾일되었으나 완전히 전황이 종식되지 않았던 때였다. 임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순무사가 자리를 떠나고 도순무영을 폐지하는 사태는 일본공사의 내정간섭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사태였다.²⁾

일본공사는 고종에게 협박하거나 군국기무처 의원을 조종해서 내정간섭을 자행해왔지만 도순무영의 군무에는 직접 간여하지 못하고 외부대신 김윤식을 통해 어렵게 협력을 요청해왔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노인정회담부터 꺾끄러운 대상이었고, 중군 허진은 대원군파라고 해서 기피하는 인물이었다. 선봉장으로 경군 파견군을 지휘했던 이규태는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 장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알력을 빚었다. 그런 까닭에 일본공사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장교들은 도순무사나 선봉장을 꺼려하였다. 도순무영의 갑작스런 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도순무영의 조직이나 활동 전반을 알려주는 공식문서는 정상적인 도순무영 조직 속에서 작성하지 못하였다.³⁾

도순무영은 각종 부서와 인원이 갖춰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문서 수발을 담당하는 유사가 있었다. 그리고 유사가 보관해온 문서들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왔다. 흥경래란을 진압한 후 당시 설치되었던 양서순무영(兩西巡撫營)에서 『순무영등록(巡撫營臚錄)』 5권 5책⁴⁾을 작

2) 신영우, 2011,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군사』 81, 참고.

3) 도순무영의 사정은 영남 상주에 설치된 소모영에서 활동 전반을 전해주는 공식문서를 남긴 것과 비교된다. 상주소모영은 설치 이후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은 『소모사실(召募事實)』 2책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상주소모사 정의목도 임명 초기부터 소모영을 폐지할 때까지 활동한 내용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소모일기(召募日記)』를 남겼다.

성하였고,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운영된 기보순무영(畿輔巡撫營)에서도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5책을 만들었던 선례가 있다.⁵⁾

하지만 1894년에 설치된 양호도순무영에서는 이런 선례에 따라 등록을 만든 바가 있는지 그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해왔다.⁶⁾ 필자가 양호도순무영의 공식문서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 것은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도서 1205책이 반납되었을 때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가져간 귀중도서 속에 “국내에 없는 유일본”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0책이 포함되었다.⁷⁾

필자는 갑오군정(甲午軍政)이 도순무영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환수기념 특별전’⁸⁾을 열었을 때 이 책이 양호도순무영에서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에서 이 책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래서 여러 내용을 일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갑오군정실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조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순무영에 편제된 병대가 활동한 주요 내용의 일부를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4)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규장각 古4250-66.

5)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국립중앙도서관 BA2109-27; 규장각 奎 15063.

6) 규장각과 장서각,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양호도순무영의 공식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7) 이상찬, 2002, 「이등박문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 서울대 국사학과. 이토 히로부미의 고도서 반출과 그에 대한 조사는 이 논문에서 자세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갑오군정실기』 10책은 규장각 대출본이 아닌 통감부 수집본에 속해 있다.

8) 국립고궁박물관, 2011,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이 특별전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열렸다.

I. 양호도순무영의 공문서 기록인 『갑오군정실기』 검토

1. 양호도순무영의 폐지와 공문서 정리

양호도순무영⁹⁾의 직제에는 종사관과 서기 또는 문서를 담당하는 직책이 있었다. 도순무영의 임무 종료 후 공식 활동보고서를 제작할 때 실무를 맡는 직책들이다. 그러나 도순무영은 설치 목적을 완수한 이후 잔무까지 처리하고 해산한 것이 아니었다. 도순무영에서 수발한 모든 문서를 모아서 정리하고, 도순무사가 활동한 사실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려는 보고서를 남길 수 없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도순무영은 일본공사의 압력에 의해 폐지되었다. 도순무영은 일본공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군사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동시에 일본공사관에 와있던 참모본부 소속의 고위 정보장교인 구스노세 유키히코(楠瀬幸彦) 중좌 등과 협력하지 않았다. 구스노세 중좌는 조선 군부의 고문이 되어 모든 정보를 빼가던 스파이이기도 했다.

경군 파견군 지휘관 가운데 일본군과 협력을 꺼려하던 좌선봉 이규태도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미나미 소좌는 일본공사에게 진압군을 이끌던 이규태의 소환을 요구하였다.

일본공사는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도순무영을 와해시켰다. 12월 23일 도순무사 신정희는 강화유수로 전임되었고, 같은 날 중군 허진은 경기도 통진부사로 좌천되었다.¹⁰⁾ 좌선봉 이규태는 전라도 현지에서 소

9) 이하 도순무영이라 표기한다.

10) 『고종실록』 1895년 2월 2일. 한달 여 지나서 다시 허진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도록 했다.

환되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소좌가 다음해 봄에 일본군 상관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규태가 소환당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¹¹⁾

“羅州城에서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8일, 李圭泰가 갑자기 찾아와서 고해 말하기를, “政府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곧 출발하려 하니 삼가 지휘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小官이 말하기를, “政府의 명령을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또 무슨 지휘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그 외에 또 돌아가는 길에 들를 곳을 물었다. 小官이 말하기를, “지금 東學徒가 모두 鎮定된 마당에 어떤 길로 돌아간들 안될 것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불안해하는 기색으로 군이 지휘해 줄 것을 청했다. 小官이 말하기를, “지금 東匪가 모두 鎮定되어 모든 부대가 명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귀 부대에게만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었다니 좀 이해할 수가 없으나 귀국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는 小官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하였다. 小官이 다시 더 일러 말하기를, “恩津을 출발한 이후 귀하를 꾸짖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軍務의 공무집행상 한 것이고 사사로운 정은 조금도 여기에 개재되어 있지 않다. 좋게 생각하고 안심하라. 그러나 오직 이것에 대한 公私를 구별 짓지 아니할 수는 없다. 훗날 京城으로 돌아가 大君主 陛下께 征討의 실황을 상주할 때, 귀하가 한 번도 진두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한 일이 없었고 아울러 한 사람의 포로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掩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다. 이로서 李圭泰와는 헤어졌다.”

이 자리에 있던 군부고문 구스노세 유키히코 중좌가 “좌선봉만 먼저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인가.”고 묻자 군부협판 권재형(權在衡)이 사

1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제1권 제7장의 후반부> (2) 東學黨 征討略記.

실이라고 답을 했다. 일본공사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고종은 강화유수에 임명한 신정희에게 이례적인 교지를 내렸다.

“ --- 유수의 자리를 높이 여겨 이에 선발되는 자는 문과 무를 겸비했다. 어떤 이가 이에 합당하겠는가. 예부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도다. 오직 경은, 한 몸이 이 땅의 안위를 짊어지고서 명망은 태산과 북두성처럼 중하도다. 조상의 발자취를 이어 백성들을 편히 다스리는 태평의 시대를 누리고, 아비의 학업을 이어 군사를 운용하는 능력을 겸비하였도다. 詩書와 禮樂을 좋아했던 썸 나라 대부인 郤縠과 같은 높은 풍도를 지녔으며, 雅詩를 부르며 投壺를 즐겼던 東漢의 장군인 祭遵보다도 넓은 도량을 지녔도다. --- 생각건대, 이 커다란 강화도는 참으로 바다를 방비하는 요충지로다. 金城湯池의 장엄한 형세는 하늘이 내린 험준함이고, 성곽과 해자는 수륙이 교차함이니 나라의 방패막이 되는도다. 眞殿을 風雲이 길이 보호하고 있으니 이곳은 제2의 서울이라 불리우고, 명산에 史籍이 깊이 보관되어 있으니 세상에서는 外關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니 이곳을 맡김에 있어 매우 신중히 하여, 반드시 명망과 실재를 겸비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 이에 경에게 行江華留守 兼 鎮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힘써 훌륭한 제책을 펼쳐 공경히 총애어린 명에 따르라. 두루 진무하여 속히 비적을 소탕하고, 깨끗이 물리쳐 속히 성과를 보고하라. 여러 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면서 나만 수고롭다는 탄식을 하겠지만, 대대로 이곳을 맡아 다스림은 또한 보기 드문 영광이로다. 나라의 방비를 믿고 맡기는 것을 조정의 노성한 신에게 의지하노니, 이목을 모으는 깃발과 북소리에 성곽의 모습은 화려하게 거듭날 것이다.”

도순무사에서 강화유수로 전임한 것이 정상적인 관직 이동이었다면 이처럼 전례 없는 교지를 내리지 않는 않았을 것이다. 강화유수는 심영(沁營), 또는 진무영의 진무사를 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두루 진무하여 속히 비적을 소탕하고, 깨끗이 물리쳐 속히 성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다. 신정희는 강화유수로 근무하던 중 1895년 6월 18일 향

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까닭에 도순무영의 공식 활동기록을 도순무사와 증군이 관여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었다. 『갑오군정실기』는 잘 정서한 필사본이지만 중앙관서에서 성책한 것으로는 체제가 번듯하지 않다. 상주소모영에서 만든 『소모사실』에 비해서도 왜소하며, 심지어 목차조차 신지 않았다.

2. 『갑오군정실기』 내용의 간략 검토

『갑오군정실기』는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에 실린 공문을 정리한 날짜와 면수는 다음과 같다.

- 1책 (118면) : 갑오 9월 22일 - 10월 11일
 - 2책 (87면) : 갑오 10월 11일 - 10월 20일
 - 3책 (92면) : 갑오 10월 21일 - 11월 2일
 - 4책 (98면) : 갑오 11월 3일 - 11월 15일
 - 5책 (72면) : 갑오 11월 16일 - 11월 21일
 - 6책 (95면) : 갑오 11월 21일 - 11월 30일
 - 7책 (76면) : 갑오 12월 1일 - 12월 10일
 - 8책 (67면) : 갑오 12월 10일 - 12월 15일
 - 9책 (104면) : 갑오 12월 16일 - 12월 28일
 - 10책(114면) : 유영장졸(留營將卒) 출진장졸(出陣將卒) 기공(紀功)
- 합계 923면

『갑오군정실기』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책하지 않았다. 날짜로 보면 짧은 경우 6일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모았고, 긴 경우 20일에 달하는 기간의 공문서를 모았다. 모두 1894년 9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각 책의 면수도 모두 다르다. 8책의 67면에서 1책의 118면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난다.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것도 아니다. 같은 날에 해

당하는 내용이 앞책의 마지막과 뒷책의 첫부분에 이어져 있다. 정서로 필사를 한 후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면수와 관계없이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1책에서 9책까지는 날짜순으로 공문서를 전재해서 편집했지만 10책은 공문서를 묶지 않고 도순무영에 속해서 활동한 사람들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인원수를 기록하였다. 유명장졸(留營將卒)은 서울의 도순무영에서 활동한 장졸을 의미한다. 유명장졸 중 전라도와 충청도로 파견을 나간 인물도 있고 군사를 거느려서 동학농민군을 직접 수색하거나 전투를 벌이고 진압한 인물도 있다.

출진장졸(出陣將卒)은 도순무사의 명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장졸을 가리킨다. 경군 각 병영과 강화도의 진무영(鎭撫營), 즉 심영(沁營) 장졸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공(紀功)은 출진장졸을 중심으로 전투에 나가 공을 세우거나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체포해서 공을 세운 것을 기록한 것이다. 전투에 나간 사람을 나열하고, 공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이 『갑오군정실기』의 유일본 여부는 알 수 없다. 정서를 한 것을 보면 서사(書士)가 베낀 것으로 보이나 몇 벌을 필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도순무영에서 공식으로 만든 보고서라면 더 필사를 해서 여러 권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나 어디에도 주도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없다.

『갑오군정실기』에 전재된 많은 공문서는 『고종실록』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膽錄)』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등에 실린 각종 자료들과 동일하다. 이 자료들은 195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상하 2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알려져서 연구에 활용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공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도순무영이 수행한 업무를 보여주는 공문서들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 의정부 계문(啓聞)과 관문(關文)

- 국왕의 교서
- 도순무영의 전령(傳令) 감결(甘結) 관(關)
- 출진병대의 첩보
- 지방관들의 첩보
- 충청병사의 등보
- 각 소모사 소모관의 첩보

『갑오군정실기』의 9월과 10월 기록에는 도순무영의 전령이 다수를 접하고 있다. 좌우선봉과 각 파견 병대에 빈번히 명령을 내려서 행군 목적지와 임무 등을 알렸다. 각 병대의 출발과 행군이 늦으면 독촉이 엄하였고, 청주성과 공주성 직행과 같은 새로운 명령도 강한 문구로 전달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지역사례를 전해주는 새로운 보고 문이나 명령서들이 더 수록되어 있다.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내용이나 진압군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일본군과 관계된 문제는 극히 일부만 전제되어 있다. 수많은 접촉과 보고문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갑오군정실기』를 편집할 때 미친 외부의 간섭을 추정하게 해준다.

II. 양호도순무영의 설치

1. 도순무사 신정희

1894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최고지휘부인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한 것은 조선정부에서 국란에 대처하던 전례를 따른 조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비상시에 처했을 때 특정한 임무를 부여한 순무사를 임명해서 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숙종대인 1710년 순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절목을 마련하면서 “순무사가 순시할 때에 구례에 의하여 수사(水使) 이하는 갑주를 갖추고 정중히 맞이하며, 병영에 갈 일이 있으면 병사는 감사를 맞이하는 예에 의하여 정중히 맞이한다.”¹²⁾고 하였다.

영조대 이인좌의 반란을 진압할 때는 4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¹³⁾에 오명항(吳命恒)을 임명하고 또 남한순무사(南漢巡撫使)¹⁴⁾에 김동필(金東弼)을 임명해서 지역을 정해서 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영조대의 순무사 운용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운용해서 국난을 해결하는 지침이 되었다.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양서순무영(兩西巡撫營)이 설치한 것이 그러하다.¹⁵⁾

고종대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역시 순무영제의 전례를 따라 기보연해순무영(畿輔沿海都巡撫營)을 설치하고 이경하(李景夏)를 기보연해도순무사(畿輔沿海都巡撫使)로 임명해서 프랑스군의 내륙을 침범에 대처하였다.¹⁶⁾

1894년에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양호도순무

12) 『비변사등록』 1710년(숙종 36년) 11월 13일.

13) 『영조실록』 1728년 3월 17일자.

14) 『비변사등록』 1728년 3월 19일자.

15) 『순무영등록』 1812년. 奎古4250-66.

16) 『순무영등록』 1866년. 奎15063; 『고종실록』 1866년 9월 8일. 『순무영등록』은 병인양요에 대처해서 설치했던 순무영이 1866년(고종 3) 9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활동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경하(李景夏)를 기보연해도순무사(畿輔沿海都巡撫使)로 명하고, 순무중군(巡撫中軍)에 이용희(李容熙), 순무선봉장(巡撫先鋒將)에 양헌수(梁憲洙)를 임명한 사실과 순무사에게 내리는 교서와 군사 규율인 계령(戒令) 등을 수록했다. 인력과 군량 및 소요 물자를 강화도와 인접한 경기도뿐 아니라 황해도·평안도·강원도·함경도에서 동원하라는 전령들이 포함되었다. 또 행군 상황 보고와 함께 천자총통(天字銃筒)·화약·수노궁(水弩弓)·장창(長槍)·조적등(照賊燈) 조달한 물자를 기록했다. 문수산성·정족산성 전투에서 공을 세운 군사들의 포상을 의정부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그 명단이 전제했으며, 출정 인원의 명단과 제반 물품의 종류와 수량, 새로 만든 무기 등의 목록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영은 이러한 전례에 따른 것이었다.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이규태(李圭泰)의 묘비에도 “영조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순무영을 설치”했다고 하였다.

또 이 묘비에 양호도순무영은 “당대에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아 그 직임(職任)을 채웠다.”¹⁷⁾고 표현한 내용이 있다. 묘비 작성자가 문무 겸비한 인재로 가리킨 사람들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묘비 주인인 선봉장 이규태를 포함해서 도순무사, 중군, 종사관 등 주요 직임을 맡은 인물들로 보인다.

양호도순무사 신정희 선임된 까닭은 9월 26일자로 내린 교서에 나타나 있다.¹⁸⁾ 긴 문장이지만 전제해서 소개한다.

“開府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의리를 본받아 편의에 따라 다스리게 하니 兩湖의 중대한 임무이고,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로 巡撫의 직임을 簡選 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다. 그대는 직임을 공경히 수행할지니,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도다. 돌아보건대, 이 新營의 설치는 실로 匪類의 소요에서 연유하였다. 州郡에 못된 백성들이 많으니 아, 어쭙잖게 날뛰는 무리로구나. 하지만 京師에 禦侮하는 곳이 있으니, 북소리 잦아들을 어찌하리오. 태평성대를 누린 지 오래이니, 어찌 차마 백성의 離叛을 말하랴. 의연히 성루에서 지휘하여 밤을 지새우는 나의 근심을 나눌 자 누구인가. 卿은 世家の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이다. 扈衛副將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을 드러낸 것이 얼마이더냐. 전에 中營을 맡았을 때 대단한 공적을 쌓은 것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이에 경에게 행 行兩湖都巡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은혜로운 명에 공손히 보답하여 신묘한 계책을 펼지어다. 列郡을 安撫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錢穀을 넉넉히 쌓아야 할 것이고, 양호를 진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무력을 쓰지 않고 굴복시키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

17) 「兩湖巡撫先鋒將李公墓碑銘并序」.

18)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26일자. 經筵廳 侍讀 洪顯哲이 지어 올린 것이다.

오랑캐를 칠 方略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신중함을 견지한 趙充國을 익혀야 할 것이고, 旌旗의 精彩를 새롭게 바꾸고자 한다면 의당 엄격함을 숭상한 李光弼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고딕체로 표시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이 교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① 양호도순무사의 지위와 위상, ② 양호도순무영 설치의 연유, ③ 도순무사 신정희에 대한 신뢰, ④ 도순무사의 책무 등에 관한 것이다.¹⁹⁾

양호도순무사의 임무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서 여러 군현은 안무(按撫)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편의중사를 의미하는 구절이 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군대를 통솔할 신영(新營)을 구성하되 군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말이다. 병인양요 당시 도순무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군과 선봉장이 군사 지휘관으로 전투 현장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1894년에도 서울 도성에 위치해서 총괄할 것이었지만 편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런 권한 부여는 1894년 전국 많은 군현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하고 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일이 군사문제를 국왕과 정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도순무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시의 적절히 진압을 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신정희는 19세기 순조 이래 고종대까지 3대에 걸쳐 장신(將臣)을 역임해온 무관 명문가에 속한 무장이었다.²⁰⁾ 증조부인 신홍주(申鴻周, 1772~1829)는 좌우포도대장, 평안도·전라도·함경도 병마절도사와 삼도통제사·배왕대장·어영대장·훈련대장과 병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아버

19) 이 부분은 신영우, 2011,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군사』 81, 참고.

20) 장필기, 2010, 「鎭川 논실의 平山申氏 將臣閥族家系와 申鴻周」,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지 신현(申櫛, 初名 觀浩, 1811~1884)은 철종과 고종대의 장신으로서 여러 병영의 대장과 한성판윤·형조판서·공조판서·병조판서를 역임하고 무관으로서 정1품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인물이다.²¹⁾

신현과 신정희는 유장(儒將)으로 이름이 높았다. 고종은 강화도조약과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할 때 신현을 전권대관으로 보냈고,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영민”하면서 공사에 엄격한 신정희를 신뢰하여 어영대장·금위대장·장어대장·전영사·후영사·통위사 등으로 경군 병영을 지휘하게 하였다.²²⁾

신정희는 포도대장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었다. 좌포도대장과 우포도대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과감하게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혼란한 ‘시국을 구제할 인재’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그리고 한성판윤·형조판서·공조판서를 역임한 후 호위부장으로 있으면서 내무독판(內務督辦)으로 근대식 군제를 만드는 과업에 노력하기도 했다.²³⁾

2. 중군 허진

『갑오군정실기』 제10책은 유영장졸(留營將卒)과 출진장졸(出陣將卒), 그리고 기공(紀功)을 나누어 기록하였다. 유영장졸은 지휘부인 도순무영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들의 직함과 명단을 기록한 것이고, 출진장졸은 좌선봉 통위영, 우선봉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 심영(沁營)에서 출진한 장병을 기록한 것이다.

21) 최진욱, 2010, 「申櫛(1811~1884)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신현은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신뢰한 무장으로서 병인양요 직후에는 군비강화책을 제시한 『民堡輯說』 등 병서를 저술하였다.

22) 「每日申報」 1932년 1월 12일자 4면기사. 雨田生, 「申年の申氏」 “(三) 卞山人이요 觀浩의 자라 儒學이 兼備하여 高宗戊寅에 大將을 任命하여 十七年間 國家의 重鎮이 되었다” 1878년 御營大將을 시작으로 여러 군영의 대장을 역임한 신정희는 민간에 將臣과 포도대장으로 刻印된다.

23) 신영우, 2010, 「將臣 申正熙의 仕宦 이력과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유영장졸은 중군(中軍), 종사관(從事官), 참모사(參謀士), 참모관(參謀官), 별군관(別軍官), 대솔군관(帶率軍官), 집사(執事) 순으로 나와 있다.

도순무영의 도순무사 다음의 제2인자는 중군이다. 중군은 경군 각 병영과 각 도의 병영 등에서 장신이나 병사의 지휘를 받고 병력을 거느리는 임무를 맡는 위치에 있다. 경군 병영의 장신이 국왕을 호위해서 외지로 나갈 경우 중군이 도성 안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다. 병인양요 당시에는 기보순무영의 선봉중군 이용희(李容熙)가 병력을 지휘해서 일선까지 나아갔다.

도순무영의 중군에는 9월 24일에 허진(許璉)이 선임되었다. 허진은 무반 명가로 유명한 양천 허씨 집안의 일원으로 부산첨사·부평부사·전라우수사·병조참의·병조참판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중군으로 선임되기 21일 전인 1894년 9월 3일에는 경무사에 임명되었다.²⁴⁾

경무청은 갑오개혁에 따라 신설한 관청으로서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췌내의 순찰과 함께 오늘날의 경찰과 같이 도성 5부의 경찰 사무를 맡는 것이 임무였다.²⁵⁾ 경무사 허진이 중군이 된 것은 군대와 경찰을 통합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책임진 기구가 도순무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허진은 일본공사관에서 환영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대원군파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대원군은 청일 간 전투에 청국군의 승리를 원했던 사실이 청국군 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져서²⁶⁾ 곤욕을 치렀고, 평안감사 민병석(閔丙奭)에게 보낸 편지도 노획되어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공사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다.²⁷⁾ 결국 대원군

24)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허진.

25) 『고종실록』 1894년 7월 14일. “경무청 관제와 직무. 1.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을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내무아문에 소속시키는데 한성부 5부 관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권, 七. 和文電報往復控 (60) 平壤戰鬪에서 노획한 大院君이 淸國에게 보낸 서한 발송의 件. 이 전문에 발송된 날이 9월 10일(양력 10월 8일)이다.

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권, 八. 日淸事變前後 機密公信 및 機密書 (3) 向背를 정하지

의 섭정 자리는 이를 빌미로 물러나게 되는데 대원군파로 드러난 허진도 그 때문에 기피인물이 되었다.

경무사로 발탁된 것도 대원군은 “동학당을 선동하는 비밀명령을 전하였을 때 전 경무사 이윤용(李允用)이 이를 정탐”하자 사소한 이유를 붙여서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 자기 당 소속인 허진을 기용해서 경무사로 삼았”다고 하였다.²⁸⁾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를 부추긴 사실은 이노우에 일본공사가 대원군의 측근들을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²⁹⁾ 심지어 “동학당이 일본군의 군용 전신선을 절단하고 병참부 습격하고 상인과 인부들을 학살한 것이 모두가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일본군 정보망은 파악하였다.³⁰⁾

평양에서 발견된 대원군의 편지에 대해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추궁하거나 책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정변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정국을 반전시켜온 사람이었다. 강화도조약 때는 실무를 맡은 부사로서 국제법이나 외교관행을 잘 모르던

못하는 朝鮮高位層 태도 추궁과 在韓日公館 稟電節次.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은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그 편지를 이용하도록 10월 1일(양력 10월 29일)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낸다. “平壤에서 입수한 大院君이 平安道 觀察使 閔丙奭에게 보낸 書翰과 李載冕·金宏集의 서한 原本 도합 3통을 公使의 電信 요청에 따라 보내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서한을 읽어 본 바로는 日·清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내심 주저하고 있는 흔적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朝鮮의 社稷이 ‘危急存亡之秋’에 있는 때이므로, 대원군을 위시해서 이 정도의 말을 한 것은 굳이 잘못을 추궁할 가치가 없사오며 지금 새삼 다시 이를 증거로 해서 통렬하게 저들을 책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를 이용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전적으로 閣下의 높으신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권, 五. 機密諸方往 二 (11) 井上公使의 大院君祖孫 箝制策 內申 및 東學黨 鎮撫를 위한 日兵增派 요청.
- 29) 이상백, 1962, 「동학당과 대원군」, 『역사학보』 17; 배항섭, 1997,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 3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권, 六. 內政釐革의 件 一 (4) 大院君의 東學黨 선동에 관한 件.

조선대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불평등 조항을 슬그머니 포함시켜서 체결시킨 전력이 있었다. 그는 평양에 보낸 편지를 빌미로 대원군을 정권에서 제거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런 시기에 대원군파의 허진이 도순무영 중군으로 선임된 것이다.

일본공사관에서는 도순무영이 불편했을 것이다. 도순무사 신정희와는 화급한 군사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수 없었다.³¹⁾ 군국기무처 총재관 김홍집이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과 진압군 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기인 10월 23일에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중군 허진도 일본군의 잦은 요청을 전달할만한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때문인지 주요 군사문제는 일본공사가 외부대신을 만나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³²⁾ 도순무사는 일본공사관에 가지 않는데 외부대신 김윤식은 수시로 일본공사관에 출입하면서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의 지침을 받아왔다.

3. 종사관 정인표·홍승운

도순무사와 중군 다음의 직위는 종사관이었다. 종사관은 『갑오군정실기』에 3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련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정인표와 홍승운이었다. 군영의 종사관은 ‘경력이 있고 사무에 숙련된 사람’³³⁾을 뽑아서 쓰는 것이 전례였다.

31) 『금영내찰(錦營來札)』 도원(道園). “匪徒의 기세가 위축되어 정말 물러갈 만합니까? 순무사 영감이 일본군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巡撫令不行於日兵故) 온 편지를 운양(雲養, 김윤식)에게 보냈는데, 그 답장이 이와 같습니다.”

32) 『속음청사』 1894년(고종 31) 9월~12월 기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외부대신 김윤식 관련 문서 참고.

33) 『일성록』 1779년(정조 3) 7월 11일. “從事官當以有履歷鍊事務之人差擬”; 『일성록』 1780년(정조 3) 10월 16일. “금위영 종사관의 望單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한 찰의 財用이 전적으로 이 軍色에 의지한다. 그들이 들고 날 때에 살피고 단속하는 것은 郵官이 종합적으로 밝히고 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으니, 반드시 久任인 자라

도순무영은 각종 공문 수발과 주요 방침 결정과 함께 군수미와 군수 전 등 막대한 군사비를 사용하는데 이런 업무는 역량이 있는 소장관료가 맡는 것이 적합하였다. 처음 선임된 황장연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고 동지사를 따라 청국에 서장관으로 다녀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지에 있어서 즉각 부임할 수 없게 되자 교체하였다.³⁴⁾

경연청 시강(侍講)으로 있던 정인표는 이견창, 이견승, 정원하, 홍승헌 등과 함께 양명학의 학맥을 이은 인물로서 학식이 있고 실무에 밝은 인물이었다.³⁵⁾ 1892년 37세의 늦은 나이로 문과에 합격했지만 역량을 인정받아서 요직을 연이어 맡았다. 그리고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장위영의 군사마(軍司馬)와 병조정랑을 지냈다.³⁶⁾ 일본군 혼성제9여단이 서울에 들어와 위협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강요하던 1894년 7월에는 남산 노인정 회담에 교정청 관원으로 내무독판 신정희를 수행해서 참여하기도 했다. 9월에는 내무아문 주사와 경연청 시강을 맡았는데 이때 도순무영의 종사관에 발탁된 것이다. 홍승운(洪承運)도 뒤늦게 45세가 되는 1889년에 알성시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와 내무주사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모두 도순무사 신정희와 군영이나 병조 그리고 내무부에서 함께 일을 했던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III. 양호도순무영의 직제와 인원

9월 24일부터 도순무사와 중군, 그리고 종사관 2명이 영기(令旗)를

야 일의 완성을 책임 지을 수 있고 또한 일에 정통할 수가 있다.”

34) 그럼에도 『갑오군정실기』에는 그 이름이 기재되었다.

35) 『춘경대집(春耕臺集)』. 이 문집초고본은 정인표의 학문과 교류 등을 잘 전해주고 있다.

36) 신영우, 2007,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 - 洪承憲·鄭元夏·鄭寅杓를 중심으로 -」,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참고.

받고, 군복을 착용한 다음 군무를 보기 시작했다. 도순무영 직제와 인원 차출은 도순무사 신정희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먼저 신정희가 호위 부장으로 이끌던 호위청에서 서리 7명을 도순무영에 차출하고, 서사(書寫) 등도 불러왔다. 그리고 도순무영의 중군과 종사관소에서 일을 할 인원을 통위영 총어영 장위영 용호영 경리청에서 차출하는 동시에 도순무영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도순무영은 9월 26일 왕명에 의해 한성부에 설치하였다.³⁷⁾ 이와 함께 참모사 5명과 별군관 7명을 선임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연이어 참모관을 임명해서 직제를 확충하였다. 또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의 감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서 도순무영의 설치 사실을 알렸다.

다음 <표 1>은 도순무영의 지휘부에 소속되어 활동한 인물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도순무영 주요 직함과 명단

직함	인원	성명	비고
중군	1	경무사 허진	
종사관	3	전교리 황장연, 시강 정인표, 전교리 홍승운	황장연은 在外草記 減下
참모사 (參謀士)	7	전도사 김근식, 군무주사 오진영, 전사과 홍건조, 전사과 박영세, 전수봉관 신영국, 전주사 이명선, 유학 이기혁	박영세(起復)
참모관 (參謀官)	1	유학 한용익	
별군관	27	전부사 이희중·이병세, 부평부사 신 립, 전첨사 구연항, 전부사 신좌희, 공무주사 구연수, 학무주사 안연중, 전감찰 정달인, 전오위장 유일환, 첨지중추 이교석, 전부호군 구달조, 군무참의 구주현, 출신 신용균, 유학 조충현, 출신	

37) 『갑오군정일기』 1894년 9월 26일. “司諷口傳 --- 巡撫營更爲移設于漢城府”

직함	인원	성명	비고
		박항래, 첩지중추 이민섭·조국현·이기준·홍필유, 전첩사 유공수, 전부호군 정규혁, 전선전관 유석관, 전첩정 강필로, 출신 신일균·이병서, 상리통령 이성근·구종설	
대솔군관	16	전부사 손병호·한치익·조진태, 전현감 박명환, 전첩정 박태운, 원외랑 백완혁, 전수문장 유태현, 전사과 이성로, 전오위장 박완룡, 전중군장의태, 전오위장 이시영·임학선·박윤석·김진학, 전감찰 김상영, 출신 이종렬	
계	55		

도순무사에게 “군사를 통솔하는 의리를 본받아 편의에 따라 다스리게” 한다는 교서는 군권 행사의 독자성뿐 아니라 도순무영 구성에서도 전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도순무영에 동원된 경군 각 병영과 차출된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참모사와 별군관 그리고 대솔군관으로 활동할 책임자를 뽑는데 현직과 전직 지방관을 비롯해서 각 부에서 재직하던 인물 등을 망라해서 선임하였다. 현직 군무참의와 함께 군무주사와 공무주사 그리고 학무주사가 참모사와 별군관으로 들어왔다. 현직 부평부사와 첩지중추부사도 포함되었고, 전직은 부사·현감·부호군·첩사·선전관·감찰·주사·수문장·오위장 역임자들이 참여하였다. 관직을 지내지 않은 유학·출신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켰고, 후보상을 활용하기 위해 상리통령(商理統領)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도순무영이 경군 모든 병영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조직해서 운영한 것이다. 도순무사 신정희가 지휘하던 호위청을 비롯하여 경군 모든 병영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도순무영에 소속시켰다. 『갑오군정실기』에는 집사를 비롯해서 별무사 이하의 명단을 적고 소속을 밝혀놓았다. 이를 검토하면 도순무영의 실상을 알게 된다.

도순무영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차출된 병영은 호위청이었다. 직함을

보면 집사 17명, 본군관 3명, 별무사 20명, 서자적 14명 등 54명이 호위청 소속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도순무사의 근무처인 대장소(大將所)에서 일하는 인원 220명이 모두 호위청 소속이었다. 호위청은 또 중군의 근무처인 중군소(中軍所)에 1명, 종사관 근무처인 종사관소에 13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기타 여러 부서에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27명이 더 있었다.

도순무영에 속한 직책의 총원은 526명이었다. 그런데 이중 도순무사 신정희를 포함한 다수가 호위청 소속으로 나타난다. 병영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소속이 기재되지 않은 132명을 빼면 394명이 호위청 소속이었다. 즉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호위청에서 파견된 것이다.

출진장졸, 즉 충청도와 전라도로 출정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선 경군은 통위영과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에 소속된 장졸이었다. 도순무영, 즉 서울의 지휘부는 주로 호위청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었지만 경군 병영인 용호영, 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경리청 소속 병사들도 차출되었다.

소속을 기재해서 차출한 병영을 알 수 있는 도순무영 집사 이하의 직함과 성명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순무영의 경군 병영 차출 현황

직함	인원	성명	비고
집사	29	호위청 - 임학기 이명규 유상우 정기택 윤의손 박두형 최응균 이기형 김제웅 김경수 신석모 윤홍인 박윤희 송계복 김기중 유금환 김태중 용호영 - 김준모, 최완근 통위영 - 윤공선, 고정필, 이해원 장위영 - 유문환, 김준희 총어영 - 박준상 황승흡 어득찬 경리청 - 우하선 이응진	호위청 17 용호영 2 통위영 3 장위영 2 총어영 3 경리청 2
본군관	3	호위청 - 함홍식 원응환 양학수	호위청 3
별무사	33	호위청 - 최창기 문기원 이봉식 천계주 이석봉 이정근 우진석 배명춘 반형식 박도형 이완엽 장득근 이항진 이완영 오	호위청 20 통위영 5 장위영 3

직함	인원	성명	비고
		홍엽 유진기 임화진 박신양 김종숙 전원식 통위영 - 나원규 김영호 양진풍 안세창 김진성 장위영 - 이승근 김용원 허준 용호영 - 조순중 총어영 - 이계근 유성택 염상인 이치홍	용호영 1 총어영 4
마의 (馬醫)	1	박효승	소속 기재 없음
서자적 (書字的)	19	호위청 - 14 통위영 - 1 장위영 - 1 용호영 - 1 총어영 - 2	성명 기재 없음
각색패두 (各色牌頭)	10		소속 성명 기재 없음
계	65		

집사와 본군관, 그리고 별무사와 서자적도 호위청 소속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경군 각 병영에 배치했던 도순무사 행차시에 앞장서는 의장병인 전배순령수와 감옥을 관장하는 뇌자, 그리고 밤중에 등불을 드는 등룡군과 군막을 책임진 장막군도 두었다.³⁸⁾

〈표 3〉의 대장소 인원을 보면 도순무사의 대장소에 배치된 220명 전원이 호위청 소속이다. 전배순령수 36명, 뇌자 36명이 모두 호위청 소속이었다. 또한 대장소 인원의 절반이 넘는 총수와 창수 등 병사 114명과 등룡군과 장막군 26명도 호위청 소속이었다.

교서에 나오는 것처럼 도순무사는 단순한 한 병영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도원수에 상응하는 품계로 순무의 직임을 간선(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라고 그 지위를 명시하였다. 『갑오군정실기』의 기록에 나타난 대장소의 인원 배치를 알 수 없으면 이런 교서의 표현이 의미하는

38) 육사 한국군사연구실편, 1977, 『韓國軍制史: 近代 朝鮮後期篇』.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표 3〉 대장소(大將所) 배치 인원

임무	인원	비고
전배순령수(前排巡令手)	36	
뇌자(牢子)	36	
획수(劃手)	4	
관이령전수(貫耳令箭手) ³⁹⁾	2	
숙정패직(肅靜牌直)	2	
등룡군(燈籠軍)	16	
장막군(帳幕軍)	10	
난후총수(欄後銃手)	65	
창수(槍手)	23	
기수(旗手)	13	
배포수(陪砲手)	13	이상 호위청
	계 220	

〈표 4〉는 중군소의 배치 인원이다.

중군소는 경군 각 병영에서 차출된 인원 50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위영 6명, 장위영 5명, 경리청 5명, 총어영 17명, 용호영 16명, 호위청 1명이다. 중군 허진은 경무사를 겸하고 있었지만 경무청에 소속된 인원은 들어있지 않았다. 경무청은 일본의 경찰제도를 본딴 신설기관으로서 서울의 형무소를 관할하고 5부의 분서에 순검을 파견해서 관내를 순찰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였다.⁴⁰⁾ 광화문 등 수문장청을 순검 수직소로 삼고 대궐문을 지키는 기능도 하였다. 그래서 경무사는 정부 대신보다 강력한 권력 행사가 가능한 직책이었지만 소속 관원인 경무관이나 총순

39) 貫耳箭 : 전진(戰陣)에서 군율을 어긴 사형수(死刑囚)의 두 귀에 꿰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던 화살, 또는 그 형벌(刑罰). 모양이 영전(令箭)보다 짧고, 살촉이 뾰족함

40) 『경무청관원이력서(警務廳官員履歷書)』 奎20713, 해제.

(總巡) 또는 순검(巡檢)을 도순무영의 중군소에 배치하지 않았다.

중군 허진은 11월 17일에 경무사 직책을 떠나게 된다.⁴¹⁾ 그런 까닭에 경무청 관리가 중군소 차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임된 뒤 부임도 하지 않은 종사관의 이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누락시켰을 것 같지는 않다.

〈표 4〉 중군소(中軍所) 배치 인원

직함	인원	비고
전배순령수(前排巡令手) 14	3	통위영
	2	장위영
	3	용호영
	3	총어영
	3	경리청
뇌자(牢子) 12	3	통위영
	3	장위영
	3	용호영
	3	총어영
관이령전수(貫耳令箭手) 2	2	경리청
등룡군(燈籠軍) 6	3	용호영
	3	총어영
장막군(帳幕軍) 3	3	총어영
배기수(陪旗手) 10	5	용호영
	5	총어영
인기수(認旗手) 2	2	용호영
인신직(印信直) 1	1	호위청
	계 50	통위영 6, 장위영 5, 경리청 5, 총어영 17, 용호영 16, 호위청 1

〈표 5〉는 종사관소에 배치된 인원이 호위청 소속 13명인 것을 보여

41)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허진.

준다. 종사관은 실무를 맡는 직책이다.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도순무영의 종사관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는 까닭에 이 시기에 수행했던 업무에 관해서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사관 정인표의 문집초고본인 『춘경대집』에 수록된 3편의 글에서 일부 내용이 확인된다.⁴²⁾

여기 실린 「고시문(告示文)」은 정인표가 직접 쓴 글인데 동학농민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진압군이 파견되었으니 귀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을 대상으로 쓴 방문이나 게시문 등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춘경대집』에 함께 전제한 「전령호서열읍(傳令湖西列邑)」도 역시 같은 내용이다.

「십가통규(十家統規)」는 향촌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농민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모두 5개 항목인 이 통규는 10호로 1통을 만들고, 통수를 정해 통내의 사정을 잘 파악하며, 모든 민호가 대문 위에 호구 상황을 기록한 패를 걸고, 수상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가작통을 강화해서 농민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계획한 이 제도는 시행할 수 없었으나 진압 시기는 물론 진압 이후에도 양반층이 사회혼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실상을 보여준다. 종사관은 이러한 전령이나 포고문, 그리고 농민통제책을 구상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다.

종사관소에 배치된 인원을 보면 문서 작성이나 필사하는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표 4>에 나오는 서리나 서기 또는 문서직이 업무와 관련된 직책으로 보인다.

42) 『춘경대집』에 정인표가 도순무영 종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작성했던 「告示文」 「十家統規」 「傳令湖西列邑」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 5〉 종사관소(從事官所) 배치 인원

직함	인원	비고
전배순령수(前排巡令手)	2	
뇌자(牢子)	4	
등룡군(燈籠軍)	2	
배기수(陪旗手)	3	
장막군(帳幕軍)	2	이상 호위청
	계 13	

도순무영은 규모가 상당했던 군사지휘부였다. 따라서 갖가지 직무를 부여한 인원이 필요했다. 사방을 다니며 사정을 엿보는 망보는 일도 해야 했고, 각 건물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했다. 서리와 함께 문서를 베끼거나 문서나 창고지기 또는 사환도 배치되어야 임무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직책은 대장소와 중군소를 오가며 문서를 전달하는 일 등과 함께 출진한 병대에게 필요한 전령을 전하거나 물자를 보내는 업무 등에 필요했을 것이다.

〈표 6〉 도순무영의 기타 인원

직함	인원	비고
호분위	4	말 4필
사후(伺候)	19	
아기수(兒旗手)	21	
각청방직(各廳房直)	13	
복직(卜直)	1	
경포수도영장(京砲手都領長)	1	
교장(教長)	3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각 1인
서기(書記)	3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각 1인
금군(禁軍)	3	
기사(騎士)	3	
상리집사(商理執事)	1	

직함	인원	비고
사후병정(伺候兵丁)	6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각 2인
서리(書吏)	14	친군영 4, 호위청 7, 총어영 1, 통위영 1, 광무국(鑛務局) 1
서사(書寫)	2	호위청 1, 전호조(前戶曹) 1
고직(庫直)	3	호위청 2, 총어영 1
사령(使令)	10	호위청 6, 총어영 2, 경리청 2
문서직(文書直)	11	호위청 6, 친군영 2, 통위영 1, 장위영 1, 총어영 1
사환군(使喚軍)	4	호위청 1, 친군영 1, 총어영 2
	122	

서울의 도순무영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사람들이 도순무사를 포함해서 526명이었다는 사실은 도순무영의 위상을 새롭게 알려준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것을 군영의 규모로 전해주는 것이다.

일본공사관은 청과의 전쟁에서 후방의 안정을 위해 조선정부에 진압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동학농민군의 완전 제거를 결정한 것이었다.

외부의 적인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해서 국왕까지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지만 고종과 관료들은 이 사태를 왕조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위기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본세력을 축출하겠다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더 위험한 존재로 보았다. 그런 까닭에 국정을 책임 맡은 김홍집과 같은 고위 관료는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더 많은 일본군을 파견해달라고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간청까지 하고 있다.⁴³⁾

43) 『금영내찰(錦營來札)』 도원(道園). 김홍집은 선봉 이규태에게 보낸 편지에서 많은 일본군을 파견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일본군을 많이 파견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일본 공사는 여전히 신중하여 많이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본과 청국간의 전쟁이 지금 한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IV. 양호도순무영의 출진장졸과 주요 활동

1. 좌선봉 출진장졸

도순무영은 선봉으로 9월 24일 통위영 영관 이규태를 선임해서 선발부대를 이끌고 출진하고, 이어서 중군 허진이 대군을 거느리고 출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증파되어 오고, 일본공사관에서 경군 병대까지 일본군 장교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요함으로써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군의 출진은 보류되었다.

출진장졸들은 선봉 이규태가 지휘하게 되었다. 중군 허진이 출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 현장지휘관은 선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규태는 통위병과 교도병을 이끌고 출진하기로 하였는데⁴⁴⁾ 장위영과 경리청 등 다른 병대도 선봉장의 지휘를 받도록 전령을 내렸다.⁴⁵⁾ 교도중대는 일본군 장교에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 장교가 같이 가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일본군 장교가 교도중대를 지휘한 것이다.

그러나 후비보병 제19대대가 같은 시기에 남하하게 되자 사정이 또 달라졌다.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가 경군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선봉장 이규태도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규태는 경군 다른 파견군을 지휘 통제하면서 일본군 장교에게 다시 지휘를 받는 위치로 전락되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시 경군 병영을 기습해서 무기와 탄환을 탈취해서 일본군 진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44) 위 자료. “선봉장이 내일 떠나는데, 인솔하여 가는 군대는 교도병(教導兵) 200명과 통위병(統衛兵) 200명을 합한 400명입니다. 일본공사관이 파견한 사관(士官) 2명이 약간의 병사를 인솔하여 교도병과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45) 『양호우선봉일기』 10월 7일. 순무영에서 보낸 전령에 장위영 등 다른 경군에게 선봉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선봉장이 통위영의 병정 2중대를 거느리고 출발하므로, 영관 직위 이하는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혹시라도 기회를 놓쳐 군율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이를 돌려받지 못해서 출발을 늦게 하였다.⁴⁶⁾

실제로 이규태는 통위영 병대만 지휘해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과 함께 공주성으로 직행하였다. 이규태는 우금치전투에 경리청 병대와 함께 참여했지만 일본군 장교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서로군 중대장 모리오(森尾) 대위와 충돌⁴⁷⁾하는 험악한 지경까지 가기도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미나미 소좌는 이노우에 공사에게 이규태의 소환을 요청하고 있었다.⁴⁸⁾

선봉장 이규태가 거느린 통위영에는 영관 장용진(張容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관 또는 부영관이 지휘하는 장위영과 경리청 파견군과 비교되는 것으로 선봉장의 지위를 보여준다. 병정의 수는 287명이지만 지원세력이 상당한 규모였다. 참모사 1명을 포함해서 참모관 5명, 그리고 별군관이 18명이나 가세하고 있었다. 또 출진한 병영이 아닌 용호영과 총어영에서 차출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400명이 넘는 병력이 선봉장 이규태가 지휘하였다.

『갑오군정실기』의 출진장졸 기록의 처음 항목은 ‘좌선봉 이규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위영 병대를 지휘하던 이두항이 11월 26일 우선봉으로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27) 華城守備交替兵의 急派要請과 朝鮮軍 領率官姓名의 問議에 關한 交信 4) 上件 領率官姓名 및 實情回報. “教導兵과 統衛兵은 巡撫先鋒 李圭泰가 인솔하여 육로로 水原을 향해 먼저 가고 江華兵은 江華中軍 黃憲周가 인솔하여 수로로 忠淸道 魯城 지방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統衛兵 200명과 江華兵 100명은 洋槍과 탄환이 없어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關한 諸報告 <제1권 제7장의 후반부> (2) 東學黨 征討略記.

4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30) 東學徒 鎭定에 關한 諸報告 및 意見具申 2) 意見具申. “동학당 토벌선봉군대장 李圭泰. 위의 사람은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며 모든 처사가 애매모호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왜곡, 이제까지 한번도 전투일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전투 중에 자기 편의대로 숙소에 돌아오는 등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군대에서는 해로운 인물이므로, 대장 이규태를 소환하시어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되고, 선봉장 이규태가 좌선봉으로 위상이 격하되었기 때문이다.⁴⁹⁾

〈표 7〉 좌선봉 이규태가 지휘한 통위영의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先鋒將 1		
	領官 1	장용진	
	隊官 2	오창성 신창희	
	教長 4	박상길 고헌석 황수옥 김상운	
	書記 2	정도명 김원석	
병력	兵丁	284	料飭 이하
	候兵	9	
	輜重兵	14	
	帳幕軍	5	
	卜馬軍	7(卜馬 7필)	
	騎馬夫	9(騎馬 9필)	
출진장졸 계	337		

〈표 8〉 좌선봉 지원 병력

구분	인원
參謀士	이규백
參謀官	권중석 이구영 황승억 이승욱 정도영 5
別軍官	유석용 이건영 송흠국 허 완 이필영 이재화 박정환 임형준 임병효 이진원 이종진 이지효 이홍교 김진옥 윤영렬 조중석 이계훈 박흥기 18
軍官	오인경 1
別武士	김태형 - 용호영 1, 안성관 - 총어영 1
書子的	김창근 - 용호영 1, 안세현 - 총어영 1
輜重兵	통위영 4

49) 『고종실록』, 1894년(고종 31) 11월 26일. “양호도순무영에서 아뢰기를, ‘적들이 모였다 흠어졌다 하는 것이 일정함이 없습니다. 선봉장 이규태를 좌선봉장으로 차하하고, 장위영 영관 이두항은 여러 번 전공을 세웠으니 우선봉장으로 차하하여, 지역을 나누어서 토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구분	인원
前排巡令手	용호용 2, 총어영 2
牢子	용호영 2, 총어영 2
燈籠軍	경리청 2
帳幕軍	용호영 2
卜直	용호영 1
長夫	통위영 3
牙兵	총어영 2
騎馬夫	용호영 4, 총어영 4 (기마 8필)
卜馬軍	용호영 3, 총어영 3 (복마 6필)
계	65

장위영은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병영이었다. 1893년부터 1894년 초까지 장위영의 대장인 장위사(壯衛使)는 한규설(韓圭謫)과 이종건(李鍾健)이 번갈아 맡아왔다.⁵⁰⁾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 이후에는 조희연(趙羲淵)이 장위사로 발탁되었다.

장위영의 영관으로 1893년부터 활약했던 주요 인물이 홍계훈(洪啓薰)이었다. 고종과 민비의 신뢰를 받은 홍계훈은 충청병사로 청주에 부임했던 시기에 충청병영에 신식무기를 사들이고 병력을 확충해서 정예 병으로 만들었다.⁵¹⁾ 홍계훈이 장위영에 복귀했을 때는 많은 청주병들이 장위영에 편입되었다. 1893년 봄 보은 장내리에서 동학도들이 집회를 열자 홍계훈이 청주까지 장위영 병정 3조를 인솔해서 다녀온다.⁵²⁾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양호초토사에 임명된 홍계훈이 지휘해서 전라도로 간 군대도 장위영 병대였다. 이때 대관(隊官)으로 5(隊)를 이끌고 함께 간 오건영·오원영·이두황(李斗璜)·이학승·원세록(元世祿)이었다.⁵³⁾ 이중 이두황과 원세록이 2차봉기에 장위

50) 『고종실록』 『승정원일기』의 1893년과 1894년의 장위사 한규설, 장위사 이종건 기록.

51) 『모충사실기(慕忠祠實記)』. 청주 모충사 앞에 병사홍계훈불망비가 있다.

52) 『승정원일기』 1893년 4월 8일.

영 병대를 이끌고 남하하게 된다. 홍계훈은 2차봉기의 진압군에는 가세하지 않았다.

국왕이 신임하는 홍계훈이 장위영을 정예병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봉기를 맞아 경군 파견을 결정할 때 9월 19일 가장 먼저 장위영을 선정하였다.⁵⁴⁾ 도순무영이 설치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다. 장위영은 다른 병영보다 출진한 장졸이 많았다. 12개 소대와 함께 포대(砲隊)와 군악대인 곡호대(曲號隊)까지 갖추져 있었다.⁵⁵⁾

이두황의 진중일기인 『양호우선봉일기』에는 장위영 전체를 이두황이 지휘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갑오군정실기』에는 이두황과 원세록이 이끈 병대를 <표 9>과 <표 10>과 같이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이두황은 381명, 원세록은 351명의 병대를 이끌었다.

<표 9> 우선봉 이두황이 지휘한 장위영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이두황	
	隊官	박영호 김진풍	
	敎長	최기성 추광엽 오순영 김대유양기영 김명산 박성희 홍선경	
	別軍官	이겸래 김광수 이희두	
병정	兵丁	321	料飭 이하
	長夫	3	
	候兵	11	
	火兵	21	
	騎馬夫	13(騎馬 13필)	
	卜馬軍	8(卜馬 8필)	
출진장졸 계	381		

53) 『고종실록』 1894년 4월 2일.

54)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19일.

55) 『양호우선봉일기』에 본부와 각 소대, 포대와 곡호대에 속한 장졸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표 10〉 영관 원세록이 지휘한 장위영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원세록	
	隊官	윤희영 이규식	
	教長	김인길 김인규 손세복 이경진	
	別軍官	윤지영	
병정	兵丁	306	料飭 이하
	候兵	6	
	火兵	16	
	騎馬夫	8(騎馬 8필)	
	卜馬軍	15(卜馬 15필)	
출진장졸 계	351		

경리청 출진장졸은 영관 홍운섭과 서산군수 성하영이 나누어 지휘하였다. 서산군수 성하영과 영관 홍운섭이 인솔한 병대는 청주로 직행한 후 10월 19일 공주에 도착하여 우금치전투에 가세하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과 함께 우금치전투에 참가한 경군은 선봉장이규태가 이끄는 통위영을 비롯해서 안성군수 홍운섭이 이끈 경리청 우1소대, 영관 구상조가 이끈 경리청 좌1소대, 대관 백락완이 이끄는 경리청 좌2소대, 서산군수 성하영이 이끄는 경리청 중 2소대였다.⁵⁶⁾

〈표 11〉와 〈표 12〉은 홍운섭과 백락완 그리고 성하영이 이끌었던 경리청 출진장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728명이나 된다. 우금치를 방어했던 병력은 1개소대가 지대로 홍주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외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 1개중대와 공주감영의 영병을 더한 수였다. 모두 1,000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였다.

56) 신영우, 2011, 「北接農民軍의 公州 牛禁峙·連山·院坪·泰仁戰鬪」, 『한국사연구』 154 참고.

〈표 11〉 영관 홍운섭이 지휘한 경리청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1	홍운섭	
	隊官 2	조병완 백락완	
	教長 4	김홍엽 이장혁 김명환 장대규	
	書記 1	백운상	
병정	兵丁	304	糾飭 이하
	候兵	1	
	火兵	16	
	長夫	1	
	騎馬夫	1(騎馬 1필)	
	卜馬軍	27(卜馬 27필)	
출진장졸 계	358		

〈표 12〉 서산군수 성하영이 지휘한 경리청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瑞山郡守1	성하영	
	領官 1	구상조	
	隊官 2	윤영성 이상덕	
	教長 4	이봉춘 정재원 우기원 정인갑	
	書記 1	이인원	
	參謀官 3	이윤철 이상덕 신효식	
병정	兵丁	304	糾飭 이하
	候兵	1	
	火兵	16	
	騎馬夫	1(騎馬 1필)	
	卜馬軍	34(卜馬 34필)	
출진장졸 계	370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증로군과 함께 행군했던 경군은 교도중대였다. 영관 이진호가 인솔한 교도중대의 실제 지휘관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였다. 〈표 13〉은 교도중대의 출진장졸의 규모를 보여준다. 미나미 소좌의 평은 다음과 같다.⁵⁷⁾

“韓兵 중 교도중대는 日本人에게 어느 정도 교육받은 부대이다. 게다가 제18대대의 장교 1~2명과 하사관 약간 명이 이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장 잘 그 임무를 다하였다. 다만 前哨 근무 또는 정찰 등 작전요령에 관해서 처음에는 아직 교육받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하여튼 이 부대는 조선군대의 기초가 될 것이며 公使로부터 이들을 계속 잘 훈련시키라는 內命도 있고 해서, 정말 이들 교육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11월 24일 첫 전투에서는 아직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점차 실전에 익숙해져서 錦山과 沃川 근처의 전투에 이르러서는 前哨 근무 정찰 등 임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었으며 오직 장교뿐만 아니라 병졸들도 매우 진보하였다.”

〈표 13〉 영관 이진호가 지휘한 교도대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1	이진호	
	隊官 5	이민굉 이겸제 서인근 이승규 최영학	
	教長 5	이태황 조인순 김장옥 유성원 김금석	
	書記 2		
병정	兵丁	209	糾飭 이하
	軍曹	2	
	候兵	12	
	火兵	15	
	文書員	2	
	使喚	2	
출진장졸 계	255		

천안과 목천 그리고 온양과 직산 일원은 동학의 주요 세력권 중 하나였다. 2차봉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8월에 천안에 들어온 일본인 6명이

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제1권 제7장의 후반부> (2) 東學黨 征討略記.

피살되어 일본공사관에 소속된 순사를 보내서 조사하는 일도 있었다. 2차봉기가 시작된 후에는 동학도들이 활발히 활동하여 10월 20일에 이를 경계하는 방문을 제시하였다.⁵⁸⁾

“천안읍 온 경내에 비류가 출몰하는 것은 다른 읍에 비해 더욱 심하다. 사람들마다 사설(邪說)에 물들고 집집마다 동학당에 들어가서 함부로 날뛰고 말썽을 부리되 못하는 짓이 없다. 서울이나 시골에까지 시끄럽게 알려진 까닭에 천안 경내에 들어간 뒤에 한번 도륙을 해서 징계할 계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천안의 전 감찰 운영렬과 아산의 출신(出身) 조중석이 300명의 민보군을 결성해서 도순무영의 선봉과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군의 행군 목표는 1차가 청주와 공주였고, 2차는 전라도지역이었다. 천안의 유생들은 위기를 느끼고 선봉 이규태에게 “특별히 군대를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⁵⁹⁾ 도순무영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교장(敎長) 원봉석이 지휘하는 36명의 병대를 천안에 주둔시키게 된다.

〈표 14〉 교장 원봉석이 지휘한 장위영 출진장졸(천안 防守)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敎長 1	元奉錫	
병정	兵丁	32	
	候兵	1	
	火兵	1	
	騎馬夫	1(騎馬 1필)	
출진장졸 계	36		

58) 『순무선봉진등록』 第一, 1894년 10월 20일 榜示文 天安.

59) 『순무선봉진등록』 第一, 1894년 10월 22일.

강화도의 심영(沁營)은 경기 연안의 해상을 방어하면서 서울을 방수하는 책임을 진 병영으로서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1차봉기 때와 같이 심영의 장졸을 보내서 진압하려고 하였다.⁶⁰⁾ 그러나 무기와 탄환 공급이 순조롭지 않고 출진장졸을 지휘할 중군이 병이 나서 출발이 늦어졌다.⁶¹⁾ 전라도로 출진한 심영의 장졸은 전주로 들어가서 전주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일본군 후비보병제19대대가 나주에 본부를 두고 전라도 남부의 동학농민군을 수색하고 있을 때 신임 전라감사 이도재(李道宰)는 해산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체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여러 군현에서 동학조직의 거점이 제거되었고 수많은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혹독히 처벌되었다. 그러한 탄압책의 무력 기반이 강화도에서 파견된 심영의 장졸들이었다.

김개남이 태인 종송리에서 피신하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즉각 심영의 장졸이 출동해서 12월 2일 붙잡아왔다.⁶²⁾ 전라감사가 상을 내걸고 체포를 독려했던 까닭에 정부에서 시상을 논하기도 하였다.⁶³⁾ 전주성에 주둔한 심영의 장졸은 중군 황헌주 이하 327명이었다.

〈표 15〉 중군 황헌주가 지휘한 심영(沁營) 출진장졸(전주 守城)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中軍 1	황헌주	
	領官 1	황시증	
	哨官 3	박승규 조상석 최호성	
	哨長 3	박순영 박제언 김대성	
	軍醫 1	정선경	
	策應官 1	송태혁	
	軍官 1	이석준	

60) 『일성록』 1894년 9월 29일.

61) 『속음청사』 1894년(고종 31) 9월.

62) 『고종실록』 1894년 12월 6일.

63) 위 자료, 1894년 12월 16일.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譏校 3	윤치근 이운창 김경석	
	書記 4		
병정	兵丁	265	糾飭 이하
	火兵	25	
	雜色軍	19	
출진장졸 계	327		

도순무영은 일본공사관의 요청에 따라 별군관과 참모관 12명을 후비보병 제19대대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황해도에도 여러 사람을 파견해서 격동기의 사회 동향을 파악하였다. 『갑오군정실기』에 파견 인원의 명단이 실려 있다.

〈표 16〉 후비보병 제19대대 파견 인원

직함	성명	비고
別軍官 11	남만리 유한세 강원로 박치운 이창식 천희천 김형진 추시안 하정룡 김증겸 정운룡	
參謀官 1		
계	12	

〈표 17〉 충청 전라도 파견 인원

직함	성명	비고
別軍官 經理領官	조희문	
別軍官	조 경	
壯衛營 隊官	오성학 임병길	이상 兩湖 出駐
參謀士	이명상 강완선	
別軍官	이선재 유치달	이상 湖西 左右道 分去
別軍官	홍재준	海西

정부에서는 경군 병영을 파견하면서 경기도의 양성현감 남계술을 운영관으로 전 비인현감 박면동을 윤량감관으로 임명해서 군량을 공급하

도록 하였다. 박면동은 도순무영의 별군관으로 삼아 군량 공급을 맡도록 하였다.

도순무사는 관인을 찍은 공문을 수시로 각 병대에 보내서 파견한 장졸들을 호궤해서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동이 심한 까닭에 각 병대가 제때 군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언급하듯 민간에 폐를 끼친 일은 보급 곤란이 초래한 결과도 있었다. 그래서 군무아문에서는 지나가는 어느 군현이든 공금을 전용해서 군수로 사용하게 하였다.⁶⁴⁾

충청도에서는 노성 신창 온양 회덕 충주의 지방관이 운량관으로 임명되어 군량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표 19>과 같이 도순무영에서 파악한 군수미와 군수전의 액수는 막대하였다. 공금과 세곡을 전용하기도 했고, 고종이 내린 내탕금과 운현궁에서 나온 하사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또 대신을 비롯 각계에서 원조를 받아 사용하였다.

<표 18> 운량관 명단

지역	운량관
경기도	양성현감 남계술 전 비인현감 박면동
충청도	노성현감 김정규 신창현감 최재학 온양군수 서만보 회덕현감 이규서 충주목사 박세병

<표 19> 도순무영 군량과 경비 및 잔액

구분	군수미 및 군수전	비고
捧上	米 496석 11두 4승 太 6석 3두 9승	米 504석 11두 4승 太 6석 3두 9승

64) 『선봉진서목』 1895년 1월 3일.

구분	군수미 및 군수전	비고
	錢 92,573량 3전 5푼 布 2필 綿子 4,448근 - 이상 탁지 移來 錢 4,000량 - 內下 錢 2,000량 - 운현궁 米 8석 錢 59,436량 1전 6푼 - 이상 各人 願助	布 6필 綿子 4,448근 錢 158,009량 5전 1푼
上下	米 498석 11두 4승 太 6석 3두 9승 錢 144148량 2전 3푼 布 2필 綿子 4,430근	
時在	米 6석 太 0 錢 13,861량 1전 8푼 木 18필 布 0 綿子 18근	군무아문 이송

맺음말

1894년에 설치한 양호도순무영은 조선정부의 최고 군사지휘부였지만 경복궁 침범 이후 내정과 군사 간섭을 하던 일본공사의 압력에 의해 갑자기 철폐되었고, 도순무사 신정희와 중군 허진은 좌천된다. 도순무사와 일본공사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출진장졸을 지휘하던 선봉장이규태가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소좌 등과 갈등을 벌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양호도순무영의 모든 활동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갑오군정실기』는 양호도순무영의 활동을 전해주는 공문서집이지만 공식으로 작성한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란을 맞아 설치되었던 다른 순무영과 같이 등록(謄錄)이나 사실(事實) 등의 이름⁶⁵⁾을 붙이지 못하고 실기(實記)라고 했다.⁶⁶⁾

그러면 누가 이를 모아서 정리하였는가? 도순무영 폐지 이후 잔무 정리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측하건데, 종사관이나 서기 또는 공문서 수발 담당자가 정리해오던 공문서집을 정리하여 『갑오군정실기』로 성책했을 수가 있다.

『갑오군정실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각 지역 새로운 사례를 전해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1894년의 국내 상황을 넓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국내자료로는 이 이상의 가치 있는 사료를 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각 지역의 사례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24. 4. 2. 심사일 : 2024. 4. 23. 게재확정일 : 2024. 4. 29.

65) 좌선봉의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膽錄)』과 상주소모영의 『소모사실(召募事實)』이 실례이다.

66) 실기(實記)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로 양호도순무영과 같이 모든 군영을 망라해서 지휘한 최고 군사지휘부의 공식 활동기록에 붙여질만한 이름이 아니다.

참고문헌

<자료>

- 『양호순무선봉장이공묘비명병서(兩湖巡撫先鋒將李公墓碑銘并序)』.
『갑오군정일기』.
『경무청관원이력서(警務廳官員履歷書)』.
『고종실록』.
『금영내찰(錦營來札)』.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모충사실기(慕忠祠實記)』.
『비변사등록』.
『속음청사』.
『순무선봉진등록』.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승정원일기』.
『양호우선봉일기』.
『영조실록』.
『일성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2권, 3권, 5권, 6권.
『춘경대집』.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2011,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2016년 10월 6일 학술대회).
육사 한국군사연구실편, 1977, 『韓國軍制史: 近代 朝鮮後期篇』.

<논문>

- 배항섭, 1997,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역사비평사, 139~173쪽.
신영우, 2007,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 洪承憲·鄭元夏·鄭寅杓를 중심으로」,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_____, 2010, 「將臣 申正熙의 仕宦 이력과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109~151쪽.

_____, 2011,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국방』 81, 151~186쪽.

_____, 2011, 「北接農民軍의 公州 牛禁峙·連山·院坪·泰仁戰鬪」, 『한국사연구』 154, 한국사연구회, 255~298쪽.

이상백, 1962, 「동학당과 대원군」, 『역사학보』 17, 역사학회, 1~26쪽.

이상찬, 2002, 「이등박문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 서울대 국사학과, 231~282쪽.

장필기, 2010, 「鎭川 논실의 卞山申氏 將臣閥族家系와 申鴻周」,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37~71쪽.

최진욱, 2010, 「申櫛(1811~1884)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73~107쪽.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the Honam and Hoseo Sunmuyeong and Activity in 1894

Shin, Youngou*

In this article, I delve into the activities of the Honam and Hoseo Sunmuyeong (兩湖巡撫營) during the year of 1894. Sunmuyeong, as the Supreme Command, played a crucial role in suppressing the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s the Commander in Chief of Sunmuyoung, General Shin Chung-hee (申正熙) found himself in a precarious situation. Several critical factors influenced his actions:

Japanese Troops at Gyeongbokgung: The Japanese forces had captured Gyeongbokgung (景福宮), the royal palace where the Korean king resided. Their presence directly interfered with the domestic affairs of the Joseon Dynasty.

Non-Cooperation with Japanese Troops: General Shin Chung-hee had no intention of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troops. His stance led to his dismissal even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ivil war.

Due to his dismissal, the official last report from Sunmuyoung could not be officially released. However, recent discoveries shed light on an alternative source: the Gabogunjungsilgi (甲午軍政實記). This report was prepared by the official recorders of Sunmuyoung and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ilitary organizations and the

* Honorary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verall military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By examining the Gabogunjangsilgi, researchers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ntricate dynamics and challenges faced by Sunmuyoung and its commander, General Shin Chung-hee, during this critical historical juncture.

Key word : The Honam and Hoseo Sunmuyeong, Sunmusa Shin Chung-hee,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army, Gabogunjangsilgi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신순철*

〈목 차〉

머리말

I. 대둔산 농민군 진지의 규모와 세력

II. 대둔산 농민군의 전투와 함락

III. 대둔산 농민군의 무기와 탄약

IV. 연산 및 진산 농민군의 재기 시도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에 관한 글이다. 1894년 11월 초,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추격에 쫓기면서 도피와 해산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군은 대규모 항쟁을 이어가는데, 그 중 하나의 세력이 대둔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농민군 세력이다. 이들은 연산, 진산, 고산 등지의 농민들로 추정되며 1894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 18일까지 약 70일간에 걸친 저항을 이어갔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는 대둔산은 자연 지형이 바위로 된 절벽이 많은 매우 험한 산이다. 농민군은 이 산 서남쪽에 위치한 150m 이상 되는 높이의 미륵바

*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위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30~50명이 머물면서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월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농민군의 진지는 함락되고 20여 명의 농민군이 희생되었다.

이 논문을 통해 대둔산 농민군 진지의 정확한 위치와 접근로, 관군과 일본군의 위치, 그리고 진지 함락 당시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로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노획물인 총기와 탄약,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遺構)와 유물을 통해 불태워진 농민군 진지의 규모와 수용인원과 농민군의 화력 등을 추정하였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농민군, 관군, 일본군, 최공우, 탄피

머리말

1894년 11월 초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수차례에 걸쳐 공주성을 공격하였으나 11월 7일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이후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밀려 노성(부여군)으로 후퇴하였고, 이 시기 진잠, 회덕을 거쳐 청주성을 공격하였던 김개남 부대 역시 청주 공략에 실패하였다. 농민군의 계속된 패배는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 농민군 주력은 엄청난 피해와 함께 이탈자가 속출하여 11월 15일에는 황화대(논산)로 후퇴하고 11월 20일경에는 전주까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농민군이 수세에 몰려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농민군 세력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인 대둔산 정상 부근 압벽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70여 일을 버티다가 1895년 2월 18일(음력 1.24)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진지는 함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둔산 항쟁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¹⁾과 양호순무영의 『右先鋒日記』²⁾, 그리고 文錫奉(1851-

1896)의 『義山遺稿』³⁾, 吳知泳의 『東學史』⁴⁾ 등과 함께 1999년 유적지를 조사한 원광대학교 사학과의 지표조사 보고서⁵⁾가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1991년 번역·간행함으로써 공개되었다. 이 책 제6권에는 대둔산 전투와 관련한 2건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1895년 2월 18일자의 대둔산 농민군 근거지 진압 당일의 전투상황과 전과를 상세하게 기록한 ‘대둔산부근전투상보’이고, 다른 하나는 1895년 2월 20일자로 된 ‘대둔산반거동학당토벌보고’이다. 두 보고서 모두 일본군이 조선 관군과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진 대둔산 농민군 진압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 내용에 관해서는 사료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대둔산 농민군 전투의 전모를 가장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이다. 대둔산 전투가 농민전쟁의 최후항전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으나⁶⁾ 동학농민군 잔여세력의 항전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⁷⁾

-
- 1)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각지 동학당 정토에 관한 제보고 2」, 5) 대둔산부근 전투상보, (25)대둔산반거 동학당 토벌보고, pp.19-20, 71-73, (원문, pp.276-277, 317-319.)
 - 2) 문석봉, 『義山遺稿』,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경인문화사, 295~336쪽. 『義山遺稿』는 모두 음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서 이를 모두 양력으로 환산하여 서술하였다.
 - 3) 양호순무명 우선봉장 李斗璜의 『兩湖右先鋒日記』, 을미 1월 26일조, 위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5~411쪽.
 - 4) 오지영, 『東學史』(草稿本) 2, 「義軍과 官兵接戰」,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500~502쪽.
 - 5) 대둔산 유적지는 1998년 발견되어 이듬해 원광대학교 사학과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원광대학교 사학과·완주군, 1999,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 6) 신용하, 1993,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356~358쪽.
 - 7)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농민군 잔여세력의 항전은 황해도 지역에서는 4월 초순까지도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고, 호남 지역에서는 2월 말까지 계속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강효숙, 2002, 「제2차동학농민전쟁일청전쟁」, 『역사학연구』 762, 동경: 청목서점, 30쪽 참조.

『右先鋒日記』는 양호순무영 우선봉장 이두항의 진중일기이다. 이두항은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농민군 진압에 나서서 공주전투에 참여하고 호남을 돌아 충청도로 올라가던 도중, 고산에서 장졸들을 대둔산에 파견하여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 진지 함락에 나섰던 인물이며 대둔산 진지의 공격과 함락 과정을 개략적으로 기록하였다.

『義山遺稿』는 농민군의 진압에 나섰던 문석봉의 문집이다. 문석봉은 경상도 현풍 출신으로 1893년 무과에 급제하여 경북궁 오위장, 진잠현감을 역임하고 1894년 11월 양호초모사로 임명받아 공주에 근거를 두고 충청도 일대의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⁸⁾ 그의 문집 제1권과 2권에 수록된 각종 보고 문건은 대둔산 지역을 비롯하여 공주·연산·회덕·진잠·금산 일대를 순회하면서 농민군과의 접전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둔산 농민군과 관련된 보고 문건은 '상순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5~6건과 「토비약기(討匪略記)」이다. 특히 「토비약기」에는 대둔산 농민군 진영의 동태와 진지 함락 이후 염정골(논산시 별곡면)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의 재기 시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는 '義軍과 官兵接戰'이라는 항목에서 진산 출신인 최공우가 대둔산 향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재기를 도모하다가 다시 체포되었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⁹⁾

대둔산 향전에 관한 연구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토대로 한 「신용하의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 농민전쟁」¹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8) 『의산유고』 家狀에 의하면 그는 1894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1896년에는 도지휘사로 의병부대를 이끌고 원주에 갔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96~409쪽 참조.

9) 인쇄본 『동학사』에는 제3장 '패전후문'이라고 제목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초고본에는 오직 최공우 만 이름 앞에 '고산'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같은 향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름만 기재하는 것으로 통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1999년 원광대학교 사학과와 완주군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표영삼의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¹¹⁾과 이병규의 「금산 진산에서의 대둔산농민군과 민보군의 활동」¹²⁾에서 대둔산 전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문헌자료 중심의 개략적인 서술이며 현장조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둔산 농민군의 주력을 금산이나 진산지역 인물로 단정하고 있는 점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둔산 항전 유적지의 현장조사 결과와 문헌자료를 대조하여 관군과 일본군의 이동 경로는 물론, 대둔산 농민군의 항전 전반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둔산 농민군들이 계절적으로 연중 가장 추운 시기인 동짓달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엄동설한에 험준한 해발 720m의 산 정상 부근에 근거를 두고 70여 일 동안 항전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우선 농민군이 왜 이렇게 험준한 산정을 택했을까, 산 위에 있었던 농민군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들을 지원한 후방 근거지는 어디인지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 대둔산 농민군 진지의 규모와 세력

대둔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접경 지점에 있다. 현재 산의 남쪽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이고 북동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북

10)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356~358쪽.

11) 표영삼, 2003,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 1, 천도교, 교리교서편찬위원회.

12) 이병규, 2002, 『금산 진산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논산시 별곡면이다. 그러나 1894년 당시의 행정구획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도 고산군과 진산군, 충청도 연산군이 맞닿아있는 곳이며, 현재 전라도 완주군에 속하는 산의 남쪽 기슭까지도 충청도 연산군에 속해 있었다.¹³⁾

농민군이 진지를 구축한 장소는 대둔산 정상(마천대, 해발 877m)에서 서쪽 능선 하나를 넘어 직선거리로 남서쪽 약 450m 아래쪽에 있는 ‘미륵바위’이다.¹⁴⁾ 미륵바위는 해발 720m 높이의 암반으로 대둔산 정상 진입 통로의 서쪽 골짜기인 석도골 입구에서 1km 정도 올라가면 골짜기 끝에 커다란 암반이 우뚝 솟아있는데, 정면에 두 개의 골이 패어있고 하단부의 가로가 120m, 암반 높이는 150m에 이른다. 이 거대 암반의 꼭대기 부근에 약간의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이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는 서쪽과 북쪽으로 약 3~4m 정도의 절벽을 기어올라야 가능하다.

13)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경성: 중앙시장, 1917) ‘전주군 운선면 산북리’ 조를 보면 산북리는 ‘충남 연산군 양양소면’에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군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295쪽).

14) 당시 이곳 지형을 알려준 이규만(1932년생,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거주) 노인은 이 암반을 ‘미륵바위’ 또는 ‘형제바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암반의 동쪽 바로 옆에 형제처럼 보이는 두 바위가 높이 서 있어서 이 암반은 ‘미륵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국립지리원 1987년 제작 1/5000 지도(금산, 도엽번호 NJ52-13-27-053, 054)에는 이 바위를 ‘형제바위’로 표시하고 있으나 ‘미륵바위’의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륵바위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림 1〉 1894년 대둔산 인근 군현도

따라서 농민군이 진지를 구축한 미륵바위는 ‘한 사람이 만 명을 당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¹⁵⁾이라는 문석봉의 표현과 같다. 농민군은 1894년 12월 중순으로부터 이듬해인 1895년 2월 18일 진지가 함락되기까지 70여 일 동안 이곳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항전할 수 있었던 근거지로서 지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군은 이 미륵바위 위에 초막 3동을 짓고¹⁶⁾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초막 3동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그림2」의 ‘가’ ‘나’ ‘다’ 구역이다. 각 구역에 1동씩의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가’ 구역은 바닥 150㎡ 정도의 면적으로 서쪽과 남쪽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동쪽과 북쪽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나’ 구역은 ‘가’ 구역보다 10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여 동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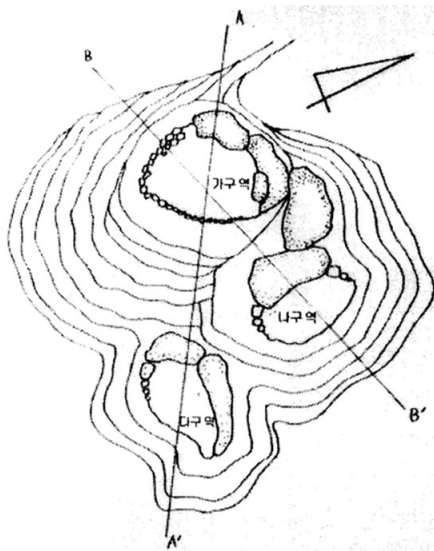
15) 앞의 문석봉 『義山遺稿』,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33쪽.

16) 「대둔산 부근 전투상보」에 의하면 ‘적은 큰바위 사이에 3채(三軒)의 가옥을 짓고 항상 여기에 거주하며 경계가 삼엄했다.’고 했고(『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1쪽) 문석봉이 순영에 보고한 문건에는 ‘두 칸짜리 집이 겨우 들어앉아 있다’(『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08~309쪽 「상순영」) 고 한 것으로 보면 3동의 건물이 있었고 이 중 ‘가’ 구역에는 2칸짜리 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쪽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의 70㎡ 정도의 공간으로 서쪽은 바닥보다 10m가량 높은 절벽이 서 있다. ‘다’ 구역은 다시 절벽 사이로 조금 더 내려가면 120㎡ 정도의 경사면이 나온다. 이곳은 남쪽을 향하고 있으나 동쪽과 서쪽 방향 감시가 가능하며, 북쪽은 역시 높은 바위로 막혀있다.

‘가’ 구역에는 2칸 정도의 난방을 했던 온돌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옹기 편과 기와 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진지의 중심 건물로 주로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역은 동, 남 방향의 경계를 위한 초막 정도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 구역 역시 2칸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난방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소와 숙소를 겸한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진지에 올라갈 수 있는 입구는 오로지 ‘가’ 구역의 서쪽에 있는 높이 3m 정도의 절벽밖에 없다. 이 절벽의 위쪽은 1m 정도로 좁아져서 이



〈그림 2〉 대둔산 진지 배치 추정도

17) 앞의 『대둔산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22~48쪽 참조.

곳에 줄을 매달아 출입 시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줄을 걷어 올려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기습공격을 시도한 곳은 진지의 뒤편인 북쪽 절벽인데 이곳은 혼자서는 오르기 힘든 4m 정도 되는 높이의 바위들로 막혀있다.

농민군 진지에 50여 명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이 필요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진지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넘어 350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다. 북쪽 능선을 넘어서면 약 100m 아래의 절터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우물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농민군은 이 우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진지 ‘가’ 구역에서 발견된 다수의 용기 편은 물이나 곡식을 보관한 용기로 보인다. 또한, 진지 뒤편 북동쪽 방향 80m 아래쪽에 가마솥 아궁이 터가 있다. 이는 거주 공간이 좁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피하여 초막과는 떨어져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별도로 가마솥을 걸어두고 취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습된 지름 1.5cm 정도의 방울은 경계용이나 신호용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동학농민군이 대둔산으로 피신한 시기는 12월 중순이었고¹⁹⁾ 지도자는 최공우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진압 당시 사살자 명단에 최공우는 없다. 문석봉의 기록에는 대둔산 농민군 지도자는 최공우라고 하였고 오지영의 『동학사』에도 최공우가 대둔산 농민군 진지에서 살아남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그가 지도자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1894년 음력 11월 초순,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한 농민군 진영 가운데 연산, 진산, 금산 방향으로 내려오던 농민군 세력 가운데

18) 위의 보고서.

19) 『東學史』에는 ‘고산 최공우군은 공주에서 패하여 돌아와 수백명의 군을 거느리고 고산 대둔산 최고봉 석굴 속에 웅거하였는데’ 라고 하였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에는 ‘지방민의 말에 따르면 적(농민군-필자)은 작년 음력 11월 중순경부터 5,6 명이 산위 암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東學史』, 50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1쪽.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수십, 또는 수백 명의 농민군들은 산세가 험준하고 적은 인원으로도 방어가 용이한 대둔산 정상 부근 미륵바위로 피신하여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공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영삼은 최공우를 진산 농민군지도자로 추정하였으나²⁰⁾ 고산 출신의 농민군 지도자로 당시에 연산 염정골에 거주한 인물로 판단된다. 이는 오지영이 『동학사』 초고본에 ‘高山 崔公雨軍’이라고 하였고 대둔산 진지가 함락된 이후 염정골에서 재기를 도모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가 달아났다는 기사가 근거가 된다. 또한 문석봉의 「토비약기」에 ‘고산 주암동에서 최공우의 심복 김공진을 잡아와 농민군 지도부의 이간책에 이용하였다’²¹⁾는 등의 기록이나 문석봉이 대둔산 북쪽인 염정골의 농민군 진압을 위해 여러 차례 내왕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공우는 고산 출신의 인물로 대둔산 일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²²⁾ 그러나 당시 고산은 현재 완주군 고산면 지역뿐만 아니라 완주군 운주, 비봉, 경천, 화산, 동상, 삼기면 일대를 관할하는 매우 큰 고을로 동으로는 금산에, 북으로 연산, 진산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은진, 여산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산, 진산과 고산의 농민군 진영이 서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둔산 진지에 입산한 농민군의 숫자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학사』는 ‘수백 명’이라 했고, 일본군 기록에는 진압 전날 정찰시에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진압 당일에는 25명이 모두 사살되었다고 했다. 또한 관군 기록에는 30여 명이 있었으나 10여 명이 도망하고 20명을 사살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³⁾ 노획물 가운데

20) 표영삼은 최공우를 진산지역의 농민군 지도자로 추정하였다(표영삼, 앞의 논문 21쪽).

21) 機密將校 吳亨德 往高山舟巖洞 捉得崔公宇,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34쪽.

22) 앞의 『동학사』 초고본에 ‘高山 崔公宇軍’이라 했고, 문석봉의 「토비약기」에 ‘機密將校 吳亨德 往高山舟巖洞 捉得崔公宇’라는 구절(『총서』 9, 334쪽)을 보면 고산인이 틀림없어 보인다.

화승총의 숫자도 인원 추정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 일본군 기록에는 50정, 관군측 기록에는 60정²⁴⁾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함락 당시에는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량보급과 산 아래 후방 근거지와와의 연락이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내왕하는 인원과 임신부와 12세의 어린이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진압 전날 일본군이 들은 바와 같이 50여 명 이상이 상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기록과 미륵바위의 면적을 고려하면 50여 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부 인원은 산의 북쪽 염정동과 은밀하게 연계하면서 산의 남쪽으로는 고산 일대에까지 서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둔산 진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은 기록마다 다르다. 진지 함락 당시 일본군의 기록에는 사망자는 도금찰 최학연, 도집강 장지홍, 도집강 최고금, 도집행 이광의, 도집행 이광우, 대정 이시열, 접사 조한봉, 접주 김재순, 접수 진수환, 교수 강태중, 봉도 전판동 등 11명²⁵⁾이다. 문석봉의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고판광, 김치삼, 김태경, 송인업, 장문화, 정옥남, 최사문 등 7명과 문석봉의 이간책에 이용했다는 김공진, 그리고 진지 함락 이후 재기를 도모한 것으로 나오는 양양옥, 박중집, 이흥기, 김치선 등 12명²⁶⁾이다. 두 기록의 인원을 합하면 모두 23명이다. 무엇보다 두 기록에 동일한 인물은 없으며 다른 문헌에서도 이들 23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출신지역 조차 알 수 없으나 염정골과 인근 마을조사를 통해 후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과 『右先鋒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8쪽.

24) 위 책 같은 쪽.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

26)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29쪽, 335쪽.

II. 대둔산 농민군의 전투와 함락

대둔산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전후 4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진지는 험준한 산악의 절벽에 위에 있어서 당시에 사용된 포의 사정거리에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모두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총격으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관군이 접근하면 농민군은 진지에서 돌이나 통나무를 절벽 아래로 굴러 접근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진지의 사정거리 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였다.²⁷⁾

당시 대둔산은 연산군 관할이었기 때문에, 1895년 2월 3일 충청감영은 양호소모사 문석봉으로 하여금 감영군을 이끌고 가서 대둔산 농민군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2월 4일 양총으로 무장한 감영군 40여명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한 문석봉은 조방장 김학립과 함께 산을 올라 양포를 쏘며 공격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마침 금산 의병장 김진용이 300명의 민보군을 거느리고 오자, 문석봉은 이들에게 대둔산 농민군의 진압은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는 정책밖에 없다고 일러두고 대둔산 북쪽인 연산 염정동으로 갔다.²⁸⁾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 무렵 ‘민보군이 공격을 하다가 한 명이 총을 맞자 크게 겁을 먹고 금방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²⁹⁾고 하였는데 이는 김진용의 민보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일대의 농민군은 ‘2월 11일 진산군수 하경석을 처형하고 금산까지 가서 진을 쳤다’³⁰⁾고 할 정도로 대둔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

27) 앞의 「대둔산부근 전투상보」.

28)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08~309쪽 「상순영」.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1쪽.

30)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0~321쪽 「상순영」.

역 농민군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문석봉이 순영에 올린 보고에는 ‘그 무리 수천 명이 고산의 대곡 등지에 모여 마천대 굴택의 적과 염정동 본토의 무리들과 같이 세를 이루기 때문에 화를 예측할 수 없으며 대곡에서 살해당한 것이 진산군관 외 파수꾼이 수십 명에 이르고 염정동에서 살해당한 것이 연산 향소 외 본토인들이 십여 명이 된다.’³¹⁾고 하였다.

위 사실은 농민군에 의한 민보군의 피해와 이 지역 농민군들이 대둔산 진지의 농민군과 연계하여 그 세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둔산 진지의 농민군과 고산 대곡동, 그리고 연산 염정동 그리고 진산의 농민군은 연계되어 있으며 그 중심이 대둔산 농민군 진영이었음을 시사한다. 문석봉은 2월 13일 다시 신영 병정 40명을 이끌고 고산으로 와서 대둔산 진지를 공격하였다.³²⁾

또한, 2월 15일경 공주에서 군사가 와서 17일까지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일본군의 보고 내용이나 2월 17일 일본군 지대가 대둔산에 도착했을 때 목격된 ‘전주에서 파견된 30여 명의 한병(韓兵)’이 산 위에 대포를 올려놓고 포격을 가했으나 대포의 위치가 농민군 진지로부터 1.5km나 떨어져 있어 포탄이 진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³³⁾는 내용 역시 문석봉과 공주 감영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고산의 농민군 세력은 공주전투 이후 대둔산 정상 마천대 부근 150m 높이의 미륵바위 절벽 암반 위에서 3동의 초막을 짓고 장기전에 대비한 거점을 마련하고 은밀하게 고산 연산 진산지역 농민군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규모 재기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주 감영군은 접근전 자체가 어려워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31)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1~322쪽 「상순영」.

32)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0쪽.

33) 『右先鋒日記』, 을미 1월 26일조, 앞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6쪽.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일본군의 개입이었다. 1895년 2월 18일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에 의하여 대둔산 농민군 진지는 함락되었다. 이날은 눈이 내린 가운데 날씨가 풀리면서 안개 낀 날씨를 틈타 관군과 일본군은 진지 서쪽과 북쪽 양면으로 접근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무렵, 안개 속에서 불시에 후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농민군은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20~25명이 일시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날의 전투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군 기록과 관군 기록을 종합하여 전투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2월 16일 이두황이 인솔하는 장위영군은 고산에 도착하여 연산과 고산의 접경지대에 있는 농민군 진지를 돌아보고 고산현에 있던 일본군 중대장 이시쿠로 코우세이(石黒光正)와 상의하여 장병 30명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³⁴⁾

2월 17일 고산에서 일본군과 장위영군 30명은 농민군 토벌 명령을 받고 대둔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일본군은 중로분견대 지대군 3분대 30명을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武內眞太浪)가 인솔하였고 순무영군은 별군관 윤세영, 김광수와 교장 장세복이 인솔하는 30명이었다.³⁵⁾ 오전 7시 30분 고산을 출발하여 오후 4시 30분 대둔산 아래 기동³⁶⁾에 도착하였다. 진압군은 이날 별도의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대둔산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병력은 관군과 일본군을 합해 모두 60명과 지휘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날 오후, 일본군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와 별군관 윤세영 김광

34) 위 책 같은 쪽.

35) 앞의 『양호우선봉일기』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장위영군과 일본군 각 30명이라 하였으나, 대둔산 농민군 진지 함락 전공 포상 요청 내용에는 순무영군 34명, 일본군은 50명을 요청하여 24명의 차이를 보인다.

36) 기동은 현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의 대둔산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이다. 1895년 당시 행정구역은 충남 연산군 양양소면 산북리였다.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경성: 중앙시장, 1917).

수는 산 위로 올라가 농민군의 동태와 지세를 면밀하게 정찰하고 그동 안에 있었던 전투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문석봉이 이끄는 공주 감영군 또는 금산 민보군의 포격이 목격되었다. 현장답사와 각종 정보를 종합한 이들은 이튿날 새벽 3시에 기습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부근 민가에서 숙영하였다.

2월 18일 새벽 3시에 병정들이 집합하였으나 날씨가 비바람이 심하고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이 트기를 기다렸다. 오전 5시에 농민군 진지의 전면을 공격하면서 배후를 기습 공격하는 양면 공격작전이 개시되었다.

새벽 5시에 먼저 별군관 윤세영 김광수와 함께 일등군조 코마츠 나오키(小松直軒)가 인솔하는 일본군 2개 분대를 출발시켜 이들은 약 16km를 돌아서 진지의 배후에 도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6시 30분경, 다케우치가 인솔하는 일본군 1개 분대와 강화영병 30명을 석두골을 통해 농민군 진지 정면으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4m나 되는 공격용 사다리를 만들어 눈이 쌓인 험로를 기어올라 농민군 진지 100m 앞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알아챈 농민군들이 안개 속에서도 돌과 통나무를 굴러내리자 이들은 정면 공격을 포기하고 왼쪽 능선으로 기어올라 9시 15분경 왼편 위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도착하였다. 산 위에서는 안개 때문에 아래쪽에서 사람의 말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전 10시, 특무조장 코마츠 일행이 농민군 진지의 배후에 도착하였다.37) 곧 공격을 위한 병력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농민군 진지의 전면

37) 코마츠의 2개 분대가 새벽 5시에 경에 출발하여 '40리를 우회'하여 10시경에 농민군 진지 뒤쪽 고지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그 경로를 추정해보면 2가지 코스가 가능하다. 우선 거리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기동→이치고개→태고사→낙조대→마천대→진지 뒷쪽 능선까지 약 15Km 정도 거리다. 이 코스는 강설 후의 새벽안개길 입을 고려하면 5시간 정도에 접근 가능한 길이다. 다음으로 기동→이치고개→능선길→

서쪽 200m 경사면에 교장 장세복의 지휘 아래 강화영병 20명을, 나머지 강화영병 10명과 일본군 1개 분대는 서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코마츠가 인솔하는 2개 분대는 농민군 진지 뒤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아직 안개가 짙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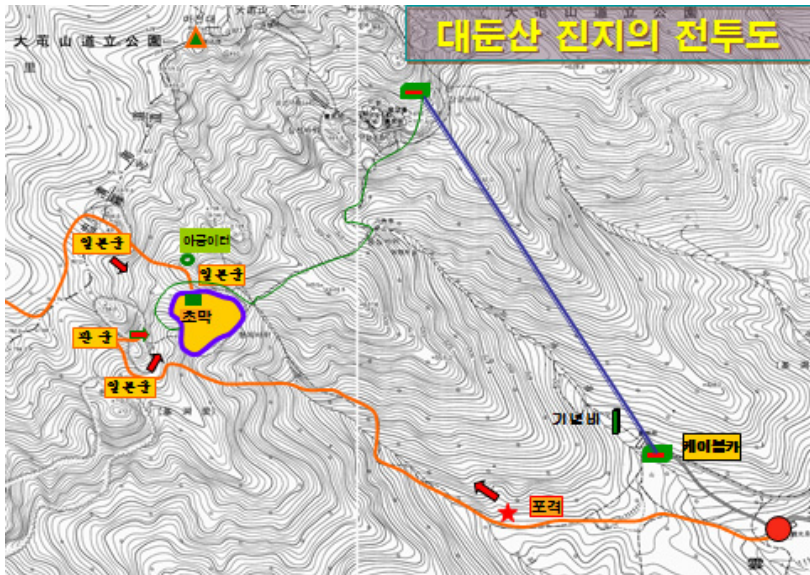
11시 10분경,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안개가 걷히자 농민군 진지가 드러났다. 얼마 후, 농민군 5~6명이 진지 출입구에서 내려와 진압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이때 관군이 총격을 가하자 농민군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황급히 줄을 타고 올라갔다. 관군은 그 후 계속 사격하여 총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진지 서쪽 절벽 끝에 돌을 쌓아 총구를 내고 그 위에 통나무를 올려놓고 숨어서 사격하였기 때문에 관군의 사격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농민군 진영에서도 총공세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오후 1시 40분, 일본군은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군 특무조장 다케우치는 3곳에 배치된 병력에게 농민군 진지를 향해 집중 사격을 명령하고, 자신은 별군관 윤세영 김광수와 함께 일본군 1개 분대를 이끌고 진지 후면을 기습하기 위하여 진지 북쪽으로 가서 사람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절벽을 기어올라 농민군 진지의 '가' 구역 북측으로 진입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농민군은 북쪽 절벽으로 진압군이 기습하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기습공격에 당황하여 이리저리 허둥대며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바위 굴속에 숨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과 20여 분 만에 농민군은 모두 살해당하고 초막은 모두 불태워졌다. 이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낙조대→마천대→진지 뒷편 능선으로 가는 길인데 거리는 약 5Km 남짓밖에 되지 않으나 시간은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다. 일본군이 어느 코스로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외에도 산의 남쪽으로 오르는 길은 현재 케이블카가 놓인 코스와 용문골 코스가 모두 2Km 남짓 되는 거리이다. 그러나 이 두 길은 눈이 내려 급경사 바윗길을 오르기가 쉽지 않고 농민군 진지에서 육안으로 조망이 가능하고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측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생존자는 어린 소년 1명이었다고 했다, 사망자는 모두 접주 이상의 인물들이며 28·9세 쯤 되어 보이는 임신부도 총상으로 사망하였고 접주 김석순은 한 살쫘된 딸아이를 안고 계곡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혀 죽었다고 하여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살아남은 자는 모두 생포하려 하였는데, 자신들이 돌격한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관병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다. 표영삼은 이 기록이 일본군의 만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³⁸⁾ 하였으나 관군의 군공성책에 의하면 김광수 등 4명을 농민군 사살의 공로로 제 1등 군공으로 추천하고 있다.³⁹⁾는 점에서 보면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3〉 대둔산 진지 함락시 전투 배치도

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 표영삼 앞의 논문에서 이를 허위로 판단하였다.

39) 『右先鋒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10쪽.

일본군 기록에는 농민군 진지를 공격하여 25·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군 측 기록에는 사살자가 20명이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12살 난 어린이는 진지에 거주하던 농민군의 숫자는 30여 명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중 10여 명은 도망하고 주동자 4명은 피살자 중에 있다고 하였다.⁴⁰⁾

또한, 나중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오지영은 최공우가 일본군의 기습공격 당시 쌀가마니(空石)를 뒤집어쓰고 뛰어내렸으나 절벽 가운데 나무에 걸려서 천신만고 끝에 절벽을 내려와 재기를 도모했다는 내용이 있다.⁴¹⁾

그런데 문석봉의 기록에는 대둔산 농민군 진지 함락에 관한 전혀 다른 주장이 기록되어 있다. 문석봉이 진지 함락 2일 전에 이간계를 써서 농민군 지도부의 내분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다. 즉 문석봉은 농민군 진지가 함락되기 4일 전인 2월 14일 진산읍에서 8km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최공우의 신뢰를 받는 대둔산 아래 주암동 김공진을 잡아와서 산위의 농민군 최공우 부자를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를 이간시키기 위한 비밀 편지와 이간 계락을 일러 이튿날 산 위로 올려보냈더니 다음날 최공우 부자가 장문화, 김치삼 등을 살해하여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는 것이다.⁴²⁾ 그러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대둔산 농민군 진지는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70여 일간 대둔산 일대의 연산 진산 고산 농민군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민보군의 이간책과 일본군과 관군 60여명의 합동작전으로 70여 일간의 항전은 20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끝나게 되었다.

40) 위 같은 책, 408~409쪽.

41) 앞의 『東學史』, 502~503쪽.

42) 『義山遺稿』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9쪽. 표영삼은 앞의 논문에서 이를 꾸며낸 이야기로 규정하였으나 사실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부정할 근거도 없어 보인다. 표영삼, 앞의 논문, 25쪽.

III. 대둔산 농민군의 무기와 탄약

대둔산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총기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총을 가졌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진지 함락 당시의 압수품 기록과 1999년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탄피와 탄환 밖에 없다.

일본군 기록에는 농민군 진지 함락 당시 압수된 총은 화승총 50정과 탄약 약간이라 했으며 관군 기록에는 총 60자루를 노획하였으나 모두 부수었다고 했다.⁴³⁾ 따라서 농민군의 주 무기는 화승총이었으나 화승총의 종류도 다양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탄약류 15점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탄피 2점과 납탄환 8점을 전쟁기념사업회에 감정을 의뢰하여 농민군의 화력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각 탄약류의 사용 총기명

농민군 유적지에서 수습된 탄약, 파편류는 모두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 사이의 전투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탄피 a (길이 54mm, 지름 20mm)는 초기 약협식 탄환의 산탄의 탄피이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탄환이 탄피 속에 들어가며 뇌관식 소총에서 근대 약협식 화기로의 전환기에 개발된 소총에서 사용되었다. 아래의 산탄 3점은 이 탄피에 들어있던 산탄환으로 추정된다.

탄피 b (길이 53mm, 지름 15, 13mm)는 근대식 화기가 개발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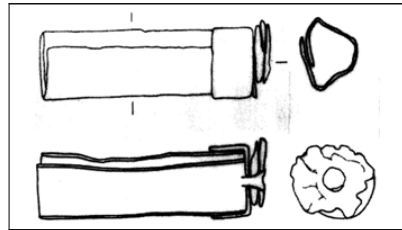
43)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火繩銃 五十挺 火藥 若干’ 이라 했고, 『右先鋒日記』에는 ‘所獲 銃六十柄 銃子破碎’라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8쪽.

이전 수입해서 이용했던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이나 미국제 레밍턴 소총의 탄약으로 추정된다. 1900년 이후 개발된 화기의 경우, 그 구경이 대체로 10mm 이하인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유적지에서 수습한 탄피 b는 지름이 15mm인 것으로 보아 1900년 이전인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총기에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

탄두 a (길이 25mm, 지름 15mm), b (길이 23mm, 지름 14mm), c, d는 근대식 초기의 캐틀링 기관총의 탄약 탄두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탄(3점, 지름 12·11·9mm)은 초기 약협식 탄약인 산탄 탄약에 사용된 산탄으로 추정되며, 화승총의 탄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탄두 e는 탄피 b의 탄두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납덩어리는 탄두가 붙어 녹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 탄피 a 사진



〈그림 5〉 탄피 a의 구조도



〈그림 6〉 탄피 b 사진



〈그림 7〉 탄두 a, b, c, d 사진



〈그림 8〉 탄두 e, f 사진



〈그림 9〉 탄두 g, h 사진

2. 각 탄약류의 사용 시기와 사용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유적지에서 수습된 탄약류들은 19세기 후반 한국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것들이며 한국에서의 사용 시기는 일본보다 늦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은 레밍턴 소총, 무라타 보병총, 스나이더 소총, 마티나-헨리총 등을, 동학농민군은 화승총과 함께 근대식 화기인 레밍턴 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군의 주력 화기는 무라타 총이었다. 수습된 탄약류의 구경을 비교하여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무라타 총의 개발 이전에 사용된 화기의 탄약으로서 일본군보다는 관군 또는 동학농민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⁴⁴⁾

이상과 같은 감정 결과에 의하면 농민군 진지에서 수습된 탄약류는 진지 함락 과정에서 일본군이나 관군이 사용한 탄약이라기보다는 농민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탄약류이고 그 일부가 초막이 불타면서 녹아내린 흔적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농민군의 주된 무기는 화승총이었고 탄약은 약협식 탄피에 탄두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들어가는 재래식 탄약류였다. 유적지에서 나온 스나이더 또는 레밍턴 소총의 탄약류는 당시 관군이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소총류였기 때문에 농민군이 관

44) 전쟁기념사업회, 1999, 「대둔산농민혁명유적지 발굴 탄약류 감정결과」, 참조.

아에서 빼앗아 소유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마지막 전투에서 진압군 측에서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

그밖에 스나이더 소총이나 레밍턴 소총의 총열 이음부를 감싸는 띠로 여겨지는 쇠고리(지름 37mm, 두께 12mm)도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이 유적지에서 1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1894년 이후 20여 명이 살해된 농민군 진지에 누구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근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어른들도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⁴⁵⁾ 탄약류는 주로 ‘가’ 구역에서만 발견되었고 ‘나’ ‘다’ 구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 구역은 바람이 심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지형이기 때문으로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V. 연산 및 진산 농민군의 재기 시도

1895년 2월 18일 농민군 진지가 함락된 이후, 대둔산의 북쪽 연산 염정골⁴⁶⁾에서는 농민군의 재봉기가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석봉의 「토비약기」에 의하면 ‘염정동에는 봉기에 호응하는 농민들이 많아 동태 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연산 현감이 첩자를 보냈으나 그는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⁴⁷⁾ 고 했다. 앞의 『동학사』에 최공우가 진지 함락 당시 살아서 내려와 재기를 도모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연산에서의 재봉기 시도는 사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사』에 의하면 최공우가 재

45) 앞의 이규만 노인의 구술증언.

46) 대둔산 북쪽에 소재한 자연 촌락으로 규모는 400여 호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행정구획 상으로는 논산군 벌곡면 도산리, 수락리 일대와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일대이다.

47) 앞의 「討匪略記」, 참조.

기를 도모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가 달아났다고 한다.⁴⁸⁾

이를 종합적으로 추론해보면 대둔산에 농민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당시에 고산의 대둔산 남쪽 대곡마을과 북쪽인 연산과 동쪽인 진산 일대는 농민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염정골의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 농민군 파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나 최공우가 재기를 도모했던 사실에서 보면, 대둔산 농민군의 후방 근거지는 염정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석봉의 「토비약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둔산 진지 함락 당일인 2월 18일 문석봉은 회덕에 있었다. 그는 연산현감 정대위로부터 고산의 최사문·최공우·양양옥·박중집·이흥기·김치선 등이 청산의 농민군 봉기 소식을 접하고 1,000여 명을 모아 이에 호응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에 그는 오후 늦게 회덕에서 병정 20명과 장관(將官) 23명을 거느리고 염정골에서 12km 가량 떨어진 진잠현의 증촌마을까지 달려와 유진하였다. 여기에서 보부상을 마을로 들여보내 염정동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이수령 고개에서 농민군 파수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문석봉은 다시 장관을 보내 마을 입구에서 피난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진사 권도현을 만나 농민군의 동태를 물어보니 농민군의 기세가 대단하고 병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석봉은 하루를 기다렸다가 2월 20일 큰 눈이 내린 가운데, 오후 늦게 밥을 지어 관병들을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 염정동을 향해 이수령 파수막에서 7명의 농민군을 묶어두고 전열을 정비하였다. 다시 권도현을 앞세워 농민군 도소가 있는 염정동 김세마의 집⁴⁹⁾을 자정 무렵에 기습하여 농민군 16명을 사살하고 400여 명을 포박함으로 김세마의 집이 평정되었다. 이후 문석봉은 다시 대둔산 농민군 진지 쪽으로 4km 정도

48) 앞의 『동학사』, 501~502쪽 참조.

49) 현재 논산군 벌곡면 도산리에서 수락리 방향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다.

올라간 곳에 있는 대성사⁵⁰⁾를 급습하여 토굴 속에서 농민군 40명을 체포하고 소와 말과 양식을 노획하였다. 2월 28일 농민군 지도자 5명의 목을 베고 400여 명을 귀순시켰으며 식량은 빈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⁵¹⁾

이러한 사실은 대둔산 농민군 세력은 고산·진산·연산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둔산 농민군 진지가 함락되자 염정동에서 재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봉기의 중심은 염정동이며 대둔산 진지로 통하는 대성사에서 농민군이 체포된 사실에서도 염정골과 대둔산 농민군 진지와 연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대둔산 농민군 진지가 대둔산 부근 고산·진산·연산지역 농민군의 거점이고, 지휘부였다면 산 위에 있었던 농민군은 그곳에 상주하는 인원도 있지만, 연산·진산·고산 지역에서 일정 인원이 교대로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대둔산 농민군 진지가 함락된 이후 농민군은 염정동에서 재봉기를 도모했으나 문석봉이 이끄는 40여 명의 감영군에 의하여 좌절되었고 이후 고산·연산·진산 지역의 농민군 잔여세력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이 글은 대둔산 농민항쟁을 수록하고 있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우선봉일기』, 『의산유고』, 『동학사』 등의 문헌자료와 지표조사보고서, 그

50) 수락리에서 대둔산 계곡 입구 쪽으로 올라가다 우측 계곡 건너편에 있었다고 하는 사찰이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이 계곡은 대둔산 북쪽 계곡으로 연산에서 대둔산 진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계곡 초입에서 대둔산 진지까지는 약 2.6km이다.

51) 앞의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8~333쪽.

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둔산 농민군은 공주전투 패전 이후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고산·연산·진산 지역의 농민군 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894년 12월 중순, 대둔산 정상 부근 미륵바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진지에는 150m 높이의 암반 위에 난방이 가능한 3동의 초막을 짓고 50여 명의 농민군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아에서 노획한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는 함락 당시 50~60정의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있음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진지는 관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4차례에 걸친 관군과 민보군의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1895년 2월 18일 일본군 중로 지대와 순영군 60여 명의 삼면 공격과 후방 기습공격으로 진지는 함락되고 말았다.

함락 당시 거주자는 30여 명이었으나 10여 명은 도망하고 20여 명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는 20대 후반의 임산부도 있었고 한 살 된 아이를 안고 절벽을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진지가 함락되자 대둔산 농민군의 후방근거지였던 연산 염정골에서는 재기를 위한 농민봉기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문석봉이 이끄는 공주 감영군이 염정골을 기습하여 수많은 농민군이 체포되고 20여 명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농민군 진지터에서 수습된 탄약류들은 지름 10mm 이상의 1900년대 이전의 약협식 탄환과 탄두들로 이는 일본군보다는 관군이나 농민군들이 사용했던 탄약류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둔산 농민군은 공주전투 이후 고산·연산·진산 일대의 농민군 세력을 이끌었던 지휘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항전은 1895년 2월 중순까지 계속됨으로써 꺼져가던 농민혁명의 희망이 되고자 했다.

끝으로 대둔산 항쟁에 대해 관군 측이나 일본군 측 기록에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는지,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인근에 매장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일부 후손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 몰래 찾아왔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관한 구전도 전해오는 바가 없다. 비록 130여 년이 지났지만, 유적 현장과 부근 지역을 발굴하여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투고일 : 2024. 3. 31. 심사일 : 2024. 4. 26.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 1996, 『兩湖右先鋒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5, 경인문화사.
경성, 중앙시장,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국사편찬위원회, 199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문석봉, 1996,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경인문화사.
오지영, 1996, 『東學史』(草稿本),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경인문화사.

<단행본>

- 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논문>

- 강효숙, 2002, 「제2차동학농민전쟁일청전쟁」, 『역사학연구』 762, 동경, 청목서점.
신용하, 1993,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이병규, 2002, 「금산 진산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영삼, 2003,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1, 천도교교리교서편찬위원회.

〈Abstract〉

The Donghak Peasant Army's Resistance at Daedunsan Mountain

Shin Soon Chul*

This essay is about the Donghak Peasant Army's resistance at Daedunsan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In early November 1894, the peasant army, defeated at the Battle of Ugeumchi in Gongju, experienced a series of fleeing and disbanding as they were chased by Joseon governmental forces and Japanese forces. However, some of the peasant army continued large scale resistances, and one of the forces that did so were the peasant forces that occupied a camp in Daedunsan Mountain. This force is presumed to be consisted of peasants from Yeonsan, Jinsan, and Gosan, and they continued their resistance for 70 days, from late November of 1894 to February 18th of the following year.

Located between the borders of Chungcheong-do and Jeolla-do, Daedunsan is a very rugged mountain, with many rocky cliffs forming the natural formation. The peasant army formed their base atop Mireuk Rock, which was located to the southwest of the mountain and was over 150m high. Thirty to fifty men garrisoned the base and resisted governmental and Japanese forces. However, in February 1895, the base fell to a surprise attack from the governmental and Japanese forces, and around 20 men from the peasant army were killed.

* Professor emeritus of a history department at Wonkwang University

Through this essay, we were able to verify the precise location and approach of the peasant army, the location of the Joseon government forces and Japanese forces, and the path the governmental and Japanese forces took when they assaulted the base of the peasant army, using a map. In addition, the size of the burned peasant army's camp, their numbers, and their firepower were able to be estimated by analyzing the remains (such as house sites or the traces left behind by ol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s) and artifacts that were confirmed through the guns and ammunition the Japanese forces took as spoils, as well as through surface surveys.

Key word: Donghak Peasant Revolution, Daedunsan Resistance, Peasant Army, Government Forces, Japanese Forces, Choi Gongwoo, Cartridge case

서 평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
-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조재곤, 푸른역사, 2024) -
이영호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

-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조재곤, 푸른역사, 2024) -

이영호*

〈목 차〉

- I. 연구사적 의미
- II.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
- III. 전쟁과 인도주의 상생 정신

I. 연구사적 의미

조재곤의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은 우리나라를 무대로 전개된 청일전쟁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한국 역사학계 최초의 단독 저술이다. 본서는 철저한 실증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저서 표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지의 멘트에서 저자의 지향과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 서나마 붙잡고 싶은 인간적 소망을 저자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 작동한 화이(華夷) 체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짓고 동아시아를 세계사에 편입시킨 역사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조선의 영토에서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조선은 전쟁의 전개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는 조선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한국 역사학계는 청일전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해방 후 한국 역사학계는 일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식민주의사학을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사학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내재적발전론의 형태를 취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열망을 바탕으로 변혁론과 민중사학이 부상했다.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사업은 그 정점에 놓여 있었다. 내재적발전론에 기초한 변혁론이 최고조로 발현된 연구가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그 사업에 참가한 본서의 저자는 거의 유일하게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청일전쟁에 관심을 보였다. 저자는 당시 「청일전쟁에 대한 농민군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구사업에 참여했다. 조선이라는 공간과 조선인이라는 주체를 중심에 놓고 청일전쟁을 개관한 이때의 작업을 토대로, 저자는 30년을 온축하여 청일전쟁 연구를 단독 저술로 출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재적발전론은 역사의 내부적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전제를 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논리 구성은 내재적·발전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외부적 요인을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내재적·외부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중 하나

가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갑오개혁·청일전쟁의 관계에 관한 연구다. 이 세 가지 사건은 1894년이 한국근대사 시대구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재적·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동 시기 최대의 연속된 사건들인데, 동학농민전쟁이나 갑오개혁에서 나타난 내재적 전환에 대한 연구에 비해 청일전쟁이 초래한 영향이나 내재적 문제와의 복잡한 관련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빈약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자면, 평자는 1994년 9월 23일, 일본에 있는 문화센터 ‘아리랑’ 부설 근현대사연구소에서 개최한 공개강좌에 초청받은 바 있었다. 제목은 『일청전쟁·갑오농민전쟁 100년의 역사적 의미』였다. 당시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가 「100년의 거짓을 끝낼 때 - 근대일본 속의 일청전쟁을 생각한다」를 발표하고, 조선인 강제연행 연구의 전문가 고쇼 다다시(古庄正) 교수가 「병사에게 일청전쟁이란 무엇이었는가 - 어떤 군의(軍醫)의 진중일지를 읽고」를 발표했다. 나카츠카 교수는 후쿠시마 현립도서관에서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발간한 『일청전사(日清戰史)』의 초안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청일전쟁 개전 직전 일어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관한 진실이 왜곡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용기 있는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¹⁾ 고쇼 교수의 관점은 당시 일본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던 청일전쟁에 대한 민중사적 연구를 반영하고 있었다.²⁾ 반면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평자는 「1894년의 농민전쟁과 근대개혁」이라는 주제로 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의 관계에 집중했다. 당시 한국에는 청일전쟁 전후의 외교

1) 아카츠카 아키라의 연구는 1997년, 『歴史の偽造をただす：戦史から消された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박명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으로 발간되었다.

2) 大谷正·原田敬一 編, 1994, 『日清戦争の社會史：‘文明戦争’と民衆』, 大阪：フォーラム A, 참조.

사정을 언급한 소박한 연구 외에 소개할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청일 전쟁을 동학농민전쟁 및 갑오개혁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관점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청일전쟁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관심은 이후에도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구사적 상황 속에서 본서의 저자는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저자는 처음 한국근대사 이해를 위해 청일전쟁-대한제국-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연구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성과는 역으로 러일전쟁-대한제국에 이어 이번에 본서 청일전쟁에 관한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한국근대사 3부작 연구를 완성했다.³⁾ 올해는 동학농민전쟁 130년, 청일전쟁 130년, 러일전쟁 120년이 되므로 본서의 간행은 더욱 시의성 있는 결실이 되었다.

II.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

저자는 ‘서설’에서 청일전쟁 연구사를 검토하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찍이 전사(戰史) 정리로부터 시작하여 연구가 풍부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1994년 100주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고, 2014년 120주년 계기에도 방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청일전쟁의 전투과정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치밀하게 연구되었다고 보았다.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의 연구는 외교적·군사적 측면을 넘어 미디어의 선전, 민중의 전쟁체험 등의 분야로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의 연구사 정리는 입체적이거나 쟁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되

3) 조재곤, 2017,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 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조재곤, 2020, 『고종과 대한제국 -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 역사공간;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어 있지는 않다. 한국의 정치외교사학자들은 청일전쟁 자체보다는 국제 질서와 외교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역사학자들은 청일전쟁과 동학농민 전쟁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연구를 쟁점별로 정리해도 빈약한 한국학계의 연구를 끼워 넣을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청일전쟁 연구는 아직 실증적 작업을 진행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진행된 것도 저자의 논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본서는 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별 연구사 정리가 꼴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연구사의 기초 정리에 소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자는 청일전쟁 연구를 전쟁사, 국제정치, 민중사, 지역사, 기억 연구 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⁴⁾

본서의 큰 장점은 자료 부분에 있다. 한국사 전공자의 약점을 국제적 시각이 부족하고 외국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라고 볼 때, 저자의 열정적인 자료 수집은 이를 극복해내고 있고, 서술과정에 그러한 자부심도 묻어난다. 저자는 한국사 전공자이지만 일찍부터 해외 자료 수집에 적극적이었다. 러일전쟁 연구에서도 한국, 일본, 러시아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활용했는데, 본서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활용했다. 한·중·일의 정부 문서 외에 관료의 개인기록 뿐 아니라 병사들의 일기, 신문기사 등을 광범하게 활용하여 일반 민중들의 처지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일본 자료에 비해 아직도 중국이나 러시아 자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만큼 일본 정부와 군부의 동향에 비해 청 정부와 군부의 동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려내지 못한 점을 느낄 수 있다.⁵⁾

저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은폐와 진실: 일본군의 왕궁

4) 이영호, 2017, 「청·일 풍도해전의 기억과 기념」, 『개항도시 제물포』, 민속원 참조.

5) 수집한 자료들을 국적이나 언어별로 구분하여 참고문헌에 정리하여 제시했다면 자료 측면의 장점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점령과 ‘보호국’ 구상』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그에 대한 반응, 청군과 일본군의 출병, 일본의 보호국 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청일전쟁 개전 이전 경복궁 점령 사건을 일본 군부가 은폐 왜곡한 점에 대해서는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가 『일청전사』 초안을 발견하여 진실을 해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이 사건을 청일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보는 것은 나카츠카만의 견해는 아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40쪽). 일본이 조선에 선전포고한 것도 아니고 왕궁을 기습 점령하여 몇 시간 만에 종결된 작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대청 선전포고 6개 초안 중 두 개 안이 조선을 선전포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⁶⁾ 화이체제와 조약체제의 이중적 관계에 놓인 조선을 화이체제 진영에 묶어 적대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나카츠카는 경복궁 점령사건과는 별개로 동학농민군의 반일투쟁을 ‘또 하나의 청일전쟁’으로 정리하고 있다.⁷⁾ 청일전쟁에 임하는 도교를 비롯한 일본 도시의 민중이나 전쟁에 동원된 군부(軍夫)의 처지를 ‘또 하나의 청일전쟁’ 개념으로 조명한 연구도 있다.⁸⁾ 본서의 저자는 청일전쟁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이러한 담론들과 씨름하지 않고 원래 사실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연구 상황에 대한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은 계속해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응으로 향했다. 개항 전후 서울 도성의 주민들은 많은 난리를 겪었다. 그때마다 서울 주민들은 도성을 빠져나가 피난했다. 저자는 조선 정부의 문서나 관료들이 남긴 일기

6) 하라 아키라 지음, 김연옥 옮김, 2015,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76~77쪽. 여기서는 청일전쟁을 제1차 조선전쟁, 러일전쟁을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나카츠카 아키라, 이노우에 가쓰오, 박맹수 지음, 한혜인 옮김, 2014,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일본: 高文研(2013).

8) 大谷正·原田敬一 編, 앞의 책 참조.

등을 망라하여 그 실태를 드러내는데 애썼다. 지방 주민들이 풍문을 듣고 놀라는 상황에 대한 기록도 조사했다. 특히 일본공사관이 서울 도성 5개 부별로 빈민을 조사하여 미곡과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서울의 민심을 수습할 뿐 아니라 조선의 내정을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을 밝혔다.

아산으로 출동한 청군과 일본군의 병력 편성과 물자 및 인부의 동원 실태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다. 청국군을 위해 조선 정부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한 실태도 자세히 소개되었다. 일본 육군이 히로시마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출동한 과정이나 그 병참 체계를 밝히는 데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

제1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시도를 분석한 부분이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연구는 잘 되어 있지 않다. 저자는 한국근대사 3부작 연구에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화가 ‘보호국’이라는 전략적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러일전쟁 연구에서도 보호국화 정책을 분석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추진된 보호국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이 두 전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을 보호국화했고 그것을 발판으로 식민지화가 가능했음을 드러냈다. 일본의 침략은 청일전쟁에서 시작된 조선보호국화 정책에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진전을 기대한다.

제2부 「야만의 전쟁과 휴머니즘: 풍도해전·성환전투」에서는 충청도에서 최초로 벌어진 해전과 육전의 과정, 조선인 동원 시스템, 일본 언론의 전쟁 선전 등을 다룬다.

풍도해전은 그동안 청일전쟁의 시작으로 인식되어 청과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이 군대 수송을 위해 동원한 영국 상선이 풍도해전에서 일본 함대의 공격을 받아 침몰됨으로써 당시부터 국제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은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청일전쟁에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다. 일본 함선의 포격으로 영국 상선이 침몰하면서 1천여 명의 청군이 바다에 빠졌는데, 일본군은 역사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 뿐 아니라 무차별 사격을 가해 사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800여 명의 청군이 사망했다. 기습공격으로 풍도해전에서 승전한 후 비로소 일본은 청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이후 아산과 성환에서 전투가 개시되고 조선인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청은 패전했음에도 승전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일본은 승리했지만 전쟁영웅을 조작 선전하여 자국민의 전쟁열기를 부추겼다. 일본군은 나팔수인 일등병 시라카미 겐지로가 “성환전투에서 부대의 선두에서 총탄을 맞아 죽어 가면서도 진군나팔을 불며 입에서 떼어 놓지 않았다”고 전쟁영웅으로 조작했다. 그는 안성천 도하 중 익사한 것으로 보이며 나팔수의 이름은 원래 기구치 고헤이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왜곡된 내용을 교과서에까지 실어 애국심을 고취했다. 평양전투에서는 평양성의 현무문을 혼자서 열었다고 일등병 하라다 주키치를 역시 영웅으로 조작했다. 저자는 일본 군부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종군기자들도 ‘문명과 야만’의 논리에 빠져 미디어 왜곡에 앞장섬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의 첨병 역할을 했다고 고발한다.

제3부는 「반성 없는 역사의 반복: 평양전투와 평안도의 현실」로서 평양전투의 자세한 경과, 물자와 인력의 동원 상황, 청군 포로와 조선인 참살 등을 다룬다. 대부분 처음 정리한 내용으로 주목해야 할 연구성과이지만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에 대해 실증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것은 본서가 처음이다. 일본과 청의 군사동원을 둘러싼 움직임, 전투 상황, 일본의 전쟁 선전, 일본에 의한 조선인 동원, 지역민의 반응과 피해, 일본군의 청군 포로 및 조선인 학살 등, 밝혀진 적 없는 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 치밀하게 논증하는 데 집중했다. 때로는 너무 전문적이고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낄 부분도 없지 않다. 청일전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서술 전략일 것이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교양학술서 또는 일반교양서의 형식으로 풀어 쓴다면 대중의 역사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연구 주제이므로 동아시아 또는 세계 여러 나

라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적 측면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전쟁과 인도주의 상생 정신

청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는 “청일전쟁 관련 연구에서 한국은 타자의 입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역할만이 부각되어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언설처럼 국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인들은 단지 객체로서만 취급되었고 청일전쟁의 실상은 제대로 알려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조선과 조선인의 목소리는 부각되기 힘들었고, 전쟁 수행을 위한 공간과 인력·물자를 제공하는 동원과 협력 대상으로서, 그것도 일부 내용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청일전쟁 시기 조선인 대다수는 일본과 청국, 그들에 의해 좌우되었던 조선 정부에 의한 ‘3중의 쥐어짜기’ 대상일 뿐이었다. 이는 이후 러일전쟁 시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책을 내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과 협력이 객체로서의 역할인데, 그것도 일부 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본다. 더구나 청과 일본, 그리고 조선 정부로부터 3중의 쥐어짜기 대상이 되었던 조선 사람이 경험한 전쟁의 실상은 무엇인지 연구되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평자는 본서가 조선 민중의 객체적 역할에 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굴하여 충실히 실증적으로 해명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청일전쟁에서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주체적 역할은 무엇일까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저자는 이전에 간행한 러일전쟁 연구의 제목을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 러일전쟁과 한국사회』라 하여, 우리가 겪은 러일전쟁의 미세한

실상을 거대 담론으로 해석해 보고자 시도했었다. 그때는 “타자가 아닌 우리의 인식 속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언급했는데, 이번 청일전쟁 연구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이라는 관점을 내세웠다. 둘 다 우리의 주체적 인식과 경험을 통해서 전쟁을 조명하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은 ‘동원과 협력 대상’을 넘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우리가 겪은 ‘주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유린당했을 뿐 아니라 조선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동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수탈당한 남의 전쟁에서, 어떻게 주체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런 딜레마는 조선 민중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표지에 올린 것에서 보인다. 저서의 부제인 ‘전쟁과 휴머니즘’, 1부의 제목 ‘은폐와 진실’, 2부 ‘야만의 전쟁과 휴머니즘’, 3부 ‘반성 없는 역사의 반복’, 그리고 머리말과 맺음말의 언설에서도 느낄 수 있다.

‘문명’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일본군의 전쟁 행위는 역으로 ‘야만의 전쟁’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공격한 풍도해전, 물에 빠진 청군에 대해 무차별적 사격을 가하여 대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풍도해전을 ‘야만의 전쟁’이라 규정했다. ‘야만의 전쟁’은 풍도해전에 그치지 않고 이후 증폭되어 나갔다.

일본군은 전승의 환의에 도취한 나머지 서양에 자랑하던 문명과 규율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에서 패한 청국군과 일반 조선 인민에게 가혹한 ‘참수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집단적 대규모 참살과 극단적 국가주의로 점철된 반성 없는 역사는 청일전쟁 기간 랴오둥반도 뤄순대학살의 비극을 초래했다. 1894년 11월 뤄순대학살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본

군은 조선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을 대량으로 학살한 경험이 있었다. 무고한 인명의 살상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었던 일본의 행동은 1937년 12월 난징대학살로 이어진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풍도해전에서 시작된 ‘야만의 전쟁’은 반성 없이 반복되어 그 제노사이드 역사가 증폭되어 갔다고 지적한다. 근대일본의 반성 없는 야만의 전쟁과 제노사이드는 청일전쟁 초기 풍도해전, 평양전투에서 그 단초를 연 것이다.

야만의 전쟁과 학살이 자행된 청일전쟁의 현장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저자는 풍도해전과 성환전투에서 보여준 조선인의 휴머니즘을 거론한다.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투 과정에서 호전적 애국주의와 야만적 행위로 점철된 일본·청국과는 달리 아산을 비롯한 내포 일대의 지방관과 주민들은 휴머니즘을 보였다. 풍도해전 과정에서 의사 직전에 있거나 표류하던 고승호와 광을호의 청국군 생존자를 대우하는 유원지의(柔遠之義)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성환전투에서 청국군과 일본군 전사자 모두를 예장(禮葬)했던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일본군의 ‘야만의 전쟁’과 조선인의 ‘휴머니즘’을 대비한 것이다. “청일전쟁 기간 조선의 민중들은 이방인들의 폭력으로 강요된 통제와 동원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에서도 타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쟁의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으로서 동학의 유무상자(有無相資), 빈궁상휼(貧窮相恤), 인명존중 정신을 들고 있다.

야만의 전쟁, 제노사이드 전쟁범죄의 진실을 자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와 대비하여 평범한 조선 사람들이 보여준 인도주의 상생 정신을 통해 평화의 희망을 바라보는 저자의 소박한 시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무자비한 폭력과 힘없는 휴머니즘

의 비대칭성이 너무 선명하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와 저자의 교훈적 시선 사이에 느껴지는 불균형을 원동력 삼아, 전쟁의 성격, 보호국화 과정, 전쟁 과정에서 조선이 연루된 실상, 그리고 전쟁의 폭력성까지 실증적으로 깊이 있게 규명하는 역사학적 작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자료소개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이병규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왕현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이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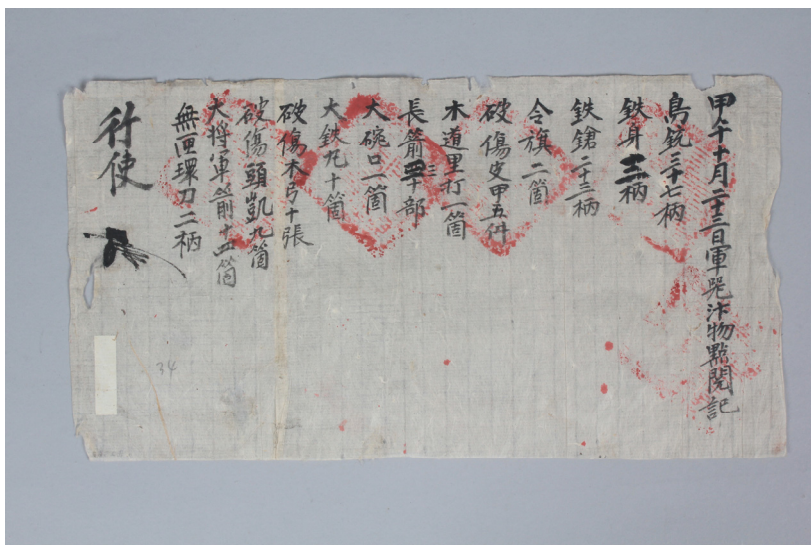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는 1894년 이후 생산된 군산진과 관련된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고문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894년 5월부터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은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입 군산 첨사 최건수가 임명되고, 성하영이 이끄는 진압부대가 군산에 들어오면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고문서를 통해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고문서는 최건수 군산첨사가 임명된 이후 군산진이 수성군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1895년 군산진이 철폐되는데 이와 관련된 고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고문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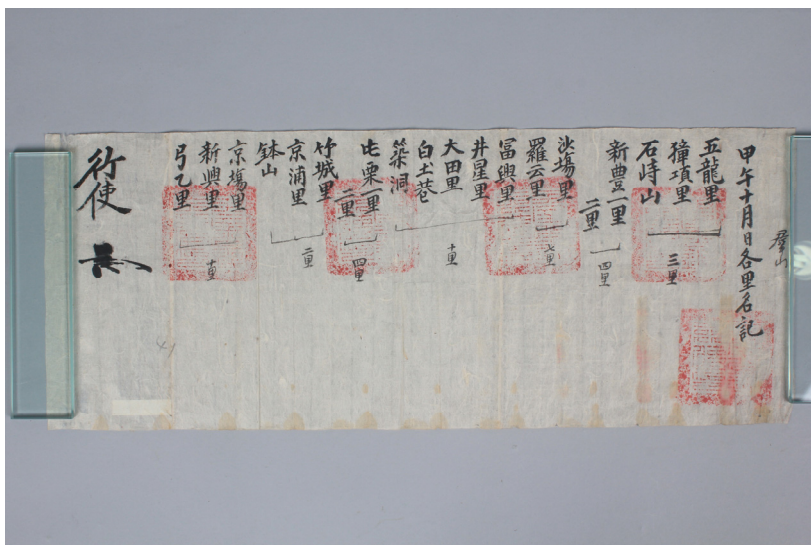
〈표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고문서

순서	명칭	생산시기	비고
1	軍器汁物點關記	1894. 10	
2	群山各里明記	1894. 10	
3	吏校番記	1894. 10	
4	鄉所列名記	1894. 11	
5	守城軍명단	1894. 11	
6	行群山鎭水軍僉節制使馳報	1894. 12	
7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1894	
8	최건수 군산첨사 도입문서	1894	
9	奴今番記	1895. 1	
10	各里明記	1895. 1	
11	甘結(群山)	1895. 2	
12	匪顔囚徒記	1895. 2	
13	人吏番把任記	1895. 3	
14	群山鎭水軍節制使牒報	1895. 8	
15	군산진 첨사 보고	1895	
16	全羅右道群山守城軍座目	1895	
17	訓令(群山)	1895	
18	군산진 첩폐 관련 문서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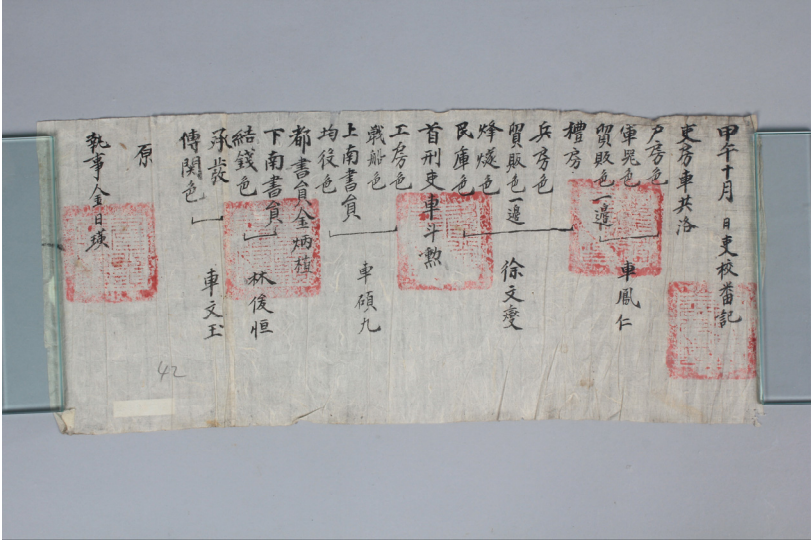
[影印本]



1. 군기증물점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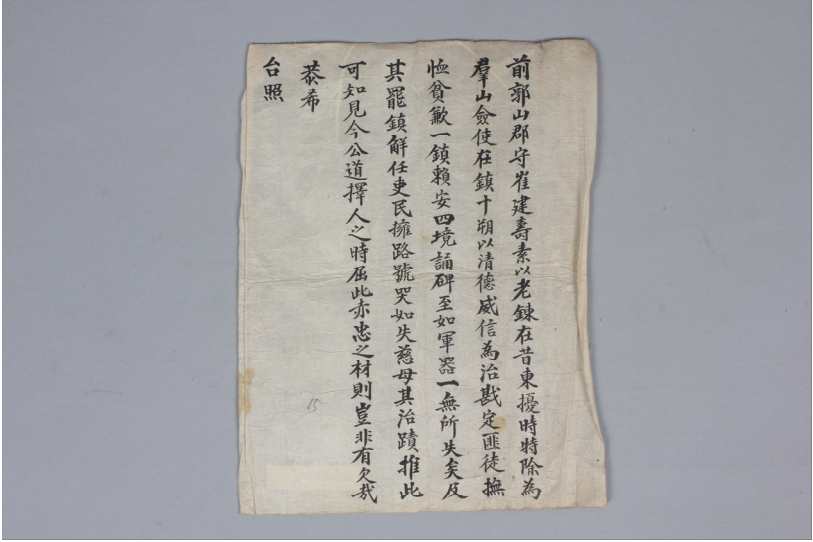
2. 군산각리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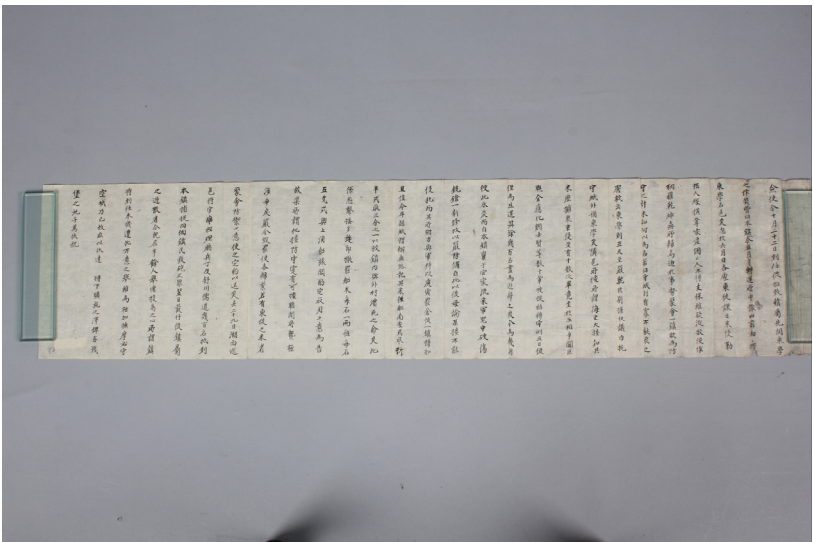
3. 이교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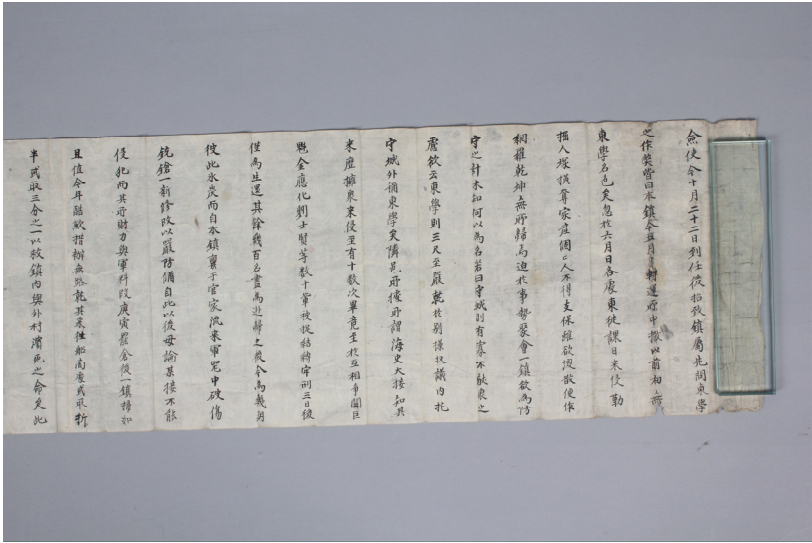
4. 향소열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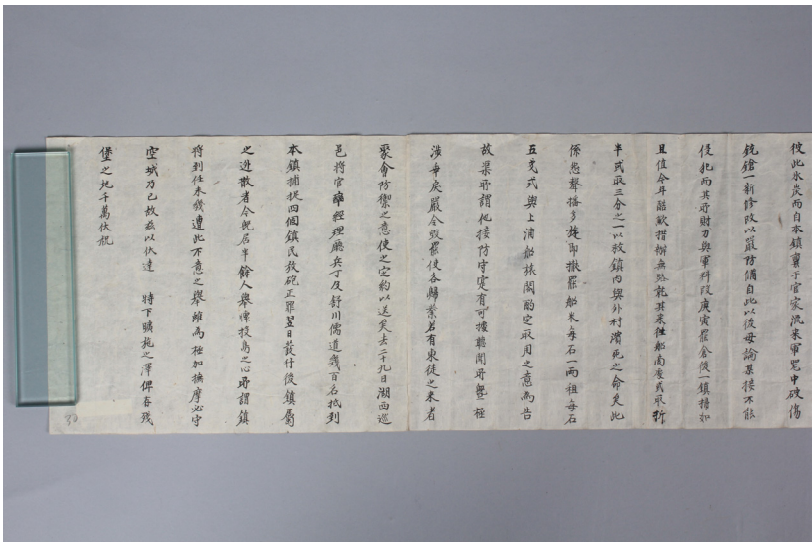
7.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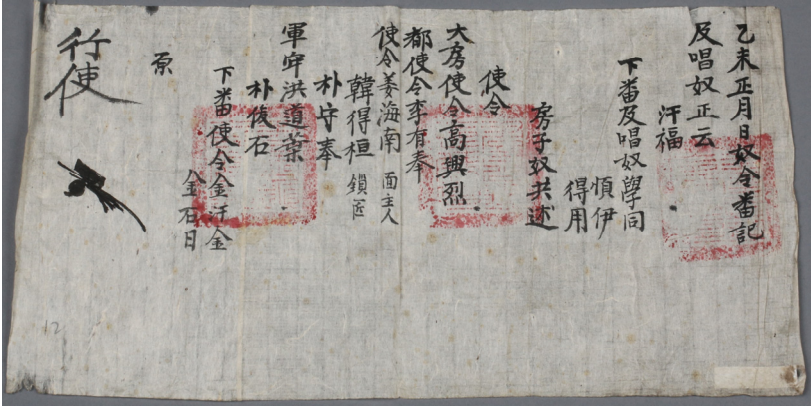
8. 최건수 군산첨사 도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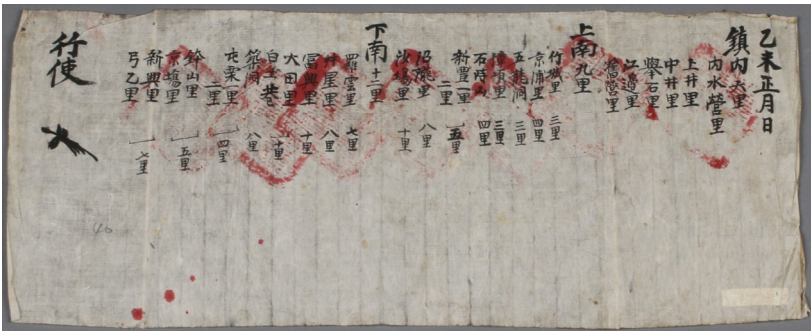
8-1. 최건수 군사첨사 도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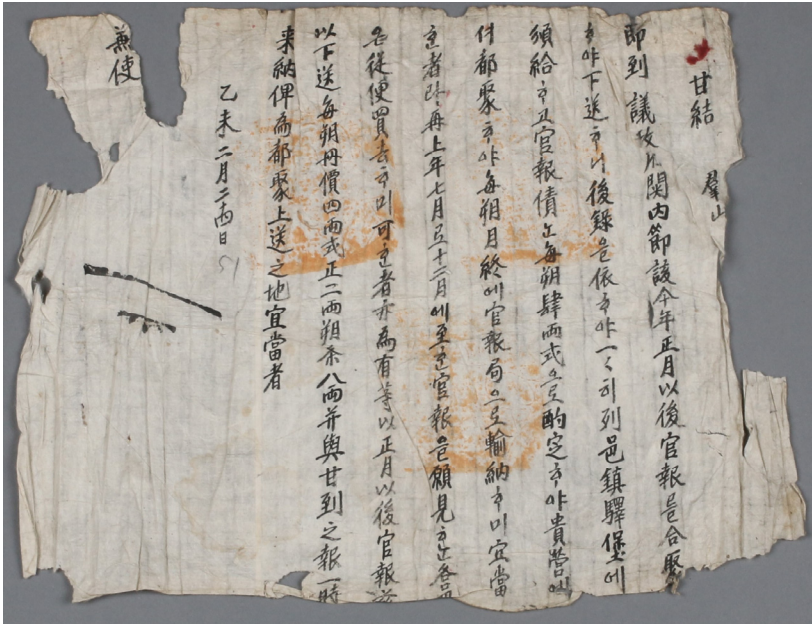
8-2. 최건수 군사첨사 도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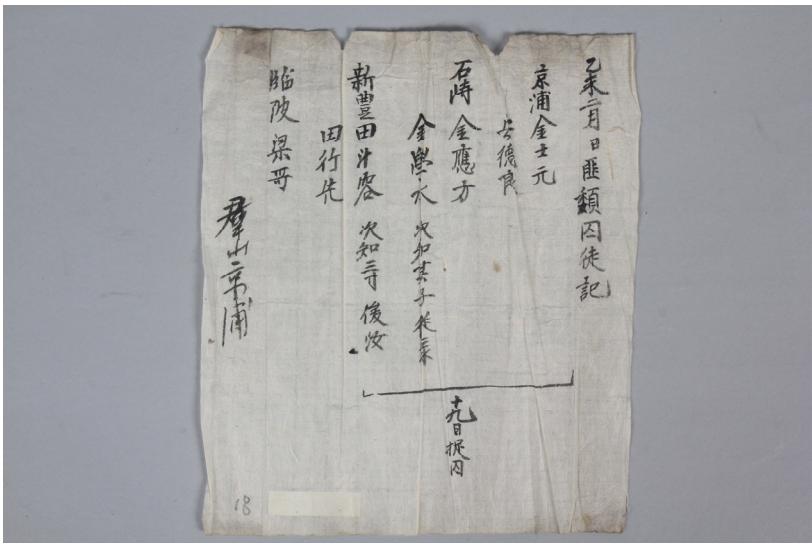
9. 노금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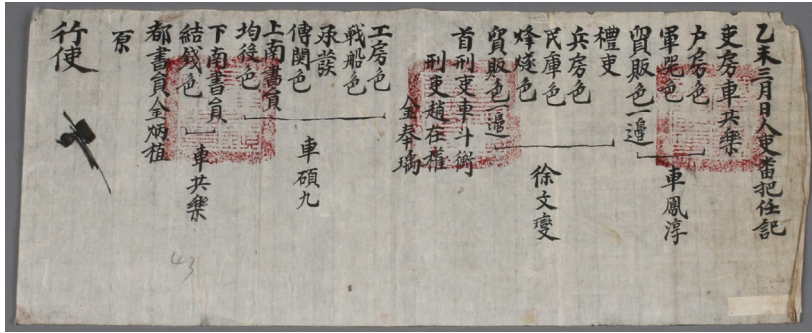
10. 각리명기(을미정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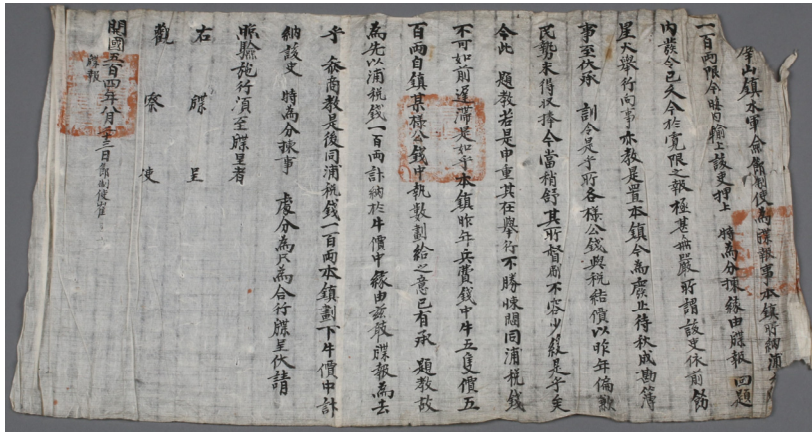
11. 감결(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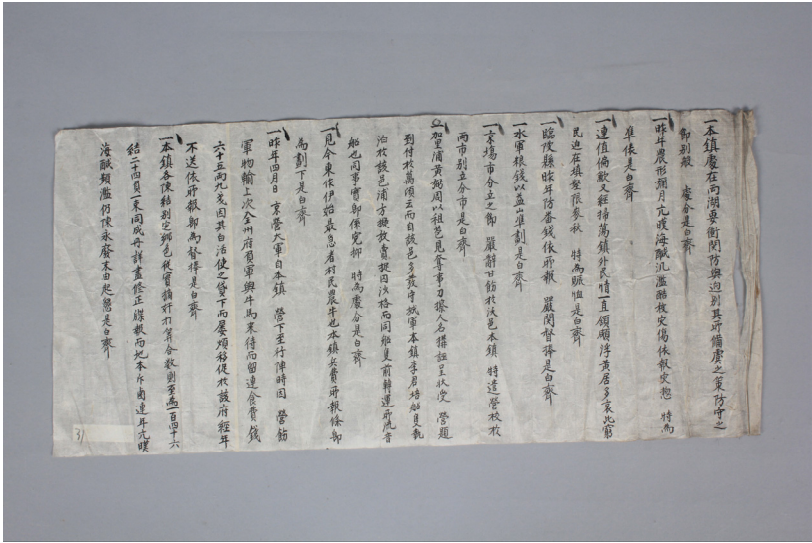
12. 비퇴수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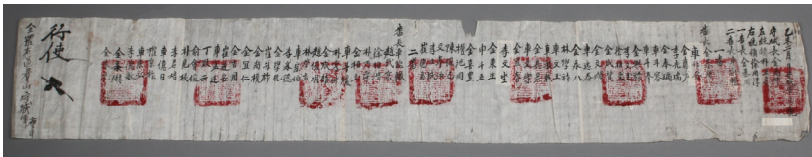
13. 인리변파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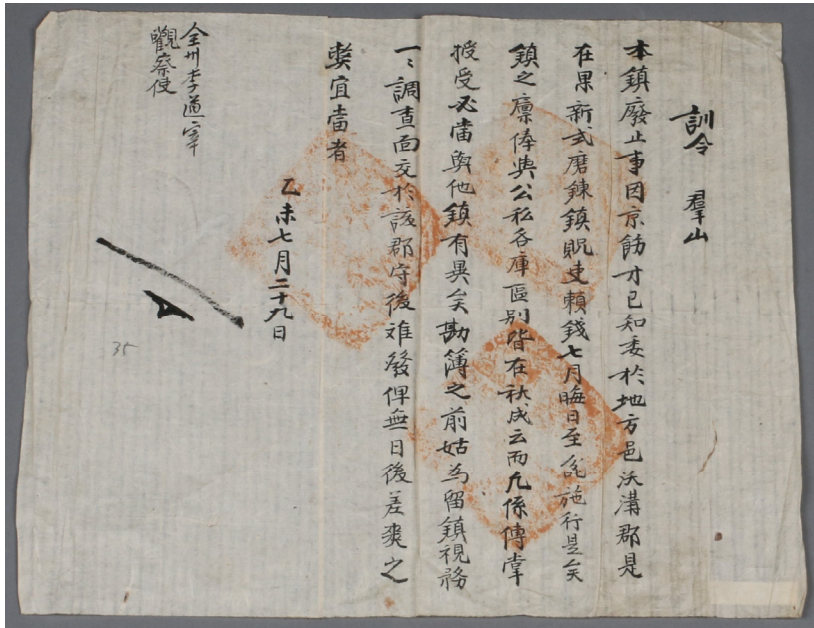
14. 군산진수군절제사첩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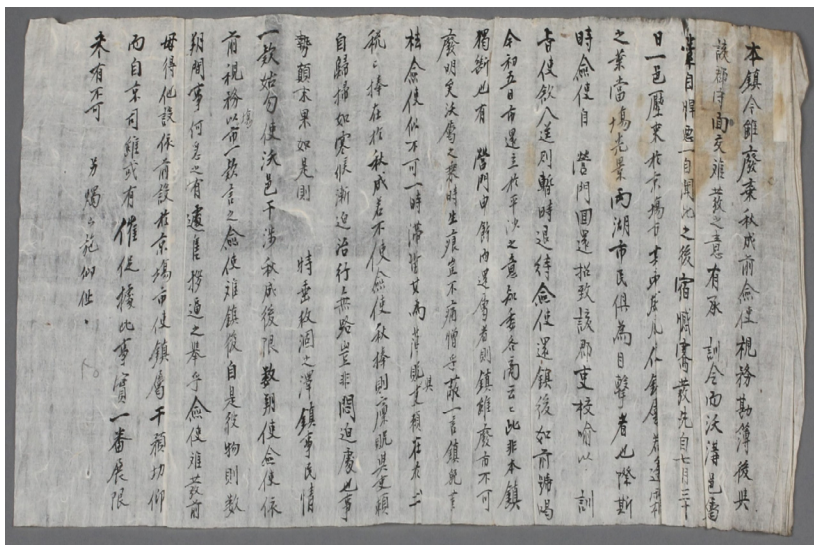
15. 군산진 첩사 보고



16. 전라우도군산수성군좌목



17. 훈령(군산)



18. 군산진 첩폐 관련 문서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 (조선사편수회, 1934)

왕현종*

〈목 차〉

머리말

I. '사료채방 복명서'의 형태와 내용상 특징

II.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사실 : 만석보와 황토현 전투의 위치

맺음말 : 진실 규명을 위한 단서 찾기

머리말

1894년 2월 고부지역에서는 조선왕조의 폐정에 대항하여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당시 대표적인 폐정의 하나로 만석보의 신보 설치로 인한 과중한 수세 수탈이 꼽혔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도 만석보의 위치와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1973년에 만석보 유지비를 세운 이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2023년 11월 위치 비정에 관한 학술토론회까지 있었다.¹⁾

*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그동안 당시 구술을 통해 전승되는 것 이외에 언제부터 만석보의 위치를 조사하기 시작했을까. 문헌으로는 아마도 1914년 <동진강수리조합 조사보고서>의 수리지역 물리 지도에 표기된 ‘만석(萬石)’이 가장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에 1934년 조선사편수회의 사료채방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지도 자료는 보다 분명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1차 농민전쟁의 전기를 마련한 황토현 전투의 위치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하여 혁명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I. ‘사료채방 복명서’의 형태와 내용상 특징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을 담당하였던 기구는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였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역사를 통사적으로 재정리하는 ‘조선사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 1924년 8월 5일 제4회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사료 수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조선사 편찬이 “일본과 조선의 공동사업이며, 따라서 일본사람이 제 마음대로 기술하여 일당일파(一黨一派)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조선사편수회, 「제4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회의사록』 1924. 8.5.). 이처럼 일제의 조선사에 관한 자료 수집과 조선사 편찬은 처음부터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여 식민지 통치에 적합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조선사편수회는 1926년 12월 ‘사료채방내규(史料採訪內規)’와 차입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관, 정읍시 주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2023.11.3.) 발표문 주제발표 2 <전라북도 기념물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 검토>(홍성덕), 주제발표 3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조광환) 등 발표문 참조.

절차를 정식화하였다. 지방 사료 수집은 크게 ‘일방채방’과 ‘부분채방’으로 나누고 ‘부분채방’의 경우 ‘특정 주제나 사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 즉 점(點)을 설정한 조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료를 채방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료채방복명서(史料採訪復命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남아있는 지방사료 채방복명서는 1927년부터 1930년전반까지 47건, 그리고 이후 1934년과 1936년 2건의 복명서가 남아있다.²⁾ 이번에 새로 발굴하게 된 자료는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1934년 10월 18일~10월 27일)이다.

이 보고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체 책 크기(가로 27.0cm, 세로 20.5cm)이며, 책의 표지에는 도서번호(B 17 B 100)으로 되어 있다. 원래 조선사편수회의 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번호(033-610-9), 도서등록번호(5864)로 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표지와 내지, 그리고 내용물 등을 포함하면 펼친 면으로는 17면 분량(내용단면 26쪽)이다.

복명서의 내지(內紙) 첫 장에는 이번 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가 1쪽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료채방복명서를 작성한 사람은 촉탁 다가와 고조(田川孝三)³⁾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였다⁴⁾. 문서 작성날짜는 1934년(소와 9) 11월 21일이다. 이 복명서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회장 정무총감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德)에게 보고하였다.

2)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 편수회』, 아연출판부, 239~241쪽, 266~267쪽.

3) 田川孝三(1909~1988).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후 1933년부터 조선사편수회 촉탁, 수사관보, 조선사편수회 수사관을 지냈다. 다가와는 후일 다보하시와의 일화를 회고하기도 하였다(田川孝三 外, 1983, 「座談會 先學を語る- 田保橋潔 先生」, 『東方學』 65, 177~179쪽)

4) 田保橋潔(1897~1945).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 1927년 부교수로 되었다.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제6편수 주임과 편찬 주임을 겸임했다(정상우, 위의 책, <표 18 : 『조선사』 주요 편찬자들 이력> 366~367쪽).

다보하시 기요시는 《조선사》 제6편을 담당했던 편찬 책임자로서 1933년부터 조선사편찬에 관여하였다. 그는 경성제대 졸업 후 조수로 있던 다가와 고조를 편찬 보조로 선임하여 조선사 편찬을 함께 종사하였다.⁵⁾ 이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사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4년 10월 경성을 출발하여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 일부 지방을 돌아다녔다. 이들은 출장기간 10일 중 8일은 정읍, 전주, 장성, 해남, 부안, 나주 등 전라남북도에서 동학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사편수회 사료채방 방문 일정과 주요 성과(1934.10.18.~27.)

일정	출발지	도착지	면담자	업무	비고
10.18	경성	대전읍	충청남도 오카자키(岡崎) 지사, 이와무라(岩村) 학무과장, 미와(三輪) 고등과장	논산군 두마면(豆磨面) 신도내(新都內), 도경찰부 조서, 사진첩 열람	유성 숙박
10.19	대전	호남선 두원역(豆湏驛) 신도안	훈도 이성룡과 사사누키(笹貫) 주재 순사부장, 상제교주 김연국(金演局)	신도안 본부, 궁궐 조영, 상제교 본부 등 유사단체	김문경(金文卿) 문학사(文學士) 지난달 사망
10.20	두원역	전주읍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고원훈(高元勳) 지사	전주읍 노인 이강원(李康元) 증언 청취, 경기전(慶基殿), 조경묘(肇慶廟), 객관(客館(풍패관(豐沛館)) 및 구(舊) 감영(監營)에 소장된 대포 견학	전주읍 노인 정석모(鄭碩謨) 씨 병중
10.21	전주읍	정읍	정읍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부장 마쓰자키 이소타(松崎伊壯太)와 강제영(姜齊永) 씨	정읍군 입암면(笠岩面) 접지리(接芝里)에 있는 보천교(普天敎) 본부 시찰	

5) 『조선사』 제6편은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되며 순조 즉위년(1800)에서 고종 31년(1894)까지 백년간의 역사를 편찬한 것이었다. 전체 4권으로 쪽수는 3,230쪽에 이르는 방대한 사료편찬사업이었다.

일정	출발지	도착지	면담자	업무	비고
10.22		고부면	정읍군청 내무주임 사카모토 히데오(坂本秀雄) 씨, 서무주임 기요미즈 지아키(清水千義) 씨	고부면 사무소에 가서 면장 은필성(殷弼成), 백산 노인 조상근(趙尙根), 백산, 만석보 확인, 황토치 육안 확인 송국섭(宋國燮) 씨로부터 갑오동도비란(甲午東徒匪亂) 발발사정, 괴수(魁首) 전봉준(全捧準)에 관한 견문담	고부공립소학교 보통학교 구관아 사용, 동헌과 객사 확인
10.23		정읍군	군수 조동민(趙東敏)	이종은 참여관 및 군수의 배려, 전 전라북도 도회의원 송영권(宋泳權) 씨와 전 증추원 참의 박흥규(朴興奎) 씨 갑오란 견문 청취	정읍 장명리 송시열 유허비(宋時烈遺墟碑)
10.24		전라남도청	야지마(矢島) 지사, 고지마(兒島) 내무부장, 하야시(林) 지방과장, 기노시타(木下) 학무과장 등과 회견	촉탁 김동곤(金東坤) 씨와 전라남도 장성군청에 가서 군수 이용수(李鏞洙) 씨, 갑오당시 노인 초대 만남 불발. 갑오란의 옛 전장인 황룡면(黃龍面), 장성군 월평리(月坪里), 황룡면 신호리(莘湖里) 일대의 땅, 영관(營官) 이학승(李學承)의 비	증좌승지 이공학승순의비(贈左承旨李公學承殉義碑) 확인
	장성군	나주읍, 광주	군수 오광은(吳光殷), 읍장 김종인(金鐘彦) 씨	노인 정원회(鄭濬會) 씨에게 갑오년 나주가 동학당비(東學黨匪)를 격퇴한 전말 청취	
10.25	광주	해남	김동곤 촉탁 동행, 군수 박용현(朴龍鉉), 도회의원 윤정현(尹定鉉) 씨를 내방	노인 박노숙(朴魯肅) 씨로부터 갑오 당시 동도와 해남의 관계를 청취, 해남면 남련리(南蓮里) 윤정현 씨 저택 방문	윤의중, 윤선도 등 계보도 확인, 『서충대친림연회도(瑞蔥臺親臨宴會圖)』 등 다수 확인
10.26	해남읍	목포			
10.27	목포	경성			

다보하시 기요시 등 사료 조사 위원들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약 5일간의 일정으로 정읍과 고부 현지 지방관리와 읍장 등의 협조를 얻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실제 답사하였다.

이들 일행이 정읍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둔 곳은 고부 백산이었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부안면 백산면 백산이었다. “백산은 약 46.7미터 구릉이고 동진강 일대의 옥야(沃野) 부감하는 곳이다. 갑오동학당 비란의 직접 계기가 되었던 만석보(정읍군 이평면 두전리 부근으로부터 북, 용북면에 이어져(亘)있다. 옛날에는 답내면으로 칭했다). 동도(東徒)는 전주감병(全州監兵)과 처음으로 충돌한 지역인 황토치(黃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도착하여 도로에 있는 치에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를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指呼之間)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때 은필성(殷弼成) 면장과 백산의 노인 조상근(趙尙根)씨를 만났다. 이들로부터 당시의 실황을 청취했다는 점을 부기하였다. 추가로 면담한 사람이 고로(故老) 송국섭(宋國燮)이었다.⁶⁾ 그는 갑오동학비란(甲午東學匪亂 - 다보하시 기요시의 독특한 표현)과 괴수(魁首) 전봉준(全琫準)에 관한 견문담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사료조사 일행은 주로 당시 동학농민군을 탄압한 측에 섰던 사람들은 만날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이들은 고부군수 조병갑과 친분이 있는 도회의원 송영권(宋泳權), 전주추원 참의 박흥규(朴興奎) 등과 만나 간접적인 청취에 만족해야했다. 이들은 황룡촌 전투의 승리를 보여주는 영관(營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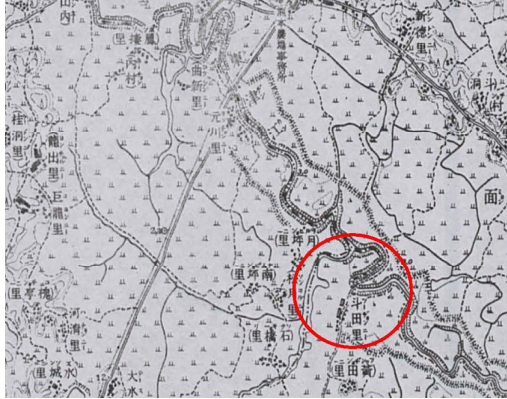
6) 1893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사발통문'에 서명자 중의 하나인 송국섭(宋國燮)와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송국섭의 자는 사필(士必) 호는 송은(松隱)으로 1879년 생으로 1946년 죽었다. 아들 송기태(宋基泰)는 정읍시 신태인을 평화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甲午東學革命史 : 附錄 全琫準實記)』, 신아출판사, 3판 증정판, 38쪽 참조). 송기태는 1968년 12월 4일 송후섭(宋後燮)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발통문'을 언론에 제보하여 세상에 알려진 사람으로 추정된다(외솔회, 1972, 『나라사랑』 특집호, 참조).

이학승(李學承)의 비를 촬영한 것(사진 14·15)를 비롯하여 백산 및 고부 관아의 사진(사진 8·9·10) 등을 남김으로써 193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모습을 현지 조사 당시의 모습을 겨우 남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들이 현지 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참여자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새로운 문서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도 현지에서 갑오동학란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나려고 하였으나 “3일전부터 출타”하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갑오동학란을 경험한 이들은 일본과 싸운 이들이고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탄압의 기억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관련 기록이 소각되거나 혹은 산일(散佚)되어 현존하는 것이 없다고 들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림 1〉 「정읍군약도」(원형표시-필자 추가)



〈그림 2〉 「전라북도 김제 지형도」(1917)
(만석보 원형 표시-필자추가)

다만 주목되는 자료로는 《사료복명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약도 지도이다.

- (1) 〈신도내약도(新都內略圖)〉(축적이 5만분의 1지도), 지도의 크기는 가로 25.5cm, 세로 26.9cm (여백 가로 약 0.5cm, 세로 약 0.5cm)
 - 지도의 오른쪽에 표시된 것은 A. 상제교 본부, B. 종로대(鍾路岱), C. 궐대(闕岱) 및 초석으로 불려지는 점이 있는 곳.
- (2) 〈정읍군약도(井邑郡略圖)〉(축척오만분지일-5분의 1로 잘못 기록), 지도의 크기는 가로 27.0cm, 세로 38.0cm.
 - 지도의 오른쪽 위에 만석보지(萬石淤趾)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두 전리(斗田里) 위쪽에 있음(상단 원표시-필자 추가).
 - 황토치(黃土峙)는 망제봉(望帝峰) 근처로 망제리(望帝里)와 동죽리(東竹里)를 잇는 고개로 표시되어 있음(아랫단 원-표시 필자 추가).
- (3) 〈장성부근약도(長城附近略圖)〉(축척오만분지일) : 가로 26.5cm,

세로 28.2cm (여백 가로 약 2.0cm, 세로 약 2.5cm)

- 황룡촌 전투의 지역으로 황룡면 내에 황룡강(黃龍江)과 월坪리(月坪里), 후전등(後田燈), 신현(莘峴) 등으로 표시되어 있음.

II.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사실 : 만석보와 황토현 전투의 위치

조선 근대사 연구자로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동학당의 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였다.

그는 『근대일지선관계의 연구』에서 만석보의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여러 모로 방증을 시도하였다. “고부군 만석보는 국유보(國有淤)의 하나이다. 그 명칭으로부터 생각해보아도 대규모의 것이라는 일(현재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소리조합은 만석보를 확장한 것이지만, 몽리면적 4,323정, 창설비 54만원이 소요되었다)은 상상할 수 없지만 고부군수 조병갑이 착임 후 그 파손된 것을 알고 역부 수만을 징발하여 대개축공사를 일으켰다”고 서술하였다.⁸⁾ 이때까지만 해도 만석보의 위치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만석보 조성의 경위와 수세 폐단 등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1934년 고부 답사로 인하여 동학당의 반란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파악한 이후 서술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근대일지선관계의 연구』

7) 다보하시는 고부수리조합과 만석보와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동진수리조합의 경우 범미면, 답내면, 거마면, 백산면 지역에 해당하므로 만석보 지역과 연결하지만 이전과 달리 커다란 규모로 수리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동진강수리조합 설치인가신청서』, 〈동진강수리조합예정구역도〉 첨부, 1914).

8) 다보하시 기요시, 1930, 『근대일지선관계의연구(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경성제국대학, 60쪽.

(중추원, 1940)에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민간에 가장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만석보(萬石湫)의 수리였다. 만석보는 고부군 담내면(沓內面) 두전리(斗田里, 지금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두리(斗里)) 동진강 남안에 설치되어 고부군 태인군이 수리에 혜택을 받았지만, 그 수세가 매우 가혹하여 지방민이 여러차례 경감해 줄 것을 청원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만석보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보(舊湫)의 아래 신보(新湫)를 축설하였다. 그역을 담당하여 부역을 징수하고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새 보가 완성되자마자 고부군민으로부터 상답(上畝) 1두락당 2두(斗), 하답(下畝)은 1두락당 1두의 비율로 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그 총액 700여석이 사사로이했다.”⁹⁾

그런데 1차 동학농민전쟁의 분수령을 이룬 황토현 전투에 대해서 다보하시 기요시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광양 등은 정읍을 거쳐 백산에서 부안으로 통하는 길까지 진출했다가, 5월 11일에 도교산에 집결한 동학비도들과 황토현(黃土峴)에서 충돌했다. 비도의 주요 장비는 매우 열악해서 각 읍의 무기고에서 탈취한 화승총, 도검, 창 따위에 불과했지만, 감영 군사들 또한 군대라고는 보기 힘든 오합지졸이었다. 전투 결과, 수적으로 우세한 비도가 감영군대를 격파하고 영장이광양 이하 적지 않은 수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5월 11일의 황토현 전투는 비도와 관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충돌이었다. 전투 자체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지만 이 전투가 관군의 완패로 끝난 사실은 틀림없

9) 원래 서술의 출처는 『전봉준공초』, 『전라도동학비란조사보고』였다. 전봉준공초는 당시에 잘 알려진 자료였지만, 후자의 것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이 본문은 원래 『東學變亂の研究』(田保橋 潔, 출판년 미상) 34쪽에 있다. 또한 『近代日鮮關係の研究』 제23장, ‘동학변란’, 제67절 ‘갑오동학변란’에도 수록되어 있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원문, 244쪽, 김중학 번역문, 231쪽, 일조각, 2016 참조).

이 비도의 사기를 크게 고무시켰을 것이다.”라고 간략히 서술했다.¹⁰⁾

당시 1차 농민전쟁의 상황을 설명하면, 1894년 3월 20일 전봉준이 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 4,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다시 점령하였다. 이어 3월 26~29일에는 백산에서 집회를 열어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및 12개조 기율 등을 선포하고, 농민군 총대장으로 전봉준(全琫準), 총관령에 손화중(孫化中)·김개남(金開男)을 세웠다. 이들은 이후 태인(泰仁)으로 이동해서, 4월 1일에는 태인 관아를 점령하였으며, 이어 전라감영군과 맞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렇다면 1894년 당시 황토현 전투를 기록한 당시의 자료들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우선, 고부군 운동면(宮洞面) 석지리(石池里)에서 동학혁명 당시 체험한 경험을 회고담 형식으로 기술한 『석남역사(石南歷事)』를 찾아볼 수 있다. 저자 박문규(朴文圭)는 황토현 전투에 대해 경험담을 회고하였다. 그는 “동학군이 천태산(天台山)을 넘어가니 병정들이 그 소식을 알고 바로 뒤쫓았다. 동학군이 황토(黃土)재로 올라가니 병정들은 쫓아가서 뒷봉우리로 올라갔다. 초엿새날 새벽이 되자 총소리가 콩 볶듯이 요란하여 나는 아버님과 마을 앞 벌판으로 피난하였다. 지금은 그곳이 옥토(玉土)지만 신작로(新作路) 옆에서부터는 대부분이 갈대밭이었다.”“(4월) 초 6일 새벽부터 날이 새면서 소식을 들으니 전주 병정들이 패했다고 하였다. 만약 병정들이 이겼다면 고부는 도륙(都戮)되었을 것이다. 천운이 망극하여 병정들은 검사봉(劍死峯)에 진을 쳤다가 패진(敗陣)했다”라고 적었다(『석남역사(石南歷事)』1894년 1월.) . 그의 기억속에서는 황토재의 전투가 4월 5일부터 다음날인 4월 6일 새벽까지 지속된 전투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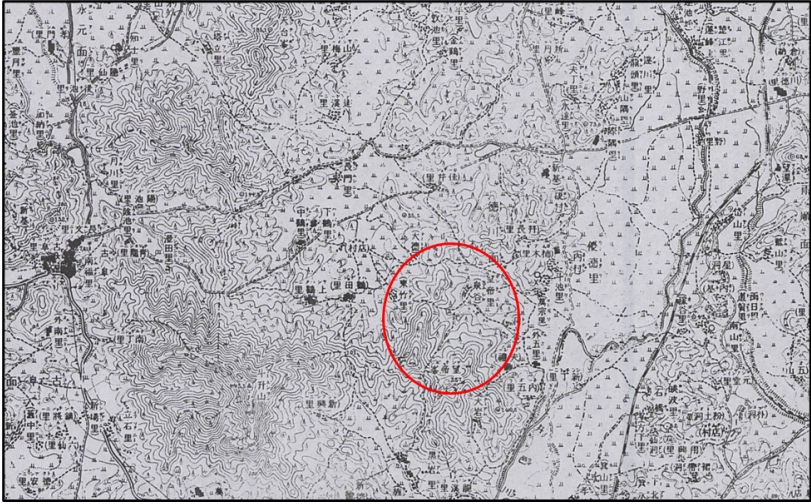
다음으로 당시 양호초토사의 공식 보고서의 기록을 살펴보자.

10) 다보하시 기요시, 『근대일선관계의 연구』(김종학 번역문, 235쪽), 참조.

- ‘어제 오시(午時) 경에 태인·부안 두 읍에 모인 동도(東徒)가 본군<<고부>>의 도교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습니다. 그때 전라 감영에서 파견한 병사·별초군(別抄軍)·보부상 등과 전투가 벌어졌으나, 감영에서 파견한 병사들이 마침내 패전하여 사망한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들은 곧바로 정읍현의 연지원(蓮池院)으로 향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수록(隨錄)』1894년 4월초 8일 계초(啓草) ; 『양호초토등록』〈1894년 4월 초 9일 보고〉).

- 본도의 동적들이 고부 두승산(頭僧山)에 모였다. 전라감사가 비장(裨將) 이모(李某, 이경호)를 보내, 군사 수백 명과 열읍의 속오군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산 아래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는데 밤에 적이 세 산봉우리에 불을 피워 경계하였다. 얼마 뒤에 적들이 두 봉우리의 불을 끄고 중간 봉우리 하나에서만 불을 피워 남겨두었다. 관군이 마침내 적이 잠을 잔다고 여겨 한밤중에 군사를 출동시켜 두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지만, 사방이 고요할 뿐이었다. 그런데 적병이 두 봉우리 아래에서 나와 관군의 후미를 끊고 중간 봉우리의 적들이 관군의 앞부분을 공격하였다. 전주 관군들이 마침내 그 계략에 빠져 죽은 자가 산을 뒤덮을 정도였다. 이비장(李裨將)은 죽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 되돌아왔다(남원유생 김재홍(金在洪), 『영상일기(嶺上日記)』 1894년 4월초).

위의 기록은 4월 8일 고부군수 박원명(朴源明)의 보고서에서 나온다. 4월 7일 새벽 3시경부터 새벽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전라 감영에서 파견한 병사, 별초군, 보부상 등과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때 감영에서 파견한 병사들이 마침내 패전하여 사망한 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황토재 전투의 위치를 ‘도교산 서쪽에 있는 황토현’이라는 것이었다. 1910년대 정읍 지형도에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라북도 정읍 지형도」(1917), 황토치 전투(원형 표시-필자추가)

다만 황토현의 위치는 위에서 인용한 사료에서 보더라도 도교산, 두승산 등 여러 다른 표현이 나온다. 황토현 전투에 대한 위치가 설왕설래한 것은 원래 처음 싸움의 지점과 달이 여러 차례 전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데서도 혼란을 초래한 것이었다.¹¹⁾ 먼저 4월 6일 오후 4시경에 농민군과 전라감영군이 처음으로 조우하였으며, 농민군은 패배한 척 하면서 황토현으로 후퇴하고 남쪽으로 진을 옮겼다. 날이 저물 무렵 감영군이 이를 추격하여 황토현에 도착하였는데, 다음 날 4월 7일 새벽 인시(寅時)경에 농민군의 기습을 받아 감영군이 1천명 이상의 사상사를 내고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감영군이 승리했다면 고부군민들이 모두 살육되었을 것이라면서 다행히 동학농민군의 승리가 천운(天運)이라고 할 정도로 잘된 일이었다는 전언은 당시 전라도민의 민심이 어찌 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11) 황토현 전투과정에 대해서는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 1926년경,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권, 사문연구소, 1996, 119~124쪽)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맺음말 : 진실 규명을 위한 단서 찾기

이렇게 1934년 전라도 일대의 사료채방 조사위원들은 짧은 일정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충실한 조사를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사건의 경험자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고, 또한 사료채방 조사위원들의 사전 준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갑오동학란의 발발 사정과 전봉준에 대한 송국섭 노인의 견문담을 나눴지만 복명서에 자세히 적지 않았고, 전주 유생으로 견문이 많았던 정석모(鄭碩謨)를 만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의 전라남북도 지방 사료채방 보고서를 다시 90년 만에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 복명서의 사료적 가치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사실 규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정읍군약도>에 표시된 만석보지와 황토치에 대한 위치 표시는 당시 지형도와 대조한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정확한 위치 비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에 관한 현장 조사와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복원되길 기대해 본다.

[번역]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 (조선사편수회, 1934)

복명서

소직(小職)¹⁾ 등

이번 사료 채방(採訪) 및 수집을 위해 충청남도 태진군(太田郡)[대전의 옛 지명]·논산군(論山郡), 전라북도 전주군(全州郡)·정읍군(井邑郡),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장성군(長城郡)·해남군(海南郡)에 출장을 명령 받아 10월 18일 경성 출발, 27일 귀임 받은 시점에 별도 지면을 통해 복명 드리는 바입니다.

1934년(쇼와9년) 11월 21일

촉탁 다가와 고조(田川孝三)²⁾

촉탁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³⁾

1) 관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일컫는 말.

2) 田川孝三(1909~1988). 1931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후 1931~32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수, 1933~34년 조선사편수회 촉탁, 1935~38년 수사관보, 중추원 촉탁, 1940~1943년 조선사편수회 수사관을 지냈다. 종전 후에는 동양문고를 거쳐 도쿄대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도쿄대에 조선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李朝の郷規について(一)」(『朝鮮學報』 76, 1975), 『李朝貢納制の研究』(동양문고, 1964) 등을 발표했다.

3) 田保橋潔(1897~1945). 1921년 일본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장 정무총감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⁴⁾ 귀하

1934년 10월 18일 경성 출발, 태전읍(太田邑) 도착, 즉시 충청남도를 방문, 오카자키(岡崎) 지사⁵⁾, 이와무라(岩村) 학무과장⁶⁾, 미와(三輪) 고등과장을⁷⁾ 만나 조사에 관한 준비를 의뢰하고 논산군 두마면(豆磨面) 신도내(新都內)의 사정을 듣고 도경찰부에 소장된 조서, 사진첩 등을 열람하였다. 이날은 유성에 가서 숙박하였다.

10월 19일 태전에서 출발해 호남선 두원역(豆湲驛)에 하차하여 두마공립보통학교 훈도 이성룡(李成龍) 씨⁸⁾의 안내를 받아 도보로 신도내로 향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가 되었다가 유럽으로 유학한 후에 1927년부 교수로 되었다.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제6편수 주임과 편찬 주임을 겸임했다. 일본근대외교사와 조선근대사 연구를 행했다. 『近代日鮮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刀江書院 東洋文庫論叢 1951; 『近代日鮮關係の研究』(文化資料調査會 1963~64) 등을 지었다.

- 4) 今井田清徳(1884~1940).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으로 1909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그해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하여 1910년 4월 통신사무관이 되었다. 1929년 체신차관에 취임하였고, 1931년 우가키 가즈시게가 조선총독으로 취임하면서 정무총감으로 발탁되었다(秦郁彦 編, 2002, 『日本近現代人物履歷事典』, 도쿄대학출판회, 67쪽 참조).
- 5) 岡崎哲郎(1885~?).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8대 지사, 미야기현(宮城縣) 출신. 1912년(明治 45),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과 졸업, 다음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이후 1919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전임하여 1931년 충청남도 도지사로 되었다(재임기간(1931년 9월 23일 ~ 1935년 4월 1일, 인사흥신소 편 1943, 『인사흥신록』 제14판(상). 인사흥신소 참조).
- 6) 岩村俊雄, 고지현(高知縣) 원적, 1914년 경성중학교 교유겸 부산중학교 교유, 1929년 조선총독부 도시학관(道視學官), 1933년 4월 충청남도 내부부 학무과장으로 되었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6쪽).
- 7) 三輪和三郎. 아이치현(愛知縣) 원적, 나고야(名古屋) 명륜중학교 졸업 후 나고야 기병제3연대에 입대, 1908년 경부(警部)로 임명되어 경기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에 근무, 1934년 2월 충청남도 경찰부 고등과장에 임명되었다(『조선인사흥신록』 453쪽,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862쪽).

했다. 신도내(또는 신도안(新都安)이라고도 칭하였다)는 공주군·논산군·태전군의 교차점에 우뚝 솟은 계룡산의 동남 기슭에 있으며, 논산군 두마면 정장리(丁壯里)·석원리(石湲里)·부남리(夫南里)·용동리(龍洞里) 및 태전군 진잠면(珍岑面) 남선리(南仙里)의 일부, 공주군 계룡면(鷄龍面)의 일부를 아우른다. 이 지역은 이조 태조의 전도(奠都) 후보지였기 때문에 풍수상 신도 흥룡(興隆)의 땅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조 말기 정감록(鄭鑑錄)이 유행하자 이에 부회(附會)하여 신도내에 관한 유언(流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여기에 본부가 있는 상제교(上帝敎)⁹⁾도 이 유언을 이용한 흔적이 있다. 신도내에는 국도(國都)의 유적이라 칭해지는 것이 적지 않아 혼도 이성룡과 사사누키(笹貫) 주재 순사부장의 안내로 이곳을 참관하였다. 그중 가장 먼저 보고할 것은 이조 태조의 국도 경영 당시의 초석이라 일컬어졌던 것으로, 부남리 시장 북부에 20여 개가 있다. 큰 것은 약 2㎡이고, 작은 것은 그 절반 정도다. 시장 부근 일대를 췌대(關岱)라 칭하고 여기에 궁궐을 조영하려고 했다고 전해진다(사진 1·2 참조).

최근 신도 흥룡의 망설을 믿고 다른 도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는 자가 적지 않다. 현재는 이미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가 3천여 명에 이르고 상제교 본부를 비롯해 각종 종교유사단체가 모여 특수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 신도내에 이주한 상제교주 김연국(金演局) 씨는 동학도주(東學道主) 최시형 문하의 수제자로서, 김 씨의 경력담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김 씨의 둘째 아들이자 동학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은 김문경(金文卿) 문

8) 이성룡(李成龍). 충청남도 두마공립보통학교 혼도로 1926년 임명되어 1934년까지 재직하였다.

9) 김연국(金演局, 호 龜庵; 1857~?). 해월 최시형의 제자로 1905년 천도교 대도주가 되었으나 1908년 이용구(李容九)의 시천교(侍天敎)로 들어가 대례사(大禮師)가 되었다. 이후 1913년 서울에서 시천교를 세웠다. 1926년 계룡산 신도안에 이전하여 교명을 '상제교(上帝敎)'로 바꾸었다(『동학농민혁명명증언록』 「동학교단의 3대 지도자 김연국, 증손 명기」 참조).

학사(文學士)가 지난달 사망하였고, 김 씨 또한 상성(上城) 중이라서 결국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날은 두원역을 출발해 전주읍(全州邑)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렀다.

10월 20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고(高) 지사¹⁰, 다카하시(高橋) 경찰부장¹¹, 이종은(李鐘殷)¹² 참여관을 만나 전주읍 및 정읍군 관내의 사료채방 및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의뢰하였다. 다음으로 이종은 참여관의 배려로 전주읍 노인 이강원(李康元)¹³ 씨를 불러서 이종은 참여관과 사회과 서기 문봉오(文奉午)¹⁴ 씨의 통역으로 이태왕(李太王) 시기 갑오동학당비란(甲午東學黨匪亂)에 관한 실제 경험담을 청취했다. 그리고 전주읍 노인 정석모(鄭碩謨)¹⁵ 씨는 동학당비란(東學黨匪亂)에 깊게 관여

-
- 10) 고원훈(高元勳 : 1881~?). 경상북도 문경군 원적, 1910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1년 조선총독부 경부로 근무, 1913년 보성전문학교 교수, 192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전라남도 참여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전라북도 도지사를 역임했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681쪽)
- 11) 高橋敏(1897~). 미야기현(宮城縣) 원적, 1921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속으로 임명되어 1922년 충청남도 이사관 등을 거쳐 1933년 8월 전라북도 경찰부장에 임명되었다(『조선공로자명감』 조선공로자, 657).
- 12) 이종은(李鍾殷 : 1885~1967). 1905년 탁지부 주사로 임명되어 1909년 함경남도 함흥재무서장에 임명되었고, 1932년부터 전라북도 참여관으로 재직하였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681쪽).
- 13) 이강원(李康元 : 1863~1944). 1906년 10월 전주사립양명학교 설립위원, 1907년 1월 동교 교감 또는 교장 직에 취임하였다. 1912년 11월 전주군 참사에 임명되고, 1915년 1월 면협의회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전라북도평의회원 등에 임명되었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986쪽).
- 14) 문봉오(文奉午).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전라북도 내무부 지방과 사회서기로 근무했으며, 1936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촉탁으로 근무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 15) 정석모(鄭碩謨 : 1871~?). 1891년 10월 진사에 합격 1906년 11월 사립전부함육학교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5년 전주군 참사에 임명되고, 1920년 전라북도 평의회원을 거쳐 193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었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983쪽). 전주 유생 정석모는 동학농민혁명 초기 과정과 자신이 겪은 사실을 적은 『갑오약력(甲午略歷)』을 저술했다. 전봉준이 봉기

했던 사람인데, 불행히도 병중으로 누워있었기에 결국 만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기록 중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변란 당시에 소각되었다고 하며, 결국 얻지 못했다. 전주에 머무는 동안 여가를 이용하여 경기전(慶基殿), 조경묘(肇慶廟), 객관(客館(풍패관(豐沛館)) 및 구(舊) 감영(監營)에 소장된 대포(도립 물산진열관 앞뜰에 있었다)를 견학하였다(사진 3·4 참조). 이날은 전주에서 숙박하였다.

10월 21일(일요일) 전주읍을 출발해 정읍에 도착했다. 곧장 정읍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부장 마쓰자키 이소타(松崎伊壯太)¹⁶와 강제영(姜齊永) 씨의 안내로 정읍군 입암면(笠岩面) 접지리(接芝里)에 있는 보천교(普天教) 본부를 시찰하였다. 보천교는 동학에서 분열된 것이며 현 교주 차경석(車京錫)¹⁷은 1925년에 거대한 본부를 신축하였지만, 경무당국은 치안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삼광령봉안치성제(三光靈奉安致誠祭)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 건축의 훌륭함은 창덕궁, 경복궁을 능가할 정도였다. 다만 긴 시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차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도경찰부가 황색 기와와 청색 기와의 사용은 불경하므로 보통의 기와로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난날의 훌륭한 경관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

10월 22일 정읍군청을 방문했으나 군수가 자리에 없어서 내무주임

한 사실과 흥계훈이 전주영장 김시풍과 오위장 정석희를 참수하여 죽인 사실을 말하고 이어 황토현과 장성전투 그리고 농민군의 전주입성을 들은 대로 기술하였다. 그 자신이 김학진이 부임한 뒤 전주로 들어와 집강소 설치를 목격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집강소 기간 운현궁에서 보낸 밀사와 함께 흥선대원군의 효유문을 들고 김개남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적었다(『갑오약력』 해제).

16) 松崎伊壯太. 1930년 5월 9일 순사부장 시험합격증을 받았다(『조선총독부관보』 해당 일자 기사).

17) 차경석(車京石 : 1880~?)이 창시한 증산교(甌山教) 계열의 신종교. 1922년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에 대규모 교당을 신축하였다. 차경석은 종교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시국대동단을 만들어 전국토를 순회하면서 대동안단결을 강조하는 친일적 행태를 보였다(『보천교연혁사』 상·하 속편(보천교 중앙총정원, 1948·1958, 참조).

사카모토 히데오(坂本秀雄)¹⁸⁾ 씨, 서무주임 기요미즈 지아키(清水千義)¹⁹⁾ 씨 두 사람을 면회했다. 이종은 참여관을 통해 의뢰해 둔 조사법에 관해 협의할 것이 있어서 군의 고원(雇員) 차광명(車光明)²⁰⁾ 씨를 동반해 고부면(古阜面)으로 향하였다.

고부면 사무소에 가서 면장 은필성(殷弼成) 씨의 안내를 받아 부안군 백산면(白山面) 백산(白山)에 도착하였다. 백산은 약 46.7미터의 구릉으로서 동진강(東津江) 일대의 옥야가 내려다보이고, 갑오동학당비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만석보(萬石湫, 정읍군 이평면(梨坪面) 두전리(斗田里) 부근에서 북쪽의 용북면(龍北面)에 이른다. 옛날에는 답내면(畓內面)이라 칭하였다), 동도(東徒)와 전주감병(全州監兵)이 처음으로 충돌한 지역인 황토치(黃土峙, 덕천면(德川面) 동죽리(東竹里) 망제리(望帝里)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가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사진 5·6 참조). 이에 관해서는 은필성 면장과 백산의 노인 조상근(趙尙根)²¹⁾ 씨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했다.

백산에서 고부면 사무소로 돌아와 은필성 면장과 특별히 초대한 노인 송국섭(宋國燮)²²⁾ 씨로부터 갑오동도비란(甲午東徒匪亂) 발발의 사정, 특히 괴수(魁首) 전봉준(全奉準)에 관한 견문담을 청취했는데, 얻을

18) 坂本秀雄. 1921년 평안북도 내무부 판임관을 거쳐 1930년 전라북도 군산부 속과 1934년 부안군 속, 1935년 정읍군 속 등을 역임했다(『조선총독부 직원록』 참조).

19) 清水千義. 1921년 전라북도 정읍군 군속(郡屬)으로 임명되어 1934년 정읍군 서무계주임 등을 거쳤다(『조선총독부 직원록』 참조).

20) 차광명(車光明). 1931년 2월 동아일보 정읍지국 기자로 임명되었다가 그해 5월에 의원 해직하였다(『동아일보』 해당기사 참조).

21) 조상근(趙尙根 : 1872~?). 한문 수학한 유학자이며, 1913년 전라북도 고부군 덕림면 구공리(九公里) 1통 8호에 거주하고 있었다(『조선신사대동보』 618, 1913, 참조)

22) 송국섭(宋國燮 : 1879~1946). 1893년 11월 사발통문 서명자 중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894년 2월 고부 봉기 참가 이후 백산 기포시 농민군 주력부대에서 활동하다가 12월 해산 후 옥고를 치렀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기록 참조).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았다. 또한 고부공립소학교·보통학교는 구 관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갑오 당시의 동헌(東軒)과 객사의 일부 또한 남아있어 이곳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사진 8·9 참조). 은필성 면장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살던 노인으로서 갑오란(甲午亂)의 실제 경험자가 3명 있지만, 우리가 방문하기 3일 전부터 타출(他出) 중이라서 면담할 수 없었다. 또한 동도에 관한 문서와 기록은 소각되거나 소실되어 현존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날은 정읍에서 묵었다.

10월 23일 다시 군청에 가서 군수 조동민(趙東敏)²³⁾ 씨를 만났다. 동반한 이종은 참여관 및 군수의 배려로 초대된 태인면(泰仁面) 태성리(泰成里)에 거주하는 전 전라북도 도회의원 송영권(宋泳權)²⁴⁾ 씨와 정읍 장명리(長明里)에 거주하는 전 중추원 참의 박흥규(朴興奎)²⁵⁾ 씨로부터 갑오란 당시의 견문을 청취했다. 송 씨는 갑오 당시의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²⁶⁾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며, 만약 요란(擾亂)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석보 개수(改修) 당시의 논의(紛議)에 직접 관여했다면 그의 말을 가장 믿어야 할 것이다. 다만 조병갑 씨와 3대째 친분이 있었던 까닭에 이따금 즉답을 피한 것은 유감이었다. 또한 송 씨는 실제로 동학에 관련된 기록 몇 점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23) 조동민(趙東敏 : 1886~?). 1906년 9월 한국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 근무하다가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속 등을 지내고, 1928년부터 전라북도 부안군수(1930~1931), 정읍군수(1931~1938) 등을 역임했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682쪽).

24) 송영권(宋泳權). 1909년 고부 지방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1919년과 1920년 전라북도 정읍군 참사로 근무하였다(『조선총독부 직원록』).

25) 박흥규(朴興奎 : 1888~1957). 1923년 동아일보 정읍지국 고문, 1924년 전북 도 평의회원으로 발탁되었다. 1927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1930년 임기를 마쳤다(『조선총독부 중추원』)

26) 조병갑(趙秉甲 ; 1844~1912). 1892년 고부 군수 재직 중 관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만석보에 신보를 쌓았고, 수세를 징수했다. 그는 고부지역에 각종 세금을 매기고 수탈을 감행하다 1894년 2월 고부농민봉기로 물러났다. 1898년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동학 지도자 최시형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것도 이 때문이었다.

송 씨, 박 씨와의 회견을 마치고 차광명 고원의 안내로 정읍 장명리에 있는 「송시열 유허비(宋時烈遺墟碑)」를 보았다. 비석의 길이는 170, 폭은 79, 측면 폭은 36센티미터다. 우암 송 선생 수명(受命) 유허비라 하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민진원(閔鎭遠) 전(篆),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의현(李宜顯) 찬(撰), 전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이양신(李亮臣) 서(書)라 적혀있으며 영조 7년 6월 8일에 완성되었다. 송시열의 사사(賜死)는 숙종 기사(己巳) 15년 6월 8일이며, 당시 정읍현(井邑縣) 사람인 임한일(任漢一), 이후진(李厚眞)이 송시열을 모시며 정성을 다하였다. 이 비석은 시열 수명의 유적을 기념하는 동시에, 임한일과 이후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에는 완비된 비각을 세웠는데 지금도 정중히 보존되고 있다(사진 11·12·13 참조). 비문은 이의현의 문집 『도곡집(陶谷集)』 12권에 비명과 나란히 서문에 수록되었다. 이날 정읍을 출발해 광주로 가서 하루를 묵었다.

10월 24일 전라남도청을 방문해 야지마(矢島) 지사²⁷⁾, 고지마(兒島) 내무부장²⁸⁾, 하야시(林)²⁹⁾ 지방과장, 기노시타(木下)³⁰⁾ 학무과장 등과

27) 矢島杉造(1889~?). 니카타현(新潟縣) 원적. 1914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과 졸업, 1913년 11월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고, 1915년 조선에 건너와 총독부 시보, 황해도 사무관 등을 거쳐 1931년 9월 전라남도 지사가 되었고, 1935년 2월 총독부 농림국장으로 되었다(『조선인사홍신록』 인사홍신, 480쪽).

28) 兒島高信(1894~?). 도쿄시 시부야구(澁谷區) 원적. 1917년 도쿄제국대학 법과 졸업, 1917년 대장성 속에 임용되었으며, 1920년 4월 조선총독부 시보가 되었다. 1933년 8월 도사무관에 임명되어 전라남도 내무부장이 되었고, 1935년 조선총독부 사무관, 1939년 함경북도 지사가 되었다(『조선인사홍신록』 인사홍신, 133쪽; 『신흥지북선사』, 112쪽).

29) 林勝壽(1903~?). 요코하마시(橫濱市) 원적. 평양중학교 및 제3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29년 5월 조선총독부 도속이 되었다. 1933년 9월 전라남도 지방과장으로 1935년에도 근무하였다(『조선인사홍신록』 377쪽).

30) 木下麟太郎(1903~?). 오이타현(大分縣) 출신. 1928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에 채용되어 전라남도 내무부 지방과에서 근무하였고, 1933년 5월

회견하여 장성군(長城郡)과 해남군(海南郡) 조사에 관한 준비를 의뢰하고, 지사의 희망에 따라 나주군(羅州郡)도 조사지에 추가하였다. 같은 날 정오에 지방과 촉탁(원강진(元康津) 군수) 김동곤(金東坤)³¹ 씨와 전라남도 장성군청에 가서 군수 이용수(李鏞洙) 씨와 만나 갑오 당시의 노인을 초대하기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부재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갑오란의 옛 전장인 황룡면(黃龍面)으로 향했다. 갑오 4월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³²이 동도와 싸워서 패배한 곳은 장성군 월평리(月坪里), 황룡면 신호리(莘湖里) 일대의 땅으로 신호리 신촌(莘村)의 후전등(後田嶺, 신현(莘峴)이라고도 함)에는 그날 전사한 영관(營官) 이학승(李學承)³³의 비가 있다. ‘증좌승지 이공학승순의비(贈左承旨李公學承殉義碑)’라고 적혀있다. 비석의 길이는 162, 폭은 68, 측면 폭은 23

전라남도 학무과장에 취임하였다(『조선공로자명감』 835쪽).

- 31) 김동곤(金東坤). 1909년 전주재무감독국 흥양재무서 주사, 1910년 흥양군 서기를 역임하고 1923년 전라남도 구례군 군수, 1928년 강진군 군수 등을 거쳐 1931년부터 전라남도 지방과 촉탁으로 근무하였다(『조선총독부직원록』).
- 32) 홍계훈(洪啓薰 : 1842~1895). 개항기 장위영 정령관, 훈련대장 등을 역임한 무신. 1882년 임오군란 때 왕후 민씨를 궁궐에서 탈출시킨 공으로 중용되었다. 1892년 5월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에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걸고 모였을 때, 장위영정령관(壯衛營正領官)으로 임명되어 경군 600명을 이끌고 청주로 출동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장위영군사 800명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고 있을 때 청나라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때 훈련대장으로 광화문을 수비하다가 전사하였다(『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등 참조).
- 33) 이학승(李學承: 1852~1894). 조선 말기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187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토벌을 위한 장위영대관으로 출동하여 전라도 장성 황룡촌전투에서 전사하였다. 한 인물이다. 1894년 7월 18일 의정부(議政府)의 건의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고 이후 장충단(獎忠壇)에 배향되었다. 1897년(고종 34)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비문을 지은 ‘증 좌승지 이공학승 순의비(贈左承旨李公學承殉義碑)’가 세워졌다. 이 비석은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의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長城黃龍戰蹟)에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아산)).

센터미터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지었으며 이태왕(李太王) 34년 정유(丁酉) 음력 11월 상순에 건립된 것이다(사진 14·15 참조). 비문은 『면암선생문집』 25권 비조(碑條)에 수록되었다.

장성군에서 바로 나주읍으로 이동하여 군청을 찾았다. 군수 오광은(吳光殷)³⁴, 읍장 김종언(金鐘彦)³⁵ 씨를 만났고, 특별히 초대한 노인 정원회(鄭潑會) 씨에게 갑오년 나주가 동학당비(東學黨匪)를 격퇴한 전말과 전라남도 관찰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간 사정에 관해 청취했다. 이날은 광주에서 숙박하였다.

10월 25일 광주를 출발해 해남으로 향했다. 김동곤 촉탁이 동행하였다. 해남에 도착해서 바로 군수 박용현(朴龍鉉)³⁶, 도회의원 윤정현(尹定鉉)³⁷ 씨를 내방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한 노인 박노숙(朴魯肅) 씨로부터 갑오 당시 동도와 해남의 관계를 청취했다. 계속해서 해남면 남연리(南蓮里)의 윤정현 씨 저택을 방문했다. 윤 씨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후손으로 윤 씨 누대(累代)의 기록과 서적 등을 매우 많이 소장하였다. 이번에 조사한 것은 윤의중(尹毅中), 윤선도, 윤두서(尹斗緒), 윤덕희(尹德熙)에 관한 것이다. 지금 그 계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오광은(吳光殷 : 1887~?). 1910년 전라남도 장흥군 서기에 임명되고, 1921년 함평군수를 시작으로 1930년 나주군수가 되었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221쪽).

35) 김종언(金鐘彦 : 1886~?). 1915년 나주군 나신면(羅新面) 서기, 1921년 금남금융조합 평의원, 1930년 나주면장, 1931년 나주읍장에 취임하였다(『조선공로자명감』 463쪽).

36) 박용현(朴龍鉉 : 1893~?).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판임관 견습으로 전라남도 함평군 근무를 시작으로 1919년 전라남도 함평군 군서기로 근무하였다. 1934년 3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근무하였다(『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702쪽).

37) 윤정현(尹定鉉). 1910년 해남군 향교직원(直員), 1920년 전라남도 도참사, 1926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조선총독부직원록』).

윤구(尹衢)-의중(義中)-유심(惟深)-선도(仙道)-인미(仁美)-이석(爾錫)-두서(斗西)-덕희(德熙)

1. 서충대친림연회도(瑞蔥臺親臨宴會圖). 견본(絹本). 길이 26.5, 폭 29.7 센티미터.

이 그림은 윤의중(자는 치원(致遠), 호는 낙촌(駱村))이 명종 15년 경신(庚申) 9월 19일에 홍(洪) 이하 여러 대신과 더불어 창덕궁 서충대의 연회에 배석했을 당시의 그림이다.

즉 『명종실록』 26권 15년 9월 임오(壬午, 19일) 조에

“상이 서충대에서 곡연(曲宴)을 행하고, 어제(御題, 율시(律詩))로 좌우에게 명하여 지어 올리게 하고 또 무신에게 명하여 과녁을 쏘게 하여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좌우에게 명하여 국화(菊花)를 꽃게 하고(이미 취한 뒤라서 신하들 중에 갖을 바르게 쓰지 않은 자가 많았는데 그중에도 우의정 심통원(沈通源)이 더욱 오만방자하고 불공스러웠다), 이어서 술 잘 마시는 사람 몇 명을 가려서 큰 잔으로 마시게 하였다 운운.”

이 그것이다. 한편 이 그림에는 좌찬성(佐贊成) 홍섬(洪暹)의 서(序)가 있다. 그 서에서 이르길 “태상(太常)이 황문(黃門)에게 명하여 시제를 내려 참석한 자들이 시부(賦詩)를 지어 올리게 하고 무신이 활을 쏘게 하여 그 능력을 보았다. 꽃이 날리고 갖이 풀려 영광이 넘쳤다. 술잔이 몇 순 돌자 3품 이상은 오르라 하여 몇 잔 더 술이 돌고 어찬을 하사하였다(太常供具黃門宣勸御筆降題令在座者賦詩以進又令武臣耦射以觀其能散花簪帽榮光可掬酒數巡命三品以上陞上壽回杯訖輒親輟御饌)”라고 한다.

2. 산중신곡(山中新曲) 윤선도 자필 첩
3.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윤선도 자필 첩
4. 금쇄동기(金鎖洞記) 윤선도 자필 첩

이는 전부 윤선도의 자필 초본(草本)으로 산중신곡과 금쇄동기는 『고산유고(孤山遺稿)』 권6 하권에, 가사(歌辭) 등은 권5 하권 기(記)조에 수록되었다. 한편 금쇄동기에는 증손 윤두서의 발(跋)과 주인(朱印)이 있다. 금쇄동집고는 중국과 조선의 고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5. 송장한귀강동서(送張翰歸江東序) 1첩 길이 34.5, 폭 40센티미터
윤선도가 짓고 그의 아들 윤인미가 쓴 것이다.
6. 은사첩(恩賜帖)(건곤(乾坤)) 2책 길이 34, 폭 46.5센티미터
효종이 사전(師傅)한 것이다. 윤선도에게 하사한 효종의 전교(傳敎), 그리고 즉위하기 전이었던 봉림대군(鳳林大君) 시절의 것과 인조, 왕비, 현종에게 받은 사찬물(賜饌物)의 내지(內旨)를 모은 것이다. 인조 7년 기사(己巳)부터 현종 11년 경술(庚戌)까지의 것에 이른다.
7. 윤씨가보(尹氏家寶) 1첩 길이 38, 폭 58센티미터
8. 가전보회(家傳寶繪) 1첩 길이 40, 폭 75센티미터
8과 9는 윤두서의 그림을 모은 것이다. 두서의 자는 효연(孝彦)이고, 호는 공재(恭齋) 또는 종애(鐘厓)라고도 칭했다. 현종 9년에 태어나 숙종 19년 진사에 올랐으며, 서화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9. 가전유묵(家傳遺墨) 3첩. 크기가 고르지 못함
하나는 예서(隸書)고, 다른 하나는 초서(草書)다. 그 밖의 하나는 해행(楷行) 양체(兩體)의 글과 회화를 모은 것으로서 모두 윤두서의 유묵(遺墨)이다.
예서의 길이는 43, 폭은 60센티미터이고, 초서의 길이는 46, 폭

은 58센티미터이며, 해행 양체의 길이는 42.5, 폭은 2.5센티미터이다.

10. 보장(寶藏) 1첩. 길이 33, 폭 45.5센티미터
윤덕희의 서화를 선면(扇面)에 적은 것이다. 덕희의 자는 경백(敬伯)이고, 호는 낙서(駱西) 또는 연포(蓮圃)나 연옹(蓮翁)이라고도 칭했다. 숙종 11년에 태어났으며 관도사(官都事)에 올랐다.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서화에 능했고 특히 말을 그리는데 뛰어나다.

11. 열성어필(列聖御筆) 1첩.
옹정(雍正) 3년 10월 11일(영조 원년)에 하사받은 책이다.

한편 예전에 이나바(稻葉)³⁸⁾ 수사관이 채방하여 『군서목록(群書目錄)』의 유래 및 책의 소장 여부에 관해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선조가 자주 중국에 가서 사 온 것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그 서고의 일람을 청했으나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사양했다. 이날은 해남읍(海南邑)에서 숙박하였다.

10월 26일 해남읍에서 출발해 목포에 도착한 뒤 하루를 머물렀다.
10월 27일 목포에서 출발해 직무로 복귀하였다.

38)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1900년 고등상업학교 부속 외국어학교 졸업 후, 1909년 만철조사부에 들어가, 「만주조선경계지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915년 육군대학 교관, 1922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 겸 간사로 일하다가 1925년 수사관(修史官)으로 조선사 편찬작업을 맡았다. 1932년 교토제국대학에서 조선사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38년 만주 건국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지나사회사연구(支那社会史研究)』(大鑑閣, 1922), 『조선문화사연구』(雄山閣, 1925) 등이 있다.

- 그림 1 부남리 시장 초석
- 그림 2 궐대(關岱) (뒷쪽의 산은 계룡산)
- 그림 3
- 그림 4
- 그림 5 백산
- 그림 6 백산에서 만석보를 바라봄
- 그림 7 백산에서 황토치를 바라봄
- 그림 8 오른쪽 조상근 씨, 왼쪽 고부면장 은필성 씨
- 그림 9 고부객사(현 보통학교)
- 그림 10 동헌(현 소학교)
- 그림 11 우암 송 선생 수명 유허비
- 그림 12
- 그림 13
- 그림 14 후전등(신현)
- 그림 15 증좌승지 이공학승순의비

신도내약도(축척 5만분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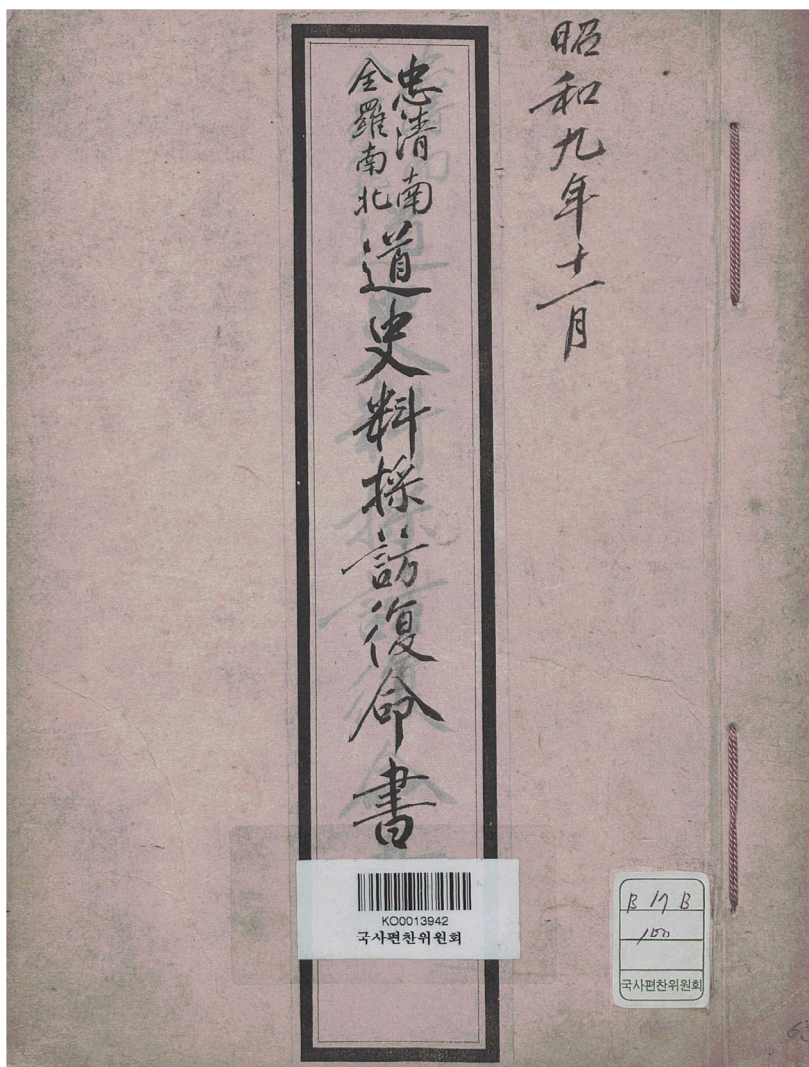
- A: 상제교 본부
- B: 종로대
- C: 궐산 및 초석의 소재지

정읍군약도(축척 5분의 1)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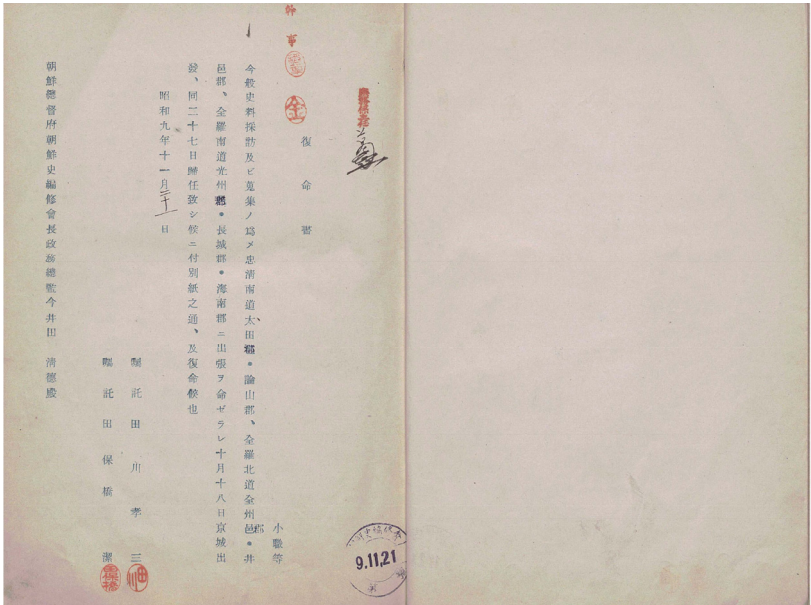
장성부근약도(축척 5만분의 1)

39) 축척 5분의 1로 적혀있으나 5만분의 1의 오기로 보임.

[影印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昭和九年十月十八日京城出發、太田邑ニ到着、直チニ忠清南道廳ヲ訪ヒ、
 岡崎知事、岩村學務課長、三輪高等課長ニ面會、調査ニ關スル手配方ヲ依頼
 シ論山郡豆腐面ヲ新郡内ノ事情ヲ懸取シ道警製部所屬ニカ、ル調査・寫眞
 帖等ヲ囑覽ス。同日ハ備城ニ到リテ一泊ス。

十月十九日太田ヲ發シテ湖南綠豆浸躰ニ下車シ豆腐公立普通學校訓導李成
 龍氏ノ案内ニヨリ使步新郡内ニ往ク。柳新郡内ハ又新郡安トモ稱ス。ハ公
 州郡・論山郡・太田郡ノ交合點ニ聳立セル嶺麓山ノ東南麓ニアリ、論山郡豆
 磨面丁壯里・石浸里・大南里・龜洞里及ビ太田郡登岩面南德里ノ一部、公州
 郡鷄籠面ノ一部ニ亘レリ。此地ハ李朝末期鄭維錄ノ行ハル、ヤ之ニ附會シテ
 新鄭縣陸ノ地トシテ知ラレ、殊ニ李朝末期鄭維錄ノ行ハル、ヤ之ニ附會シテ
 新郡内ニ關スル流百常ニ絶エズ、現ニ同地ニ本部ヲ有スル上帝教ノ如キモ此
 流習ヲ利用シタル形跡アリ。新郡内中、國郡ノ遺跡ト稱スルモノ尠ク少ザ
 ルヲ以テ本部傳及ビ販賣駐在巡査部長ノ案内ニヨリテ之ヲ巡覽セリ。其中

第一ニ學テベキモノハ李朝太祖方國都經營當時ノ礎石ト稱セラル、モノニシ
 テ、大南里市場ノ北部二十數個點在セリ。大ナルモノハ約二立方丈、小ナ
 ルモノハ約一立方丈ナリ。此市場附近一帶ヲ屬信ト稱シ、此處ニ宮闈ヲ營
 マントセシナリト傳フ。(寫眞一・二圖參照)

近時新鄭縣陸ノ委託ヲ信ジ、同地ニ他道ヨリ移住セルモノ尠カラズ、現在
 ハ既ニ減少ノ傾西ニアリト雖モ、尙入口三千餘ヲ數ヘ、上帝教本部ヲ初メ各
 種ノ宗教團體組織ヲ形或シ居レリ。

初ノ新郡内ニ居住セル上帝教主金演局氏ハ東學道主崔時亨門下ノ高足タル
 ヲ以テ、阿氏ニ就キ經歷談ヲ懸取セントセシモ阿氏二男一シテ東學ニ關シテ
 造詣深キ金文卿文學士月前死亡シ金氏亦上城中ナリシカバ遂ニ目的ヲ果ス能
 ハザリキ。同日豆腐浸躰ヲ發シ全州邑ニ到リテ一泊ス。

十月二十日金羅北道廳ヲ訪ヒ、高知事・高檢警製部長・李鍾煥參典官ニ面
 會シ本邑及ビ井邑郡管内ノ史料採訪並ニ調査ニ付、其手配方ヲ依頼セリ。

次イテ李參典官ノ配應ニヨリ、阿邑故老李康元氏ヲ紹介、同參典官及ビ社會
 課書記文奉年氏ノ通譯ヲ以テ李太王甲午東學黨匪亂ニ關スル實歷談ヲ懸取セ
 リ。又阿邑故老鄭延壽氏ハ東學黨匪亂ニ深キ關係ヲ有スルモノ、不幸病臥中
 ナリシタメ遂ニ面談スルヲ得ザリキ。又當時記錄ヲ保存スルモノ無キヤフ
 實シタルモノ殆ド變亂當時ニ燒却セリトテ遂ニ之ヲ得ルコト能ハザリキ。全
 州灣在中餘暇ヲ利用シテ鄭基殿・康慶廟・宮館(寶訓館)及ビ舊監營ニ觀セ
 ウレタル大體(道立物産陳列館新展ニアリ)ヲ見學セリ。(寫眞第三・四
 圖參照)同日全州ニ宿泊ス。

十月二十一日(日曜)全州邑ヲ發シテ井邑着。直チニ井邑警製署勤務巡
 査部長依崎伊壯大・要藤水南氏ノ案内ニヨリ、同郡笠岩面探芝里ナル普天教
 本部ヲ視察セリ。普天教ハ東學ヨリ分裂セルモノニシテ、現教主軍京錫ハ
 大正十四年宣社ナル本部ヲ新築セシガ警務當局ハ治安ニ害アリト認メ現時ニ
 至ルマデ其ノ三光齋奉安致誠祭ヲ許可セザルモノナリ。其ノ建築ノ結構ヲ

極ムルコト甚甚・景福南宮ヲシテモナリ。但シ長日月放置シテアリタルヲ
漸次荒廢ニ歸シタルノミナラス最近遺跡ヲ尋テ命ニヨリ黃瓦・碧瓦ノ使用
ヲ不敬トシテ通常瓦ニ替換ヲ命ゼラレ住時ノ儀體ヲ著シク損セリ。

十月二十二日井邑郡廳ヲ訪ヒ、郡守不在ヲ爲メ、内務主任坂本秀雄氏・庶
務主任清水千義兩氏ニ面會、兼テ李參贊官ヲ遣ジテ依頼シ置キタル調査法
ニツテ打合スル所アリ、直ニ郡廳員車光明氏ヲ同伴古阜郡ニ赴ケリ。

古阜ニテハ面事務所ニ赴キ、面長殷蕩成氏ノ案内ニテ野村安部白山面白山ニ
到ル。白山ハ約四六七米ノ丘陵ニシテ東津江一帯ノ沃野ヲ俯瞰シ甲午軍學
黨匪亂ノ直接ノ契機ヲナセル萬石沢(井邑郡梨坪面斗田里附近ヨリ北、龍北
面ニ亙ル。舊ハ奮内面ト稱ス)、東徒ト全州砲兵最初ノ衝突地ナル黃土時
(徳川面東竹里望帝里ニ到ル道路ニアル時ニシテ望帝嶺ノ北部ニアリ)ニ指
呼ノ間ニアリ。(寫眞第五・六・七圖参照)長ニ於テ面長及白山ノ故
老趙函張氏ヨリ當時ノ實況ヲ聽取セリ。

白山ヨリ古阜面事務所ニ歸シ、面長及古阜ニ招致シタル故老宋國燮氏ヨ
リ甲午軍徒匪亂發ノ事情、特ニ魁首全珠奉ニツイテ見聞談ヲ聽取シ、得ル
所詳カラザレキ。又古阜公立小學校・普通學校ハ舊郡廳ヲ使用シ、甲午當
時ノ東(駐)客舎ノ一部又殘存セルヲ以テ之ヲ調査ヲ行ヒタリ。(寫眞第八・
九・十圖参照)尙面長ノ談ニヨリ巴回面居住ノ故老ニシテ甲午亂實歷者兩
三名アルモ、小職等訪問ノ兩三日前ヨリ他出中ニテ面談スルヲ得ズ。又軍
徒ニ關スル文書記録ハ成ハ燒却シ或ハ散佚シテ現存スルモノヲ附カズト云フ。

同日ハ井邑ニ宿泊ス。
十月二十三日再ヒ郡廳ニ赴キ郡守趙東敏氏ニ面會ス。兼テ李參贊與官及
比郡守ノ配屬ニヨリ招致シタル奉仁面奉成里居住、前金羅北道道會議員宋汝
樞氏及比井邑長明里居住ノ前中樞樞參議朴興奎氏ヨリ甲午亂當時ノ見聞ヲ聽
取セリ。宋氏ハ甲午當時ノ古阜郡守趙東甲ト親交アリシ人物ナレバ極親密
發ノ直接原因タル萬石沢改修當時ノ實況ニハ親ツテ詳シクレバ、其言最も信

ズベシ。但趙氏トハ三代ノ親ノヲ以テ往々即答ヲ避ケシハ遺憾ナリキ。
又宋氏ハ段ニ軍學ニ關係アル記録若干點所藏スル由ナルモ、他見テ好マサル由
ナリ。

宋・朴兩氏トノ會見ヲ終リ車馬員ノ案内ニテ井邑長明里ナル宋時烈遺塚碑
ヲ一見セリ。碑ハ概一七〇釐・巾七九釐・額面由三六釐アリ。尤軍宋
先生受命遺塚碑ト題ス、額中輦府事陳鐘燮、列中輦府事李宜、
修撰李英臣書、英祖七年六月八日ニ成ル。宋時烈ノ歸死ハ肅宗己巳十五年
六月八日ニシテ、時ニ井邑縣人任漢一・李厚真、時烈ニ事ヘテ、終ニ諡實ナ
リ。本碑ハ時烈受命ノ遺跡ヲ記念スルト共ニ、漢一・厚真ノ遺ヲ傳フルガ
爲メニ建ツラレシモノナリ。碑ニハ完備シタル碑關ヲ從ヘ、現ニ鄭重ニ保
存セラル。(寫眞第十一・十二・十三ノ圖参照)碑文ハ李宜顯ノ文集附卷
集卷之十二、碑銘並・序ノ條ニ收メラル。同日井邑出發、光州邑ニ到リテ
一泊ス。

十月二十四日、全羅南道廳ヲ訪ヒ矢島知事・兎島内務部長・林地方課長・
木下學務課長等ニ會見シ、長城・海兩南道調査ニ付、手配方ヲ依頼シ、又知
事ノ希望ニヨリ羅州郡ヲモ調査地ニ加ヘタリ。同日正午地方課副課長(元康
津郡守)金軍坤氏ト同道長城郡廳ニ到リ、郡守李錫洙氏ニ面會シ、甲午當時
ノ故老招致方ヲ依頼シタルモ、多ク不在ニシテ意ノ如クナル能ハズ、ヨツテ
甲午亂ノ古戰場タル董龍面二面ヘリ。甲午四月招討使洪協勳方東徒ト戰ヒ
テ敗績シタルハ長城郡月坪里・董龍面西面董龍里一帶ノ地ニテ幸濟里岩村ナル
後田(號トモ云フ)ニハ當日戰死セル營官李奉承ノ碑アリ。贈左承旨李
公學承殉難ノ題ス。碑身ハ概一六二釐・巾六八釐・額面由二三釐アリ。
勳妻崔益鏞ノ撰ニシテ李太王三十四年丁酉臘月上滑ニ建立セシモノナリ。

(寫眞第十四・十五圖参照)碑文ハ勳妻崔益鏞文集卷二十五、碑條ニ收メラル。
長城郡ヨリ直チニ羅州邑ニ向ヒ郡廳ニ到リ、郡守吳光燦・邑長金鍾彦氏ニ
面會、特ニ招致シタル故老鄭漢會氏ヨリ甲午年羅州方東學黨ヲ擊退シタル

願末卷ニ金羅南道觀察府ガ羅州ヨリ九州ニ移リシ事情ニツキ聽取セリ。同
日ハ九州ニ宿泊ス。

十月二十五日九州ヲ發シテ海南ニ赴ク。金剛此同行セリ。海南著後直
ニ都守共備館・道會議員尹定鉉氏來訪ス。又特ニ相致シタル故老林魯甫氏
ヨリ甲午ニ於ケル東徒ト海南トノ關係ヲ聽取セリ。次イテ海南面南邊里ナ
ル尹定鉉氏邸ヲ訪問ス。同氏ハ孤山尹實濟ノ後孫ニシテ尹氏累代ノ忠錄書
籍等ヲ藏スルモノ甚ダ多シ。今同圖查シタルモノハ尹毅中・善道・斗緒・
德熙ニ關スルモノナリ。今其ノ系圖ヲ示セバ左ノ如シ。

尹毅中——毅中——善道——仁美——爾錫——斗緒——德熙

一、瑞草受親監實會圖 粗本 綴二六・五製・巾二九・七襪
本圖ハ尹毅中(字致遠、諱科ト號ス)ガ明宗十五年庚申九月十九日洪以
下各諸大臣ト共ニ昌德宮瑞草堂ノ御宴ニ陪セル當時ノ圖ナリ。

即チ明宗實錄卷二六、十五年九月壬午(十九日)條ニ

上行曲宴于瑞草堂以御馳(律詩)命左右擊鐘、又命武臣射鬪賞賜有差、命
左右揮樂花(既醉之後群臣多有岸帽者、其中右議政沈通源尤悻悻不恭)仍
擇能飲者若干人飲以大杯又酌以一鐘云々

トアルモノ之ナリ。尚本圖ニハ左實成酒過ノ序アリ。其序ニ曰ク、太
常供其酒門官勳御筆秀題令在座者賦詩以進又令武臣鬪射以觀其能散花鬪
免光可珣酒數過命三品以上升階上壽因記觀製撰御饌云々ト。

二 山中新曲 尹善道 白筆 帖
三 金領制集古 同 帖
四 金領制記 同 帖

孰レモ尹善道ノ自筆草本ニシテ山中新曲・金領制記ハ孤山遺稿卷之六、下
歌辭及卷之五、下、記ノ條ニ收メラル。領制記ニハ智孫斗緒ノ跋述ニ朱

印アリ。金領制集古ハ支那・朝鮮古詩ヲ纂録シタルモノナリ。

五 送張翰歸江東序 一 帖 綴二四・五襪、巾四〇製
尹善道ノ撰ニシテ、ソノ子仁美ノ書スルモノナリ。

六 恩賜帖(乾寧) 二 册 綴三四製・巾四六・五襪
孝宗ノ御賜得テヨリ尹善道ニ與ヘラレタル孝宗ノ傳教及ヒソノ即位前鳳林大
君當時、及仁祖・王妃・顯宗ヨリノ賜物ノ内旨ヲ集メシモニシテ仁祖
七年己巳ヨリ、顯宗十一年庚戌ノモノニ至ル。

七 尹氏家實 一 帖 綴三八製・巾五八襪

八 家傳實繪 一 帖 綴四〇製・巾七五襪

八・九共ニ尹斗緒ノ遺ヲ集メシモノ。斗緒字ハ孝彦、號ハ恭齋、又一ニ
鐘鼎トモ稱ス。顯宗九年壬生レ顯宗十九年進士ト爲リ、書畫ヲ以テ一代
ノ宗タリシ人ナリ。

九 家傳遺墨 三 帖 大小不整
一ハ諱書、一ハ草書、他ノ一ハ楷行兩體ノ書並ニ繪畫ヲ集メシモノニシテ
共ニ尹斗緒ノ遺墨ナリ。

一 實 一 帖 綴三三製・巾四五・五襪
尹善道ノ書畫ニシテ扇面ニ書セシモノ。德熙字ハ敬伯號ハ斯西、一二進
圖、或ハ遺翁トモ稱セリ。顯宗十一年乙生レ官都事ニ至ル。父ノオゾ

總子ヲ書留ヲ能クシ特ニ馬ヲ盛クニ長ゼリ。

古 列御御筆 一 帖

海正三年十月十一日(英祖元年)ノ内閣本ナリ。

尙承先ニ初製修史官ノ採訪ニカハル「群書目録」ノ由来並ニ其ノ書ノ所藏ノ有無ニツキ質セシモ「之ハ私ノ先祖方處々支那ニ行キマシテ買テ來タモノグス。多分アリマセウ」トノ事ナリキ。仍ツテソノ書庫ノ一覽ヲ贈ヒシカド整理未了ヲ以テ辭セリ。同日海州邑ニ一泊ス。

十月二十六日海州邑ヲ發シ海路木浦府ニ到リ同地ニ一泊、十月二十七日木浦出發歸任ス。



第一圖

石硯場市里南夫



第二圖

松 閣

(山龍鶴ハ山ノ方後)



第五圖

山 石



第六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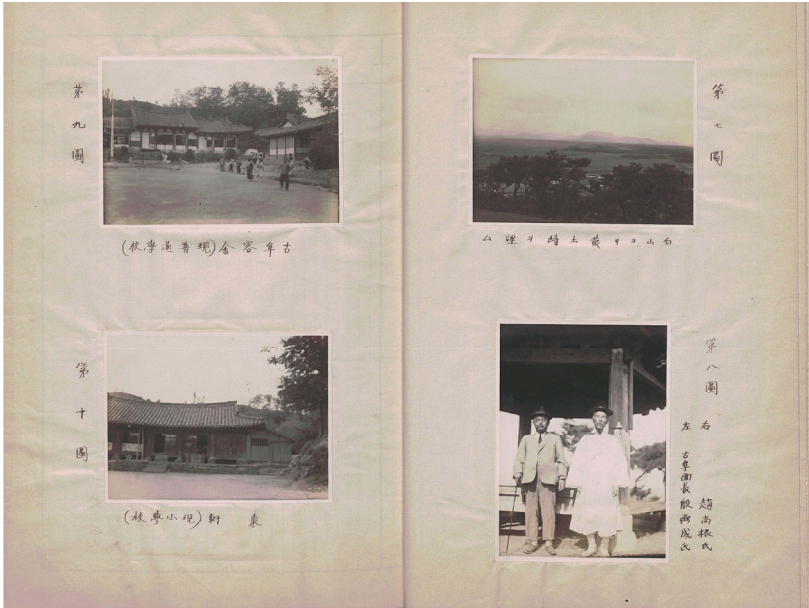
山石葛在環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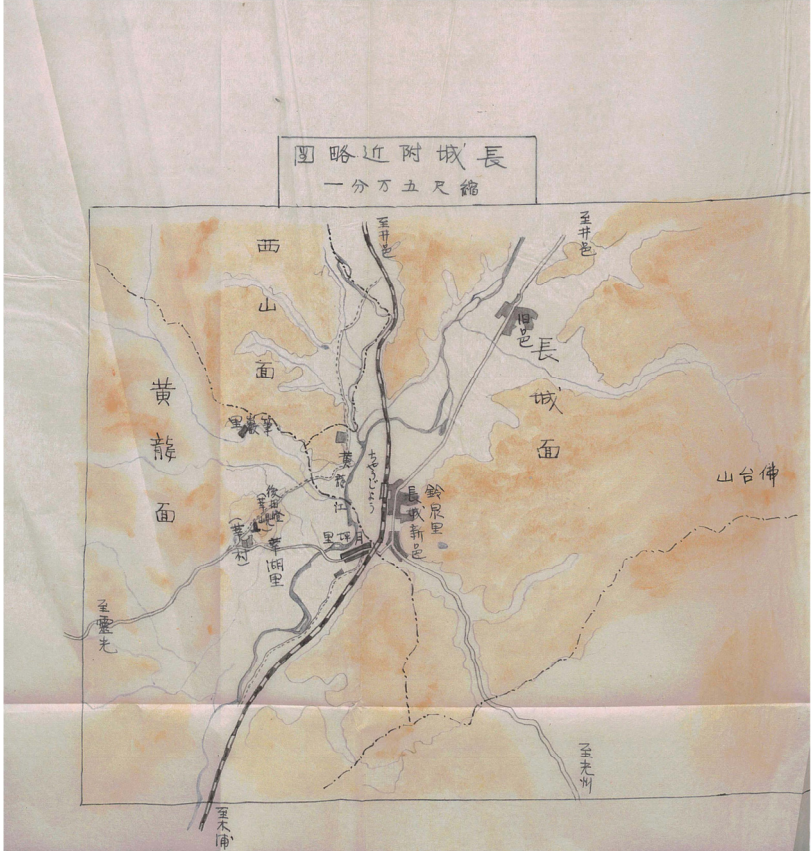
第三圖



第四圖









부 록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발간 자료

연구소 소식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출범
 - 출범일자 : 2023. 4. 1.
 - 연구소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등재일자 : 2023. 5. 24.
 - 등재대상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입구
 - 참석 : 이사장,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 재단 직원 등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3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등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3. 6. 29(목) 14: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0:30 ~ 12: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 내용 : 등재 인증서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
- 참석 :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신순철(재단 이사장), 임상규(전북부지사), 이학수(정읍시장) 주영채(유족회장) 등 200여명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4:30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 발간일자 : 2023. 8. 30
- 수록자료
 -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 천우협(天佑俠)
 - 남정여록(南征餘祿)
 -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 부안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0. 26(목). 11:00 ~ 18:00
- 장소 :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 부안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흥재일기(1866~1911)로 본 격동기 조선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 정읍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3(금). 14: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만석보 위치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 고창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15(수) 14:00~18:00
- 장소 :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 군산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5(토) 14:00 ~ 17:30
- 장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주제 :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 장흥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9(수) 14:00 ~ 18:00
- 장소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 : 장흥군
- 주제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11. 23(목)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6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발간

- 제호 : 동학농민혁명 연구
- 창간호 발간일 : 2023. 11. 30.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 2023. 12. 15.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 30(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전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장)
- 기부액 : 2,000만원(정읍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5. 5. 11(토) 17:3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 발간일 : 2024. 5. 3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김양식(청주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편집간사 _임현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_김양식(청주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윤리간사 _임현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제4조(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전문 개정 2024. 2. 23.]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삭제> <개정 2024. 2. 23.>

제16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명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제18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1894.or.kr/pape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월 1일,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전문 개정 2024. 2. 23.]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제1저자: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나. 제2저자: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다. 제3저자: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

격(160%)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 가. 장은 I. II. III.,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 5. 11.
 -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개정 2024. 2. 23.>
 -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 나. 참고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참고문헌과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 -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 부제 - 」, 『책명 - 부제 - 』,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십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십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 高麗大 晩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나.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개정 2024. 2. 23.>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재수록 <개정 2024. 2. 00.>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나. 이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A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B 저자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4. 2. 23.)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 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

- 저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논문 및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20점
 -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0-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확인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

- 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반영)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게재 증명) 투고자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지 7]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23.>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발간물의 발행인은 저자 혹은 본 발간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귀중

[별지 2]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4호 관련)

게재심사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우편물 수취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심사 희망 전공 분야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 지원기관		
	지원연도/과제명		
<p>본인(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5호 관련)

연구윤리 협약서

(대표) 필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소 속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p>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협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별지 4] (제25조 제5호 관련)

논문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5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긴급논문심사	7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별지 5] (제28조 관련)

논문심사서

심사위원	성명	①	소속, 직위	
	계좌번호			
논문제목				
게재예정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00호	년	월	일 발간
심의사항	심의 · 검토의견			점 수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종합의견				종합평가
				(점)

※ 가. 점수: 각 항목당 20점을 배점하며, 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종합평가: A. 게재(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D. 게재 불가(70점 미만)입니다.

※※ 종합 의견 외에 추가되는 평가는 별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6] (제31조 제2호 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 투고 원고 수정사항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심사 사항	수정 위치	수정 내용

※ 작성 요령

- '심사사항'란에는 보내드린 종합심사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본문 란에는 본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느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만 밝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저자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위치,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서식에 따라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별지 7] <개정 2024. 2. 23.> (제34조 관련)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1. 저자

저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2. 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	

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함(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

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3조 10호 관련)

연구윤리 협약서

(대표) 필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p>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대표) 필자 성명 : (인)</p>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06)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2권(2006)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 3권(2007)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4권(2007)

금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顛末)

▶ 5권(2008)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양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蒼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 獄中書信) 거의록(學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轍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6권(2008)

시문기(時間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홍성 금석문(洪城 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교문서(鄭雲慶家 東學古文書) 세상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7권(2010)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차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증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所捉什物并錄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명성명명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並錄成冊)

▶ 8권(2010)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9권(2011)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증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米太區別成冊)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구모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等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10권(2012)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牘)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 11권(2013)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 본교역사(本教歷史)

▶ 12권(2014)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증범공초(重犯供草) 이명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浚鎔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騰)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教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15)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教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2권(2015)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3권(2015)

학초전(鶴樵傳) 1

▶ 4권(2015)

학초전(鶴樵傳) 2

▶ 5권(2015)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6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 ~ 3

▶ 7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 ~ 6

▶ 8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 ~ 10

▶ 9권(2017)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림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중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 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희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술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분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모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등오면 의거소 죄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첩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희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겸산집, 고당집, 고현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현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울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묵현유고

▶ 14권(2022)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인 쇄 _2024년 5월 29일

발 행 _2024년 5월 31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편집인쇄 _(주)학술교육원(earticle.net)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701호

전화_0505-555-0740 / 팩스_0505-555-0741

ISSN 3022-2435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
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